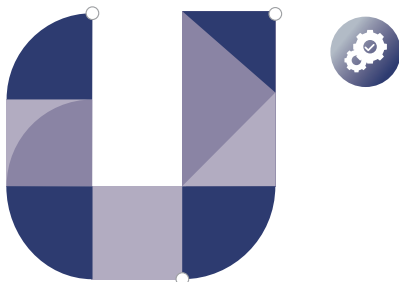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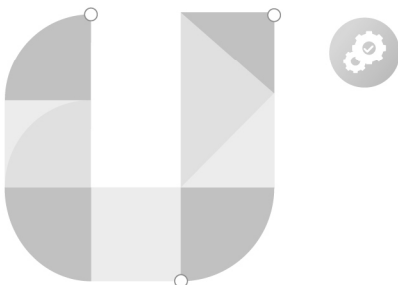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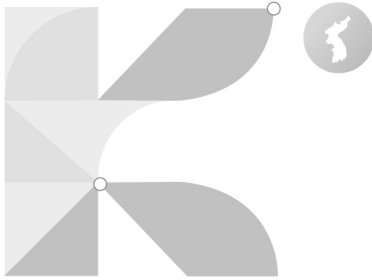


#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 박희진 | 윤보영  
한승대 | 한재현





#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 연구책임자

최지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박희진(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윤보영(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강사)

한승대(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한재현(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 연구지원

권주현(통일연구원 연구원)

심보은(통일연구원 프로젝트 연구원)

##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남북관계 2023: 한반도 평화의 미래상(3/5년차)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KINU 연구총서 21-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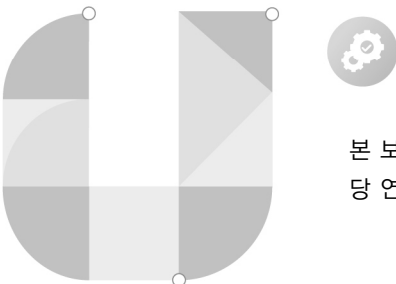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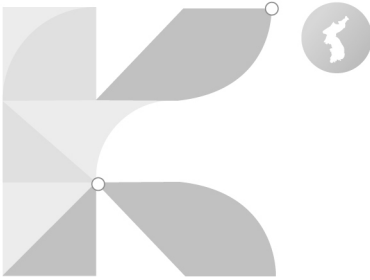
|         |   |
|---------|---|
| 발행일     | 2021년 12월 30일   |
| 저자      | 최지영, 박희진, 윤보영, 한승대, 한재현                                   |
| 발행인     | 고유환   |
| 발행처     | 통일연구원   |
| 편집인     | 북한연구실장  |
| 등록      | 제2-02361호 (97.4.23)                                       |
| 주소      |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
| 전화      | (대표) 02-2023-8000<br>(FAX) 02-2023-8296                   |
| 홈페이지    | <a href="http://www.kinu.or.kr">http://www.kinu.or.kr</a> |
| 기획·디자인  | 세일포커스(주)(02-2275-6894)                                    |
| 인쇄처     | (주)현대아트콤(02-2278-4482)                                    |
| I S B N | 979-11-6589-086-5 93340                                   |
| 가격      | 12,000원   |

---

© 통일연구원, 202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차례

|                                  |     |
|----------------------------------|-----|
| 요약 .....                         | 9   |
| <br>                             |     |
| I. 서론 .....                      | 19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 21  |
|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              | 29  |
| <br>                             |     |
| II. 개인 모바일의 생활세계와 정체성 재구성 .....  | 35  |
| 1. 서론 .....                      | 37  |
| 2. 선행연구 검토 .....                 | 42  |
| 3. 개인 모바일 사용의 맥락과 조건들 .....      | 53  |
| 4. 개인 모바일 실천과 정체성 재구성 .....      | 68  |
| 5. 소결 .....                      | 94  |
| <br>                             |     |
| III. 경제·사회적 변화와 세대 간극 .....      | 99  |
| 1. 서론 .....                      | 101 |
| 2. 세대의 출현과 장마당 세대의 특성 .....      | 110 |
| 3. 세대 간극으로 본 세대 공존의 (불)가능성 ..... | 127 |
| 4. 세대 간극: 통일인식의 남북한 비교 .....     | 132 |
| 5. 소결 .....                      | 141 |

|                                   |            |
|-----------------------------------|------------|
| <b>IV. 노동과 직업의 선호와 전환경험</b> ..... | <b>145</b> |
| 1. 서론 .....                       | 147        |
|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              | 154        |
| 3. 돌격대 조직유형과 경험의 재현 .....         | 163        |
| 4. 참여 주체의 대응과 직업으로의 전환 .....      | 181        |
| 5. 소결 .....                       | 208        |
| <br>                              |            |
| <b>V. 일상의 관계성과 공동체의 변주</b> .....  | <b>215</b> |
| 1. 서론 .....                       | 217        |
| 2. 공동체와 일상의 관계성: 이론적 논의들 .....    | 223        |
| 3. 인민반을 통한 공식적·비공식적 협력 .....      | 229        |
| 4. 생활공동체로서의 인민반 .....             | 253        |
| 5. 소결 .....                       | 265        |
| <br>                              |            |
| <b>VI. 결론</b> .....               | <b>269</b> |
| <br>                              |            |
| <b>참고문헌</b> .....                 | <b>279</b> |
| <br>                              |            |
| <b>최근 발간자료 안내</b> .....           | <b>293</b> |

## 표 차례

|                                       |     |
|---------------------------------------|-----|
| 〈표 Ⅰ-1〉 면접대상자 인적 사항 Ⅰ                 | 33  |
| 〈표 Ⅲ-1〉 세대별 대북지원 인식                   | 133 |
| 〈표 Ⅲ-2〉 탈북 결심 이유                      | 134 |
| 〈표 Ⅳ-1〉 면접대상자 인적 사항 Ⅱ                 | 163 |
| 〈표 Ⅴ-1〉 인민생활 운영을 위한 역할과 지위 구조         | 220 |
| 〈표 Ⅴ-2〉 당대회별로 언급된 (반)규범 규율            | 234 |
| 〈표 Ⅴ-3〉 형법 중 뇌물죄와 형별양정에서 가볍게 보는 죄의 변화 | 250 |

# 그림 차례

|  |     |
|--|-----|
| 〈그림 II-1〉 국가별 성인의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보유 비율 .....            | 57  |
| 〈그림 II-2〉 북한 휴대전화 가입 및 이용 현황 .....                   | 60  |
| 〈그림 II-3〉 ‘고려링크’의 전화카드 .....                         | 65  |
| 〈그림 II-4〉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북한 주민 .....                     | 70  |
| 〈그림 II-5〉 내비게이션 앱 ‘길동무’ .....                        | 91  |
| 〈그림 IV-1〉 연구의 분석 모형 .....                            | 162 |
| 〈그림 IV-2〉 어랑천발전소와 류경호텔(2000년/2018년)건설 모습 ...         | 183 |
| 〈그림 IV-3〉 양강도 혜산시 위연역 신청사와 철거아파트 .....               | 184 |
| 〈그림 IV-4〉 동원 기제 속 돌격대 차출 대상 .....                    | 195 |
| 〈그림 V-1〉 국가운영을 위한 역할분담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br>인민의 부담 ..... | 239 |





본 연구는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연구의 세부연구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를 탐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반도 생활공동체’는 통일 논의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된 것으로, 특히 민족 동질성이라는 한정적 가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통합의 가치를 찾는 데 중점을 둔다. 새로운 통합의 가치가 남북한 구성원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이며, 개인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새로운 통합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북한의 일상생활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탐색해야 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동이 초래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를, 1) 정보화와 모바일 생활세계의 출현, 2) 세대 간극과 세대 갈등, 3) 노동과 직업의 불안정성, 4) 인민반을 통한 일상의 관계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 주제들은 물질, 공간, 관계의 측면에서 북한의 구조적 변화가 일상생활 공동체내에서 개인의 행위와 정체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II장에서는 북한의 정보화와 모바일 생활세계의 출현에 대해 살펴본다.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보급과 확산은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생활양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개인 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촉진한다. 북한의 일상생활 공동체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빠르게 적응해나가고 있으며, 이는 소비문화와 자기표현의 문화, 개인의 정서와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개인 모바일 기기의 사용은 사적 공간의 발견과 개성 표현의 기회를 만들면서, 집단주의적 관계가 개인의 일상을 강하게 지배하는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 북한의 정보화가 가진 한계도 관찰된다. 개인 모바일 기기의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거나 취약하다는 점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엇박자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III장에서는 북한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세대 담론을 중심으로 경제사회 변동에 따른 세대의 형성과 세대간 갈등에 대해 살펴본다. 북한의 세대 담론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사회적 격변 이후 세대별 특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고난의 행군 당시 어른이었던 세대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경제적 어려움 사이에서 심각한 괴리와 혼돈을 겪었지만, ‘장마당 세대’들은 이미 이완된 북한 체제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가에 대한 기여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관심이 더 많고, 젊은 세대일수록 집단주의적 가치에 대한 공감감이 떨어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장마당 세대’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시기인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는 ‘무력하고 유약’해 보이며, 기성세대는 ‘이중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가장 심각한 경제사회적 충격을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겪었던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현재 20대 중반~30대에 해당하는 이들로, 곧 기성세대로 편입하여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마당 세대’가 인식하는 세대 출현과 세대별 특성 및 차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IV장은 북한의 ‘돌격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노동 및 직업에 대한 선호와 전환 경험을 살펴본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같은 제도 변화를 통해 생산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수립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을 병행하여 유지하려는 전략의 일환인데, 공장·기업소 등 공식 부문에 편입되지 못한 유희 노동력이 일종의 국가 노무동원체계라고 할 수 있는 ‘돌격대’에 편입되어 배치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돌격대의 형성과 작동방식은 노동력 배치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와 개입을 보여주나, 그 이면에서 개인의 대응도 비교적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정규돌격대를 통해, 잉여 노동력 또는 미숙

련 노동력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도 견고하게 유지되나, 이에 대한 개인의 대응도 기피, 참여, 면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돌격대가 제한적이거나 직업 훈련과 직업 선택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

V장은 북한의 ‘인민반’을 통해 나타나는 일상의 관계성과 연대성에 주목한다. 시장화라는 북한의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는 일상의 관계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인민반은 이를 파악하기에 유효하다. 인민반은 원래 집합적 주거에서 발생하는 생활편의문제를 협의하는 자치적인 조직이지만, 주민동원, 사회지원, 통제와 감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인민반의 작동방식은 북한의 일상생활 공동체가 주거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한 일상의 공식적, 비공식적 협력관계가 매우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주거와 노동이 공간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고, 이웃사촌 같이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대비된다. 또한, 인민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당국과 주민들의 수직적 관계, 주민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고유한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세외부담’이라는 위로부터의 수직적 요구가 인민반 내에서 개별 가구의 특성에 맞게, 돈과 물품, 노동력으로 배분되는 과정이나,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민반 구성원들간의 수평적 협상 과정은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상호작용이 갖는 특수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북한 일상생활, 한반도 생활공동체, 모바일 생활세계, 세대 담론, 인민반, 돌격대

# Changes in Everyday Communities in North Korea

*Choi, Ji Young et al.*

As a subject included in “Inter-Korean Cooperation on the Formation of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explores changes in everyday communities after Kim Jong Un took power. Given the need for a new perspective when it comes to unification dialogue, the discourse of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strives to identify a new value of integration beyond the limited value of national homogeneity. To ensure this new value of integration is well received by the citizens of the two Koreas, it should be universal at the global level as well as closely related to the daily lives of individuals. To this end, in order to discover the new value of integration, it is crucial to explore changes within everyday communities in North Korea.

This study aims to examine changes in everyday communities driven by economic and social forces since Kim Jong Un assumed power, and how these changes have affected the lives of North Koreans. Such changes are evident in the emergence of informatization and mobile lifestyles, generational

gaps and conflicts, instability in the labor market, and the people's unit (*inminban*). As materials, spaces and relationships, these topics show how economic and social changes have affected everyday communities in North Korea, and offer glimpses into how structural changes in the DPRK have influenced individual behavior and identity within everyday communities.

Chapter II examines informatization and the emergence of mobile lifestyles in North Korea. The dissemination and prevalence of various mobile devices has had an impact on the overall lifestyle of North Korean citizens, and promoted the formation of new communities by enabling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s free from time and space constraints. Everyday communities in North Korea are also adapting rapidly to new means of communication giving rise to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self-expression, and individual emotion and identity cultures. In particular, the use of personal mobile devices is bringing about a transition within North Korean society, which used to be overwhelmingly dominated by collectivist relationships, by creating opportunities for people to discover private spaces and express their individuality. At the same time, the limitations of informatization have also been observed. Numerous restrictions or shortcomings in the use of various functions of personal mobile devices indicate that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at odds with the reality of North Korea'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By analyzing generational discourse in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apter III reviews the emergence of new generation and intergenerational conflicts stemming from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DPRK. North Korea's generational discourse demonstrates that the economic and social upheaval of the "Arduous March" has laid bare the characteristics peculiar to each generation. Those who were already of adult age at the time of the Arduous March experienced gaps and confusion as economic hardships did not lead to the formation of a new identity. However, the so-called "market place (*jangmadang*) generation" appears to have formed a new identity within the already relatively lax North Korean system. This generation is more concerned with individual interests rather than contributing to the state, and younger generations are less sympathetic to collectivist values. Interesting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arket place generation," those born after the 2000s when North Korea's economic conditions fared relatively better appear to be "unenergetic and weak," while the older generation comes across as "double-faced." Arguably, the market place generation suffered the most serious economic and social hardships in their childhood or adolescence since the Korean War. Now in their mid-20s and 30s, they will soon be of age to participate

in North Korea'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ecision-making. In this respect, it is essential to explore perceptions regarding the emergence of the market place generation as well as generational differences.

Chapter IV examines the preferences and transition experiences of North Koreans regarding employment and labor through labor brigades called *dolgyeokdae*. Since Kim Jong Un took power,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expanded autonomy in production units and partially allowed the establishment of new labor-management relations through institutional reform such as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This is part of their strategy to maintain and oversee both official and unofficial sectors. Thus, idle labor, which has not been included in official sectors such as factories and enterprise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dolgyeokdae*, a sort of labor mobilization system.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dolgyeokdae* implies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control and intervention in the deployment of the labor force still remains strong, while at the same time individuals are able to respond to the system in a flexible manner. In particular, even non-regular *dolgyeokdae* which are regarded as surplus or unskilled labor is strictly managed and controlled by the authorities. However, individual responses are also relatively diverse including avoidance, evasion, and participation. This system also



provides opportunities, albeit limited, for vocational training and career choices.

Chapter V reviews the everyday relationships and solidarity present in people's units called *inminban* in North Korea. The *inminban* was originally formed as an autonomous local organization to provide consultations on practical community matters arising from collective housing. However, it also plays a political role by facilitating mobilization, promoting support for society, and assisting control and monitoring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e *inminban* offers an effective understanding of how shifts in North Korea's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through marketization have had an impact on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The operation of these people's units implies not only close linkages between everyday communities and residential areas, but also solid cooperation throughout both official and informal everyday lives based upon these linkages. This contrasts remarkably with South Korea where the housing and labor sectors are clearly separated, and where interactions in residential areas, such as close neighborhood relations, are gradually weakening. In addition to this, the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authorities and residents, and the horizontal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themselves through people's units reveal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veryday communities in the DPRK. North Korea's non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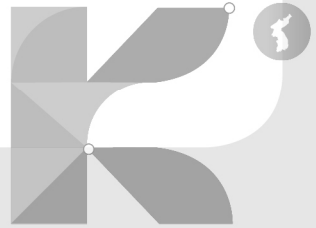
payments are a case in point. The burden of nontax payments, demanded from the authorities above, is allocated to individual households in the form of money, goods or labor, depending on each household's characteristics. However, the horizontal negotiation process between members of people's units reveals the specificity of everyday communities in North Korea. Even if marketization makes progress in the DPRK, the members of everyday communities engage in various interactions with one another, including donations and redistribution.

**Keywords:**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Mobile Lifestyle, Generational Discourse, *Inminban*, *Dolgyeokdae*



# I. 서론

최지영 통일연구원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연구의 두 번째 연구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를 탐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는 지금의 통일 환경과 우리 국민의 통일인식에 맞는 통일 담론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체 연구는 두 개의 세부 연구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기존 통일 담론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통일 담론으로서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에 대한 논의가 담고 있는 문제의식과 접근방안에 대해 다룬다. 특히, 민족정체성의 회복에서 통일의 당위를 찾았던 기존 논의에서 탈피하여, 통일을 보편적이고 다양한 가치에 대해 남북한 구성원이 합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바라보기 위한 접근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이를 위한 남북협력의 방향으로 생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 문화 공동체 형성에 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연구가 주로 거시적인 차원의 남북협력에 대해 다루었다면 두 번째 연구에 해당하는 본 연구는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생활공동체 형성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의 일상생활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에 대한 논의는 기존 통일 담론이 현재의 통일 환경과 남북한 사회의 변화, 이로 인한 남북한 구성원들의 통일인식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을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공동체 형성과정으로 제시하면서 오랜 기간 공감대를 확보해 왔다.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이를 계승하여,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서 연속성을 유지한 점,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

북한 통일방안의 부분적인 공통성을 확인한 것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민족 동질성 회복을 통일의 최종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3단계 통일론의 단계별 기제가 불확실하다는 점, 기능주의 통합 이론이 한반도의 현실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sup>1)</sup> 물론, 당시의 통일 환경을 반영하려는 시도는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정부 차원에서도 당시의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방향을 담은 통일 담론을 ‘구상’ 등의 형태로 제시해왔으며, 학계에서도 ‘연성복합통일론’, ‘탈분단론’, ‘선진화통일론’ 같은 새로운 시도가 이어져 왔다.<sup>2)</sup>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도 기존 통일 논의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 논의는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통일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축소되고 있으며, 통일이라는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남북한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sup>3)</sup>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 생활공동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새로운 통합의 가치가 남북한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이어야 할 것이며, 개인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를 중층화·다면화하는 것이다. 통일 담론의 중층화는 기존의 거시적인 접근에서 탈피하는 것을 의

1) 박종철 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서울: 통일연구원, 2010), pp. 105~120.

2) 홍석률, “학계의 통일 담론: 분단문제 해결, 통일, 평화의 관계 설정을 중심으로,” 강원택 외, 『분단 이후 제기된 통일담론에 대한 정리와 성찰』(서울: 통일교육원, 2021), pp. 207~264.

3) 최지영 외,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서울: 통일연구원, 2021), pp. 29~82 참조.

미하며, 다면화는 남북한 제도 통합에 치우친 기존의 접근을 넘어서, 다양하고 포괄적인 통합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 논의는 남북한이 공통으로 직면한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수요, 저발전 상태를 남한의 지원과 투자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기존 남북협력의 접근법을 일정 정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sup>4)</sup>

이와 같이,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에 대한 논의는 통일을 남북한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가치들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간주하며, 제도 통합의 과정과 가치 통합의 과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 중점을 둔다. 새로운 통합의 가치가 남북한 구성원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이며, 개인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통합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북한의 일상생활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탐색해야 하는 이유이다.

북한 연구에서 일상생활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라고 볼 수 있다.<sup>5)</sup> 사회학에서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의 역사가 비교적 짧듯이, 북한 연구에서 이러한 접근방법이 시도된 것도 역사가 깊다고 보기 어렵다.<sup>6)</sup> 1990년대 초 구사회주의권 붕괴라는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는 북한의 계획경제 전반을 흔들고 북한 주민의 일상에 충격을 주었다. 계획경제 운영이 전반적으로 마비된 상태에서 시장경제활동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시장화는

---

4) 위의 책, pp. 17~28 참조.

5)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p. 3~4.

6) 북한 연구방법론에서 북한 일상생활연구는 제4세대 연구방법론으로 분류되는 비교적 최근에 시도되는 새로운 방법론의 하나이다. 고유환, “북한 연구방법론의 쟁점과 과제,” 『통일과 평화』, 제11권 제1호 (2019), pp. 5~32.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체제 전환 국가들의 경험만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았다. 특히, 2000년대 초 북한 당국은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한 시장경제활동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라는 제도를 통해 사후적으로 수용했는데, 이는 생존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이고 비공식적인 대응이 공식적인 정책 변화를 견인했다는 점에서 체제와 일상생활의 상호작용에 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북한 연구자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경험적 분석을 시도했으며, 이로부터 ‘자생적 시장화’,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는 북한의 시장 확산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sup>7)</sup> 그 이전까지 북한 연구는 주로 북한 당국의 공식 담론을 해석하거나 체제 전환이라는 거시적 구조 변화의 틀 맞춰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정책이나 전형적인 체제 전환의 틀에 끼워 맞춰 설명할 수 없는 북한의 특수성이 존재했고, 이것이 주로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기인했다는 발견은 북한 주민들의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특히, 북한 연구의 특성상 공식적인 담론, 정책, 통계로 채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했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연구는 이를 메우기 위한 시도로서 확대되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방법의 확산이 자연스럽게 북한 일상생활에 대한 학문적 접근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일상에 대한 관찰이 처음부터 일상생활 연구라는 개념과 방법론적인 틀에 기초해 시작된 것은 아니다. 초기 연구들은 체제변화와 일상생활세계의 상호작용에 대해 그 개연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이를 이론적으로 개념화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7)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제17권 제2호 (2005), pp. 25~54; 서재진, 『7.1 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9~42.

생활상의 변화에 대한 관찰이 누적되었고, 이는 북한 일상생활 연구에 대한 학문적 수요로 이어졌다. 사회학의 일상생활 연구가 북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으로, 일상생활을 개념화하고 북한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단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상의 미시적 질서가 위로부터의 통치 담론, 억압에 대응하여 개인의 일상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라는 상부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은 북한의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일상생활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논의로 발전되기도 했다.<sup>8)</sup>

지금까지 북한의 일상생활 연구가 다룬 주요한 주제 영역들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시장과 노동, 체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통로로서 관료, 북한 주민들 생애의 공통된 한 부분으로서의 교육, 성 역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변화 양상을 드러내는 젠더 문제 등으로, 비교적 한정된 분야들에 머물렀다.<sup>9)</sup> 제4세대 연구로서 북한 일상생활 연구는 그 자체로도 오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sup>10)</sup> 북한 일상생활 연구를 기초로 한 통일 논의는 더군다나 찾기 어렵다. 본 연구가 북한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를 통일 논의에 끌어들이는 이유는 기존 통일 담론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지나치게 괴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창한 목표로 포장되어 있어, 통일을 분단을 해소하는 일상적 실천으로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전술

8) 박순성·고유환·홍민,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현대북한연구』, 제11권 제3호 (2008), pp. 9~57.

9) 북한의 일상생활에 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박순성·고유환·홍민,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박순성·홍민 공편,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파주: 한울 아카데미, 2010); 홍민·박순성 엮음,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파주: 한울 아카데미, 2013); 조정아·이지순·이희영,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서울: 통일연구원, 2019).

10) 고유환, “북한 연구방법론의 쟁점과 과제,” pp. 13~17.

했듯이, 통일이 남북한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가치에 합의해 나가는 점진적인 과정, 서로 동류의식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공감하고 지향하는 가치들을 찾는 데서 통일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에 관해 논의하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를 관한 연구하는 이유이다.

## 나. 연구의 목적

새로운 통일 논의에서 북한 일상생활 연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회학에서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여러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설명하기에는, 기존 사회이론이 무력하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경제성장, 과학의 진보, 기술 발전은 또 다른 한편으로 환경오염, 생태계의 파괴, 윤리적 기준에 대한 혼돈을 초래한다는 사실, 이러한 복합적 위기를 해소하는 데 기존 사회이론이 무력하다는 자각이 인간의 실체적 삶을 포용하려는 이론적 접근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일상생활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sup>11)</sup>

통일에 대한 논의가 남북한 구성원들의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삶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분단 직후의 통일 담론은 전쟁이라는 사건이 파괴한 남북한 구성원의 일상을 회복하고 원래의 생활공동체를 복원한다는 회고적 차원의 논의였다. 물론, 분단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공통된 일상의 모습도 있을 테지만, 오늘날 남북한 구성원의 일상은 이미 오랜 기간 고착된 분단 구조 내에 있다. 현재 남북한 구성원들의 일상을 파고

---

11) 박재환·일상성 일상생활연구회,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8), pp. 30~46.

드는 위기는 분단 직후의 그것과는 또 다른 것이며, 남한과 북한이 마주한 각각의 문제도 있지만, 공통으로 직면한 위기들도 있다. 예컨대 국제질서의 변화, 세계화, 다원화, 정보화, 기술의 발전은 남북한 구성원들의 일상 곳곳을 변화시킨다. 그 변화의 강도와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이라고 해서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염병과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위기는 남북한 구성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동의 위기이기도 하다. 한반도라는 지역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통일 담론이라면, 이는 남북한 구성원들이 직면한 위기를 해소하고 다수가 동의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만들어가는 데 대한 논의여야 한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논의는 남북한 구성원들의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한 탐색에서 출발하여, 각자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포용하고 합의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을 기초로 통일 논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통합의 가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로운 위기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북한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촉발된 변화, 계획경제의 붕괴와 시장화, 이에 대응한 북한 주민들의 생존 전략이라는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지금도 계획경제는 완전히 복구되지 못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 당국의 정책은 다양하게 변형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일상의 움직임 또한 지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두드러진다. 시장화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나, 공식 부문을 복구하는 한편 비공식 부문을 활용하려는 북한 당국의 병행 전략은 더 세부화되고 현실화하

였다. 전 지구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화, 세계화의 흐름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정보화와 세계화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으나, 단절적이거나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화에 대한 수용은 북한 당국의 필요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바일 기기의 이용자가 늘어나며 북한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정보 유통이 확산되는 등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들도 관찰되고 있다. 무역 개방도는 김정은 집권 전후 북·중 무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대북 제재 강화와 코로나19로 일시에 중단되다시피 했다. 특히, 2016년 이후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은 북한이 마주한 새로운 위기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새로운 위기가 초래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변화, 생계를 유지하고 일상을 보호하려는 행위, 이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정체성과 가치들을 살펴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한편, 통일 논의에서 북한의 일상생활 연구는 미시적 관찰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수요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의 교류 협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과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은 2000년대 초중반에 설정된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북한의 변화와 일상에서의 협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소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은 남북한이 직면한 공동의 위기를 협력하여 해소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위기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일상은 늘 마지막에 변하는 것이다.<sup>12)</sup> 체제, 신념이나 이데올로기가 미처 파고들지 못한 남북한 주민들의 공통된 일상을 찾아가는 것도 통일의 과정일 수 있다. 또한, 분단이 초래한 여러 왜곡과 모순을 일상의 생활세계에서부터 해소하는 것이 통일의 과정이기도 하다. 일상생활 연구가 통일 및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 가.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동이 초래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인, 정보화와 모바일 생활세계의 출현, 세대 간극과 세대 갈등, 노동과 직업의 불안정성, 인민반을 통해 나타나는 일상의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주제들은 물질, 공간, 관계의 측면에서 경제사회적 변화가 북한의 일상생활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구조적 변화가 일상생활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행위와 정체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주제들이다.

II장에서는 북한의 정보화와 모바일 생활세계의 출현에 대해 살펴본다. 정보기술의 발전,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보급과 확산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정보화는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생활양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개인

---

12) 박재환,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조명,” 미셸 마페졸리 외 지음, 박재환·일상성 일상생활연구회 옮김 및 엮음, 『일상생활의 사회학』(과주: 한올아카데미, 1994), pp. 24~27.

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기도 한다. 북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다. 북한 당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정보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외부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고 북한 내 정보 유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인 모바일 기기 사용이 점차 확산하며, 새로운 소비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양식, 자기표현의 문화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 학업, 놀이, 보건, 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관찰된다. 또한, 개인의 경제사회적 조건에 따라 모빌리티의 사용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일상에서 관찰되는 모바일 생활세계의 양상을 탐색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정체성 변화, 특히 집단주의 가치에 대한 지지가 약화하고 개인주의 경향이 확산하는 과정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도 유의미하다.

Ⅲ장에서는 북한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세대 담론을 중심으로 경제사회 변동에 따른 세대의 형성과 세대 간 갈등에 대해 살펴본다. 세대의 구분은 어떠한 역사적 사건에 따른 경험, 나이와 생애의 단계, 서로 다른 문화적, 행태적 특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한 사회가 격변을 겪으면 각 세대의 정치, 경제, 문화적 배경이 달라지는데, 이는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세대 갈등은 비단 북한만의 문제는 아니다. 남한도 빠른 산업화와 경제성장, 민주화를 달성한 이후 IMF 외환위기를 겪었고,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처방이 노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 ‘산업화 세대’, ‘IMF 세대’, ‘88만 원 세대’ 같은 세대 명칭은 각 세대가 직면했던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적 배경을 나타낸다.<sup>13)</sup> 북한 또한 지난 30년간 경제사회적 격변

13) 박재홍, “세대 명칭과 세대 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통권 제81호 (2009), pp. 10~34.

을 경험하면서 ‘사회주의 산업화 세대’, ‘고난의 행군 세대’, ‘장마당 세대’ 등 세대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흔히, 북한의 계획 경제가 붕괴한 이후 성장한 장마당 세대는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며, 이념보다는 실리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의 세대 담론을 통해, 세대별 정체성과 가치 지향을 살펴보는 한편 세대 간극에 주목한다. 세대 간극은 세대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 내에서의 차이도 포함한다. 통일 논의에서도 남북한의 세대 형성, 세대별 격차, 각 세대의 정체성과 지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분단이 장기화하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갈수록 쇠퇴하고 있으며, 통일의 이유도 다양화되고 있는데, 특히 세대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IV장은 북한의 ‘돌격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노동 및 직업에 대한 선호와 전환 경험을 살펴본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같은 제도 변화를 통해 생산 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수립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을 병행하여 유지하려는 전략의 일환인데, 공장·기업 등 공식 부문에 편입되지 못한 유희 노동력이 일종의 국가 노무동원체계라고 할 수 있는 ‘돌격대’에 편입되어 배치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돌격대’는 주로 국가 단위의 건설 사업에 동원되는데, 공식적인 직업을 갖기 이전에 일종의 직업훈련을 경험하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즉, 북한의 ‘돌격대’는 공식 부문이 유희 노동력을 완전히 흡수할 수도 없고, 시장경제체제의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난 독특한 노동관리 체계라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돌격대’를 통해 북한식 시장화가 노동의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생계유지를 위한 대응 전략이라는 차원에서의 노동, 노동자 또는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V장은 북한의 ‘인민반’을 통해 나타나는 일상의 관계성과 연대성에 주목한다. 북한의 인민반은 원래 집합적 주거에서 발생하는 생활 편의문제를 협의하는 자치적인 조직이지만, 북한 당국의 주민동원, 사회지원, 통제와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시장화라는 북한의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는 일상의 관계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인민반은 이를 파악하기에 유효하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일상을 간접하고 관리하는 통로로서 인민반의 공식적인 작동과 시장화에 따른 비공식적 관계들이 인민반 내에서 중첩되며 공존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노력 동원 및 물자 지원 요구에 대한 대응과 거래도 인민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민반은 북한 당국의 통제와 억압에 맞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 주민들의 연대를 보여주기도 한다.

## 나.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이러한 변화상을 담고 있는 북한의 공간문헌과 북한 및 국내외에서 입수한 미디어 자료 등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북한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에서 도출한 구술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 속에서 그들의 일상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추적하고자 했다.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은 그 특성상 개인의 경험에 많은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를 관찰하기에, 특히 그들의 정서와 정체성, 공동체의 관계성 변화를 살펴보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심층면접을 이용한 질적 분석만큼 효과적인 접근법을

찾기 어렵다.

심층면접은 각 장의 연구 주제인, 정보화, 세대 변화, 노동의 불안정성, 인민반의 관계성에 관한 질문들을 구성하여, 총 20명의 북한 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sup>14)</sup>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 17명의 탈북연도는 2013년 이후이다.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이 갖는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신 지역과 세대를 최대한 균등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했으나, 북한이탈주민 지역 구성의 특성상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 출신 비중이 높았다(총 13명). 세대 구성의 경우 20대가 6명, 30대가 8명, 40대 이상이 6명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면접 대상자의 주요 인적 사항은 다음의 <표 I-1>과 같다. 심층면접은 통일연구원의 생명윤리지침에 따라 연구사용에 관련된 동의를 받고 진행하였다.

<표 I-1> 면접대상자 인적 사항 I

| 사례 번호 | 거주지 | 성별 | 연령대    | 북한에서의 직업 | 탈북 연도 | 면접일시       |
|-------|-----|----|--------|----------|-------|------------|
| 사례1   | 회령시 | 여  | 40대 초반 | 돌격대원     | 2004  | 2021-06-03 |
| 사례2   | 남포시 | 남  | 40대 초반 | 보안원      | 2020  | 2021-06-05 |
| 사례3   | 신파군 | 남  | 30대 초반 | 군인       | 2018  | 2021-06-06 |
| 사례4   | 평양시 | 여  | 40대 중반 | 인민반원     | 2019  | 2021-06-06 |
| 사례5   | 남포시 | 여  | 40대 초반 | 인민반원     | 2020  | 2021-06-15 |
| 사례6   | 해산시 | 여  | 30대 후반 | 인민반원     | 2019  | 2021-06-16 |
| 사례7   | 청진시 | 여  | 80대 중반 | 인민반장     | 2004  | 2021-06-20 |
| 사례8   | 청진시 | 남  | 30대 중반 | 연구원      | 2019  | 2021-07-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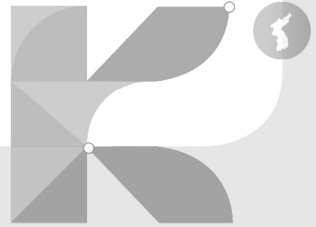
14)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은 20명이며, 'IV. 노동과 직업의 선호와 전환경험'의 경우에만 연구자가 기존에 별도로 실시한 심층면접 자료(7명, 사례 A~G)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별도로 수행한 심층면접은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북한홍중사회연구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고 이루어졌으며, 심층면접 및 면접대상자에 대한 관련 내용은 IV장의 각주 182과 <표 IV-1>에 설명되어 있다.

| 사례 번호 | 거주지         | 성별 | 연령대    | 북한에서의 직업 | 탈북<br>년도 | 면접일시       |
|-------|-------------|----|--------|----------|----------|------------|
| 사례9   | 구장군         | 남  | 30대 후반 | 군건설대     | 2019     | 2021-07-23 |
| 사례10  | 평양시         | 남  | 20대 후반 | 돌격대원     | 2019     | 2021-07-10 |
| 사례11  | 무산군         | 여  | 20대 중반 | 간호사      | 2019     | 2021-07-24 |
| 사례12  | 청진시         | 여  | 30대 초반 | 노동자      | 2019     | 2021-07-26 |
| 사례13  | 온성군         | 남  | 50대 후반 | 돌격대원     | 2009     | 2021-08-14 |
| 사례14  | 청진시         | 여  | 30대 후반 | 돌격대원     | 2013     | 2021-08-17 |
| 사례15  | 헤산시         | 여  | 30대 후반 | 장사       | 2018     | 2021-08-18 |
| 사례16  | 함흥시,<br>평양시 | 여  | 20대 후반 | 학생       | 2016     | 2021-08-18 |
| 사례17  | 헤산시         | 여  | 20대 중반 | 학생       | 2015     | 2021-08-21 |
| 사례18  | 평양시         | 남  | 30대 초반 | 장사       | 2017     | 2021-08-25 |
| 사례19  | 헤산시         | 여  | 20대 초반 | 학생       | 2019     | 2021-08-26 |
| 사례20  | 청진시         | 남  | 20대 초반 | 학생       | 2017     | 2021-08-29 |

자료: 필자 작성.

## II. 개인 모바일의 생활세계와 정체성 재구성

한재현 동국대학교





# 1. 서론

## 가. 왜 모바일 생활세계인가?

변화하는 도시의 외관과 더불어 북한 주민의 삶 속에서 출현하고 있는 갖가지 사물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한 사물들의 등장은 때로는 호기심과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며, 동시에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삶의 양식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동질성의 발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 북한에 대한 감각은 여전히 무기와 퍼레이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시장화라는 북한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사물들의 출현이 확대되고 있다. 이 사물들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재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 중에서 휴대전화는 단연 지금의 북한 사회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나아갈지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유튜브와 언론매체가 제공하는 언박싱(unboxing) 콘텐츠를 통해 북한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최신 스마트폰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북한 사회와 우리와의 거리를 가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스마트폰 보급률 1위라는 초연결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휴대전화는 북한에 대한 호기심과 정서적 교감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사물임에 분명하다.

휴대전화에 대한 관심은 그것이 지닌 기술적 잠재성과 더불어,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 전반에 연루되면서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닌 사물이라는 점과도 관련된다. 휴대전화의 보급과 사용은 도구적 편리성의 증대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로 기존의 인간적 관계에서 작동하던 규범, 망탈리테(mentalites), 아비투스

(habitus) 등에 대한 조용하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만들어내면서 사회적 정체성에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힘은 휴대전화가 지닌 독특한 사물성에서 기인한다.<sup>15)</sup> 휴대전화는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는 인간 육체의 다양한 감각들과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은 새로운 모바일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sup>16)</sup> 마이어슨(Geroge Myerson)이 적절히 표현한 바대로 “이것은 물건인 동시에 기술[이며] 이것은 또한 관념 체계의 일부분이며 심지어는 일상생활을 바라보는 방식의 일부분이다. 전화는 가족, 친밀함, 비상사태, 하루 일과라는 개념의 일부가 되어 있다.”<sup>17)</sup> 또한 휴대전화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적 도구를 넘어 “표현적 사용 혹은 자기연출의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sup>18)</sup> 이것이 다른 모빌리티 사물들과 다른 휴대전화의 지닌 고유한 물성이자 일상생활 연구에서 차지하는 의의이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의 출현과 사용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과 변화를 넘어, 인간관계와 정체성 변화로까지 이어진다.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 확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 출현을 통해 북한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연구들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 15) 김홍중, “미디어스케이프와 모바일 성찰성,” 『문화와 사회』, 제10권 제1호 (2011), pp. 135~173.
- 16) 김예란, “모바일 정체성,” 김대호 외, 『모바일 미디어의 문화와 시장』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pp. 23~24, 재인용: 김홍중, 위의 글, p. 144.
- 17) 조지 마이어슨 지음, 김경미 옮김, 『하이테크, 하버마스 그리고 이동전화』 (서울: 이제이북스, 2003), 재인용: 김홍중, 위의 글, p. 145.
- 18) Richard Ling and Birgitte Yittri, “Hyper-coordination via mobile phones in Norway,” in *Perpetual Contact*, eds. James E. Katz and Mark Aakh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재인용: 김홍중, 위의 글, p. 156.

첫째, 북한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 산업의 현황 및 실태라는 측면에서 휴대전화 사용의 확산을 다루는 연구들이 있다.<sup>19)</sup> 북한 당국은 김정일 시대부터 발전전략의 차원에서 정보화 및 ICT 산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 시대에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북한 당국의 정책 차원에서 관련 인프라와 테크놀로지의 현황 및 실태, 그리고 이에 기반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주로 논의한다. 둘째, 북한의 정보화에 따른 외부 정보의 비공식적인 유통과 확산, 이에 대응하는 북한 당국의 정치적 통제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이 있다.<sup>20)</sup> 기존 연구들은 일정 정도 기술결정론 내지 도구적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확장이 기존의 상업적 거래 관계를 매개하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기존의 사회적 관계와 문화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다.<sup>21)</sup>

그에 비해, 모바일 기기와 기술의 일상적 사용에 대한 미시적 관찰이나 모바일 실천에 개입되는 사회적·문화적 맥락의 구성적 힘에 대한 분석 등 모바일 생활세계에서 펼쳐지는 일상적 풍경에 대한 관

---

19) 배성인,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이석기·변학문·나혜선,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 (세종: 산업연구원, 2018); 이춘근·김종선·남달리, 『남북 ICT 협력 추진 방안』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정은미,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KINU Insight 19-02,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83264744-a427-486c-8698-775f43982ff9>> (검색일: 2021.10.28.); 진상기, “지능정보사회를 향한 한반도 정보화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제27권 제2호 (2020).

20) Amnesty International, “Connection Denied: Restrictions on mobile phones and outside information in North Korea,” 2016, <<https://www.amnesty.org/en/wp-content/uploads/2021/05/ASA2433732016ENGLISH.pdf>> (Accessed October 28, 2021); 김수암 외,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20).

21) 김지영, “김정은 시대 북한 정보기술 발전의 정치경제적 고찰,” 『아태연구』, 제26권 제2호 (2019)은 “발전지향적 권위주의”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정보통제와 경제발전을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찰과 해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물론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속화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시장화에 따른 경제적 활동의 확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통제하에서 휴대전화의 기능적 사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등장과 확산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미시적 관찰을 통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러한 접근방법은 휴대전화의 보급이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 혹은 사회의 한 측면으로 환원하는 선형적 해석을 경계하고 테크놀로지와 사회가 상호 구성적으로 작동하면서 만들어내는 북한 사회의 일상 풍경을 포착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일상생활세계에 대한 더 확장된 이해를 돕는다. 사회학, 미시연구, 지역학 분야의 모바일 사회학 관련 논의에 따르면,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출현은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과 사회,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지만, 개별 국가와 사회, 문화권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 확산이 갖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통해 새로운 사물과 테크놀로지의 등장이 남·북한 사회의 물질문화적 생활양식의 근접성을 높이는 측면과 더불어 새로운 차이를 또한 생산하는 측면이 있음을 균형감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휴대전화라는 개인화된 기기가 지닌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보편적 특성, 휴대전화가 지닌 고유한 사물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휴대전화가 북한 사회와 문화에 내재한 장기적이고 고유한 규범 및 현실과 결합하면서 만들어내는 모바일 실천 등 휴대전화의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적이고 미시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의 정보화 정책이 단순한 ‘제약과 통제’가 아닌 적응과 전유의 가능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통한 틈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적인 문제의식이 현장연구의 불가능성과 다양하고 충분한 양적·질적 데이터의 부재 속에서 자칫 북한 사회의 모바일 생활세계의 특정한 단면을 과장하거나 때로는 과도한 이론적 해석을 가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의식과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자 도전으로 본 연구를 이해해주기 바란다.

## 나. 자료와 방법

북한의 모바일 생활세계와 관련한 정보화 정책 및 통제, 구조적 제약에 대해서는 북한의 공식문헌과 국내·외의 2차 연구문헌, 그리고 국제전자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이하 ITU) 등의 통계 및 보고서 등을 활용한다. 또한 선행연구들과 국내외 기사들을 통해 확인되는 북한의 모바일 일상의 모습을 보다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와 시간, 횟수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술 자료는 기존의 연구들 및 실태 정보 등과 다른 기억, 상이한 경험, 더 내밀한 맥락 등을 발견하고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거나 단편적으로 언급되었던 영역들을 살펴보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에 관한 정보는 <표 I-1>에 나와있다. 또한 평양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모바일 소비생활 등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최신 모바일 일상에 대한 자료는 자유아시아 방송(Radio Free Asia, 이하 RFA) 등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취재한 기사와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 2. 선행연구 검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북한의 모바일 생활세계는 한국, 그리고 중국과 같은 포스트사회주의, 아프리카 등 저발전 국가 등과 부분적으로 중첩되면서도 상당한 차이 또한 지니고 있다. 즉, 새로운 기술적 객체의 출현이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문화적 토대 및 관습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술에 내재한 속성이 강하게 발현되는가 하면, 정치적·경제적 조건에 따라 상이한 기술적 수요를 창출하고 그에 따른 독특한 발전 경로를 형성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모바일 생활세계에 대한 고찰은 이동통신 관련 사회학·미시연구와 같은 더 보편적인 학술적 개념 도구들과 더불어 유사한 사회문화적·경제적 맥락과 조건 속에서 형성된 휴대전화 사용 문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일상 관련 기존 연구들을 두 축으로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모바일 일상생활 연구가 포착해야 할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사회학·미시연구 분야의 휴대전화 연구

#### : ‘기술-행위자의 공진화(co-evolution)’

북한 연구에서 휴대전화 연구는 주로 산업적·기술적 전개와 발전, 혹은 사회경제적 효율성 증대와 같은 도구적·공리적 차원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북한의 일상생활과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휴대전화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술이 ‘사용’되는 맥락 속에서 일상의 관계성과 개인, 사회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사회학적 접근 및 해석들과 조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바일 미디어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학적 이

론 및 미시적 경험 연구들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존 연구들은 휴대전화 혹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불러온 사회적 관계의 변동, 새로운 사회적 의례들의 문법, 개인-개인 혹은 개인-사회 간 상호작용 양식의 변화, 휴대전화를 매개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의 성격, 휴대전화가 허용하는 새로운 관행들,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속이 드러내는 사회의 특이성,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 등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불러온 관계성과 개인 및 사회적 정체성의 변화를 포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sup>22)</sup>

대표적인 연구로는, 모바일 테크놀로지와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가장 선구적이고 밀도 높은 연구를 진행한 리치 링(Rich Ling)<sup>23)</sup>을 들 수 있다. 그는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기존의 개인 간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시간에 대한 관념과 기준을 변화시키는 등 일상을 재조정하는 힘, 문자메시지의 작동 메커니즘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에밀 뒤르케임(Emile Durkheim),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 등 의례와 대면관계 등에 대한 선구적 사회학자의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휴대전화가 인간을 결속시키는지, 분리시키는지 묻고 있다. 즉, 휴대전화가 매개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을 통해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다양한 사회적 의례(ritual)들을 매개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특히,

---

22) 김홍중, “미디어스케이프와 모바일 성찰성,” p.137.

23) 리치 링 지음, 배진한 옮김, 『모바일 미디어와 새로운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출현-휴대전화는 사회관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Rich Ling, *The Mobile Connection: The Cell Phone's Impact on Society* (San Francisco: Morgan Kaufmann Publisher, 2004); Rich Ling and Per E. Pedersen eds., *Mobile Communications: Re-negotiation of the Social Sphere* (London: Springer-Verlag, 2005).

본 연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도구적(instrumental) 사용’과 ‘표현적(expressive) 사용’이라는 이용 패턴의 범주화를 통해 “‘기계-상호작용’보다는 ... 휴대전화를 통한 ‘인간-상호작용’, 구체적으로 대인관계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24)</sup>

다음으로, 마누엘 카스텔 등(Manuel Castells et al.)<sup>25)</sup>의 논의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휴대전화가 지닌 기술적 특성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가와 문화권 비교라는 지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이동통신의 사용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양태가 국가와 사회, 문화권에 따라 상이하고 중층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에 따라 한편에서는 연결성이 다른 한편에서는 이동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비교하고, 개인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의 집단적 사회성이 휴대전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적 양상을 탐구하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가 청년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미시적으로 관찰하는 등 이동통신 기술이 사회와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균형감 있게 다루고 있다.

한편, 물질성(materiality)을 매개로 한 사회관계 및 사회현상의 형성과 변화에 천착해 온 저명한 인류학자인 헤더 호스트와 다니엘 밀러(Horst & Miller)는 ‘전화를 넘어선 전화’라는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과 대화, 문자 주고받기, 유선전화와의 차이, 결속의 강화와 약화, 확장과 축소라는 이중의 성격, 위장의 가능성과 대화의 축소 경향 등 휴대전화의 갖는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킹의 양가적 차원

---

24) 이재현, 『모바일 미디어와 모바일 사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pp. 87~93.

25) Manuel Castells et al., *Mobile Communication and Society: A Global Perspective* (Massachusetts: MIT Press, 2006).

들을 미시적으로 세밀하게 고찰하고 있다.<sup>26)</sup> 제라드 고긴(Gerard Goggin)은 문화가 정치나 경제의 단순한 반영이나 표현이 아니라는 관점 하에, 이른바 ‘문화의 순환(circuit of culture)’이라는 틀로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일상생활의 문화적 패턴들을 바꿔내는 상이한 방식들을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서술했다. ‘문화의 순환’은 재현, 정체성, 생산, 소비와 같은 상이한 과정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가변적이고 우연적인 결과로서 모바일 객체(artefact)의 생애(biography)를 추적하는 것이다.<sup>27)</sup> 메리 체이코(Mary Chayko)는 각종 모바일 미디어의 확대에 따른 온라인 기반의 커뮤니티와 정체성의 출현을 ‘휴대용 커뮤니티’라는 개념으로 고찰한다. ‘휴대용 커뮤니티’란 대인관계의 연결성을 촉진하고 집단적 정체성과 문화를 형성·공유하기 위해 소규모의 무선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사용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강화하여 공동체를 결속하게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sup>28)</sup>

이러한 사회학적이고 미시적인 관찰들은 휴대전화라는 새로운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지닌 기술적 요소의 고유한 발현을 넘어, 휴대전화가 사용되는 사회의 역사성,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매우 양가적이고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생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관계를 창출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기존의’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새롭게 축소·재편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러한 미시적

---

26) Heather A. Horst and Daniel Miller, *The Cell Phone: An Anthropology of Communication* (Oxford: Berg Publisher, 2006).

27) Gerard Goggin, *Cell Phone Culture : Mobile Technology in Everyday Life* (London: Routledge, 2006).

28) Mary Chayko, *Portable Communities: The Social Dynamics of Online and Mobile Connectedness*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8).

관찰들은 휴대전화가 지닌 물질성 속에 내장된 세부 기능 요소들이 문화권과 세대, 직업 등에 따라 상이하게 선택되고 활용되면서 서로 다른 사회적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모바일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는 북한의 휴대전화를 인간-비인간 행위자가 연결됨으로써 다양한 공동체를 구성해내는 결합체(associations)로 이해할 필요성을 던져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나 리핀(Hannah Rippin)은 이러한 연구들의 관점을 이어받아 일상생활에서의 휴대전화에 관한 연구에서 ‘기술결정론’과 ‘사회결정론’을 넘어서서 사용자와 기술에 의한 ‘공동결정(co-determination)’의 측면을 살펴보자고 제안한다. ‘공동결정’의 면모라는 것은 휴대전화라는 기기의 속성상 본성적으로 기능과 도구의 측면을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의 ‘사용’은 행위자에 의해 구성되는 동시에 ‘행위자’ 또한 기기의 다층적 기능에 따라 구성된다는 ‘테크놀로지 사회학’의 최근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사용은 기기 고유의 기능에서 바로 도출되기보다는 ‘필요(needs)’의 ‘생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동시에, 이러한 모바일 기기의 ‘사용’을 통해 새로운 행위와 일상의 의례(ritual)들이 발생하게 된다. 휴대전화의 사용이 지닌 이러한 수행적(performative) 차원을 유념하면서, 리핀은 다음의 세 가지 상호 연관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모바일 생활세계를 고찰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즉, 일상의 운영에서 휴대전화의 지닌 역할, 휴대전화가 개인의 자아 구성에 미치는 영향, 휴대전화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등이 그것이다.<sup>29)</sup>

다음에서 살펴볼 아프리카와 중국의 휴대전화 사용 문화에 관한

---

29) Hannah Rippin, "The Mobile Phone in Everyday Life," *Fast Capitalism*, vol. 1, issue 1 (2005), pp. 33~57.

연구들은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각각의 사회문화적 혹은 정치적 맥락과 제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위의 세 가지 차원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고찰한다.

## 나. 지역학 분야의 휴대전화 연구

### : ‘적응(adaptation)과 전유(appropriation)’

모바일 생활세계를 구성과 관련한 사회학적·미시적 연구들은 휴대전화 사용문화의 기술-사용자 상호결정의 면모들을 강조한다. 다음에서는 비서구 혹은 비자본주의 사회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어떠한 양태들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프리카와 중국의 휴대전화 사용 문화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지역의 사례는 서구 혹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바일 생활세계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잠재성을 일정 부분 보여주는 동시에 이들 사회가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적 제약에 따라 서구와 다른 특유의 모바일 실천 양상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특수한 맥락과 제약 조건에 사용자들이 ‘적응’하면서 휴대전화 기기와 기술이 지닌 활용의 잠재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전유’하는 다양한 실천을 만들어낸다는 점(경험적으로) 밝혀낸 이 연구들은 북한 사회의 모바일 실천이 지닌 중층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1) 아프리카: ‘저발전과 비공식성’의 모바일 생활세계

아프리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주로 인류학과 지리학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 연구들은 개별 국가마다 그 사회가 처해 있는 경제적 현실과 비공식성, 장기적인 문화의 영향이라는 맥락들 속에서 다양한 모바일 기술이 어떻게 적응하면서 전유



되어 왔는지를 고찰하고 있다.<sup>30)</sup> 이 연구들은 교육과 시장, 보건 등 일상의 영역이 처해 있는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후진성, 만연한 비공식성에 적응하는 중요한 방편으로서 다양한 모바일 실천과 전유의 풍경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들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의 증대는 한편으로는 아프리카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기술적 잠재성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경제적인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의 미비와 격차, 비공식성의 결과이기도 하다. ‘저발전 현상으로서 모바일 실천’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 연구들은 모바일 실천이 생산해내는 특유의 경로 의존적 발전경로의 동학<sup>31)</sup>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모바일 생활세계를 둘러싼 구조적 제약이 휴대전화 기술의 영역 중 어떤 활용을 특별히 강화하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사회경제적 맥락이 작용하는가 등, 모바일 기술의 다양한 기능 영역 중 특정한 역할에 중요도를 부여하는 모바일 수요의 상호구성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30)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들 수 있다. Daniel Jordan Smith, “Cell Phones, Social Inequality and Contemporary Culture in Nigeria,” *Canad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vol. 40, no. 3 (2006), pp. 496~523; Jonathan Donner, “Research Approaches to Mobile Use in the Developing World: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Information Society*, vol. 24, no. 3 (2008), pp. 140~159; Hans Peter Hahn and Ludovic Kibora, “The Domestication of the Mobile Phone: Oral Society and New ICT in Burkina Faso,”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46, issue 1 (2008), pp. 87~109; Walter Nkwi, “From the Elitist to the Commonality of Voice Communication: The History of the Telephone in Buea, Cameroon,” in *Mobile Phones: The New Talking Drums of Everyday Africa*, eds. Mirjam de Bruijn et al., (Cameroon: Langaa, 2009), pp. 50~68.

31) 도시와 농촌의 인프라 격차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노동이 지배하는 사회적 조건에 따른 송금경제의 확대로 인해 모바일 머니를 중심으로 이동통신사가 주도하는 금융시장의 발전이 대표적이다. 특히 “동부 아프리카의 경우 [은행이 주도하는 서아프리카와 달리] 이동통신사 주도의 무점포 은행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모바일 금융 서비스는 260개 정도인데 그중 약 40%가량이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이다. 황규득 외,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pp. 47~49.

이러한 고찰은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의 청년세대들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의 사회문화적 맥락,<sup>32)</sup> 금융 인프라 부재와 비공식 경제의 만연에 따른 모바일 화폐의 활용 및 이에 기반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재)구성,<sup>33)</sup> 휴대전화가 장사와 소규모 비즈니스에 연결되는 방식,<sup>34)</sup> 등을 다룬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모바일 화폐 사용 확대는 도시 중심의 경제와 낙후한 농촌의 금융 인프라라는 경제사회적 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도시 이주 노동자가 농촌에 송금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모바일 화폐 사용이 늘어난 것이다.<sup>35)</sup>

이들 경험적 연구들은 아프리카에서 휴대전화는 ‘경제적 성공’을 의미하는 ‘상징’이자, 낙후한 인프라로 인해 불가능했던 농촌과 여성의 금융 접근성을 열어주는 ‘기회’이고, 모바일 송금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가족 간의 원거리 친밀성을 강화해주는 ‘연결’을 의미한다.<sup>36)</sup> 아프리카 사회가 처한 후진성과 구조적 제약이 모바일 테크놀로지 와 결합하면서 특유의 모바일 시장을 형성하는 모바일 실천들을 만

32) Gina Porter et al., “Youth, mobility and mobile phones in Africa: findings from a three-country study,” *Inform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vol. 18, no. 2 (2012), pp. 145~162.

33) Simbarashe Gukurume and Innocent T. Mahiya, “Mobile Money and the (Un)Making of Social Relations in Chivi, Zimbabwe,” *Journal of Southern African Studies*, vol. 46, no. 6 (2020), pp. 1203~1217; Sibel Kusimba et al., “Social Networks of Mobile Money in Kenya,” *IMTFI Working Paper*, 2013-1, <[https://www.imtfti.uci.edu/files/2013-1\\_kusimba\\_1.pdf](https://www.imtfti.uci.edu/files/2013-1_kusimba_1.pdf)> (Accessed October 28, 2021).

34) Julia Pfaff, “A mobile phone: mobility, materiality and everyday Swahili trading practices,” *Cultural Geographies*, vol. 17, no. 3 (2010), pp. 341~357.

35) 황규득 외,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p. 41.

36) 북한에서도 국내, 북·중 간, 남·북 간 모바일기반 송금 과정에 안부 교환 등의 “정서적 지지와 돌봄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가족 및 친지 간 원거리 친밀성이 유지되고 있다. 최선경,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과 시장 활동에서의 ‘신뢰’ 네트워크,” 『현대 북한연구』, 제24권 제1호 (2021), p. 32.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 (2) 중국: ‘고맥락’ 커뮤니케이션과 ‘통제의 편익’

아프리카 사회에 비해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룬 중국은 더 보편적인 이동통신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세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상이한 조건에 놓여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정보 통제 같은 사회주의적 문화의 흔적, 그리고 아시아 문화권이라는 유사한 집단적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여전히 강력하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모바일 환경과 일정정도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이러한 문화적 맥락은 커뮤니케이션 기기의 발달과 기술의 발전이라는 잠재성이 장기간에 걸쳐 뿌리 깊게 형성된 문화적 영향력 속에서 구성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중국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사용이 지닌 문화적 함의를 살펴본 연구<sup>37)</sup>에서는 특히 참조할 만한 것으로, 모바일 미디어가 놓여 있는 문화적 자장을 에드워드 홀(Edward Hall)의 ‘고맥락(high-context) 문화’<sup>38)</sup>의 개념을 통해 고찰하고 있다. 메시지가 교환되는 상황에 대한 감각을 중심으로 한 눈치, 감, 기분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교환되는 정보 자체보다 중요한 이러한 고맥락 사회에서는 메시지에 수반되는 비언어적 요소들과 함축적 표현, 분위기 등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 “가급적 충돌을 피하면서 체면을 살려 주고 집단공존을 지속하는”<sup>39)</sup> 장기적 관계를 모색한다. 따라서 저

37) Elaine J. Yuan, “From ‘Perpetual Contact’ to Contextualized Mobility: Mobile Phones for Social Relations in Chinese Society,”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vol. 5, no. 3 (2012), pp. 208~225.

38) 홀의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에드워드 홀 지음, 최효선 옮김, 『에드워드 홀 문화인류학 4부작 3 : 문화를 넘어서』, (서울: 한길사, 2013), pp. 151~166을 참조.

맥락 사회에서 메시지는 그 자체에 정보가 대부분 포함되지만, 고맥락 사회에서는 메시지 자체에 포함된 정보량에 비해 이것이 교환되는 시공간적 환경과 형식에 더 많은 정보량이 담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맥락 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는 휴대전화라는 테크놀로지와 결합하면서 메시지 교환의 빈도와 뉘앙스, 상대방이 처한 시간과 공간을 고려한 메시지 전달 형태의 선택, 메시지 내용과 형식의 선택에 따르는 긴장과 스트레스 등 커뮤니케이션을 둘러싼 행위와 일상의 의례 및 정서들을 새롭게 발생시킨다. 또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형태들도 관계의 지속 혹은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 형성, 정서적 돌봄, 비즈니스 관계 등에 따라 그 형태와 중요도가 달라진다. 문자메시지의 경우에도 명절이나 휴일에 따라 그 빈도와 내용, 메시지 첫인사의 뉘앙스, 메시지 전송 대상의 시공간 고려 여부, 문자를 통한 감사 표시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선택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요컨대, 중국에서 모바일 테크놀로지는 사회적 규범에 강하게 포박되어 있으면서도 휴대전화가 지닌 기술이 관계를 조절하는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이러한 사회-기술적 맥락을 활용하는 유연성과 적응성이 매우 중요해진다. 위계관계에 따른 모바일 에티켓, 모바일 소통 리듬(빈도, 간격)의 조절, 발신번호 표시 등 기술을 활용한 ‘회피와 지연’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암시적으로 조절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중국에서 휴대전화는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속적 접촉(perpetual contact)’보다는 ‘맥락적 모빌리티(contextualized mobility)’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라인골드(H. Rheingold)가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 기성의 사회적 위계와 권력 구조를 침식시

---

39) 차야셴·장주영, “고맥락 문화 차원에서 한자 의미의 심미적 특징 연구,” 『한국디자인 문화학회지』, 제27권 2호 (2021), p. 490.

킬 것이라고 예견”<sup>40)</sup>했던 기술결정론적 시각과 달리 사회적 규범과 기술적 요소가 결합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에서의 지위와 위계, 권력 형태가 조정되고 협상”<sup>41)</sup>되는 것이다.

한편, 세계 최대의 모바일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ICT 발달은 촘촘하고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빅데이터 ‘감시 사회’의 우려 또한 낳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중국 사회는 이러한 외부의 우려 섞인 시선과 달리 ICT 관련 기업과 플랫폼, 정부의 정보 수집에 대해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sup>42)</sup> 이러한 중국인의 태도를 “기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포리아(euphoria, 행복감)’”로 설명하는 최근 연구의 결과는 흥미롭다. 이 연구는 중국인의 이러한 태도가 ‘중국형 전자상거래’의 특징인 “평범한 상점에, 가까운 느낌의 ‘사람 중심 전자상거래’”, 기존의 거대한 비숙련 노동 시장과 높은 노동 유동성이 IT 플랫폼과 결합하면서 생겨난 고수익의 기회, “더 많은 정보 [제공을 통한] 더 많은 편리성[의 획득]”이라는 공리주의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싶은” 공리주의적 욕망이 “바르고 예측 가능한 사회 … 감시를 통한 사회질서의 실현”이라는 정부의 온정주의(paternalism)적 사회 관리와 결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

---

40) Howard Rheingold, *Smart mobs: The next social revolution* (Cambridge, MA: Perseus Books/Basic Books, 2002), 재인용: Elaine J. Yuan, “From ‘Perpetual Contact’ to Contextualized Mobility: Mobile Phones for Social Relations in Chinese Society,” p. 219.

41) Elaine J. Yuan, *Ibid.*, p. 221.

42) 스마트폰의 지문인식이나 안면인식 기능의 높은 사용 비율은 한 예이다. 2018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의 지문인식과 안면인식 기능의 사용 비율은 각각 80%와 44%로 세계 평균인 51%, 14%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관련 빅데이터를 통한 AI 기반 어플에 대한 사용자들의 수요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William Chou, Taylor Lam, and Roger Chung, *Chinese consumers at the forefront of digital technologies - China Mobile Consumer Survey 2018* (New York: Deloitte, 2019), pp. 7~8.

서 중국인이 특별히 프라이버시에 둔감한 것은 외부의 시선처럼 역사적·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통제의 편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43)</sup> 이러한 중국의 사례는 북한의 정보화 정책과 연계되는 주민들의 기회구조, 사회질서에 대한 주민들의 욕망,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열어주는 편리함에 대한 효능감 등에 따라 통제에 대한 수용성이 비(非)제로섬적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계층과 직업, 지역 등에 따라 그 수용성도 상이할 수 있음을 가늠케 한다.

### 3. 개인 모바일 사용의 맥락과 조건들

#### 가. 북한의 정보화 정책과 휴대전화

동북아전화통신회사(NEAT&T)가 1998년 라선시에 무선호출 1,500회선과 휴대전화 500회선을 설치 개통하면서 북한에서 최초의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sup>44)</sup> 되었다. 이후 2001년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기지국 및 중계기가 설치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보급이 확대됐고 2003년 9월까지 북한 전역에 걸쳐 40여개의 기지국이 설치되었다. 이로써 북한에 본격적인 휴대전화의 시대가 열리는 듯 했다.<sup>45)</sup> 그러나 2004년 용천군에서 발생한 열차 폭발 사건의 배후로 휴대전화를 활용한 기폭장치가 지목되면서 북한 전역에서 휴대전화

43) 가지타니 가이·다카구치 고타 지음, 박성민 옮김,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 디지털 기술과 선택 설계로 만든 ‘멋진 신세계』 (서울: 놀와, 2021), p. 7, pp. 42~44, pp. 55~59, pp. 164~167.

44) 윤황·고경민, “북한 이동통신의 현황과 한계,” 『사이버사회문화』, 제2권 제1호 (2011), p. 55.

45) 북한개혁연구원, “북한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대북진출 방안(연구보고서),” 2008, p. 2.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결국 이러한 모바일 서비스의 확대 움직임은 수년 간 주춤하게 된다.<sup>46)</sup> 그러다가 2007년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텔레콤의 방북과 MOU 체결을 계기로 2008년 말부터 이동통신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오라스콤텔레콤은 북한의 조선체신성 산하 조선체신회사와 지분 계약을 체결하면서 북한 현지에 합작회사인 체오(CHEO)를 설립하였고, 휴대전화 판매, 기지국 설치, 가입자 모집,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이동통신 사업자 ‘고려링크’를 통해 7대 주요 도시와 주요 공공도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본격 확대하기 시작했다.<sup>47)</sup> 동시에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는 기존 합작회사 사업자인 ‘고려링크’ 외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강성네트’를 설립하면서 서비스와 회선망의 경쟁체제가 시작<sup>48)</sup>되었다. 평양 시내에도 ‘스몐비(스마트폰 준비)’가 등장했다는 보도<sup>49)</sup>가 나올 정도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는 등 북한 사회에서 모바일 기기는 주민들의 일상 필수품이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서비스 가입자 수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2009년 기점으로 7만여 명 수준에 머물렀던 휴대전화 사용자 수가 불과 2년 후 100만 명을 넘어선 뒤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400만 명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sup>50)</sup>

---

46) 위의 글, p. 3.

47) 윤황·고경민, “북한 이동통신의 현황과 한계,” p. 59.

48) 배종수, “북한 이동통신 및 휴대전화 사용실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p. 23.

49) “평양 거리에도 ‘스몐비’ … 북 400만 명이 셀카·채팅,” 『한겨레』, 2019.3.1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85347.html>> (검색일: 2021.10.28.).

50)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증가추세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들을 참조했다. 이들 자료는 공통적으로 북한에서의 실제 휴대전화 가입자수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논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연호,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KDI 북한경제리뷰』, 2014.3.31., pp. 58~59, <[https://www.kdi.re.kr/forecast/forecasts\\_north.jsp? pub\\_no=13608](https://www.kdi.re.kr/forecast/forecasts_north.jsp? pub_no=13608)>

## 나. 모바일 활용의 중층적 맥락

휴대전화의 가격과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규모와 그 증가세는 특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구술자들은 한국에 와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북한에서 사용하던 것과 차이를 느끼게 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공통적으로 ‘(북한에서는)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북한에서의 휴대전화 확산은 기능성이라는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휴대전화는 기능적 활용도<sup>51)</sup>에 비해 고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강한 소유욕이 전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 이는 그것이 지닌 ‘의미’와 ‘역할’이 휴대전화라는 사물 혹은 테크놀로지 그 자체에서 직접적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맥락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카스텔도 지적한 바 있듯이 이동통신의 발전과 사회적 확산은 경제발전 수준, 국가의 이동통신 기술 도입 및 장려 정책, 산업적 요소,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중층적으로 작용하면서 국가별로 다양한 차이를 나타낸다.<sup>52)</sup>

---

(검색일: 2021.10.28);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산업』 (세종: 산업연구원, 2017), p. 166.

51) 널리 알려져 있듯이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용의 목적과 기능적 용도는 매우 분명하며 또한 제한적이다. RFA와 한국의 탈북자 정착 지원단체인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이 공동으로 북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탈북자 126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용의 목적은 ‘연락수단’(66명)과 ‘경제활동’(63명)이 압도적이었으며 휴대전화의 유용성 또한 ‘장사에 도움’(71명), 그리고 그와 연관된 ‘정보전달’(57명)이 뒤를 이었다고 한다. “심층보도: 북한 손전화 급증… 실태와 전망,” 『RFA』, 2019.5.13.,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newsindepth-05132019152306.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newsindepth-05132019152306.html)> (검색일: 2021.10.28.). 그러나 최근까지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경제적 유용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52) 마누엘 카스텔 외 지음, 김원용·성혜령 옮김, 『이동통신과 사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pp. 37~49.



미국의 시장 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통계 자료를 인용한 세계경제포럼(WEF)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다층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보유비율의 국가별 차이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sup>53)</sup>

〈그림 Ⅱ-1〉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스마트폰과 일반폰의 비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캐나다와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스마트폰 사용 비율은 60~70%대에 머무르고 있고, 특히 캐나다는 성인 인구의 4분의 1이 스마트폰은 물론 휴대전화 자체를 보유하지 않는다. 또한, 첨단 기기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일본에서도 스마트폰 보유 비율은 66%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수용성과 활용도가 경제발전 수준이나, 문화적 차이 등 특정한 요소들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런 점에서 단연 눈에 띄는 사례는 휴대전화 보유 비율이 100%, 스마트폰 비율이 95%에 이르는 한국이라고 할 수 있다.<sup>5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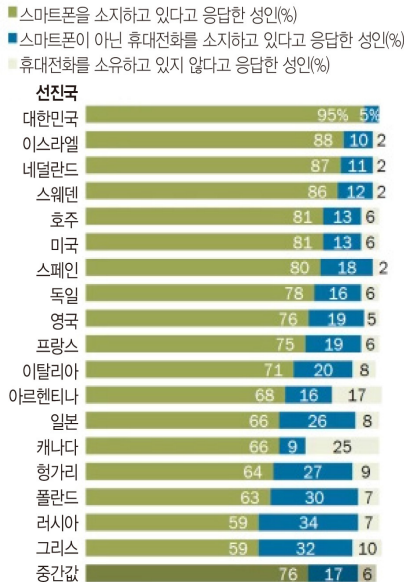
---

53) Johnny Wood, “These are the countries where most adults still don’t have a smartphone,” February 27, 2019, <<https://www.weforum.org/agenda/2019/02/two-thirds-of-the-world-s-adults-still-don-t-have-a-smartphone/?fbclid=IwAR2XOcJztdf5CnbNYDGFakJ70l6jcHOSxQqv3TVYtcZXKh3ZdO4oBbyzLUk>> (Accessed June 8, 2021).

54) 만 13세 이상의 스마트폰 보유비율은 2018년 기준 89.4%이다. 정용찬, “‘호모 스마트 포니쿠스’, 세대별 진화 속도,” 『KISDI STAT Report』, 제19권 제14호, 2019.7.30., p. 2, <[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SH2\\_PLC20190239404](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SH2_PLC20190239404)> (검색일: 202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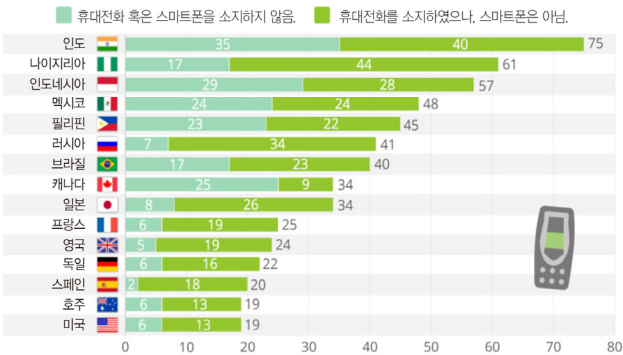
## <그림 11-1> 국가별 성인의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보유 비율

### 신흥국보다 선진국에서 스마트폰 소지율이 더 높다



### 스마트폰 소지율: 모바일 단절 수준

휴대전화 혹은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성인비율(2018년 기준, 단위: %)\*



\*선별된 국가에 한함.  
 출처: Pew Research Center

statista

자료: Johnny Wood, "These are the countries where most adults still don't have a smartphone," February 27, 2019, <<https://www.weforum.org/agenda/2019/02/two-thirds-of-the-world-s-adults-still-don-t-have-a-smartphone/>> (Accessed June 8, 2021)의 자료를 필자 번역.

이는 IT 초연결 환경과 스마트워크 등 모바일 테크놀로지와 사회적·경제적 생활의 맥락이 결합하면서,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중요한 노동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과도 맞아 있는 현상으로, ‘초연결 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라는 지구적 현실의 보편성이 한국 사회의 여러 경제적·문화적 압력 요인과 결합하면서 만들어낸 현실임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sup>55)</sup> 덧붙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통계 리포트에 따르면 여기에 장·노년층의 스마트폰 보유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sup>56)</sup> 스마트폰의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sup>57)</sup> “컴퓨터는 안 써도 스마트폰은 쓰고 싶다는 어르신들이 많다 ... 자식이나 손주들과 카카오톡을 하거나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삶의 재미를 느끼신다. 고령층 사이에서 거의 열풍이 불고 있다”<sup>58)</sup>는 한 정보화 교육 전문가의 인터뷰는 모바일

55) 이러한 모바일 압력은 스마트폰 사용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사용 비용을 고려했을 때도 그렇다. 매년 전 세계의 모바일 데이터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 영국의 통신회사 cable.co.uk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모바일 데이터 가격은 1GB 당 20달러 이상으로 평균 가격인 10.9달러의 두 배를 넘어 조사대상 228개국 중 202위로 모바일 데이터 가격이 가장 비싼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인터넷과 와이파이가 땅의 인프라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데이터 비용의 부담이 강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Cable.co.uk, “Worldwide mobile data pricing 2021, The cost of 1GB of mobile data in 230 countries,” (<https://www.cable.co.uk/mobiles/worldwide-data-pricing>) (Accessed October 28, 2021).

56) 보고서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3년 3.6%에서 2018년 37.8%로, 같은 기간 6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19.0%에서 80.3%로 늘었다고 한다. 정용찬, “호모 스마트폰니쿠스”, 세대별 진화 속도, p. 3.

57) 조사에 따르면, 무선 네트워크 설정과 앱 설치를 전혀 할 수 없다고 답한 장·노년층이 각각 35.1%, 41.0%로 평균의 3배 수준이었으며, 악성코드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장·노년층 응답자는 절반을 넘었다고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8.12.,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mid=99&mPid=74&pageIndex=1&bbSeqNo=79&nttSeqNo=1622272&searchOpt=ALL&searchTxt=%EB%94%94%EC%A7%80%ED%84%B8+%EC%A0%95%EB%B3%B4%EA%B2%A9%EC%B0%A8+%EC%8B%A4%ED%83%9C%EC%A1%B0%EC%82%AC>) (검색일: 2021.8.24.).

58) “고령층 스마트폰 보유율 늘지만... 실제 활용까진 높은 ‘문턱’,” 『경향신문』, 2019.9.1

테크놀로지의 필요성이 한 사회의 지배적 관계 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경제, 노동, 인간관계, 친밀성, 세대문화, 여가, 감정 등 전방위적인 삶의 영역과 인간적 층위에 연루되면서 그 필요성이 다양한 맥락으로 생성되고 일상을 새롭게 재편하는 강력한 사회-기술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케 한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보유, 사용, 의미와 역할 등은 한 사회의 모빌리티 구조가 강제하는 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힘이 특유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결합하면서 차이를 생성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59)</sup>

이러한 점에 비춰봤을 때, 북한에서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기능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은 ‘비즈니스와 관련한 연결’이라는 생계상의 필요성, 지배적인 관계문화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집단주의, 경제적 외양을 중심으로 한 체면·시선의 문화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주민의 휴대전화 보유 동기에 대한 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갖고 있거나 대응하는 것은 세련되었다”, “휴대전화를 갖고 있거나 대응하는 것은 호감이 간다”, “휴대전화를 갖고 있거나 대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돋보이게 한다” 등의 항목에 ‘매우 그러함’의 응답이 가장 높이나왔고, “휴대전화 품질을 신뢰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평가가 나왔다.<sup>6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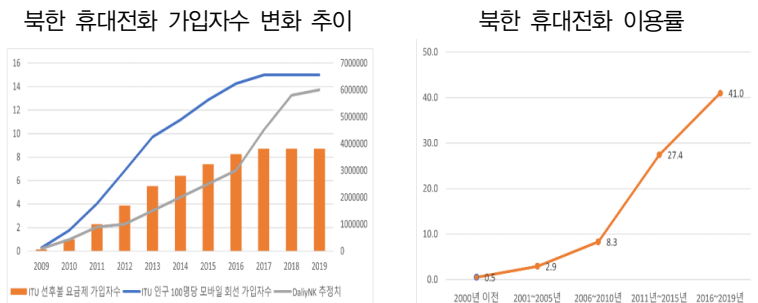
3.,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9131328001#csidxdda992f02b39bb5bd11bf879bbb75b2>> (검색일: 2021.8.24.).

59) 선진국에서 가장 예외적인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의 경우는 원거리 야생지역의 낮은 연결성이라는 지리적 요인이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Johnny Wood, “These are the countries where most adults still don’t have a smartphone.”

60) 배중수, “북한 이동통신 및 휴대전화 사용실태 연구,” pp. 35~39.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특정한 요인이 작용하기보다는 여러 요인과 맥락이 중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은 휴대전화 사용자 수의 연도별 증가 추세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아래 <그림 II-2> 그래프에서도 나타나듯이 휴대전화 사용자수는 2000년대 중반의 초기 보급기간을 제외하고는 특정한 국면 혹은 기간에 급증하기 보다는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정확한 해석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휴대전화 보유가 성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는 숫자만큼 누적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sup>61)</sup> 또한 특정 시기나 기간에 휴대전화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은 새로운 기술적 요소의 등장이나 휴대전화 사용자 수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I-2> 북한 휴대전화 가입 및 이용 현황



주: 좌측 그림의 단위는 인구 100명당 가입자수(좌측), 휴대전화 가입자수(우측), 우측 그림의 단위는 휴대전화 이용률(%).

자료: ITU; 『Daily NK』; 『YTN』; 통일부, 『북한의 경제사회상 변화 실태』, 재인용: 손광수, 『북한 주민의 전화돈 활용 사례 연구』 (KB 북한연구, 2020.11.27.), p. 4. <<https://www.kbig.com/kbresearch/report/reportView.do?reportId=2000127>> (검색일: 2021.6.8.).

61) 북한에서도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나 아직 유의미한 데이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한국에서처럼 장·노년층의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스마트폰 사용 비율을 끌어올렸던 것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기존에 구축된 유선전화의 수요가 한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는 점도 고려해볼 수 있다.<sup>62)</sup> 또한, 공식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 1대로 묶여 있고 기본요금 이상의 추가요금을 내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명 가입 형태로 2~3대를 사용하는 주민들도 상당수 존재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규모와 실제 사용자 규모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 다. 모바일 환경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

북한은 휴대전화 사용자 수 증가 요인과 사용 맥락의 측면에서 한국, 중국, 아프리카 등과 일정한 접점과 차이를 동시에 보인다. 한국은 체면이나 사회적 지위 등 집단과 타인의 시선을 강하게 의식하는

---

62) ITU와 UNICEF MICS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북한의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118만 회선, 전국 기준 46%로 2007년 이후 변화가 없다”고 하여 늘고 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줄고 있지도 않다. 여기에 북한 당국은 “유무선 통신을 통합하고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유선통신 고도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ITU statistics Country ICT Data: Fixed-telephone subscriptions, <[https://www.itu.int/en/ITU-D/Statistics/Documents/statistics/2021/July/FixedTelephoneSubscriptions\\_2000-2020.xlsx](https://www.itu.int/en/ITU-D/Statistics/Documents/statistics/2021/July/FixedTelephoneSubscriptions_2000-2020.xlsx)> (Accessed October 28, 2021); UNICEF,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DPRK*, 2018 <<https://www.unicef.org/dprk/media/156/file/MICS.pdf>> (Accessed October 28, 2021), 재인용: 서소영, “북한 ICT 정책동향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 제30권 18호 (2019), pp. 6~7.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에 따르면, 유선전화와 전자카드를 연계해 전화요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전성》카드에 의한 유선전화료금지불체계 확립”, 『조선의 오늘』, 2019.8.23. 장사에서도 휴대전화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유선전화의 활용도가 그에 비례해 감소하지는 않는 것 같다. 전국 각지에 거래 대방을 두고 장사를 했던 혜산 출신의 사례 15의 구술에 따르면, 지방의 휴대전화 기지국 인프라 미비에 따른 연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거래와 관련한 중요한 통화는 집의 유선전화로 했으며, 유선전화에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에게도 요금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도 장사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고 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여전히 장년 이상의 세대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수요가 매우 낮다고 구술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고유한 문화가 모바일 생활세계의 풍경을 구성하는 데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국 등은 자유로운 정보 접근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한 기술적·정치적 통제가 가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아프리카는 지역 및 도시-농촌 간의 인프라 격차와 제도의 불확실성에 따른 비공식적인 사회경제적 실천이 매개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모바일 생활세계와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과 이들 사회 간에는 중대한 차이도 존재한다. 우선, 한국과 중국, 아프리카 등에서 공통적으로 문자 기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데 비해 북한에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 주고받기(texting)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위로부터 기술적인 제약의 문제가 있고, 아래로부터도 매우 낮은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즉, 북한의 모바일 생활세계는 모바일 확산에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의미, 관행 등 다양한 요소들과 더불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제약(구조, 기술)과 적응(행위, 사용)’이라는 이중적 운동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공식 문헌에서도 이동통신이 일상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다층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연구』의 한 논문은 북한에서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스마트폰이 급속히 보급되어 주민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보통신기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단순한 통신수단으로부터 통신, 다매체열람, 오락, 인터넷, 금융, 결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기술기재로 전화시킴으로써 사회문화생활과 금융, 유통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sup>63)</sup> 그러나 공식 매체의 이러한 인식 및 평가와 달리 실제 모바일 환경이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통제와 제약 상

63) 리유정, “이동통신망을 리용한 주민금융봉사를 활성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2018년 2호 (2018), p. 42.

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다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여기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통제와 제약 자체보다는, 그러한 통제와 제약이 독특한 제도, 절차, 물질 등 비인간 행위자들을 통해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비인간 행위자들은 인간 행위자들과 결합하면서 통제와 제약을 교란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생산해낸다.

이른바 ‘전화돈’은 그러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화돈’은 분기당 결제하는 요금 3,000원으로 제공되는 월 200분의 음성통화와 월 20개의 통보문(단문메시지)에 덧붙여주는 150원의 충전금액으로, 기본 통화와 메시지를 소진할 시 추가로 구입해 사용하라는 의미의 크레딧(credit)라고 할 수 있다. 이 충전용 요금은 휴대전화 가입자 간에 전송할 수 있고 이를 봉사소(대리점) 등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데, 이를 북한 주민들이 일종의 화폐처럼 사용하게 되면서 ‘전화돈’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sup>64)</sup> 전화돈은 휴대전화의 보급이 비공식성과 만나면서 급속히 확산된 교환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분기요금 3천 원을 선불한 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경우(150원)<sup>65)</sup>와 봉사소(대리점)에서 충전용 전화카드를 구매하는 경우 생성된다. 공식적인 은행제도에 대한 열악한 접근성, 몰수형 화폐개혁의 경험에 따른 은행 기피 경향 등으로 인해, 전화돈은 주민들이 스스로 형성한 간편 결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

64) ‘전화돈’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손광수, “북한 주민의 전화돈 활용 사례 연구,” (KB 북한연구, 2020.11.27.), <<https://www.kbfg.com/kbresearch/report/reportView.do?reportId=2000127>> (검색일: 2021.6.8.), ‘전화돈’과 ‘이관집’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모바일 거래에 관한 연구로는, 최선경,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과 시장 활동에서의 ‘신뢰’ 네트워크,” pp. 7~40.

65) 기본요금인 3,000원이지만 실제 지불되는 금액은 2,850원인 것이다. 탈북자 인터뷰에 의하면 처음에는 이 150원의 존재를 모르는 주민들도 많았다고 하며, 이후에 150원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통화 외에 송금의 용도로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터뷰이도 왜 이런 150원을 제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메커니즘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다.<sup>66)</sup> 흥미로운 것은 아프리카에도 북한의 전화카드와 거의 흡사한 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sup>67)</sup> 이는 선불제 서비스 방식이 개발도 상국에서 특히 집중되는 현상과 관련된다. 초창기 중국, 필리핀과 남미, 그리고 특히 아프리카에서 선불제 방식은 약정 가입을 위한 “신용 조회나 안정적인 주소, 이동전화를 구매할 고정 수입원 없이도 이동전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저소득 집단의 모바일 접근성을 높여주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사업자가 과금을 위해 고객 정보를 계속 추적해야 하는 것에서 오는 어려움” 등이 선불제 방식의 확산 요인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는 선불 시스템의 편리함과 접근성을 매개로, 보편적 접근성의 보장, 요금 청구와 징수 체계 및 서비스 질 보장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없애고 각종 손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불공정한 방식이기도 하다.<sup>68)</sup>

66) “북한판 핀테크 ‘전화돈’ 유행 … 간편 송금·결제도 가능,” 『Daily NK』, 2019.1.15., <<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D%8C%90-%ED%95%80%ED%85%8C%ED%81%AC-%EC%A0%84%ED%99%94%EB%8F%88-%EC%9C%A0%ED%96%89-%EA%B0%84%ED%8E%B8-%EC%86%A1%EA%B8%88%C2%B7%EA%B2%B0%EC%A0%9C%EB%8F%84/>> (검색일: 2021.10.28.).

67) 선불 방식이 가장 인기가 높다고 알려진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북한과 유사하게 선불 전화카드가 현금화되어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모바일 머니가 가장 활발한 “동아프리카에서는 길거리 가판대, 상점, 미용실 등이 선불 이동전화 카드를 재판매하는 중개업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카드의 가격은 약 4.8달러로 일부 국가에서는 거의 일주일치 임금에 해당”하며 “이 시스템은 거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고 한다. 마누엘 카스텔 외 지음, 김원용·성혜령 옮김, 『이동통신과 사회』, p. 132.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2019.2.10. 방송분)에서도 북한의 뇌물수수 형태로 새롭게 등장한 ‘전화돈’에 대한 탈북자들의 설명 과정에서 가나 출신 페닐이 가나에도 거의 동일한 형태의 충전용 전화카드가 존재한다고 밝힌바 있다.

68) 마누엘 카스텔 외 지음, 김원용·성혜령 옮김, 『이동통신과 사회』, pp. 131~134, pp. 422~423.

〈그림 11-3〉 ‘고려링크’의 전화카드



자료: 백승규, “北 주민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변혁의 수단이 될 것인가?,” 『월간조선』, 2014년 2월호. <<http://pub.chosun.com/client/news/print.asp?cate=C01&mcate=&nNewsNum=20161222266>> (검색일: 2021.10.28.).

기본요금에 충전되는 북한의 전화돈은 그 액수가 크지 않고 현금 화하기엔 번거로운 측면이 있어 주로 군대에 나간 자녀나 친구,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충전용 전화카드의 경우는 충전금액의 폭이 비교적 다양하고 상한선도 높아 최근에는 뇌물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sup>69)</sup> 또한 전화돈(전화카드)을 대량 매입해 체신소나 봉사소(대리점)로 나가기 어려운 이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장사하는 ‘돈주’들과 ‘돈 장사꾼(사금융업자)’들이 성행하기도 했으며, 이에 대응해 지난해 북한 당국은 송금 가능 인원과 일일 송금액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sup>70)</sup>

69) 전화카드가 뇌물의 유용한 수단이 된 것은 은밀하게 전달할 수 있는 카드라는 사물성에 기인한다고 한 평양 출신의 탈북자는 말하기도 하였다. TV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 방영중, 이진민CP, 채널A, 2019.2.10. 방송분.

70) “최대 5000달러 손해 ... 전화돈 매매 금지에 돈주들 ‘패닉,’” 『Daily NK』, 2020.10.19., <<https://www.dailynk.com/20201019-2/>> (검색일: 2021.10.28.); “전화돈 매매 금지, 주민에도 ‘불똥’... ‘충전 카드 무용지물,’” 『Daily NK』, 2020.10.21., <<https://www.dailynk.com/%EC%A0%84%ED%99%94%EB%8F%88-%EB%A7%A4%EB%A7%A4-%EA%B8%88%EC%A7%80-%EC%A3%BC%EB%AF%BC%EC%97%90%EB%8F%84-%EB%B6%88%EB%98%A5-%EC%B6%A9%EC%A0%84-%EC%B9%B4%EB%93%9C-%EB%AC%B4%EC%9A%A9/>> (검색일: 2021.10.28.); “북한이 갑자기 전화돈 사용 중단시킨 이유,” 『RFA』, 2020.11.6.,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bd81d55c-itc640-acfcd559ae30c220/sciencetech-11062020019134.html](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bd81d55c-itc640-acfcd559ae30c220/sciencetech-11062020019134.html)> (검색일: 2021.10.28.).

한편, 사례 3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이 수립되자마자 휴대전화에 대한 일련의 ‘재등록’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 휴대전화 ‘재등록’ 사업은 증대하는 일상의 모바일 실천에 대응한 당국의 안정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민반이라는 사회적 조직, 포고문이라는 문서, 체신소와 정보교류센터라는 관료적 기구, 재등록의 테크놀로지, SD카드, 우회 정보들, 기지국 등 인프라, 소유권 제도, 등록 명의, 불법프로그램, 휴대전화 중고판매업자 등 다양한 인간-비인간의 행위자들이 얽히면서 안정화의 장치는 또다시 교란되기도 한다. 구술자에 의하면, 모바일 일상에 대한 안정화 정책은 늘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부분적으로 실패하는데, 그것은 바로 제도와 기술, 인간과 정보가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에 따른 명의대여의 확대는 휴대전화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를 특정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게 하며, 또한 재등록 이후 휴대전화의 잦은 고장과 먹통 사례는 대안적 기술과 중고폰 판매업자의 확산을 가져오기도 한다. 여기에 요금체계와 회선 — 고려링크와 강성네트<sup>71)</sup> — 이 개입된다. 구술자(사례 3)는 고려링크를 사용하는 의사와 강성네트를 쓰는 한 주민 간에 벌어진 일화를 소개해주었다. 먼저 도입되었던 고려링크의 경우 수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성네트의 경우, 해당 서비스 사용자가 고려링크 사용자에게 발신 시 수신자에게도 요금을 부과하는 비합리적 요금체계를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강성네트를 사용하는 주민이 자신의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고려링크를 사용하는 의사에게 긴급히 전화를 했지만 잔여 무료 통화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던 의사가 강성네트로부터 걸려온 전화 수신을 거부함으로써 환자가 사망에 이른 적이 있다고 한다.

71) ‘고려링크’와 ‘강성네트’에 대한 세부내용은 본 연구총서 pp. 53~54를 참조.

북한의 모바일 생활세계를 둘러싼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효과들에 대해 ‘사회물질성’이라는 관점은 유의미한 시각을 제공한다.<sup>72)</sup> ‘사회물질성(sociomaterial)’은 다양한 비인간의 물질적 요소들 또한 동등한 행위성(agency)을 지닌 것으로 보며, 특히 인간을 포함한 특정한 행위자에게 특권적인 영향력이 부여되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즉, 모바일 생활세계의 구조와 관련해 당의 포고령이나 정책적 의지, 절차는 물론 요금체계와 회선, 소유권, 등록 명의 등이 그 행위성이 미리 제약되거나 과장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한 개별 요소의 지배적 영향력의 관철이 아닌 이들 상호 간의 결합을 통한 인과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개별 요소들의 행위성은 자체의 속성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사회-물질적 연결들 ‘속에서’ 새롭게 생산되며 변화된다. 따라서 모바일 일상에 개입되는 제약과 통제를 분석하는 과정은 국가, 정책적 목표, 의지 등 특정한 인간적 요소들을 특권적이고 지배적인 상수로 전제하는 것을 넘어, 물질성의 차원과 사회성의 차원이 서로 얽혀 들어가는 의도하지 않은 인과성의 효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의 확대와 함께 모바일 생활세계를 둘러싼 제약의 조건이 휴대전화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하면서 그러한 제약이 모바일 실천을 구성하는 특정한 적응의 양상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72) ‘사회물질성’의 관점과 방법론적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Elton Oliveira de Moura and Marcelo de Souza Bispo, “Sociomateriality: Theories, methodology, and practice,” *Canadian Journal of Administrative Science*, vol. 37, no.3 (2020), pp. 350~365.

## 4. 개인 모바일 실천과 정체성 재구성<sup>73)</sup>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휴대전화가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휴대전화라는 기기 자체가 결정한다기보다는, 기기를 통해 기성의 문화가 강화되거나 잠재된 욕망이 기기를 통해 발현되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도 휴대전화 확산이 지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들 그리고 확산과 함께 제약으로 작동하는 조건들은 서로 밀접히 맞물리면서 북한 주민의 모바일 생활세계를 구성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회학적·미시적 연구의 주목 지점과 한국, 중국 및 아프리카 사회의 휴대전화 사용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참조해, 북한 사회에서 휴대전화를 매개로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 혹은 지속성, 모바일 기술이 매개하는 사회변동의 가능성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 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통화와 대면 중심의 저맥락 문화

모바일 기반의 사회적 관계는 개인화된 기기로서의 휴대전화가 기존의 사회적 관계, 혹은 사회성의 규범에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 사회마다 상이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중국과 일본 같은 사회에 대한 분석은 문자 기반 소통이나 연결성 등 휴대전화의 기술적 역량이 기성의 사회질서와 규범에 강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실천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sup>74)</sup> 휴대전화는 기존의 유선전화 기반 혹은 대면 관계 기반의 커뮤니케이션과 대화의 문법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오

---

73) 녹취록 인용문 내의 대괄호(())는 필자의 질문, 소괄호(())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첨언한 것이며, 밑줄은 필자가 강조하는 내용임을 밝혀둔다.

74) 마누엘 카스텔 외 지음, 김원용·성혜령 옮김, 『이동통신과 사회』, pp. 182~192.

랜 기간 누적된 공적 소통의 문화와 기존 유선전화 기반 대화에 대한 끈질긴 감각은 모바일 기반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소통 양식의 출현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이는 북한에서 문자 기반 메시지 교환의 정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휴대전화가 지닌 장소 구속성의 탈피와 위장의 가능성으로 인해 기존의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을 자율적으로 단절 혹은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제약과 새로운 열림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적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통해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축소, 재편시키기도 한다.

한국은 물론 중국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등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의 증가와 함께 문자메시지의 활용도는 날로 높아져 왔으며, 이러한 문자 기반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개인과 집단,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에 비해 기술자들은 공통적으로 북한 사회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용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또한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직 ‘고려링크’ 기술자는 2015년 인터뷰<sup>75)</sup>에서 다음과 같이 다른 문화권과 북한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문화 간의 차이를 소개하고 있다. 길지만 인용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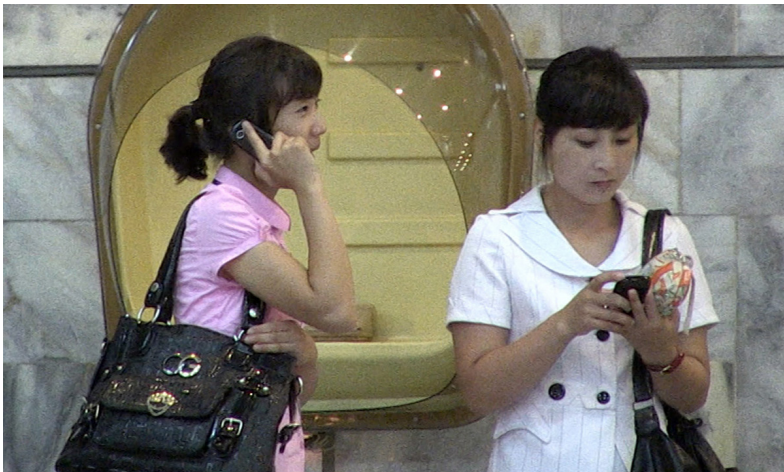
북한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장시간 대화하고 서로 자주 전화

---

75) 실제 북한에서의 근무 기간은 2011~2013년으로 최근의 동향을 전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북한의 통신망, 전직 고려링크 기술자 인터뷰,” 『NK News』, 2015.8.20., <<https://kr.nknews.org/%EB%B6%81%ED%95%9C%EC%9D%98-%ED%86%B5%EC%8B%A0%EB%A7%9D-%EC%A0%84%EC%A7%81-%EA%B3%A0%EB%A0%A4%EB%A7%81%ED%81%AC-%EA%B8%B0%EC%88%A0%EC%9E%90-%EC%9D%B8%ED%84%B0%EB%B7%B0/>> (검색일: 2021.10.5.).

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내가 관리했던 네트워크 이용자 수가 그것을 말해주는걸요. (중략) 평균적으로 90초가 넘는 시간 통화를 하더군요. 후불이 아니라 선불 휴대전화를 그 정도 이용한다는 것은 이동통신 사업자 측에서 봐도 꽤 장시간입니다. (중략) 북한의 전 인구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가입한 방글라데시의 이동통신 회사에서 4년간 일했을 때, 사람들은 선불카드를 이용해 평균 30초에서 35초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중략) 제가 북한에 살면서 느낀 것은 그쪽 사람들은 좀 감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다시 전화를 걸겠다’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사람들과 달리 북한 사람들은 통화 시에 항상 의례적인 감사 인사 등을 길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sup>76)</sup>

〈그림 11-4〉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북한 주민



자료: “휴대전화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 『연합뉴스』, 2013.8.21.

76) 위의 기사.

앞서 설명했듯이 작년에 당국이 돈주와 사금융업자들의 ‘전화돈’ 대량 매입을 통한 장사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했을 정도로 충전용 전화카드의 수요가 높은 것을 보면 북한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통한 통화량이 적지 않다는 점은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평양에서 탁구장 운영, 제과점 투자, 휴대전화 거간 등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휴대전화 3대<sup>77)</sup>를 사용하고 기본 요금제 외의 추가 요금을 상당 비용 사용하는 등 휴대전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비용에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 구술자의 경우에도 문자 메시지의 사용은 매우 낮선 것이었다. 한국에 와서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문화를 접하면서 어땠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구술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곧바로) 그게 적응이 안돼요, 완전히 적응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카톡이라는 게 무료로 되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이 카톡을 많이 하잖아요, 요금이 싼 걸 쓰면서. 그런데 북한은 그런 게 없으니까, 메시지 같은 거는 완전 적게 사용하고요, 통화를 기본(으로) 하죠. 메시지 같은 거 사용할 때는, 북한에서 거래를 할 수 없는 물품을 거래를 한다 할 때는 통화를 하게 되면 녹음이 되잖아요. 근데 메시지 같은 거는 그 메시지 창만 녹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암호 식으로 ... 북한에서는 술도 개인이 못 만들잖아요. 술을 술이라고 말 안 하고 술을 예를 들어 비누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술 한 병을 비누 한 개, 이렇게 상대방이랑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는 많이 사용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도 카톡을 많이 사용 안 하거든요, 통화만 계속 하고. (웃음). (사례 18)

문자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상대적 부재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77) 스마트폰 1대, 장사 용도로 사용한 타인 명의의 일반전화 2대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 구술자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문자로는 잘 교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도 목소리를 들어야 정서적 느낌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해서, [그건 개인적 성향일까요, 주변에도 비슷한 문화인 거 같나요?] 문자도 훈련이 필요한 거 같아요. 나의 마음을 몇 글자로 써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통화가 편한 거 같아요. 주변에도 문자를 그렇게 주고받고 하진 않았던 거 같아요. (사례 17)

‘ㅋㅋㅋ’ 이런 거 ‘ㅎㅎㅎ’ 이런 거 안 하고 문자 제한이 있어가지고 길게 한 번에 보내고, 한 번에 오는. 정말 제가 우체통에 편지 부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에 다 답는 것 같아요. (사례 15)

평양 출신의 구술자는 특정한 기술이 창출하는 문화의 역할이 부재한 현실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는 위 구술자가 말한 문자를 통한 “교감”의 차이가 생성되는 것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문자메시지 자체가 새로운 정서적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런 문화가 없어서 그런 거죠. 북한에서도 아마 카카오톡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아마 문자메시지를 많이 사용할 걸요? 그런데 통화하는 거랑 통보문(문자메시지) 쓰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통화하는 걸 많이 사용하죠. 통화하는 거는 분당 4원 20전인데요,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통화하는 게 낫죠. (중략) 친구들한테 보낼 때는 가끔 써가지고요, 항상 무료 통보문은 스무 개 들어오잖아요. 그럼 통보문은 거의 버릴 때가 많았죠. (사례 18)

구술자가 말하는 “문화”라는 표현은 음성 통화 시 사용하는 구어와

문자텍스트 사이의 형식적·내용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국이나 여타 문자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한 모바일 문화권에서의 다양한 기호의 교환이 북한 사회에서는 매우 낮설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어 소통과 다른 특별한 형식과 정서적 질감의 차이를 생성하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굳이 사용해야 할 이유는,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발달할 동기가 약하다는 것이다.

‘MMS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경우에는 주로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 메시지를 재미삼아 보내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

[통보문(문자메시지) 무료 20건이 남는 게 아깝진 않았나요? 그래도 그냥 소멸시키고 쓰지 않았나요?] 그럴 때는 그냥 친구나 여자 친구 혹은 ‘여사친’들한테 막 그냥. (웃음) [그럴 땐 어떤 내용을 보내곤 했나요?] 아 그게, 카카오톡에 보면 문자에 이모티콘에 다 해서 보낼 수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한국시(詩)에다가 배경음악 깔고 한국 애니메이션 같은 게 막 흘러요. 그런 문자메시지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북한에선 다매체통보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많이 썼죠. (중략) 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하고 관련된 (삼행시) 같은 거였고, 그냥 재미, 재미로 보내는 거였죠. (사례 18)

공개된 대면 공간이나 공동체적 차원의 오락이라는 집단적 낭만과 그와 연관된 형식화 된 감정 표명의 문화는 상대적으로 발달한 데 비해, 문자 기반의 사적 감정 표현과 교환은 세대를 불문하고 낮은 체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신의 사적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보다는 한국 드라마라는 외부 문화에서 만들어진 감정의 기호를 교환하는 간접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흥내를 많이 냈던 거 같아요. 한국 드라마 보고. (사례 17)

‘다매체통보문(MMS)’을 한 번 사용할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20건의 단문메시지(SMS) 중 5~6건이 소멸된다고 한다. 그만큼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조금은 더 사용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처럼 기성화된 다매체통보문을 ‘재미로 보내는 것’ 이상의 문자메시지만이 지닌 고유한 기호 생성과 교환을 통한 세대만의 정서적 교감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술자는 한국과 북한의 문자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했다.

한국에 와선 놀란 게 한국 애들은 전화는 안 받고 그러는데 카톡 같은 메시지는 겁나게 빨리 답하더라고요. (웃음) (사례 18)

물론 문자메시지 사용의 활용도가 높은 경우가 없지는 않다. 예컨대, 친구 관계에서 전화돈 송금을 빈번히 요구하면서 전화를 거는 경우 수신 거부 의사를 표명할 때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소위 “썸을 타는 관계”나 헤어진 연인이 재회했을 경우 어색한 분위기를 음성으로 표현하기 힘들 때 숫자 등으로 쑥스럽거나 모호한 감정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삐삐’ 등이 사용되던 시기 숫자로 감정을 기호화하던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호화된 메시지의 모호함은 친밀성의 정도에 대한 판단과 선택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북한에 다매체통보문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로 말하면 동영상 통화 같은 게 있었어요. [영상통화?] 네, 영상통화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영상통화 호출할 때 밑에다가 숫자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영상통화

호출 받을 때 보면 거기에 숫자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게 되면 그 사람한테 돈이 나가는데 그래서 신호 한 번 딱 보내고 끊어버리거든요. 그럼 숫자를 보고 (받을지 말지) 해석을 하는 거죠. (중략) (문자메시지) 암호 사용은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하죠. 남자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말하고. (사례 18)

한국에 온 지 6년이 넘어가는 구술자는 아직도 한국에서의 문자 기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당황스러워요. (웃음) 저 아직도 이모티콘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요. 이모티콘을 봐도 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될 때 그냥 전화를 해요. (사례 17)

구술자가 비교적 내향적이고 깊은 대화를 좋아하는 성향이기에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에서 특정한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정서 혹은 마음의 교류와 공감 방식의 차이가 이데올로기나 다른 사회경제적 차이보다 심대한 영역일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sup>78)</sup>

북한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양식은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한편으로는 감시사회하에서 저축되지 않을 다소 건조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간단히 나누거나 완전히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간의 일상적인 우정과 친밀성을 교환하는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이원화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sup>79)</sup>

---

78) 이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권위주의나 자유주의와 같은 체제 수준의 차이보다는 사회발전 수준과 같은 문화의 시차적(時差的) 차이일 가능성도 있다. 필자는 중장년 세대의 지인들에게 북한의 노래를 들려줄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노래의 정조와 풍(mood)에 옛날 정서가 많이 묻어 들어가 있어 복고적 향수를 자극한다는 반응을 보여주곤 했다.

휴대전화 사용하면 비밀이 없다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들은 암호를 사전에 정하여 통화하거나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집의 집 전화를 사용하곤 하였습니다.<sup>80)</sup>

사례 15의 증언은 이를 잘 요약해 주고 있다. 구술을 요약하면, 검열의 위험 때문에 가급적 문자메시지는 남기지 않되, 문제 될 소지가 없는 경우 정보량을 충분하게 전달한다. 그리고 간혹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MMS’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즉, 중국 같은 위계와 유연성 중심의 고맥락 문화에서 나타나는 메시지 교환의 모호성과 높은 맥락성보다는 정보량이 분명하거나 암호화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안면 관계 중심의 통화 혹은 대면 만남을 통해 직접적인 일상적 교감을 나누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sup>81)</sup>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문화적 차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기술과 사회적 맥락의 상호 구성적 측면을 고려한 더 면밀한 양적·질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sup>82)</sup>

79) 최선경(2021)의 연구에서 진행된 초점집단인터뷰에서도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휴대폰으로는 간단한 통화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중요하거나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는 대면 소통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경,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과 시장 활동에서의 ‘신뢰’ 네트워크,” pp. 32~33.

80) 북한이탈주민 인터뷰(21번 응답자), 재인용: 배종수, “북한 이동통신 및 휴대전화 사용실태 연구,” p. 49.

81) “20년간 28회 북한을 방문해 80여명의 대남 사업가들과 100차례 이상 협상”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북한 전문 프로듀서가 자신이 만난 북한 사업가들의 태도와 의식구조, 소통문화 등을 관찰, 기록한 르포르타주에서는 수직적이며 도구적인 관계, 공적 의례의 언어와 내밀한 안면 관계의 소통이 명확히 이원화 된 특징들을 소개한 바 있다. 오기현, 『북한 사람과 거래하는 법: 84년생 김정연과 장마당 세대, 그리고 욕망의 도시 평양 실전 매뉴얼』 (서울: 한겨레출판, 2019), pp. 78~79.

82) 이재현(2004)은 월터 옹(Walter Ong)과 스몰(Small) 등의 논의를 빌려, ‘모바일-텍스트 문화의 확대를 ‘2차적 문자성(secondary literacy)’이라고 명명하면서, 문자 이전의 ‘1차적 구술성(orality)’ → 인쇄술의 발명과 보급 이후의 ‘문자성(literacy)’ → 라디오 및 전화, 텔레비전의 등장에 따른 ‘2차적 구술성(secondary orality)’ 이후 등장한 ‘구술적 문자성’의 구현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2차적 문자성’은 “내용 이상의

## 나. 모바일 구별 짓기: '포장된 개성'과 과시의 조절

휴대전화는 하나의 개인화 된 기기이자 액세서리, 패션이자 경제적·사회적 정체성의 표식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기기의 개인화는 집단주의적 시선의 문화 속에서 제약을 받으며, 변화하는 사회적 시선과 하위 규범의 변화에 따라 휴대전화를 매개로 한 퍼스널리티의 표현도 변화한다.

앞서 세계 주요 나라의 휴대전화 사용자 중 스마트폰의 비율을 분석한 한 통계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한 사회의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체제, 선진국과 후진국 같은 경제적 발전수준의 차이로 환원되지 않으며, 사회적, 지리적, 문화적, 인문적 요인들에 따라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장사나 비즈니스에서의 필요성, 혹은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습득의 기술적 도구로서의 기능적 장점 이외에도 휴대전화라는 사물이 하나의 문화적 기호이자 상징으로서 강하게 의미화 되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휴대전화를 갖고 싶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 구술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었던 거 같아요. 한국 드라마에서 휴대폰 쓰는 모습 보면서, 연애하는 모습들. 뭔가 휴대폰을 가지면 거기서 보는 한국처럼, 드라마처럼 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웃음) (사례 17)

휴대전화가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되기 전에 하나의 '마술적 힘'을 지닌 사물과도 같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특정한 기술적 객체

---

가치", "언어적 창조성"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런 개념화에 비춰, 북한 사회에서는 아직 정보량 너머의 창조적 의미 구현의 실천들이 낮은 상태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재현, 『모바일 미디어와 모바일 사회』, pp. 72~73.

가 도구적 기능의 차원을 넘어서 특정한 문화권 내로 진입하는 ‘상징’으로서 강하게 의미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휴대전화를 하고 싶은 건 선진적인 문화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지 않았나 싶어요. (사례 17)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한에서 휴대전화는 기능적 대상을 넘어 부의 상징이자, 사회적 지위, 나아가 문화적 위치를 표현해주는 사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아래 구술은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런 말이 있는데, 집 재산을 팔아서라도 휴대폰을 장만하다고 하거든요. 스마트폰은 밖에 나가서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집 재산은 보여줄 수가 없는데. 그리고 10대, 20대 사이에서 연애를 할 때 스마트폰은 필수예요. 스마트폰을 어떤 기종을 쓰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나뉘고요. [그런데 그게 형편보다 무리해서 샀을 수도 있고, 객관적인 경제 수준을 말해주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제 주변을 보더라도 스마트폰을 쓰거든요? 그런데 땡전 한 푼 없이 다니는 거죠. (사례 18)

여기는(한국) 휴대폰 기종이 뭔지 관심을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을 안 가지게 되고, 오로지 본인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라면 북한에서는 좀 보여주기 식으로 가지고 다니는 같아요. (사례 16)

사례 18의 증언은 북한 사회에서 휴대전화가 일종의 ‘외양’과 ‘첫인상’의 일부로서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성을 갖는 문화적 자본임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자본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구별되거나 배제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처럼 휴대전화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를 넘어 퍼스널리티의 연장이자 부착물이고 액세서리이다. 휴대전화의 액세서리로 기능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 것 같느냐는 질문에 구술자(사례 18)는, “100프로죠, 그냥”이라고 대답하였다.

한국에서 고급 핸드백이 그런 것처럼 정체성의 표식이자 과시적 액세서리로 부착된다고 하며 이에 따라 관련한 부가적 상품들도 확산한다. ‘휴대전화의 액세서리화’를 통한 과시는 청소년이나 20대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주로 중국에서 수입한 포켓 등을 팔이나 허리에 두르고 다니면서 휴대전화 줄이나 고리 등을 노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 액세서리화는 과시의 욕망과 그에 따른 기능적 필요,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유형 등이 서로 결합하면서 나타난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휴대폰 백이 진짜 많이, 다양하게 나왔어요. 팔에다 찰 수 있거나 운동할 때 쓰는 그런, 그런 게 많았어요. 진짜 예쁘게 다양하게 나와서 많이 하고 다녔어요. (사례 17)

휴대전화는 신체의 부착물로서 개성을 표시하는 문화적 계기가 되었다는 논의들이 많이 등장한 바 있다. 그러나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많이 등장했던 표현의 문화는 개성의 표출이라기보다는 또래 문화의 유행에서 처지기를 거부하는 세대 특유의 감성을 표현하는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미리 포장된 개성’<sup>83)</sup>의 의미를 지니는 이러한 표현 양식은 자신만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이지 않은’ 것을 공유하는 또래 문화를 생성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하겠다. 이는 외부문화에 대한 갈증이 남들과 다른 것

83) 마누엘 카스텔 외 지음, 김원용·성혜령 옮김, 『이동통신과 사회』, p. 313.



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누적된 아비투스과 결합하면서 공존하는 양상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돌아다니는 거) 벨소리 다운받아서 쓰는 애들도 있었고. 피아노 소리 같은 거, 아니면 한국 노래인데 멜로디만 나오면 모르니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편곡도 했다던데?] 편곡 많이 하죠. 누가 한 명 했는데 듣기 좋다고 하면 다 똑같이 따라 한다거나 그렇게, 북한에서 개성을 표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 단속도 많이 걸리는데 괜히 이상한 거 했다가는. (웃음) (사례 17)

그러나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시할 수 있는 표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골적인 외적 드러냄이 하나의 문화적 지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에티켓도 암묵적으로 생기고 있다. 표현의 문화에 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벨소리 등으로 자신을 표현하거나 특정한 신체에 과시적으로 착용하는 방식보다는 절제된 드러냄을 취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그게 북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조금 높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좀 안 하는 분위기로 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많이 했어요. 일부러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통화도 하고 안 들리는데 소리 지르면서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게 없어진 같아요. 휴대폰 특권의식 이런 게 좀 없어진 같아요.(사례 16)

휴대전화를 가슴 포켓에 넣어 놓고 은근히 드러내곤 하죠. 대신 목에 거는 전화끈을 예쁜 거로 해서 드러내거나. (사례 17)

여자들은 보통 손에 들지 않으면 목에 걸었는데 보이게 걸거나. 남자들은 대놓고 보이면 그게 없어요. 멋있는 게 아니어서 셔츠 주머니에, 앞주머니에 넣으면 휴대전화가 비치잖아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은근하게 아는 사람들만 볼 수 있게. (사례 16)

## 다. 전화돈: 모바일-송금의 정서와 관계성

모바일 기반의 화폐 거래와 교환은 일각의 선부른 해석처럼 ‘자본주의화’와 같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차원으로 해석할 수 없는, 화폐에 묻어 들어가는 정서, 그리고 송금 대상에 따른 전화돈 송금 방식의 적절성 등에 대한 판단 등 사회적 위계, 관계성의 척도 등이 여전히 강하게 개입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 있을 때 익숙했던 친구들과 사이의 전화돈 송금을 한국에 와서도 했다가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는 구술을 보면 북한에서 전화돈 송금이 지닌 사회적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친구 생일이 있었는데 일이 있어서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돈을 보냈어요,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난리, 난리,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에 와서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웃음) (사례 17)

그만큼 북한에서 ‘전화돈’ 송금은 친한 친구 사이에 매우 편리하고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모바일을 매개로 한 송금은 ‘기본으로 충전되는 전화돈’과 ‘전화카드를 통한 전화돈’, 그리고 사금융업자가 운영하는 ‘이관집’ 등 세 가지로 나뉘져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사용되는 용도와 맥락이 상이하다. 최근 주

민들 사이에서 결혼식 등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화돈’을 송금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평양 소식통을 통한 보도<sup>84)</sup>와 관련한 질문을 해보았다. 이에 대해 구술자들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전화돈의 사용이 특정한 관계와 용도로 제한되어 있음을 나타낸다.<sup>85)</sup>

에이 무슨 축의금을 그걸로 내요~ 뭐, 그런 게 있긴 있겠쥬. (중략) 핸드폰 돈은 간단한 용돈 같은 거 줄 때? 그럴 때만 사용하고요, 결혼식 축의금은 핸드폰 돈이 얼마나 한다고 그걸로 줘요. 전화돈 말고 달러나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직접 주는 경우는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 날 못 가는 경우는 결혼식 전이라던가 밤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축하한다고 직접 건네주지. (사례 18)

전화돈은 또한 송금 받은 돈을 현금화하기 위한 물리적 번거로움, 그리고 송금 받은 액수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화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규모 급전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친한 친구 관계나 형제, 혹은 부모가 군대에 간 자녀들에게 송금하는 경우 등 주로 수평적인 친밀한 관계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내는 경우어나 가능한 것으로 규범화되어 있다고 한다.

갑자기 용돈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 거랑 선물로 전화돈 주는

84) “북한관 비대면 축하선물? … 지인 생일에 ‘전화돈’ 송금 유행,” 『Daily NK』, 2020.6.9., <<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D%8C%90-%EB%B9%84%EB%8C%80%EB%A9%B4-%EC%B6%95%ED%95%98%EC%84%A0%EB%AC%BC-%EC%A7%80%EC%9D%B8-%EC%83%9D%EC%9D%BC%EC%97%90-%EC%A0%84%ED%99%94%EB%8F%88-%EC%86%A1%EA%B8%88/>> (검색일: 2021.10.28.),

85)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구술자들이 ‘전화카드’를 통한 송금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사에서는 비교적 액수가 큰 ‘전화카드’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이며, 구술자들의 반응은 이 차이에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용법의 차이가 ‘전화돈’의 사용처가 특정한 사회적 관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과 충돌하지는 않는다.

거는 다르죠. (중략)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한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10불을 도와줬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은 (수수료를 떼야 하기 때문에) 9불을 도와줬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사례 18)

전화돈의 사용 용도는 이처럼 주로 부모가 원거리의 자녀나 지인에게 송금할 때, 자녀의 상급자 간부에게 전화돈을 보내 그중 일부를 자녀가 쓸 수 있도록 부탁할 때, 원거리의 자녀가 고향의 부모에게 생신 등 경조사 축의금을 보낼 때, 현금을 챙기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장마당이나 타지에서 대금 결제를 해야 할 때 등<sup>86)</sup>이 해당한다.<sup>87)</sup> 이러한 의미의 연장선에서 ‘전화돈’은 단순한 화폐의 의미를 넘어 연결을 원한다는 친밀성의 교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친구한테 한번은 전화돈을 못 보내준 적이 있는데, 저도 사정이 안 돼서 못 보내줬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전화돈은 친밀감의 표시죠. 전화라는 게 서로의 거리를 좁혀주는 거잖아요. 이 돈 가지고 나랑 같이 전화하자 같은 느낌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단순히 돈이 아니고?] 네, 연결, 전화돈은 연결의 고리가 된다는 의미죠. (사례 17)

핸드폰 돈 같은 경우는 주로 여자 친구한테 많이 줬죠. 전화돈은 친구들 사이에 많이 오고 가죠. (사례 18)

---

86) 전국의 ‘대방’들과 오랫동안 장사를 했던 사례 14의 경우 전화돈으로 대금 결제를 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 말하는 전화돈 결제는 비교적 소액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87) 손광수, “북한 주민의 전화돈 활용 사례 연구,” p. 14.

## 라. 이동성의 제약과 사적 장소감<sup>88)</sup>의 확대

현대전화는 새로운 이동성의 증대 같은 테크놀로지의 역량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북한 같이 지역 간, 도농 간 인프라의 격차와 다양한 정치사회적 통제가 존재하는 권위주의적 저발전 사회에서는 활발한 이동성의 증대보다는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적 장소감을 증대시켜주는 또 다른 기회와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사회에서 현대전화의 사회적 기능은 사회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와 함께, 일정한 제약 조건에서 모바일 기술을 전유하는 방식을 만들어 낸다는 점을 중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 주요 도시의 현대전화 이용 행태를 분석한 심층 인터뷰 자료 및 관련 연구를 종합해 정보통신기술의 전유 양식을 개념화한 김성도에 따르면, 현대전화 사용의 논리는 크게 효율성·효용성과 관련한 ‘공리적 논리’, 공리적 논리와 일정한 거리를 뒀으로써 자율성을 찾는 ‘비판적 논리’, 그리고 모바일 기술을 사회적 정체성의 실현을 위한 매개로 활용하는 ‘통합 논리’ 등 세 범주로 나뉘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대전화 사용 논리의 실제(reality)는 이 세 범주 사이에서 다양하게 조정되고 타협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공리적 논리와 비판적 논리 사이에서는 “네트워

---

88) 여기서 사용하는 ‘장소감’이라는 개념은 공간과 장소에 대한 구분, 그리고 ‘장소애(topophilia)’의 창안자로 유명한 인문지리학자 이-푸 투안(Yi-Fu Tuan)의 용법을 가져온 것이다. ‘장소애’는 “사람과 장소 또는 배경의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멈춤, 쉼, 관계를 맺어감에 대한 것”이자 “가치, ‘소속’ 같은 것에 대한 논의에 적합”한 것으로 “행동, 움직임의 개방적 무대”이자 “추상과 경제적 합리성에 적합”한 ‘공간’과 대비되는 경험과 지향성을 강조한다. 이-푸 투안 지음, 이옥진 옮김, 『토포필리아: 환경지각, 태도, 가치의 연구』(서울: 예코리브르, 2011), p. 21; 팀 크레스웰 지음, 심승희 옮김,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장소』(서울: 시그마프레스, 2016), pp. 31~37. 특히,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일종의 인식”으로서 ‘과밀함’에 관한 주관적·심리적 느낌의 경험적 다양성과 상이한 맥락에 관한 논의는 본 논의에서 다루는 사적 장소감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이-푸 투안 지음, 윤영호·김미선 옮김, 『공간과 장소』(화성: 사이, 2020), pp. 39~52.

킹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 여과시키기”, 비판적 논리와 통합 논리 사이에서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커뮤니케이션과 나란히 사적이며 친밀한 ... 개별적으로 체험되는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보존하기”와 같은 모바일 실천들이 그것이다.<sup>89)</sup> 구술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효율성에 기반한 적극적인 접속과 적절한 단절을 통한 ‘여과’, 그리고 진정성의 소통을 추구하는 ‘보존’의 실천들이 다양하게 추구하고 있다.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이동성보다는 휴대성, 연결성의 필요가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 북한에서 스마트폰의 사용 또한 이동 중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행위성의 확장보다는 특정한 고정된 장소에서의 통화나 게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콘텐츠가 손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에서 유용성이 만들어진다.

여기처럼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뭐 하고 이런 거는 없죠. 걸어 다닐 때는 주머니에 넣고 어디에 가면 거기서 게임하고, 그게 다죠. [인프라는 잘 돼 있었나요?] 북한은 지하 한 2층?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잘 안 터졌어요, 평양도. (중략) 주로 업무 보고 이런 거는 집에서 했죠. 밖에서 하면 남들이 들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이나 막힌 공간에서 많이 하죠. 스마트폰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비디오 볼 수 있고 게임을 할 수 있고 그거 때문이죠. 북한 지하철 풍경이라고 하게 되면 다 스마트폰을 들고 게임을 해요. (사례 18)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기기인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이 인프라가 미비한 북한의 지역사회에서는 오히려 부동(immobility)의 거점(base)을 찾아다니게 하는 작용을 한다.

89) 김성도, 『호모 모빌리쿠스: 모바일 미디어의 문화생태학』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pp. 144~168.

제가 살던 데가 해산인데 역 근처 높은 데가 잘 터졌던 거 같아요. 그쪽에 친구네 집에 놀러 많이 갔던 거 같아요. [전화가 좀 잘 터지는 곳으로 많이 가고 싶은?] 네, 그렇죠. 친구 집에 가서 휴대 폰 게임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사례 17)

해산에서 살았던 이 구술자는 또한 이러한 안정적인 부동의 거점이 가져다주는, 휴대전화가 매개하는 친밀성의 원거리 확대, 그리고 ‘전화줄로 자신의 통화 행위가 표시되지도, 전화줄로 거실과 연결되지도 않는’ 자신만의 편안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저는 주로 새로운 친구나 주변의 가까운 친구들보다는 이사를 많이 다녀서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지방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요. 멀리 있는 친구들한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 할 수 있고. (중략) [지방이면 집 전화로도 많이 하지 않나요?] 집전화로 하는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웃음) 줄을 이렇게 늘이고 하는 거랑은, 좀 더 프라이빗하다고 해야 하나? (웃음) (사례 17)

주로 지방에 있던 친구들과 원거리 통화를 때로 1시간 가까이도 했다는 이 구술자는 지방의 인프라 미비에 따른 ‘안정적인 연결’이 중요했기 때문에 주로 저녁 시간에 자신의 방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한다. 활발한 이동과 어디에서나 가능한(ubiquitous) 편리함의 제약하에서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에서의 원거리 연결이 주는 사적 공간의 감각이 구술자에게는 휴대전화가 가져다 준 가장 큰 의미였다고 한다.

(휴대전화로 소통하면) 만나서 할 때는 주변의 영향도 받지만 장시간 통화를 할 때는 고요해지고 나른해지고 좀 더 내려놓고 재미

있고, 깊어지는 대화?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사례 17)

휴대전화에 갖는 이동성의 측면은 북한에서 정치적 이유와 기술적 맥락, 심지어 계절적 요인들이 교차하면서 상당 부분 제약되기도 하고 일정 부분 틈새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한 음악감상에 대한 구술은 휴대전화의 이동성이 만들어내는 제약과 틈새를 설명한다.

북한에서도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중국에서 들어온 게 있거든요?<sup>90)</sup> 그런데 북한에서 핸드폰으로 노래를 듣는 게 위험한 게요, 내가 뭐가 귀에 꼽고 지나가게 되면 보안원이 단속을 하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이어폰을 겨울에만 꼽고 다녔거든요. 겨울에는 귀마개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가릴 수 있으니깐, 겨울에만 끼고 다니고요, 봄, 여름, 가을철 같은 때는 안 끼고 다녔던 거 같아요. 북한 노래는 거기서 거기라서. (사례 18)

길거리 휴대전화 단속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주로 노래나 사진 등에 대한 검열이 주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로 듣게 되는 한국 노래는 SD카드에 넣고 다니면서 안전한 폐쇄 공간에서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1분 정도면 다 보죠. 문자 같은 건 안 보고 노래 같은 거 많이 봤죠. [그러면 노래는 안 넣고 다니나요?] 안 넣고 다니죠. 그래서 집에서 들죠. [그럼 SD카드도 집에 두고 다니나요?] 그건 들고 다녔죠, 작으니까. (사례 17)

---

90) 북한의 블루투스 이어폰 판매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북한 IT전문사이트 NKICT, “북한, 아리랑 블루투스 이어폰 판매,” <<http://nkict.com/archives/3591>> (검색일: 2021.8.25.).



한편, 스마트폰의 등장은 노동과 과업, 인간관계 등에서 사적 공간의 확보가 일정하게 가능해지는 기술적 매개가 되고 있다. 이는 ‘봉사구역 밖’을 의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sup>91)</sup>

제가 회사생활도 좀 해봤거든요? 회사에 유선전화번호는 안 가르쳐줘요. 집 전화번호는. 회사에다가 문건 작성할 때는, 유선전화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전화 오게 되면은, 그래서 핸드폰 번호만 알려주거든요. 유선전화는 없다 그리고, 그러면 북한에서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쉴 시간 없이. 그런데 아파서 못 나가거나 쉴 때 막 작업반장이나 전화가 오거든요, 일 생겼다고 나오라고. 그러면 스마트폰은 봉사구역 밖으로 해놓고 유선전화만 쓰기도 하죠. [그런 거 때문에 문제 생기고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나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봉사구역 밖에 있었다’ 그러면 모르거든요. (웃음) (사례 18)

‘봉사구역 밖’으로 표현되는 사적 공간의 등장으로, ‘통화를 하고 싶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전화를 받아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가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와 같은 모호하고 구체적인 ‘상황적’ 규범과 선택의 영역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관계와 연결의 선택성, 각자의 사적 시간에 대한 상호 간의 ‘양해’가 형성되어 감을 알 수 있다.<sup>92)</sup>

그러니까 그것은 괜찮아졌는데(수시로 통화가 가능해졌다는 것

---

91) 구술(사례 18)에 따르면, 휴대전화로 “\*909\*”을 입력하면 ‘봉사 구역 밖’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의 ‘비행기 모드’와 다른 점은 통화 발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봉사 구역 밖’으로 설정되면 상대가 전화할 경우 부재중 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어 누가 전화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92) 휴대전화의 사용은 그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선택과 판단을 요구하며, 사용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 김홍중, “미디어스케이프와 모바일 성찰성,” pp. 161~163.

을 의미)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저녁 8시도 막 온라인 회의도 하고 이렇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또 [너무 수시로 전화하고 그런?] 네. 이렇게 바쁠 때 찾고 하니까 그것도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중략) 북한에서도 그 착신 제한을 해놓으면 상대방이 아니까. [알아요?] 네. (사례 15)

(전화를 받을지 말지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때는 귀찮은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돈을 꾸달라는 전화가 많이 귀찮았어요. 좀 생각해보겠다고 답변을 주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 전화가 많이 귀찮았었죠. 그리고 북한에서 자영업을 할려면 뺨이 있어야 되거든요. 뺨 가지고 있는 놈들이 어떤 때는 막 전화를 올 때가 있어요, 그걸 좀 달라고. 그 사람들에게 매달 바치는 게 있는데, 그 이상 나가는 게 싫거든요. 그런 전화도 안 받을 때 있어요, 이따금씩. ‘너 왜 전화 안 받았어?’ 막 그러면 ‘아 제가 자느라고 못 받았다’고 뺨치고요. (웃음) 그럴 때는 제가 핸드폰을 봉사구역 밖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나는 통화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전화를 못 해요. 그런데 그게 많아지니까 (서로) 다 알죠, 이제는. (사례 18)

휴대전화는 “예측되지 않은 새로운 발신지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주는 “부담”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측할 수 없는 우발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더 적합”하며 “친지나 친구들같이 절친한 사이이며, 예측 가능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진 보다 협소한 현실세계로 도망”칠 수 있게 한다. 요컨대, 휴대전화는 “개방보다는 울타리”이며, “산업 시대 이전의 보다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재창조”한다.<sup>93)</sup>

93) 김성도, 『호모 모빌리쿠스: 모바일 미디어의 문화생태학』, pp. 376~378.

## 마. 정보화의 역설과 틈새

한 구술자는 북한의 스마트폰이 모빌리티 역량의 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을 최근 등장한 내비게이션 앱인 ‘길동무’<sup>94)</sup>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통해 제기하기도 했다.

제가 평양에서 26년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 그런 게 고정돼 있어요. 그리고 평양 같은 경우는 서울처럼 복잡하지 않아가지고 구태여 필요하지 않거든요. 지방 사람들 평양 들어오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북한은 계획도시라서 새로 생기는 상점 같은 경우도 이미 업적이라고 광고가 되고요, 유명한 식당도 사람들끼리 정보가 오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죠. [도시가 복잡하지 않고 루트가 복잡하지 않다? 조금 살다보면 다 파악된다?] 그렇죠. 놀러 가는 장소가 딱 고정돼 있거든요. 여기처럼 불링장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평양에 불링장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걸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웃음) (사례 18)

그런데 내비게이션 앱의 효용과 효과는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나타났다. ‘위치’와 ‘경로’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보다는 ‘정확한 거리 측정’을 통한 ‘택시 요금의 합리화’가 실현된 것이다. 평양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평양 주민들이 “택시를 타기 전에 반드시 자체로 구매한 타치폰(스마트폰)에서 ‘길동무’ 프로그램을

---

94) 북한의 ‘삼흥정보기술교류소가 개발한 내비게이션 앱으로 ‘길동무 2.0’은 “평양시의 모든 상업시설과 체육·과학·교육·문화·보건 시설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 ‘길동무’의 확장판인 ‘지름길’은 북한 전역의 도로망과 각종 교통 정보를 제공하며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최단 노선(이동 경로)을 보여준다.”고 한다. “북한판 네비게이션 ‘길동무2.0’와 ‘지름길’,” 『뉴스시스』, 2019.12.2., <[https://newsis.com/view/?id=NISI20191202\\_0015860061&cid=pho](https://newsis.com/view/?id=NISI20191202_0015860061&cid=pho)> (검색일: 2021.10.28.).

〈그림 11-5〉 내비게이션 앱 ‘길동무’



자료: “길안내봉사프로그램 《길동무》 1.0 개발,” 『조선의 오늘』, 2017.9.5.

열고 출발지점에서 목적지까지 거리를 먼저 측정하고 운행거리만큼 택시비용을 미리 계산해 지불하고 있으며 운행거리를 손님에게 알려주는 안내판이 없는 택시는 손님들이 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sup>95)</sup> 평양시의 택시 규모가 6,0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고 평양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쇼핑 등의 일상과 연계된 택시 수요가 매우 높은 점,<sup>96)</sup> ‘시간이 돈’인 장사와 비

95) “북, 스마트폰용 내비게이션 앱 첫 선 ... ‘택시 바가지 요금 차단,’” 『RFA』, 2020.11.20.,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hm-11202020095705.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hm-11202020095705.html)> (검색일: 2021.10.28.).

96) “시장화 바람 타고 ... 평양에 택시·‘씨비차’ 달린다,” 『한겨레』, 2019.4.2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91236.html>> (검색일: 2021.10.28.); 이영중, “택시문화 확산되는 북한 ... 평양에만 6천 대 운행,” 『나라경제』, 2019.8., <[https://iei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x=12166&sel\\_year=2019&sel\\_m](https://iei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x=12166&sel_year=2019&sel_m)

즈니스에서도 택시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sup>97)</sup>에서 북한의 정보화가 명시적으로 의도한 효과를 초과해 비공식적 활동 영역의 비용과 리스크를 합리화하고 일상의 비공식적 욕망을 더 수월하게 실현시켜주는 매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점을 보여주는 정책의 에피소드라 할 수 있다.

국가 전략으로서 정보화의 실천은 모바일 통제를 약화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국산화’의 역설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는 신규 제품의 빠른 등장과 기종의 다양성 등에 따라 단속의 어려움을 동반한다. 그러다 보니 휴대전화에 대한 단속은 대체로 외양에 대한 형식적 검열 이상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양상을 보인다. 특히 외부 콘텐츠 단속을 위해 도입한 휴대전화 운영체제의 국산화<sup>98)</sup> 이후로는 스마트폰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약화하였다고 하며, 그에 따라 이러한 형식화된 검열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북한의 검열성원은 컴맹자들이 엄청 많아요. 내 꺼 스마트폰 보고서도 스마트폰 기종이 너무 다른 게 많으니깐, 아, 이거 그냥 국산 체계로 돌아가는 건가? 이려고 뒤져보는 것도 복잡하니까 몇 번 보다가 그냥 줘요. (웃음) 그리고 핸드폰 검열하다가도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시비 걸거든요? ‘이거 승인된 파일이냐?’ 그러면 이걸 승인 안 받은 파일을 내가 태운(저장한) 거잖

---

onth=08) (검색일: 2021.10.28.).

97) “북, 대중교통 이용자 증가 ... 부작용도 많아,” 『RFA』, 2019.10.17.,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ml-10172019094107.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ml-10172019094107.html)> (검색일: 2021.10.28.).

98) 북한은 “오픈소스인 Linux를 기반으로 개발한 붉은별3.0 운영체제”를 스마트폰에도 적용하면서 모바일 통제에 나서고 있다. 붉은별3.0은 “미국의 Mac OS와 매우 유사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황구섭·강동수, “붉은별 운영체제 Watermarking을 이용한 이미지 파일 정보은닉 기법,”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제27권 제5호 (2021), p. 241.

아요. 근데 ‘이거 내가 봉사소(대리점) 가가지고 돈 내고 태운 거다’, ‘가서 확인시켜주겠다’, 말하게 되면 개네들도 모르니깐, ‘그래?’ 그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깐. (웃음) 그림 같은 경우도 애매한 경우가 많으니깐. [애매한 그림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풍경이나 이런 사진 많이 있었죠. (중략) 그리고 국산체제로 바뀐 다음부터는 단속도 잘 안 해요. 가끔 이어폰 꽂고 있으면 조금 단속하는데 보고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죠. (사례 18)

이제는 스마트폰도 국가에서 팔고 하니깐(운영체제의 국산화를 표현) 예전처럼 막 단속하고 하면 안 되죠, 이제는. (웃음) (사례 17)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국산화는 말단 검열성원들로 하여금, 단속의 기술적 어려움에 따른 형식적 검열의 도덕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일종의 면피의 계기로 작동하는 것이다.

한편,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제도적 통제로 인해 타인 명의의 개통이 증대하면서 단속의 한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북한은 정보 이런 거, 개인 간 어떤 거래를 하는지 보려고 핸드폰을 도청하거든요. 그래서 도청을 하는데 개인들이 핸드폰 불법 거래, 개인 간 거래가 너무 왕성하게 이뤄지니까, 정부가 이 번호가 누가 사용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는 번호 찍으면 이게 누구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걸 몰라요. 너무 바뀌어가 지고, 이 핸드폰을 누가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례 3)

이런 도청과 단속을 빚겨 가기 위해 장사나 비즈니스용으로 타인 명의의 막대기폰(일반폰)을 사용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적은 일상적 커뮤니케이션은 자신 명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명의를 빌릴 때도 60~70대의 비교적 나이가 많은 저소

득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기도 한다. 명의 도용이 전 사회적으로 만연한 상태에서 타인 명의 개통을 전면적으로 억압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활용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뇌물 제공을 통해 단속을 피해가는 것이다.

## 5. 소결

북한 주민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욕망은 우선 휴대전화가 경제적 생존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주변의 시선과 체면을 강하게 의식하는 구별과 배제의 문화 자본으로서도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신체에 부착된 특정한 사물을 통해 한 사람의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문화가 북한 사회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sup>99)</sup> 또한, 북한의 모바일 생활세계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휴대전화 사용과 실천으로 그들의 지향성이 형성되고 표출됨을 보여준다. 북한 주민들의 모바일 실천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이동성의 측면은 제약되는 반면, 모바일을 매개로 한 사적 장소감은 증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 주민에게 휴대전화는 관계의 확장을 의미하기보다는 그것을 내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누리는 즐거움을 의미한다. 가까운 사람들과 사적 공간에서 게임이나 영상을 시청하는 형태로 말이다. 또한, 자신만의 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소규모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연결을 통한 친밀성의 강화를 통해 행복감을 갖

---

99) 경제적으로 매우 무리를 해가면서도 스마트폰을 장만한다는 북한 사회에 만연한 모습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강하게 포박되어 있는 개인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 '소유적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북한 사회의 개인주의화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도 한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지닌 저맥락 문화의 특징과도 연관된다. 즉 북한 주민들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검열과 통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현실에서 비교적 직접적이고 분명한, 건조한 메시지 전달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문자보다는 통화를 선호하는 이유가 문자메시지가 하고 싶은 말을 온전히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은 그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와 메시지의 분명한 전달과 직접적인 정서적 교류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의 정보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모바일 일상과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모바일 객체가 지닌 테크놀로지의 잠재성은 연관된 다른 기술적 요소, 그리고 사회적 환경과 기능적으로 강하게 통합되고 연결됨으로써 구체적으로 실현된다.<sup>100)</sup> 이는 특정한 기술적 객체가 밟아 온 궤적과 독특한 사회문화적 환경들과의 조응 속에서 테크놀로지의 잠재성이 상이하게 발현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발달이 방대한 비공식·비숙련 노동시장과 결합해 플랫폼 기술과 전자상거래의 급증을 만들어 낸 중국 사례, 그리고 도시로의 이주노동과 농촌의 취약한 금융 접근성으로 인해 모바일 머니의 사용과 이동통신 기업 주도의 모바일 बैं킹이 확대되는 아프리카의 사례 등은 동일한 모바일 테크놀로지

---

100) 핀버그(Andrew Feenberg)는 테크놀로지의 기능적 구성을 1차적 도구화와 2차적 도구화로 나눈다. 1차적 도구화(본질주의)는 테크놀로지 객체 자체에 내재한 속성의 잠재성임에 비해, 2차적 도구화(구성주의)는 기술적 객체의 잠재성이 실현되기 위한 다른 기술적·사회적 요소들과의 결합과 연결의 정도에 달린 문제로 이해한다. 1차적 도구화의 본질주의적 관점은 기술적 객체의 기술이 일상생활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비판된다. Andrew Feenberg, "From Essentialism to Constructivism: Philosophy of Technology at the Crossroads," in *Technology and the good life?*, eds. Eric Higgs, Andrew Light, and David Stro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pp. 305~310.



라 하더라도 정보화 발전 과정에서 결합한 다른 기술적 요소 및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이한 산업적 수요와 사회변화의 경로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북한의 모바일 테크놀로지는 분명 많은 제약 속에 놓여 있다. 장사와 사업을 중심으로 한 연결이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모바일 기술의 유인 동기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정보통신 및 휴대전화에 대한 욕망은 매우 높으며, 그러한 모바일 욕망의 핵심에는 외부 정보에 대한 갈증 못지않게 ‘편리함’에 대한 수요가 자리하고 있다.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는 구술자들의 증언은 그만큼 휴대전화로 하고 싶은 게 많았다는 욕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초기에 주민들이 휴대전화에 대한 막연한 ‘소유’ 욕망을 통해 일단 보유 자체에서 의미를 찾았다면, 휴대전화가 주민들 곁으로 확대된 지금은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욕망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편리함’에 대한 욕망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회적·정치적 가치를 ‘편리함’의 체제를 위해 일정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비공식 정보 유통의 문제가 욕망과 억압이라는 제로섬적 차원의 문제라면 ‘편리함’의 문제는 비제로섬적인 교환과 타협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영역은 당국의 정보화 정책이 사회의 다양한 비공식성과 연결되고 얽혀드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의 공간이기도 하다. 북한의 휴대전화 요금제가 현금 수요, 장마당 등 비공식 경제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전화돈’이라는 온라인 금융 인프라는 북한 주민들의 모바일 수요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보여주며, 또 다른 정보화 전략에 대한 모바일 정책의 경로의존성을 만들어낸다.<sup>101)</sup> 즉, 당국의 정보화 정책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아래로부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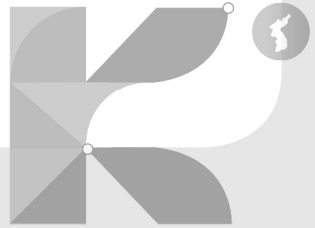
101) 북한판 ‘위챗 페이지인 ‘울림 2.0’ 같은 스마트폰형 전용 결제 앱이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거래 실천을 만들어내는데, 당국은 이러한 주민들의 모바일 실천과 욕망을 참조하고 일정 부분 흡수하면서 모바일 정책을 수립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편리함의 제도화가 조금씩 확장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화의 효과가 평등하게 분배되지는 않는다. 현재 북한의 전자상거래는 은행에 안전하게 현금을 예치할 수 있는 돈주나 무역업자, 권력을 끼고 있는 계층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전자상거래나 배달 시스템 등 모바일과 연계된 정책의 효용은 모바일 기술역량보다는 소득과 계층의 역량이 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바일 생활세계를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기술적 통제는 단순한 제약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사용자들의 적응과 전유의 비공식적 실천들과 결합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파생적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며, 현재 북한 주민의 높아지는 구매력과 모바일 욕망이 지닌 강한 잠재력으로 보아,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정보화 정책이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씩 편리함에 대한 감각을 누적시키고 당국이 추진하는 기술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간다면,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상품 진열과 배달 수준을 넘어선, 주민들의 개인정보 제공에 기초한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의 소비 경제가 정치적·사회적 통제체제와 병행해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모바일 생활세계에 대한 관점을 비공식 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통제’로부터 ‘편리함’으로 이동시킬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 Ⅲ. 경제·사회적 변화와 세대 간극

한승대 동국대학교





# 1. 서론

## 가. 문제제기

남한의 MZ세대<sup>102)</sup>와 함께 북한 장마당 세대<sup>103)</sup>의 의식과 가치는 한반도 통일 논의를 잇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식과 가치는 일상에서 그들이 겪는 삶의 단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들이 겪었던 일상에서의 세대 담론을 기초로 하여, 세대 출현과 세대 간극에 대한 인식, 세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의 MZ세대와 함께 북한의 장마당 세대의 인식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통일 담론의 접점을 찾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남북한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들을 공통의 유대로 묶어내는 일은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의 논의와도 연결된다.<sup>104)</sup>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북한의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서 “지금의 청년세대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자라다 보니 사회주의 우월성에 대한 경험과 표상이 부족해 일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sup>105)</sup>고 지적하였다. 소위 북한 사회가 우려하는 장마당 세대를 언급한 발언이다. 이 세대는 사회주의 국가의 혜택 없이 주로 시장에서의 경제

---

102) MZ세대는 신조어로 정의가 분명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1980~2000년생을 일컫는 밀레니얼 세대와 1995~2004년생을 뜻하는 Z세대를 합친 세대를 통칭할 때 쓰인다. 통계청 블로그, “트렌드 중 트렌드는? 통계로 보는 MZ세대 트렌드,” ([https://blog.naver.com/hi\\_nso/222109361424](https://blog.naver.com/hi_nso/222109361424)) (검색일: 2021.10.30.).

103) 1980년대와 1990년대 중후반에 태어나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 강행군’ 시기를 보낸 세대에 대한 북한내 명칭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장마당 세대’로 언급하고자 한다.

104)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 관련 개념과 논의는 본 연구총서의 I, 서론 참조.

105)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역사적진군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보낸 서한(2021.4.29.),” 『로동신문』, 2021.4.30.

활동을 통해 삶을 영위해 왔다. 자본주의 문화에 익숙한 장마당 세대는 김정은 시기 북한 사회의 특성과 변화를 대표하는 기제이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생활과 관련된 혜택을 보장하려는 북한 당국과 질서의 공간, 그 틈을 헤집거나 무시하는 전략을 통해 삶을 살아내려는 새로운 세대는 공생관계이면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은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청년절(8월 28일)과 청년절 경축행사 이후 지역의 어려운 곳에 자원하여 몸을 바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청년절 경축행사 이후 조선청년의 불굴의 정신력과 투쟁본때를 과시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사회주의농촌과 금속, 화학, 석탄, 채취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주요 전구들, 산골학교와 섬마을 분교로 탄원한 청년동맹 일군들과 청년들의 수는 현재 수백 명을 헤아린다.<sup>106)</sup>

아울러 "뒤떨어졌던 청년들 가운데도 자기 과오를 씻고 뚝뚝이 발걸음을 함께 하려는 긍정적 움직임들이 더욱 적극화되고 있다"<sup>107)</sup>고 하였다. 해당 보도가 북한 청년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의 보도는 김정은 집권기 젊은 세대의 체제 이탈을 방지하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근래에는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해 청년들의 사상통제를 강조하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sup>108)</sup>

106) "청년절경축행사이후 청년들속에서 탄원열기 더욱 고조," 『로동신문』, 2021.9.26.

107) 위의 글.

10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1.9.30.

북한은 과거부터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곡점마다 젊은 세대를 예의주시하면서, 이들을 사회의 중추 세력으로 키우고자 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가 가진 특성, 즉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습성과 생활세계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사회의 역동성(dynamism)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북한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만일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방향과 젊은 세대의 의식, 태도에 간극이 존재한다면, 이는 북한 사회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단순히 한 사회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한국의 객관적, 합리적 통일·대북정책 마련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장마당 세대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했던 고난의 행군기에 유소년기나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를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 중후반 태어나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 강행군’ 시기를 보낸 세대를 장마당 세대로 규정할 수 있다. 이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배고픔을 경험했고, 영양공급이 부족해 발달 장애를 겪었으며, 국가의 혜택이 미약한 상황에서 장마당을 통해 생존을 이어갔다. 연령대로는 현재 2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에 해당한다. 통상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 자란 세대는 그 이전 세대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 겪었지만, 국가적 공급망에 대한 의존 경험은 적다. 장마당이라고 하는 생활공간에서 삶을 지탱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장마당 세대’는 ‘2000년대 이후 출생 세대’를 자신들과 다른 세대로 인식하고 있다.<sup>109)</sup>

북한 지도부는 경제건설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전략이 자본주의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힌다. 조선신보에서는 “개인주의적

109) 후술하겠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장마당 세대(1988년~2000년 출생)들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구분한다. 이 구분은 국가적인 심각한 어려움을 체득하면서 장마당에서의 삶을 이어간 세대(2000년대 이전 출생)와 장마당을 통한 삶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대(2000년대 이후 출생)의 차이로 읽힌다.



인 생존방식이 고착된 나라에서는 재부가 늘어날수록 극소수와 절대다수의 대립이 더 깊어지기 마련”이라며, “조선(북한)의 전략의 중심에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강조한다.<sup>111)</sup>

김정은 시대의 급격한 변화는 사회주의 산업화 세대, 장마당 세대, 포스트-장마당 세대(혹은 ‘사이세대’<sup>112)</sup>) 등의 세대 간 인식과 문화의 간극을 형성한다. 북한의 세대에 관한 연구에서는 각 세대를 빨치산 세대, 한국전쟁 세대, 천리마 세대, 3대혁명 소조운동 세대, 고난의 행군 세대, 장마당 세대 등으로 규정하거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등으로 구분한다. 북한의 세대는 큰 틀에서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연동지어 세대를 설명하고 있고, 시장의 등장과 형성 이후 세대의 특징에 주목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는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화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세대의 출현에 주목한다. 장마당 세대로 호명하는 이 세대가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여긴다. 즉, 이 세대는 과거 세대보다 체제의 충성도가 낮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며, 이념보다는 돈벌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대 갈등’을 넘어 북한의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은 의식주 등 기본적인 차원에서 크게 변화했고, 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차이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위기와 식량난에서 장마당 세대가 등장하였다. 장마당 세대의 등장을 북한 사회의 변화와 연결 지어 설명하는 기존 연구의 토대 위에서 본 연구는 일상 문화에서의 ‘세대 담론’, ‘세대 구분’, ‘세대 차이와 갈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의 등장을 새로운 세대의 특징을 설명하는

111) “《경제일변도》가 아닌 조선의 사회주의강국건설,” 『조선신보』, 2021.6.17.

112) 김성경,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북한 ‘사이(in-between) 세대의 혼종적 정체성,” 『통일연구』, 제19권 제1호 (2015), pp. 5~39.

독립변수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기에 더해 학업, 취업, 군대, 결혼,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가치관 역시 새로운 세대의 특징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장마당 세대의 일상 문화가 사회의 변화와 연동해 특수성을 갖는지, 보편성 위에 존재하는지 등을 면담을 통해 세밀히 파악하고, 세대 간의 차이를 접근 가능한 수준에서 다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장마당 세대로 명명되는 새로운 세대의 출현이 북한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들도 있지만,<sup>113)</sup>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구도를 지양한다. 대신, 국내 관련 연구들의 접근들처럼 ‘세대 담론’이 갖는 한계를 유념하면서, 세대 현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북한적 특수성이 아니라 기존 사회주의 국가 또는 신세대 출현의 보편적 특성의 관점을 견지하고자 한다.

동일 세대에 속하더라도 자신의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라 이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이를 ‘장마당 세대’로 단색화하기보다는 계층적, 계급적 차원과과의 교차와 연계를 통한 다층적 고려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새로운 세대에 대한 분석은 세대 ‘간’ 차이뿐만 아니라 세대 ‘내’ 경제·사회적 차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총 5명)을 실시하였다. 주요 인적사항은 <표 I-1>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사례 8, 사례 11, 사례 12, 사례 19, 사례 20에 해당한다. 이들의 출생연도는 1988년에서 2000년에 걸쳐 있으며 성별도 남성 2명, 여성 3명으로

113) “김정은, MZ세대 옷차림·말투·사상까지 집착... ‘되레 반발 커진다.’” 『Daily NK』, 2021.9.7., <<https://www.dailynk.com/%EA%B9%80%EC%A0%95%EC%9D%80-mz%EC%84%B8%EB%8C%80-%EC%98%B7%EC%B0%A8%EB%A6%BC%2%B7%EB%A7%90%ED%88%AC%2%B7%EC%82%AC%EC%83%81%EA%B9%8C%EC%A7%80-%EC%A7%91%EC%B0%A9-%EB%90%98%EB%A0%88/>> (검색일: 2021.10.15.).

구성하였다. 이들의 탈북연도는 2017~2019년으로, 적게는 10대 후반, 많게는 30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생활했다.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 장마당 세대의 세대 구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그들 자신이 속한 세대를 기성세대들과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그들의 교우관계, 연애, 직업, 군대, 결혼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장마당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남한의 젊은 세대들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세대의 인식과 실천의 문제를 세대와 계층, 계급 간 교차와 연계, 세대 간 차이와 세대 내 차이 등을 고려해 중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세대 문제는 남북 간 상이한 주제가 아니라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며,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 나. 선행연구 검토

카를 만하임(Karl Mannheim)은 현재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세대 개념의 초석을 닦았다. 19세기까지 세대 담론을 설명했던 실증주의적 관점은 30년 또는 15년 주기로 교체된다고 보았다. 만하임은 『세대문제』를 통해 세대를 생물학적이거나 양적 흐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반대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노령으로 죽는 생물학적 측면이 세대 규정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한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만하임은 ‘세대위치’라는 개념을 통해 생물학적 측면과는 다른 시대와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공유하며 참여하는 사회문화적 공간을 중시하였다.<sup>114)</sup>

조정아 등은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자생적 시장화 속에서 북한 주민의 망탈리테가 변화하였고, 이는 기존에 북한 당국이 견지한 사회의 안정성과 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적 요인으로 진단한다.<sup>115)</sup> 이 연구는 경제난과 시장화 속에서 성장한 새로운 세대가 어떠한 경험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지 신체, 언어, 장소, 사물 관계, 문화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생애 사례와 경험 속에서 이들을 하나의 세대나 집단으로 결속하는 ‘정서의 병목현상’을 분석하고, 서로 상이한 특질을 가지는 세대 단위의 맵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청소년들의 세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새로운 세대는 물질, 부, 권력에 대한 욕망을 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표출, 표현한다. 둘째, 새로운 세대는 비정치적인 세대이다. 셋째, 새로운 세대는 외부 세계로 열려있는 세대이다.<sup>116)</sup>

채경희는 장마당 세대를 1980년대 전후에서 1990년대 중후반에 태어나 북한 최대 위기였던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로 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장마당 세대와 기성세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세대 간 의식 차이를 고찰하고, 장마당 세대 내 하위집단 간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사회경제적 계층별, 성분(토대)별, 장사 경험 연한별 의식의 유사성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이 세대의 변화가 정치적 실천을 주도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보았다.<sup>117)</sup>

114) 카를 만하임 지음, 이남석 옮김, 『세대문제』 (서울: 책세상, 2020); 올리케 유라이트·미하엘 빌트 엮음, 박희경 외 옮김, 『‘세대’란 무엇인가? 카를 만하임 이후 세대담론의 주제들』 (파주: 한울, 2014), pp. 6~7.

115) 조정아 외,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3).

116) 위의 책, pp. 309~332.

117) 채경희, “북한의 ‘장마당세대’ 의식 특성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치·통일

황규성은 1990년대 이후 시장화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안정적 불평등 체제가 불안정한 다차원적 불평등한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이 속에서 “북한의 청년은 세대 간 수직적인 주변 대중화와 세대 내 수평적인 주변대중화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18)</sup> 이러한 변화로 불안정한 생존투쟁에서 배제되는 청년이 등장하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주변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계급적 불평등의 심화는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첩, 교차,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sup>119)</sup>

국내 연구들은 북한에서의 새로운 세대 출현이 갖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변화의 주체라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북한 체제가 변화한다면 이 세대가 체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기능할 것인지, 부정적 요인으로 기능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는 필요해 보인다.<sup>120)</sup> 장마당 세대가 북한 체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세대와 연계를 통해서 볼 수는 있는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한편, 중국의 신세대는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하였으며, 물질 부족의 시대를 겪지 않았다. 이들은 도시문화를 향유하기를 원하고 가치관과 생각이 부모세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sup>121)</sup> 중국에서, 젊은 세대의 출현은 사회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1980~199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중국 노동인력 구성의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 상대적이지만 일부 연구자는 그들을 자신감 있고, 조속하며, 독립적이

전공 박사학위논문, 2018, pp. 1~176.

118) 황규성, “북한 청년의 사회적 공간과 주변대중화,”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제1호 (2016), p. 153.

119) 위의 글, pp. 153~180.

120) 물론, 북한 체제의 변화라는 것은 바라보는 시야와 관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121) 김상균, “중국 노동시장 메커니즘 변화의 원인과 경제적 시사점: 신세대 농민공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37호 (2012), pp. 301~323.

면서 개방적인 존재로 본다. 또한, 솔직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자율성과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sup>122)</sup> 이들은 덩 샤오핑(Deng Xiaoping)의 개혁·개방에 기반해 성장했으며, 중국의 지속적인 세계화와 새로운 정보기술 중심의 경제를 목도하였고, 과거보다 더 나은 경제적, 물질적 조건을 경험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기존 방식을 바꾸며, 조직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 거버넌스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중국의 많은 일터의 현실은 여전히 오래된 인사관리와 관행에 기반을 두고 있다.<sup>123)</sup>

중국의 신세대 관련 연구가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구조의 변화와 신세대와의 관련성이다. 중국의 신세대는 ‘한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비교적 독립적이며, 가정 내에서도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다. 리더십의 추종, 수직적 지시보다는 관계 지향적 리더십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인다. 북한에서도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 특성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북한의 신세대 역시 독립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를 선호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는 현재의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젊은 세대 간의 성별 갈등과 위계 갈등의 지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122) Zhou, Q., “The new generation management changes because of you,” *China Human Resource Development*, no. 2 (2007), 재인용: Ying Zhu et al., “Employee participation and the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of the ‘new generation’ of Chinese employe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 26, no. 19 (2015), pp. 2395~2396.

123) 중국과 북한이 체제와 국가 규모의 상이함은 있지만, 아시아와 사회주의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환기의 세계’에서 신세대와 관련한 사회와 조직에 관한 문제는 유사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제의 성장과 풍요로움, 해외의 사회문화 접촉 빈도와 공유가 높은 중국 신세대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북한 신세대와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관련 연구를 살펴보아야 한다. Ying Zhu et al., *Ibid.*, pp. 2395~2396.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세대 연구를 통해 발견한 여러 특성들은 한반도의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감, 공유의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직면한 인구, 출산, 육아, 군대, 진로 등 같은 문제는 남한의 젊은 세대들도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 실업문제, 지역갈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본 연구가 북한이탈주민 면담을 통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이다. 즉, 새로운 세대는 자신들을 기성세대와 어떠한 점에서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 군대와 진로 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한다. 북한의 새로운 세대에게는 그들만의 어려움이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한 사회의 MZ세대가 공유하는 생각들과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세대의 출현과 장마당 세대의 특성

북한에서 세대는 사전적으로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약 20~3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서로 바뀌는 기간 또는 그 나이 또래에 속하는 사람들의 총체” 또는 “한 생물이 생겨나서 생존을 마칠 때까지의 사이”로 정의된다.<sup>125)</sup> 선행연구는 북한의 세대를 연령집단별로, ‘항일 빨치산 세대(혁명 1세대)’, ‘천리마 세대(1950~1960년대 천리마운동 세대)’, ‘3대혁명세대(1970년대 중반 3대혁명소조운동 주도)’, ‘고난의 행군 세대(1990년대)’ 등으로 구분한다.<sup>126)</sup>

125)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975.

126) 국립통일교육원, 『2021 북한 이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2021), pp. 74~75.

## 가. 세대 출현에 대한 인식

국내연구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고난의 행군기를 경험한 세대를 장마당 세대로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면담 대상자에 따라 자신들에 대한 규정은 일정하지 않았다. 사례 8은 북한 내부에서는 ‘미공급 세대’라는 표현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사용된다고 답하였다. 다만, ‘미공급 세대’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거나, 학문적으로 개념화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사례 11도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는 ‘미공급 애들’ 정도로 이야기한다고 하였다.<sup>127)</sup> 즉, 국내의 북한 연구자들이 지칭하는 장마당 세대와 같은 보편화된 표현은 없지만 ‘미공급 세대’, ‘미공급 애들’이라는 표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북한 주민들도 이 세대가 분명 다른 세대와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장마당 세대라는 표현을 여기 와서 들었는데 되게 귀여운 표현이라고 느꼈어요. 사실 ‘장마당’하고 부르긴 해요. 그런데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중략) 북한 내부에서는 ‘미공급 세대’라는 얘기는 있어요. (중략) 1990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친구들을 미공급 세대라고 그래요. 1990년부터 2000년 사이 애들. (사례 8)

(19)95년도. (19)90년도 중반부터 태어난 애들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19)90년대 중반부터 해서 2000년 초반까지요. 보통 2000년 까지를 보는 거 같아요. (사례 11)

세대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규정되고, 구분되는 측면이 강하다. 때문에 사례자 본인이 자신들의 세대를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

---

127) 사례 12는 자신들의 세대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 없다고 하였다.



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우연히 ‘미공급 세대’라고 들었던 내용을 인지하는 사례자가 있는 반면, 세대에 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사례자도 존재했다. 대체로 사례자들은 1세대, 2세대, 3세대 등 숫자로 자신들의 세대가 표현된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김정일 때 저희를 새 세대라고 했는데요. 보통 보면 북한은 1세대, 2세대 이렇게 가르는데 그 해방 전에 1세대. 그리고 남북전쟁 때 2세대. 그리고 그 이후 천리마 때 3세대 이렇게 가다보면 저희가 5세대가 돼요. 그래서 5세대부터를 새 세대라고 불렀어요. 4세대가 천리마는 (19)70년대 그때 끝났잖아요. 그리고부터 (19)90년대 사이. 그러니까 경제성장기 최고조가 (19)70년대였고 그때부터는 조금씩은 사회주의시장이 좀 국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때 세대, 좀 애매한 세대가 4세대인 거 같아요. 고난의 행군 당시 어른이었던 세대들. (사례 11)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1세대는 정말로 그 항일혁명에 참가하고 그리고 전쟁을 겪은 세대. 2세대는 그 다음 세대예요. 대체로 저희 어머니 세대거든요. 저희가 3세대예요. 그리고 그 아래세대를 4세대라고 하는데 김정은이 “이 3세대하고 4세대가 문제다.” 3세대, 4세대는 그 고난을 모르고 자랐잖아요.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이 전쟁을 겪은 세대는 그런 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 사상의식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쪽 말로 말하면, 그런데 저희는 그런 사상이 없잖아요. ‘한국’하면 잘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좀 저희 세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저희 세대는 그냥 잘살고 잘나가는 나라를 무조건 동경을 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좀 혁명적인 각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세대죠. (사례 12)

숫자를 중심으로 하는 세대 구분이 사례자마다 차이를 보였지만

일종의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구분은 유사했다. 1세대와 2세대가 항일운동과 전쟁을 겪은 세대라고 한다면 3세대는 소위 북한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추동한 세대이며, 4세대는 사회주의 공업화 이후 정치경제적 성장기를 겪으면서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장마당 세대는 다음 세대에 속하지만, 북한 사회 내에서 별도의 세대 구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이들을 대표할 만한 ‘혁명적 사건’의 부재, 즉 역사적 발전 단계의 멈춤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흥미로운 지점은 장마당 세대인 ‘미공급 세대’가 2000년 이후, 비교적 경제난이 완화된 이후에 출생한 세대들과 자신들을 구분 짓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내부에서 이들을 별도로 구분하는 명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른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이들이 자신들과 달리 무력하고 유약하다고 인식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 나. 세대 차이에 대한 인식

### (1) 장마당 세대의 특성에 대한 인식

사례 8의 언급처럼 ‘미공급 세대’라는 별도의 세대 구분이 존재한다면, 이들의 세대 특성에 대한 인식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19)85(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전까지 태어난 친구들을 미공급 세대라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세대들의 이런 구분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대들은 대체로 출세욕이 강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가난한 시절을 겪어서 헌신도 있고 노력도 더 열심히 하고 출세욕도 강한 시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남보다 잘 살려는 욕구가 특별히 강한 세대다. (사례 8)

사례 19는 장마당 세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 불행하고, 측은한 세대가 아니라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가 시장의 영역을 열어주면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세대가 바로 장마당 세대라는 것이다. 다른 면에서 사례 20은 장마당을 통한 돈벌이에 대한 집착이 과도할 수 있지만 불가피한 측면을 부각하기도 한다. 자본에 대한 인식이 남다른 부모로부터 자란 경우 국가에 대한 충성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냥 돈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까요. 자본주의라는 그런 상황을 많이, 시장에, 많이 생각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국가를 위해서 한 몸 바치고, 국가를 위한 많은 기여라든가, 영웅에 대한 인식이 많았었는데, 지금 상태는 많이 개인주의라든가, 그리고 많이 나눠준다는 그런 생각보다 그냥 개인만의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사례 20)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저희 아빠가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많아가지고, 진짜 돈에 대한 말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시장에 대한, 돈에 대한 그런 지식과 그런 거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런 쪽을 많이, 저 나이 또래도 많이 듣는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충성도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례 20)

장마당 세대의 관심사항은 단연코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부모가 돈이 많은 집은 쉬운 일을 하거나 별다른 일을 하지 않거나 자식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장사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에 나가면서도 장사를 통해 돈을 벌 궁리를 하게 된다.

관심사. 그냥 직장을 안 나가는 데를 찾아보는 게 관심사. 거기에는 직장에 다녀도 주는 게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거니까, 직장을 안 나가는 걸 찾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생각을 하죠. (사례 19)

장마당 세대의 관심사가 돈인 것처럼 그들의 고민 역시 경제생활을 하는 방법과 연관이 있다. 사례 12는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고민이 많은 세대라고 주장하며, 같은 세대끼리 만나도 대화의 화두가 사업 아이템이라고 한다.

큰 고민이라고 하면 돈 벌 고민, 먹고살 고민이 제일 큰 고민 아닐까요. 어느 세대나 같아요. 저희 어머니 세대까지는 정말로 돈이 귀한 줄을 몰랐던 거 같아요. 그때까지는 그냥 남들처럼 하면 나라에서 배급은 줬거든요. 그런데 먹고살 걱정은 안 했는데 저희부터는 그냥 나라에서 배급을 안 주니까 먹고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이 제일 많지 않을까. 그게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고 나라에서 화폐교환을 하면서 나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다음에는 먹고사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경제활동에 많이 신경을 쓰는 거 같아요. 모여 앉아도 하는 소리가 “야, 너 요즘 돈 버는 쩌마 없어?” 아이템 말하는 거죠. 북한에서는 쩌마라고 하는데. “요즘 너 잘나가더라. 뭘 해서 그렇게 잘 나가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사례 12)

이 세대의 특성상 경제행위와 무관하게 스스로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런데 북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구조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생각하는 것조차 희박한 경우가 있다. 사례 19의 경우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와 무관하거나 서로 다른 이야기를 늘어놓는다고 한다.

제가 느낀 거는 여기에서는 또래 친구들이 모이면 장래에 어떻게 하며 살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냥 일체 그런 말을 안 하고, 다 다른 소리를 해요.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놀고, 이런 소리만 많이 해요. 꿈 같은 소리를 안 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걸 써내거든요. 꿈, 꿈이 뭐냐, 이런 걸 써내는데, 아, 지망을 써내는데, 어느 대학교에 가겠다, 이런 것만 써내고 뭐가 되겠다는 건 안 썼어요. (사례 19)

사회 의식의 차원에서 보면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세대는 ‘당·국가 및 최고지도자에 대한 태도’, ‘북한 당국의 대표적 공식적 가치 지향인 집단주의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sup>128)</sup> 일종의 제2경제가 삶의 중요한 터전이 되면서 새 세대의 가치관은 개인주의와 출세주의 가치관의 확산, 즉 이전보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공명 의식과 출세주의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물질주의와 배금주의의 확산, 즉, 개인소유주의와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와 배금주의적 경향을 보인다.<sup>129)</sup>

고난의 행군을 유년기에 겪은 장마당 세대는 최악의 식량난에서 버티고 살아야 한다는 기본적 욕망 의지가 강하다. 이 의지는 생존에 대한 집착과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염세적 감정, 북한의 전통적 가치가 급격히 탈각되면서 삶에 대한 혼돈감이 자리 잡은 세대적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sup>130)</sup> 이 세대는 북한 당국이 자신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 경험이 체제나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지

128) 이기동, “‘고난의 행군’ 세대의식과 체제변화,” 『북한학보』, 제36집 제2호 (2011), pp. 25~28.

129) 이인정, “1980년대 이후 북한 ‘새 세대’의 가치 변화 연구: 「청년전위」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박사학위논문, 2004, pp. 110~146.

130) 김성경,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북한 ‘사이(in-between) 세대’의 혼종적 정체성,” p. 13.

않았다. 생존이 삶에서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일에는 집중하지 않았다. 기존 1970~1980년대 북한 제도를 온몸으로 수행했던 기존 세대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정체성이 태동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들이 사회를 냉정히 진단하고, 비판하는 성숙한 자아의식을 갖지 못했기에 생존이라는 원초적 욕망에 더 반응했다.

사회적으로 보면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세계사적 시대의 조류에 편승했던 경향이 있다. 내부적으로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이후 북한의 언론매체에서는 ‘새 세대들의 사상적 이완 현상, 무사안일 풍조, 개인주의적 생활태도’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sup>131)</sup> 이 비판은 당시 구소련 해체 및 사회주의권 붕괴와 궤를 같이하면서 북한 당국은 자본주의 풍조를 억제하고, 사회주의를 고수하고자 하였다. 북한에서 청년은 정권 수립 이후 늘 중시된 계층이었지만 ‘청년 중시’라는 사상과 정책이 등장하게 된 시점은 1990년대 이후이다. 청년 중시는 일종의 수사적 표현에 가깝지만, 이러한 표현의 등장은 청년의 변화가 체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국의 위기의식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sup>132)</sup>

## (2) 2000년대 이후 출생 세대에 대한 인식

심층면접에 참여한 ‘장마당 세대’는 비교적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를 자신들의 세대와 구분하고 있었다. 면담 대상자마다 자신들이 속한 세대를 칭하는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났거나 어린 시절

---

131) 임순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16.

132) 정영권, “2000년대 초반 북한 영화와 청년세대: 청년 과학자와 ‘청년동맹’ 형상화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34권 1호 (2015), pp. 41~42.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였다. 어린 시절 고난의 행군을 겪어 다른 사례자보다 나이가 많았던 사례 8은 자신도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한 미공급 세대이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에 태어난 사람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사례 8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이들을 ‘무력하고 유약한 세대’로 규정한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 보면 사회적으로 조금... 우리 세대 기준에서 보면 조금 좀 무력한 세대, (중략) 무력하다는 게 결국에는 사회적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부모의 그늘이 그때부터는 집중적으로 강해진 세대예요. 부모들이 애들을 충분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춘 시대에 태어난 애들이라서 뭔가 이 세대들은 남들하고의 그런 커뮤니티가 일단 약해요. 그리고 가난을 통해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인간의 중요성이라고 할까. 우리 세대는 꼭 성공을 위해서 사회관계망을 빼놓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사람과 그런 만남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성공의 기회가 온다고 확신하는 세대거든요. 그런데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굳이 나의 성공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라든가 우정 이런 측면도 좀 약하고요. (사례 8)

애네는 참 생각을 편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군대를, 예를 들어 갔어요. 그러면 저희 세대는 막 맞으면서 억울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엄마 세대는 막 억울하게 맞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당과 혁명에 충성을 하는 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세대고... 저희 세대는 억울하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민원을 넣는 세대예요. 신고를 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이거를 좀 개선해 주십시오” 하고... 아래 세대는 그렇게 맞았잖아요. 그럼 바로 탈영을 해요. 네, 자기가 딱 중심이기 때문에 그 세대는 자기한테 다 모든 것을 맞추거든요. 탈영을 하는 세대가 때문에, 요즘은 군대에서도 막 무분별하게 싸우

고 때리고 하는 게 엄청 많이 바졌다고 하더라고요. (사례 12)

사례 8이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들을 유약한 세대로 보는 것은 그들이 사회적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극복한 경험도 없으며, 부모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이들은 집단을 통한 내적 성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사회의 연결고리도 취약하다.

새 세대는 최소한 어렸을 때 부모의 그런 보호 아래서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 있잖아요. 그때는 부모들이 충분히 애들을 굶기지 않고 애들 잘 관리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대체로 1명을 낳았어. 1명을 낳다 보니까 부모들이 애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중략) 그리고 애네는 그냥 헌신과 양보가 없어요. 이 세대는, 그냥 좋은 거 내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세대거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 얘기해보면 딱 답이 나와요. 이 친구들은 군대랑 가서 지금 군에 가는 친구들도 상관이에요. 때리잖아요. 그럼 바로 집에 와버려요. (중략) 저희 친구들이랑 군에 가서 이런 장교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나이대가 30대 초반이라서. 그런데 10년 아래 친구들을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애네가 수틀리면 가서 당위원회 가서 “나 오늘 맞았습니다. 군 복무 못 하겠습니다. 때려서.”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다른 거죠. (사례 8)

고난의 행군을 기억하는 장마당 세대들은 이후 세대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하게 설명한다. 북한의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한 자녀 가정의 비중이 많아진 것이 2000년대 이후 출생 세대의 특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는가 하면, 정보통신기기의 발달 등을 그 이유로 보기도 한다. 즉, 면담 대상자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핸드폰, 컴퓨터, 게임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험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는 한 (19)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그 세대가 많이... 이렇게 디지털은 많이 안 하지만, 돈에 대한 집착이 많은 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2001년 후부터는 디지털과 많이 접촉하는 세대이다 보니, 돈보다 많은 게임이라든가, 빠른 디지털을 접하는 상황이 많은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 20)

사례 20은 같은 1990년대에 태어난 세대와 2001년에 태어난 세대를 언급하면서 정보통신기기를 그 기준으로 삼거나 자본을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기도 한다.

PC게임이라든가 핸드폰 영상이라든가, 그리고 예전에는 사진기를 가지고 다녔지만 지금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그런 세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중략) 거기에서는 대부분 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컴퓨터 1대씩은 있는 세대인데. 거기서도 컴퓨터는 다 있다 보니까, PC라든가 컴퓨터 활용을 많이 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죠. (사례 20)

여기서도 앱을 개발하고, 컴퓨터도 업데이트를 시키는 앱들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핸드폰 게임이라든가 그런 앱을 만들고, 영상편집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직업을 많이 얻다 보니까 그럼 방향을 많이 택하는 거 같아요. 택해서 디지털로 많이 돈을 버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 20)

‘디지털로 돈을 번다’는 것은 중국에서 남한 드라마나 영화 등을 다운로드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해서 배포하는 형태로 수입을 얻는

방식을 말한다. 사례 20은 2000년 이후 출생한 세대가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영상 등을 수입해서 배포하는 활동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는 경우가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한다. 2000년대 이후 출생 세대들이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자본을 벌어들인다면, 1990년대 출생 세대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직업으로 활용하지는 않는다. 대신, 지역 특색을 직업과 연결 짓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 다. 세대별 특성: 인간관계, 결혼관, 진로 문제

장마당 세대는 자연스럽게 교우관계에서도 자신과 가족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맞는 사람 위주로 친구를 사귀는 경향이 있다. 일종의 그들만의 끼리끼리 문화가 생겨나면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평등의 가치나 집단주의는 열어지고 있다.

근데 어... 뭐랄까... 친구라고 하긴 하지만, 잘사는 집 아이들이랑 같이 놀고요. 그리고 돈이 좀 중간층에 있는 아이들과 똑같이 놀고,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활동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못 사는 애가 잘사는 집이랑 노는 경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잘사는 집 애들의 문화, 팀에서 못사는 집 애들이 들어오면 밀어내는... (사례 20)

사례 20은 소득수준에 따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다. 잘사는 집 아이들과 못사는 집 아이들의 구획은 친구의 생일을 맞아 비용을 각출하면서 정리된다. 친구의 생일에 내는 비용을 누군가 높게 책정해서 그 액수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이탈된다는 것이다.

너 여기 왜 왔어, 너 못살잖아, 돈도 없잖아. 그렇게 직방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늘 생일인데 얼  
마씩 건자, 그렇게 해서 뭘 사주는... 그런데 그 액수, 잘사는 집 에  
들마다 그 액수가 다르잖아요. (중략) 없는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사례 20)

2000년대에 태어난 세대의 경우 자라오면서 동네에서 집단싸움  
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례 20은 1990년대에 태어난 경우 최  
소한 조직에 속해야 따돌림을 받지 않지만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조직에 연계되지 않아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 세대이기에 가  
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전에는 뭐랄까. 패싸움이란 거 있잖아요. 무리를 지어가지고  
나는 툭썩이다, 이렇게, 너는 뭘 왼팔, 오른팔 해가지고. (중략) 네.  
위아래가 있고, 패싸움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계급에 따라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저희 또래는 패싸  
움 같은 거 별로 안 했거든요. (중략) 고난의 행군 시기 그때, 그  
후부터 돈에 대한 생각이 부모들도 많아지고, 자식들에게도 부모가  
많이 해주다 보니까, 소비하는 싸움들보다 돈에 대한 집착이 많아  
지는 세대가 94년도라고. 딱 짝어서 말할 순 없지만, 94년도부터라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략) 팀을 조직하든가 팀에 속해야 왕따  
라는 인식이 안 드는. 그런 예전 세대였지만, 지금은 혼자라도 괜  
찮은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죠. (사례 20)

한편 이들의 연애문화는 남한과 비슷하다고 한다. 이동의 제약이  
있어서 일정한 장소에서 머무는 것을 제외하면 남한의 그것과 큰 차  
이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이동의  
한계를 정보통신기기로 보완해나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애는 애들이 여기하고 비슷하게 해요. 그니까 제 또래 20대, 거기서는 학교를 17세, 18세에 졸업을 하는데, 학교 때부터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졸업해서 연애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연애는 되게 비슷하지만 노는 거니까, 여기는 되게 놀러 갈 데도 많고 이런데, 거긴 주변에서 계속 놀고... 애들이 그러는 거 같아요. (사례 19)

저희 세대는 대부분 이렇게 핸드폰이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만나서 고백을 한다든가,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많이 노는... 다니고 데이트하고 그런 날들이 많았지만, 지금 세대는 대화하는 게 대부분 전화로 많이 하는 그런 추세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문자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PC나 게임을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근데 저희는 데이트 한다 하면 음식을 먹는다는 거, 쇼핑을 한다든가, 길을 걷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 20)

북한 사회의 특성상 남성이 연애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의 연애방식은 남한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북한의 남성이 모방하는 연애 행위는 특정 달의 14일이나 100일 단위로 상대방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것이다. 남한의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처럼 특정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으레 14일에 맞춰서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이벤트 챙기고, 100일, 50일 이런 거 챙기잖아요. 거기에선 그런 건 몰랐거든요. 사귀는 날짜를 기억하는 것도 잘 안 했는데, 여기 드라마 보면서 그런 거 따라 하고. 그리고 빼빼로데이라고 말은 안 하는데, 초콜릿 주는 날, 화이트데이, 뭐 그렇게 하는

데, 거기서는 날짜를 정확히는 모르고, 14일에 주는 걸로 알고 남자애들 여자애들한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례 19)

저희 10대도 영화,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 한국 영화를 보면서 언어라든가, 많이 보다 보니까, 100일, 200일 그런 걸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100일을 기준으로 해서 100일 이상 갈 수 있고, 그 아래도 갈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례 20)

남성들만 이러한 남한의 기념일 문화를 따라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 20은 연인 간에 100일을 기념할 때, 여성이 남성에게 시계, 라이터, 향수, 꽃, 옷 등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생일이나 북한의 청년절에 선물을 교환하기도 하며, 일부 세대에게 청년절은 고백을 위한 날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애방식에는 비용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 남녀 간의 만남도 경제적 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소문을 통해 확인하기도 하지만 소지하거나 착용하고 있는 물품으로도 확인한다고 한다.

첫째 핸드폰이 비싼 걸 쓰고, 노트북도 비싼 거 쓰고, 옷도 잘 입고, 그리고 애들이랑 몰려다니며 놀잖아요. 그럼 집부터 알리잖아요. 그럼 아 이 집은 잘사는 집인가 보다 하고 애들이랑 말할 때, 재는 아빠가 얼마씩 번대, 그런 소문이 많다 보니까, 그런 소문으로 만나는 거죠. (사례 20).

한편, 이 세대들은 전통적으로 북한 사회에서 선호하는 직업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졌고, 지위가 흔들리고 있음에 주목한다. 경제활동으로 부를 축적하고, 성공할 수만 있다면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는 것이 북한 젊은 세대의 특성이다. 군대에 가는 것 역시 과거와는

분명 다르다. 남성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군대에 가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조기제대를 하면 약한 존재로 취급받기도 했는데, 이제는 가능하면 일찍 제대해서 진로를 선택하는 사람을 명석하게 본다고 한다. 사례 8은 전통적으로 선호했던 진로인 군 복무, 대학, 입당이 흔들리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문제는 북한이 지금 기존의 직업들이 가지고 있던 매력이 다 흔들리는 시절이다 보니까. 예전에 당일군, 되게 좋았어요. 내가 당일군 하면 그냥 쪽 성장해서 곱게 지위도 누리고 경제적인 자유도 누릴 수 있는 직업이었고. 보안일군 그리고 법일군 검사, 판사 다 좋은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행정직부터 시작해서 다 흔들리는 거예요.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 사회통념상 말하자면 검사라든가 당일군이라든가 보위부, 보안원에 대한 그런 지위는 좀 약해졌을 뿐이지 아직 의연히 존재하는 거고요. 그 외에 딱히 직업을 떠나서 경제활동에서 내가 특정한 부문에서 재능 있어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런 직업보다 부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사례 8)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도 변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결혼을 위한 만남이 자유로워졌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남자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상대 부모나 형제의 직업도 보고, 집안의 경제적 내력을 중시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옛날에는 누구 소개해주면 그 사람하고 무조건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소개해줘도 그 사람이 싫으면 안 만나면 돼요. 그리고 결혼한다면 남자의 경제적인 힘을 많이 봐요. 집 내력, 엄마 무슨 장사를 하고, 형제 있으면 형

제가 무슨 장사를 하고, 그 사람의 직업, 그리고 남자가 결혼할 때  
집은 무조건 사야 한다, 이런... 그건 무조건인 거 같아요. (사례 19)

물론, 현재의 장마당 세대의 결혼관이 기성세대와 유사한 점도 있  
다. 북한의 시장화 이후 기성세대 역시 배우자의 경제력을 중시하는  
태도에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결혼하는 과정에서 남자의 역할을 중  
시하는 관점 역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적어도 결혼이라고 하는  
전통적 의례를 보는 관점과 인식은 기성세대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혼에 대해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이혼에 대해  
유연한 생각을 갖는 일부 사례자가 있었다.

예전의 여성들은 숙명적으로 헌신과 희생을 받아들이고 남자의  
그런 부도덕한 거를 묵인해야 된다. 이런 통념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는 이혼하고 집에 오는 게 부끄러워서 머리 들고 다니기 힘들었어  
요. 그러던 것이 아무래도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 이  
혼율이 많이 올랐어요. (사례 8)

장마당 세대는 필요에 따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점차 많  
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관은 북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혼관은 시장화 이후 변화된 기성세대의  
생각과 대체로 궤를 같이한다. 적어도 혼인과 같은 문화의 인식은  
쉽게 탈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 3. 세대 간극으로 본 세대 공존의 (불)가능성

통상 북한 사회의 구성원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같은 생각,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여전히 북한과 주변 정세에 관심이 있는 기성세대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적 가치와 개인의 안위를 중심으로 살아온 장마당 세대는 상대적으로 군사 안보와 정치적 이슈에 큰 관심이 없다. 일부 인터뷰 사례자는 기성세대와 장마당 세대 간의 관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군사적 부분의 논의에서 충돌하지도 않고, 심지어 일치하는 부분도 없다고 이야기한다.

애들은 뭐. 저희 주변에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싸 올리겠으면 싸 올리고. 나하고 뭘 상관.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모부가 군관이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계속 봐요. 근데 그 뉴스는 집식구 중에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틀어보면 아무도 안 봐요. 이모부 혼자 봐요. (사례 19)

기성세대에게 북한의 현안은 지속적인 관심사항이다. 장마당 세대에게 친척이 자주 이야기하는 북한의 정세가 무엇인지 질문했지만 귓등으로 흘려들었기 때문에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자주,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지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예 해당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니까. 이모부네 말하는 걸 저는 구체적으로는 안 듣는데, 가끔 들으면 김정일 시대랑 김정은 시대, 이렇게 바뀐 거, 그런 소리를 좀 하는 거 같아요. 저는 이모부네 집에서 술자리 가지면 집에 없고 나가 놀거든요. 아버지들의 말을 들겠다고 하니까... 들어본 적이 크게 없어요. (사례 19)



심지어 북한의 핵실험 성공에 대한 내용이 언론매체에 나와도 자부심을 가지기보다 군사적 지출을 주민들에게 돌렸으면 하는 의견도 일부 나타난다고 한다(사례 11). 연구자가 만난 사례자들은 자신들과 기성세대와의 간극을 크게 보지 않았다. 이는 시대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는 있지만 기성세대도 시장을 통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해당 삶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장마당 세대’들은 일찍부터 경제전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에 더 거부감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이모 때는 학교 다닐 때는 학교만 다니고, 공부할 때는 공부만 딱 해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학생들은 공부 안 해도 나와서 장사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마인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모 때는 그런 거, 장사 같은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애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사례 19)

북한의 기성세대는 여전히 연애, 군대, 결혼 문제에 있어 원칙을 중시한다. 앞선 세대가 ‘연애는 곧 결혼’으로 인식했고, 남성이 군대를 가는 것을 당연시했다면 장마당 세대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조금씩 이탈하고 있다.

4세대랑 5세대 제일 확실한 차이점은 연애에 대한 관점이고요. 이제 5세대는 4세대처럼 “연애하면 결혼해야 된다”가 없고요. 그리고 “파혼을 했다” 그러면 “그게 뭐?” 이런 식. 그런 게 연애에 대한 관점이 제일 확실하게 달라요. 그리고 4세대까지만 해도 맞선 상대, 딸의 결혼상대 남자면 무조건 “군대를 갔다 왔냐. 입당을 했냐?”를 따졌거든요. 그런데 저희 세대부터는 “군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지”라고 하고 군대를 많이 피하려고 해요. (사례 11)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남자는 군대에 가야 한다거나 여성은 결혼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기성세대의 입장은 있지만 지나친 강요는 없다. 오히려 젊은 세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한다.

그렇게 막 뭔가 안 맞아서 갈등 정도는 아니고요. 부모님들은 보통 군대에 대해서는 “그래도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사람 구실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군대를 안 간다고 해서 부모님이랑 싸우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왜냐면 부모님도 20년 고이 길러서 제일 좋은 10년을 내보내긴 아까우니까, 본인이 “안 가고 싶다”라고 하면 부모님은 어떻게든 안 가게 도와주려고 하고요. 그런 데서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사례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기성세대를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다른 세대를 보는 관점이 정교하거나 비판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충실한 ‘척’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성세대의 이중적인 모습에 불만을 갖는 장마당 세대도 있다.

우리 위의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기성세대. 되게 말과 행동 따로... 바꿔 말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정립한 세계관이랑 실지 살아가는 사회관이랑 다른 거예요. 그 세대들은 말로는 되게 충성, 제도에 대한 이런 선전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자기 행동은 그것에 비춰보면 모순적으로 살아요. 겉으로는 희생과 헌신을 이렇게 외치는데 실제 행동을 보면 되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준에서 보면 되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사례 8)

일부 장마당 세대는 기성세대라면 자신의 자식들이나 자라나는 장마당 세대에게 국가와 사회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변혁 운동은 아니더라도 자신이 맡은 처지와 역할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문제를 지적하는 북한의 기성세대는 찾기 어려우며, 그들이 최소한 절충점도 찾지 않음을 지적한다.

일단은 진로라든가 정책의 그런 반영...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한 류드라마 같은 거를 부모는 “보지 말라”고 해요. 보라고 하는 부모 없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봐요. 이런 문제는 되게 이질감이 나는 부분이죠.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부모는 자식한테 “지금 국가정책이 다 틀렸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꼭 집어 말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거를 부모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한테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중략) 그러면 본인들이 국가에서 교육을 통해서 배운 거랑 현실의 차이를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 이것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뺄어져 나가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부모들하고 말도 안 통하고 막 그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럼 부모들 “공부해라” 그럼 애들은 “왜 공부해야 되냐?” 부모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그다음부터... (사례 8)

사례 8은 기성세대가 사회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지 않기 때문에 겪은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를 이겨내는 방법은 스스로 경험하면서 현실과 이상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다. 국가가 지향하는 부분과 전혀 동떨어진 선택을 하기도 어렵고, 그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다. 이 간극의 접점을 찾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의지에 의해서 가능하다.

저희 세대가 실질적으로 아직도 삶의 행복을 추구할 때 이런 벼슬길,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진 시스템을 딛고 올라가서 내가 관리로 성공하는 길을 좇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 외에 또 이렇게 개인주의를 모색하고 경제활동에서 자유, 생활에서 그런 자유를 추구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게 갈리는 거예요. 저희 세대는. 그런데 아랫세대는 어떠한 약을 쓰고 그 딱히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 자체가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대학도 다니다가 짜증 난다고 포기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거든요. 저 몇 명 봤어요. 그런 친구들. “그럼 뭐하고 살래?” 그러면 “영화 보고 노래 듣고 사는 게 좋다.” (사례 8)

다만, 모두가 사례 8과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선례에 따라 성공을 추구하려는 또래도 여전히 많다. 이는 이들이 성공의 경험을 가진 기성세대를 목도했고, 국가가 추구하는 방식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장마당 세대인 사례 8 역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자신들과 구분한다. 자신들은 어린 시절에 여러 고통을 겪었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이중적인 사회의 모습에 선택의 고민이 깊어지는 세대라고 여긴다. 반대로 이후의 세대는 삶의 의지조차 희박하며, 어떠한 인생의 방향성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례 8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단순히 고난의 행군 경험의 유무나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의례 폄하하는 정도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성공하는 삶에 대한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고, 다양한 기회를 갖지 못한 사회 현실에서 새로운 세대의 선택지는 의외로 단순할 수 있다. 그중에는 어린 시절부터 미래와 희망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거나 단념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사례 8이 말하는 아랫세대 중 상당수는 조기에 삶의 의미를 단순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 4. 세대 간극: 통일인식의 남북한 비교

### 가. 통일의식조사에 나타난 세대 특성: 남북한 비교<sup>133)</sup>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주민 통일의식 2020』에 의하면 젊은 세대인 20대는 통일과 북한 사회에 관한 인식에서 여타의 세대와 차이를 보인다. 자신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생각했던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30대와 40대는 각각 83.3%, 92.9%를, 50대는 90.0%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는데, 20대의 응답 비중은 64.7%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sup>134)</sup> 북한 주민의 통일의지를 묻는 질문도 ‘매우 원한다’는 응답이 전 세대 평균이 78.9%였는데, 20대는 평균 이하인 61.8%에 불과했다.<sup>135)</sup> 북한의 20대가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 주민의 통일 의지에 대해 60% 이상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한 것은, 남한 사회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북한 내 다른 세대와 비교하면 낮다.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20 통일의식조사』에서는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필요’와 ‘약간 필요’를 응답한 비율이 50대와 60대 이상에서 각각 62.5%, 61.4%였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낮아져, 40대가 57.3%, 30대가 43.0%, 19~29세가 33.9% 순으로 뚜렷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 주민의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항목에서 19~29세는 ‘현재가 좋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sup>136)</sup>

---

133) 이 소절에서 인용한 남한 주민의 통일의식은 김범수 외 『2020 통일의식조사』(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을, 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은 김학재 외, 『북한주민 통일의식 2020』(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을 토대로 한다.

134) 김학재 외, 위의 책, p. 196.

135) 위의 책, p. 197.

한편,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통일과 집단 이익의 상관성을 묻는 항목에, 집단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의 세대별 평균은 82.6%로 높았지만 20대는 61.8%에 그쳤다. 또한, 통일이 개인에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의 전 세대 평균은 68.8%였지만, 20대는 35.3%에 불과했다. 다만,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20대가 52.9%로, 통일이 전체적으로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데 20대들이 공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대 이상의 세대들이 대체로 이익에 대해 매우 높게 기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대의 기대치는 상대적으로 낮다.<sup>137)</sup>

〈표 III-1〉 세대별 대북지원 인식

(단위: %)

| 연령대 | 매우 잘 알고 있다 | 조금 잘 알고 있다 |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
|-----|------------|------------|----------------|--------------|
| 20대 | 2.9        | 38.2       | 20.6           | 38.2         |
| 30대 | 11.1       | 33.3       | 27.8           | 27.8         |
| 40대 | 28.6       | 42.9       | 7.1            | 21.4         |
| 50대 | 20.0       | 43.3       | 16.7           | 20.0         |
| 60대 | 0.0        | 71.4       | 14.3           | 14.3         |

자료: 김학재 외, 『북한주민 통일의식 2020』, p. 235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또한, 북한 주민들의 대북지원 인식, 즉 “북한 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질문에 20대의 응답률이 낮은 편이다(〈표 III-1〉 참조). 이들이 대북지원을 인지하기에는 너무 어렸기 때문일 수 있는데, 대북지원 규모가 2010년 이후 점차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와 같이

136) 19~29세(30.6%), 30대(25.5%), 50대(18.4%), 60대 이상(18.2%), 40대(17.1%) 순이다. 김범수 외, 『2020 통일의식조사』, p. 301.

137) 김학재 외, 『북한주민 통일의식 2020』, pp. 200~201.

젊은 세대일수록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이 낮고, 통일과 개인의 이익에 대한 공감도 낮다. 이는 남북관계나 통일 논의에 대한 젊은 세대의 공감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20대는 탈북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자유 체제에 대한 동경’을 꼽았다(〈표 Ⅲ-2〉 참조).<sup>138)</sup> 20대의 자유 체제에 대한 동경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먼저 탈북한 가족의 권유’는 그 원인이 북한 사회라기보다 인적 네트워크의 문제이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자유 체제에 대한 동경은 젊은 세대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이다. 이 자유 체제에 대한 동경은 직업 선택의 자유,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북한 사회가 실현해줄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한 응답으로 볼 수 있다. 직전 연도인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9』에서도 가족의 권유에 의한 탈북을 제외하면 20대는 자유 체제에 대한 동경을 탈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sup>139)</sup>

〈표 Ⅲ-2〉 탈북 결심 이유

(단위: %)

| 연령대 |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 정치적 탄압 | 경제적 어려움 | 먼저 탈북한 가족의 권유 | 자유 체제에 대한 동경 |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부여 |
|-----|----------------------|---------|---------------|--------------|----------------|
| 20대 | 8.8                  | 11.8    | 26.5          | 35.3         | 14.7           |
| 30대 | 16.7                 | 33.3    | 27.8          | 5.6          | 5.6            |
| 40대 | 21.4                 | 14.3    | 7.1           | 7.1          | 42.9           |
| 50대 | 33.3                 | 13.3    | 23.3          | 10.0         | 13.3           |
| 60대 | 28.6                 | 0.0     | 57.1          | 14.3         | 0.0            |

자료: 김학재 외, 『북한주민 통일의식 2020』, p. 278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138) 위의 책, p. 278.

139) 김학재 외,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9』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p. 263.

## 나. 북한의 통일의식: 세대별 특성

### (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앞서 언급했듯 이 세대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과 의지가 낮지만, 사례자들은 전반적으로 한반도 통일 문제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저희 세대까지 있는 지배적인 입장은 통일 쪽에서 되게 한국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 저희 세대까지는 통일해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왜 통일해야 되는지는 잘 몰라요. 고민이 없이 정책적으로 통일 계속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로 받아들인 세대고. 지금 세대는 좀 더 아래 세대는 “통일 왜 해야 할까?”라고 질문하면 “한류가 되게 좋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세대죠. (사례 8)

심층면접에서는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세대 간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통일의 이유에 대해서는 세대 간 차이가 관찰되었다. 북한의 기성세대가 북한 중심의 정치적 통일관을 가졌다면 장마당 세대는 경제문제 중심의 통일관이 우세하다. 남한의 경제성장은 장마당 세대의 주요 관심사이다. 북한 당국의 통일 관련 사상교양은 장마당 세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비교적 명확하다. 북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통일 관련 내용, 통일의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남한의 경제 성장과 문화 전파는 이들의 가치관에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

저희 세대는 “통일이 돼야 된다”보다는 “한국으로 가자”가 먼저



고요. 통일은 뭐랄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 어른들도 맨날 통일한다고 그러면서 못했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시고 “통일은 안 될 거 같다. 우리가 한국으로 가자”라는 생각이 더 많고요. “통일 굳이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통일이 되는 게 좋다”고 하죠. (사례 11)

어떤 면에서 북한의 젊은 세대에게 한반도의 통일은 깊은 고민이 아닐 수 있다. 다만, 젊은 북한이탈주민에게 한반도 통일은 추상적이지만 진취적인 변화를 갈망했던 그들의 이상을 실현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기존 세대가 적극적인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미온적이라면 젊은 세대는 자신의 꿈을 갖고 실현하는 데 있어 통일 문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사실 관심이라고 할까요. 꼭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어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중략) 저희 윗세대는 그럴만한 가치를 못 찾아요. 그 세대는 거기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까지...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내놓고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꺾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와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이란 사회에 와서 한번 보고 싶고, 한민족끼리 이렇게 소통하고 싶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행했고 후회 없거든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제 아래 세대는 더욱더 강렬할 거라 생각해요. (사례 8)

사례 8의 경우 주변에 남한의 아이들, 이를테면 BTS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다. 계속 집에서 춤을 추면서 그들을 따라하지만 북한에서 그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춤은 추지만 북한에서 춤을 추고 먹고살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이 남한을

동경하는 이유가 되었다. 또한 그의 주변에는 여행가이드처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맛집을 추천하는 그런 직업을 꿈꾸는 부류도 있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기 힘들다.

이렇게 방랑벽 같은 게 있어요. 한 곳에서 머물지 못해, 계속 돌아다녀.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 분명히 이런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본인의 개성이나 취향을 알아요. 새 세대들은, 나는 어떻게 하며 살면 좋겠다는 걸 아는데, 좀 더 편향적이죠. 종전의 세대는 싫고 좋고를 감수하고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뚜렷하게 자기만의 색깔을 찾지 못해요. 저희 세대까지는. 그런데 새 세대는 자기가 뭘 하는지 잘 알거든요. 딱 꽂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통일이란 자기가 살고 싶은 식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여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사례 8)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연구자가 만난 장마당 세대들은 남한과의 통일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비교적 분명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현재의 북한 사회가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그들에게 일종의 기회의 문으로 존재했다.

## (2) 통일 혹은 미래에 대한 관심 결여

북한의 젊은 세대는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일상에서는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 사실,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남과 북 모두 낮다. 사례 19는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을 북한의 언론매체를 통해 시청했다. 평소 접하지 못한

광경이었고, 설렘이 있었지만, 그 설렘을 가로막은 것은 기성세대였다. 북한의 기성세대조차도 한반도 통일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통일 문제에 미온적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저희 친구들 모여서 놀다 보면, 통일 이런 생각 아예 안 하거든요. 그냥 뭐, 일체 그런 말이 오고 가는 대화 내용도 없어요. 그냥. 어떤 때 통일 말을 하냐면, 뉴스 같은 데서 말하면 저희 집안에서 하는 이야기는 통일이 되겠냐, 이렇게만. (중략) 저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기 있을 때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에 갔었잖아요. 그때 뉴스를 북한에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모부랑 뭐 일이 나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북한 사람들이 제일 설레었어요. 통일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모부는 또 이렇게 하다가 싹 사그라진다고 했는데, 진짜로 그때 그렇게만 하고 일체 아무것도 없어서. (사례 19)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어려운 북한 사회의 분위기도 한몫한다. 어찌 보면 남북 모두 한반도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적은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 뭔가 일이 일어나려나, 이게 그냥 답이었어요. 거기에서 더 말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잘못 걸리면 또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진짜 속마음을 말 안 하거든요. (사례 19)

북한의 젊은 세대에게 남한의 젊은 세대와 자신의 다른 점을 물어 보니, 북한은 기약 없는 내일보다 오늘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한은 생각을 많이 하고, 미래를 더 준비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정

치에 대한 비판의식이나 불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역시 남북이 다르다고 하였다. 사례자의 말을 종합하면, 장마당 세대는 다분히 미래 또는 통일에 대한 기대보다 현재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애들하고 얘기할 때는 내일이 없다, 사는 날까지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애들은 자기 나이에 너무 생각하는 게 많고, 자기 앞에 해야 하는 일은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근데 그쪽 북한 친구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놀고, 여기 애들도 많이 놀지만, 대학교에 가야 한다. 거기 학생들하고 차이는 대학교, 일단 제일 그런 거 같아요. 거기 애들은 대학교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학교에 꼭 가야 한다. (사례 19)

일단 다른 점에서 제일 놀랍게 느낀 거는, 그 뭐랄까, 일단 제 또래면 한국에서는 이미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취업이나 경제적인 데서 굉장히 좀 어른처럼 그렇게 성장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반발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정치에 대한 불만도 많고, 사회에 대한 불만도 많고, 본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원인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리고 불만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그런 데서 좀 많은 거 같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잘 터득한 거 같고. (사례 11)

북한에 거주했던 젊은 세대는 남한의 정치 참여와 의식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남한 세대의 북한과 통일에 관한 관심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남한의 소위 MZ세대가 한반도 문제를 보는 인식과 관심이 낮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남한 또래 세대들의 인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즉, 상호 간 통일 혹은 미래에 대한 관심 저하가 고착화할 수 있다.

그, 애들이 물어보는 게, 남한 애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북한에 브랜드가 있냐고 물어보고, 루이뷔통이 있냐고 물어보고, 되게 그니까 브랜드 같은 걸 물어봐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냐고 물어보고. (사례 19)

관심이 없어요. 통일이 되든 말든. 이분들은 관심이 없고요. 우리 팀장님이 그랬어요. 나를 딱 소개해줄 때, “북한에서 온 친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물론 내 개인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있지만 북한에 대한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아요. 내가 “관심이 없냐?”고 하니깐 관심이 없대요. 네, 관심이 정말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북한이 우리랑 뭐가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뭐가 다를까. 뭐가 특이할까, 이런 쪽으로는 관심을 하지만 북한하고 한국하고 통일했을 때 격차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냥 순전히 자기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사례 12)

## 5. 소결

본 연구는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국가의 안전망에서 벗어난 세대인 ‘장마당 세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의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의 주요 내용은 장마당 세대의 세대 출현과 세대 간극에 대한 인식, 이들의 교우관계, 연애, 직업, 군대, 결혼관, 통일관 등이었다.

1990년대 북한 사회의 어려움은 자연재난, 에너지난, 식량난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난이며, 주민들의 극복 방식은 시장으로의 적극적 참여였다. 국가의 공급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물물교환 수준의 활동에서 사적 이익을 위한 상업 활동으로까지 시장의 영역을 넓혔다. 시장은 북한 당국의 통제 수준에 따라 변동이 있었지만 당국이 시장을 완전히 억압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북한 당국에게 시장은 사회주의라는 과도기에서의 경제적 공간이었다. 필요에 따라 시장은 사회 안에 흡수되면서, 점차 합법화의 길로 가고 있다.<sup>140)</sup> ‘시장의 등장’은 단순히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식의주의 장’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면 ‘시장 그 이후’는 사뭇 다르다.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자들이 부각되면서 부(富)를 목적으로 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부에 따라 서열의 질서가 정해지고 있다. 이데올로기에 의한 질서는 힘을 잃고 있으며, 계층 간, 계급 간 격차는 커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시장은 북한 사회를 위협하거나,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북한 시장의 진화 과정은 시행착오 속에서

---

140) 정영철, “북한 경제의 변화: 시장, ‘돈주’, 그리고 국가의 재등장,” 『역사비평』, 통권 제126호 (2019), pp. 135~136.

국가가 시장을 디자인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는 상호 대립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고, 협조하는 관계로 볼 필요가 있다. 시장의 활성화로 신흥 자본이 공급이 등장한 것은 맞지만 이 자본가를 그 이전에는 존재조차 미미했던 존재로 생각할 수 없다. 북한 시장의 발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함께 정치적 경쟁과 협조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sup>141)</sup> 시장의 발전이 북한의 계층질서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으로 이익을 본 새로운 주체가 기존 정치의 위계구조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주체들은 정치세력이나 권력기관의 후견을 통해 성장했으며 만일 그들이 없다면 이 주체들의 성장을 예단할 수 없다.<sup>142)</sup>

즉, 시장이 계층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촉매제가 되지만 여전히 기존의 정치적 지위에 의해 질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시장 활용 수준에 따른 북한의 계층구조에서 중·상위 계층들은 시장 네트워크에서 상호 협력한다. 이들은 시장의 이윤과 잉여를 챙기는 것이상으로 자원, 기술, 정보 등을 생산해내는 시장 활동의 주역이다.<sup>143)</sup> 다만 시장 활용 수준에 따른 계층 역시 30년에 가까운 시장의 역사를 고려하면 먼저 사다리에 올라간 누군가가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질서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장의 역사이기에 어떤 시점과 상황에서 그것을 마주했느냐에 따라 세대의 경험은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시장을 경험한 세대와 2000년대 이후 경험한 세대의 관점이 같을 수 없다. 북한 주민의 의식주 경험이나 교

141)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p. 12~13.

142) 윤철기, “북한 시장화 이후 계급체제와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성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9권 2호 (2016), p. 165.

143)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p. 14.

육, 의료의 질의 활용 정도가 다르고, 식량난을 극복하려는 가족 구성원, 특히 여성의 대응 역시 같을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시장을 경험한 세대를 장마당 세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구분과 접근으로 이들을 바라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마당 세대, 즉 미공급 세대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스스로 경제, 사회적 생활을 영위해야 했던 불행한 세대이다. 하지만 자립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제한적이지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국가보다 시장을, 즉 경제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태도들이 있다. 국가에 대한, 권력의 위계에 대한 충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개인의 이익과 연결된 부분을 더 중시하는 것이다.

아직 장마당 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와 큰 갈등은 보이지 않고 있다. 성장단계에서 거쳐야 할 군대, 결혼에 대해 세대 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세대 간 갈등이 확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 내 정치·사회적 문제에 있어서도 세대 간 갈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생계문제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북한 내에 벌어지는 정치·사회적 문제가 주요 갈등 요인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가족 간에도 암묵적으로 자신의 정치·사회적 의견을 말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 이러한 주제와 관련한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장마당 세대의 최대 관심사는 대체로 금전적 이득이다. 북한에서는 사회 환경, 개인이 처한 사회적 성분에 따라 운신의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경제활동을 통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화두이다. 여러 사례를 살펴봤을 때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생활을 통해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경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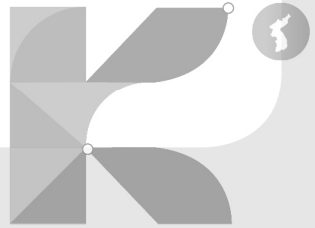


여건이 담보되지 않으면, 각자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 직업관, 군 복무에 대한 관점 변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편, 젊은 세대의 연애는 자유로워지고, 그들의 이상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정보통신기기, 여가 문화의 발달, 외래문화의 유입, 여성의 사회 참여 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제적 여건은 연애나 교우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성들도 헌신과 희생을 받아들이거나, 남성들의 부도덕함을 묵인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마당 세대는 북한의 정치·군사 문제에 있어서 무관심하거나 국가가 의도하는 방향과 다른 견해를 갖기도 한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무관심을 넘어 정치적 혐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남한의 MZ세대,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기성세대들에 비해 한반도 문제에 무관심하다. 물론, 이러한 무관심이 생겨나게 된 남한과 북한의 경제사회적 조건들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 집단보다는 개인의 영역을 더 중시하고, 일상과 연계된 가치들에 더 천착하고 있다. 북한의 세대 담론은 새로운 세대들의 지향, 정서, 정체성의 변화를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들의 지향과 관점이 앞으로의 남북관계나 협력, 통일 논의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IV. 노동과 직업의 선호와 전환경험

박희진 동국대학교





# 1. 서론

공동체(Gemeinschaft)는 가시적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고 손에 짚 수 없으며, 다만 실제성을 부여할 뿐이다. “공동체는 현대사회에 관한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채롭고 강력한 개념이다.”<sup>144)</sup> 언제나 계속해서 추방되고, 소환되고, 부정되고, 배척되면서도 가장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다. 또한 공동체의 개념은 따스함, 보호, 사랑, 신뢰 등을 상징화하는 감정적 은유들로 채워져 있어 공동선(Gemeinwohl)을 향한 제도적이며 신화적인 장치로 활용된다. 그 이유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독일어 단어 Gemeinschaft(게마인샤프트)가 ‘공통의’라는 의미를 갖는 gemein(게마인)이라는 형용사에서 파생되어 ‘나의 것’이 공통적으로 나뉜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즉, 공동체는 어원상 ‘나의 것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sup>145)</sup>

그러나 공동체는 결코 중립적이거나 기술적 개념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적어도 현대의 질서구조 속에서, 공동체는 거듭 형성되는 정치적인 것의 영역과 지속적인 친화성을 갖기 마련이며, 결코 정치적 역할들로부터 순화될 수 없는 운명 또한 지니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공동체 논의는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공동체의 훼손을 극복하고자 모색한 여러 논의로부터 시작되었다. 한반도 공동체 논의는 남북한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 자체를 통일로 간주하며, 어떻게 하면 단일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형성, 발전해 왔다. 그리고 오늘날 기존 공동체를 정의하

---

144) 하르트무트 로자 외 지음, 광노환·한상원 옮김, 『공동체의 이론들』 (서울: 라움, 2017), p. 10.

145) 위의 책, p. 13.

였던 여러 요소(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공통의 유대)<sup>146)</sup>가 시대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한반도의 공동체 논의 및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통일 담론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sup>147)</sup>

본 연구는 한반도의 통일 담론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 남북한 사회의 변화를 폭넓게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 아래 대안적 통일 담론으로 모색 중인 한반도 생활공동체 논의를 기반으로 한다. 최지영에 의하면 생활공동체란 넓은 의미에서 “삶의 모습에서 공통성을 확보한 공동체”를 의미하며, 통일의 최종적 모습이 아닌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재구성되는 공동체로 정의된다.<sup>148)</sup> 또한 생활공동체는 통일의 과정에서 표출되는 ‘개인과 일상’의 미시적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며, 이론과 규범에 의한 것이 아닌 실제적인 통합의 모습을 가시화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접근법이다. 따라서 한반도 생활공동체 논의를 풍부히 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여러 사회적 모습에 관한 미시적 접근과 일상에 대한 연구도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일상 연구는 남북한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의 가치를 발견하고, 한반도 통일 과정을 중층화·다면화하기 위한 실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sup>149)</sup>

이미 북한의 일상 연구는 북한 연구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학문적

---

146) 공동체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관한 하나의 완전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공동체를 정의하는 구성요소는, 사회적 사회작용(social interaction), 영역(area), 공통의 유대(common ties)로 간주된다. George A. Hillery, "Definition of community," *Rural sociology*, vol. 20 (1955), pp. 111~123.

147) 강원택 외, 『분단 이후 제기된 통일담론에 대한 정리와 성찰』 참조.

148) 최지영 외,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 63.

149) 위의 책 참고.

방법론으로 탐색되어 왔으며,<sup>150)</sup> 일상의 미시적 질서가 위로부터의 통치 담론과 억압 기제에 대응하여 개인의 일상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특히 북한의 시장화 이후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논의는 강고한 지배체제의 균열 속에서 성장하는 자생적 ‘개인 주체’에 대한 문제로 연구 방향의 전환을 꾀하였고, 관련한 논의는 시장과 노동, 체제와의 관계 및 관료적 지배와 지배체제의 균열, 세대와 성 역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 변화를 탐구하는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sup>151)</sup> 물론 북한의 일상 연구는 아직 공백이 많은 연구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삶과 생활’에 천착하기 시작한 북한 연구의 흐름은 굳건한 맥을 형성하고 있다.

이 글도 북한의 일상 연구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구체적인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이 교차하는 일상의 공간에서 생활공동체 형성과 유지 발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노동’을 연구 소재로 삼고자 한다.

북한의 생활공동체는 공동 주거를 배경으로 하며, 거주와 휴식의 생활공간만이 아니라 노동과 생산의 공간으로, 그리고 문화와 사상 교양의 공간으로 일체화되어 있다. 연구자의 도시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주의 시기 북한의 주민들은 출생지에서 500m 안팎의 유치원과 인민학교에 다니며, 약 15분 거리에 있는 고등중학교로 진학한다. 동네 인민학교의 학급이 그대로 중학교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일상의 경로가 형성되어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남자들은 대

150) 박순성·홍민 공편,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홍민·박순성 외,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151) 최대석·장인숙, 『북한의 시장화와 정치사회 균열』 (서울: 선인, 2015); 김성경,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북한 ‘사이(in-between)세대’의 혼종적 정체성”; 조정아·이지순·이희영,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부분 군대로 나갔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와 지방 소재 산업체에 근무하거나 당원 가입이 된 이후에는 지도원으로 배치되었다. 여성들은 결혼하여 타지역으로 이주하지 않는 한 인근의 기능공 학교를 거쳐 지방 소재 경공업 공장 혹은 편의봉사 부문에 배치되었다.<sup>152)</sup> 상시 집 문을 열어놓고, 어느 때나 이웃의 방문이 가능했다. 그야말로 ‘나의 것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삶을 살았다.

북한의 생활공동체가 가능했던 이유는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완전 고용의 지향 때문이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생산력 배치 이론에 따라 자급자족, 직주근접의 원리를 적용하여 도별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한 개의 도 안에서 도시와 농촌의 생산적 연계를 도모하였다.<sup>153)</sup> 도시 안에서는 중앙기업과 지방공장의 수직적 계통화를 통해 노동자와 부양가족, 사무원과 대학생 등 기타 주민 구성에 따른 산업시설을 배치하였고, 이는 모두 적정 규모의 인구수에 기초한 계획적 배치로 이루어졌다. 북한 주민들은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신의 소속 단위를 모두 갖고 있었고, 이 같은 물적 토대의 구축 체계는 개별 노동과 직업에 대한 가치가 그들의 삶과 생활의 중요 가치로 부상하지 못하도록 저해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노동은 그들이 꾸미고 가꾸는 생활공동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에서 노동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노동은 “사회의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를 창조하는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으로 정의된다.<sup>154)</sup> 그러나 김일성은 노동을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사람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하며 단련시키는 힘있는 수단”으로 정의하여<sup>155)</sup> 노동을 그 자체로의 목적성만이 아니라 혁명

---

152) 박희진, “함흥 도시 공간의 지배구조와 탈주체의 삶,” 고유환 외, 『함흥과 평성 - 공간 일상 정치의 도시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pp. 99~100.

153) 김춘성,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연계 실현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9) 참조.

154)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7』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8), p. 469.

화의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1978년 채택된 ‘사회주의로동법’ 제3조는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로동”으로 정식화되었다.<sup>156)</sup>

이로 인해 북한의 노동을 해석하는 연구 경향은 뚜렷하게 구분된다. 차문석,<sup>157)</sup> 김지형<sup>158)</sup>은 북한에서 노동이 의무가 되고 국가를 위한 애국적 행위가 되어 개인의 삶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해석한다. 북한은 사회와 국가에 대한 기여라는 의미에서 노동의 가치를 부여하였고, 애국적 서사를 부여하며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가 차원의 혁명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혁명주체로 노동자들을 호명했다. 따라서 북한의 전통적 생활공동체에서의 노동은 자본주의가 내포한 노동의 대가와 보수가 따르는 생계유지 기능의 일(labor) 개념이 아니라, 개개별의 사람들이 사회적 노동의 일정한 분야를 맡아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역할(role)의 개념이 되었다고 해석한다.<sup>159)</sup>

직업의 개념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생계유지 노동이라는 의미가 강조된다.<sup>160)</sup> 그러나 북

---

155)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증보판)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6), p. 1400.

156)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 채택 1978년 4월18일,”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228.

157) 차문석, 『반노동의 유토피아 - 산업주의에 굴복한 20세기 사회주의』 (서울: 박종철출판사, 2001), pp. 13~52.

158) Cheehyung Harrison Kim, *Heroes and Toilers: Works as Life in Postwar North Korea, 1953-1961* (New York: Colummbia University Press: 2018), pp. 100~117.

159) 박형중은 이를 “전체의 노동력은 급속한 산업적 축적을 위한 체제의 부속품”이라 표현하였다.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학-』 (서울: 연구사, 1994), pp. 15~17.

160) 직업(occupation)은 ①타고난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하여, ②어떤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③이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속적인 일을 의미한다. 유홍준, 『현대사회와 직업』 (서울: 그린, 2005), p. 15.



한에서의 직업은 사회기여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행하는 역할일 뿐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일은 주어지고, 노동의 대가는 사회참여로 상쇄되며, 직업보다는 직종이 더 뚜렷한 생활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가가 개인의 직업을 배분하는 주도적 행위를 하고 있으며,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택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아실현의 의미가 탈각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생활공동체는 사실상 생활공동체를 강력하게 지배하는 체제 논리에 포획되어 생활공동체 안의 개개인들은 자신의 주체성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김연철,<sup>161)</sup> 이세영<sup>162)</sup>은 북한의 노동이 국가의 노동 이데올로기화, 노동의 강제, 동원노동의 추구를 특징으로 한다는 일방적인 해석을 경계한다. 이 같은 해석이 북한 노동자들을 수동적인 객체로만 위치 지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자발성에 무게를 두고 노동에 참여하는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에서, 모범노동자, 노력영웅, 천리마기수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상층 사회로 이동할 수 있었던 부분을 강조하고, 노동자들의 참여와 열의가 발양될 수 있었던 동기를 설명하며, 노동자 또한 인간이기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식과 판단,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또한 노동자들이 정권의 요구에 동의하는 내적 계기를 세밀히 들여다보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북한에서 노동은 개인이면서 집단적인 성격을 가진 노동자들이 서로 다른 목적과 태도로 행하지만, 그들이 맺고 구성하는 일터, 생활세계와의 관계성에 따라 여러 가능성이 중첩되는 분야라

161)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2001), pp. 27~30.

162) 이세영, “북한 ‘사회주의’ 노동자의 형성과 생산현장의 변화(1945~1960),”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p. 11.

고 파악하였다. 또 북한의 노동은 노동자 개인에게는 생계유지와 자아발전을 위한 수단이자 정체성 형성의 요소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산업화와 체제 건설을 위한 불가결의 요소라고 보았다. 무엇보다 북한 국가가 동의와 통제와 기제를 만들어 노동자를 동원하려 했지만 사실상 ‘그것의 수용 여부는 결국 노동자들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았다.<sup>163)</sup> 이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생활공동체는 다양한 동기를 가진 노동 참여자로 구성되어, 개인과 집단의 양면성을 끊임없이 드러내며 시대에 따라 분화 또는 재구성되는 과정의 공동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자와 같이 이념형으로 해석하여, 지배기제로 작동하는 생활공동체와 유리된 개인 주체의 노동 행위를 고찰하는 방법과, 후자처럼 실천형으로 접근하여, 생활공동체 안의 개인 주체들이 개인의 이익에 따라 공동체와의 교섭과 재구성을 이루는 과정을 고찰하는 방법이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북한의 노동체제는 이미 형성기를 지나 전환기에 접어들었으며, 북한의 노동을 행위하는 다양한 개인과 주체에 더 초점을 맞추어 해석해야 하는 과제가 동일하게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창조되고 변화하는 공동체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찾아내는 것이, 본 연구가 참여하는 남북한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시사점과 함의로 연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렇다면 생활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추동하는 노동의 일상을 포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기존 연구들이 북한의 시장화 이후 장사 활동을 통한 노동과 직업 세계의 변화를 고찰했다면, 본 연구는 또 다른 노동의 영역으로 시선을 돌려 개인 주체의 노동 경험과 국가의 집단 노동 경험을 고찰할 수 있는 북한의 ‘돌격대’를

---

163) 위의 글, p. 2.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김정은 시기 전국적으로 활발히 벌이고 있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관광도시 건설, 주요 도시에서 전개하고 있는 크고 작은 건설 사업은 돌격대 조직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전환기 북한 사회에서 다수의 구질서가 붕괴하고 운영기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표적인 노력동원 방식인 돌격대만은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며 북한 사회에서 강력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돌격대의 노동 실태를 통해 돌격대 공간에서 이뤄지는 권력 작동방식과 노동통제 행위, 그리고 권력을 소비하는 개인의 노동 실천을 파악하여, 북한의 노동 일상과 참여주체의 대응행위 그리고 북한 생활공동체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 가. 기존 연구의 현황

북한의 시장화 이후 주민들의 노동과 직업 경험에 관한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영역별로 대표적 연구가 존재한다.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북한의 노동과 직업의 일상과 관련하여 유관한 몇몇 선행연구와 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 순으로, 가장 최근의 연구는 이의진, 박영균, 박솔지, 전영희의 연구이다.<sup>164)</sup> 이 논문은 일반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과 직업의 가치를 3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첫째는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한 재화 확보 활동’, 둘째는 ‘사회적 역할의 분화를 통한 사회적 기여 활

---

164) 이의진 외, “북한이탈주민의 초점집단면접을 활용한 북의 직업관 연구,” 『통일인문학』, 제85집 (2020), pp. 51~85.

동’, 셋째는 ‘자아성취 및 자아실현’으로 보았다.<sup>165)</sup> 그리고 북한 노동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시기별 노동과 직업의 가치관 변화를 탐구하여 현재적 위치를 고찰하고자 했다. 방법론적으로 12명의 북한이탈주민을 각각 3그룹으로 나누어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 사회주의 노동이 사회기여적 활동에서 점차 재화 확보 활동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한의 노동은 자아성취 및 자아실현의 가치가 추구되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면접을 통해 현재 북한에서 노동과 직업에 관한 인식과 가치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차문석은 북한의 일공(日工)을 시장화 이후 새로 형성된 신노동자로 구분하고, 구노동자와 대비되는 ‘시장 노동자’로서의 일공을 분석했다.<sup>166)</sup> 차문석은 이들을 계획 영역 밖에서 유동하는 노동자이자 계획적 영역에 보족적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군으로 설정한다. 이 연구는 시장화 시기에 파생된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주목한 최초의 연구이며,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여러 결합 요소(기능, 역할, 수입, 소속, 방식, 경로) 등에 의해 일공들 속에서도 다양한 노동의 부류가 생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일공이라는 신노동자를 북한의 전일적 시장경제를 추동하는 메신저적 존재로 파악했다. 일공의 미래에 관해서는, 북한 당국이 일공 현상을 낳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향후 일공은 필요악처럼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불어넣으면서도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어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하였다.

북한 사회를 공장과 노동자의 프리즘으로 관찰하고 해석한 김화

165) 박종대·이태하·김석수, 『현대인의 삶과 윤리』 (서울: 민지사, 2009), p. 258, 재인용: 위의 글, p. 54.

166) 차문석, “북한의 신노동자 일공(日工)과 혼종성: 혼종, 변동 그리고 경계,” 『북한학 연구』, 제16권 제1호 (2020), pp. 159~190.

순은 연구를 통해 북한의 공장사회를 정치·치안, 주체사상, 배급제도, 대안의 사업체계로 구성된 조직생활 사회로 전제하고, 시장화 이후 공장사회 내 공장체제가 균열됨에 따라 다양한 노동 분화가 전개되고 있는 과정을 모형화하였다. 앞선 차문석의 연구가 ‘다양한 노동’에 주목하였다면 김화순의 연구는 노동 분화에 따른 ‘노동자 부류와 등급’에 주목하였다. 김화순은 배급제도의 붕괴가 가져온 노동자의 변화를 핵심 노동자와 비핵심 노동자로 구별하였으며, 비핵심 노동자를 기층노동자, 주변부노동자, 개인노동자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비핵심 노동자는 일공이나 자영업, 비법일탈노동 등 다양한 노동형태로 이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핵심 노동자들은 ‘돈-권력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합법제도 속에서 더 많은 기회와 이익을 창출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공장 체제의 균열과 노동의 분화, 그리고 노동자의 부류와 등급의 파생경로를 모형화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sup>167)</sup>

김은숙은 1990년대 영유아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노동 경험을 한 북한 신세대의 노동의식을 탐구하였다. 13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식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느꼈기 때문에 일찍부터 경제활동에 뛰어드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다”라는 핵심 구술을 통해 북한의 신세대는 ① 생존 수단으로서 노동의미 강화, ② 전통과 배치된 노동행위(집단노동의 이탈, 자발적 구직행위), ③ 노동의 가치 확대라는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본 연구가 주목하는 돌격대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돌격대

167) 김화순, “생존의 정치: 북한 ‘공장사회’와 노동자,” 『평화연구』, 제26권 제1호 (2018), pp. 141~207; 김화순, “생존의 정치 II: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험기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현대북한연구』, 제23권 제1호, (2020), pp. 75~117.

노동을 어떻게 실천하고 수용하며 탈피하는지 그 행위 변화에 기초가 되는 연구이다.<sup>168)</sup>

김화순은 북한 사회에서 남녀 간의 노동이동 경로분석을 시도하였다. 비록 모집단이 북한이탈주민 11명에 불과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대체로 공식 국영경제 부문에서 일하다가 비공식 시장경제 부문으로 이동하는 단조로운 이동모형을 나타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공식 국영경제 부문을 출발지로 하지만 이후 훨씬 더 다양한 노동이동 경로를 보였다. 김화순은 이를 집단노동 참여형과 개인이익 추구형으로 구분하여 집단노동 참여형은 경력 추구형과 직업 유지형으로 나누고, 개인이익 추구형의 노동이동은 장마당형, 기업형, 정권기관형의 경로로 나뉘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때 개인이익 추구형은 그야말로 이익 추구를 위해 탈북을 감행하지만, 집단노동 참여형은 권력보장과 생활안정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좌절하고 탈북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sup>169)</sup>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비교적 다루지 않았던 북한 남성 노동자에 주목했다는 점과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돌격대의 주요 구성원이 남성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황규성·이재경은 북한에서 시장이 등장한 이후 시장숙련이 개인적 경험과 능력에 따라 숙련을 형성하게 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사회경제적 재계층화를 진행하게 한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과거 전통적인 북한의 숙련형성 체계가 기술보다는 정치사상교육에 치우쳐 왔고, 대중운동과 속도전 형태로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저숙련 체계가 지속되어 온 것에 비해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

168) 김은숙, “생애과정 관점에서 본 북한 신세대 노동의식에 관한 연구,” 『담론 201』, 제23권 제1호 (2020), pp. 119~160.

169) 김화순, “직행 탈북이주자의 노동이동과 탈북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2017), pp. 235~264.

시장화 초기에는 시장숙련 시 인지숙련(습득력, 이해력, 분석력)이 주로 작용하였으나, 시장이 성숙해 감에 따라 사회적숙련(사회관계, 의사소통, 교섭능력)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보았다. 현재 북한의 경제체제가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계획숙련과 시장숙련 또한 숙련 교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전기와 기계를 다루는 계획 분야의 숙련공과 물건을 만드는 기술과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기술을 가진 시장 분야의 숙련공은 상호 영역을 넘나드는 교차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았다.<sup>170)</sup> 황규성·이재경이 제기하는 북한 노동에서의 숙련의 문제는 단순히 노동의 생계유지 기능을 넘어서 개인 주체의 자아실현과 매우 밀접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돌격대 노동에서 체득한 숙련기술이 사회에서 직업으로 연계되는 과정에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 나. 선행연구의 전제와 쟁점

북한의 시장화 영역에서 2003년 종합시장을 합법화한 이래 생산물시장,<sup>171)</sup> 소비자재시장,<sup>172)</sup> 금융(사금융)시장,<sup>173)</sup> 주택(부동산)시장<sup>174)</sup> 등 하위 시장들의 분화와 전문화 과정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170) 황규성·이재경, “북한의 시장화와 숙련불평등,”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1호 (2014), pp. 87~113.

171)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2005), pp. 1~53.

172) 백명숙·김성배, “북한 소비자재 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7권 제2호 (2020), pp. 1~42.

173) 임을출,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27권 제1호 (2015), pp. 205~242; 한국수출입은행·북한 동북아연구센터, 『북한의 금융』 (서울: 오름, 2017), pp. 10~624.

174) 문홍안, “북한 살림집법 관련 법제를 통해 본 북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 『북한법연구』, 제18권 (2018), pp. 111~149; 정은이,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2015), pp. 289~328.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듯 북한의 노동시장과 관련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연구 성과도 폭넓지 못하다. 선행연구에서 취득할 수 있는 의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의진 외와 김은숙은 북한 주민들의 노동의식과 가치변화를 연구하고 있으며, 노동이 생계유지를 넘어 자아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지점은 북한의 무보수(한정보수) 노동이 상품화된 노동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인데, 상품화된 노동이 자아실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환경(직능기술, 직업선택, 임금보수) 및 사회보장 등의 정치사회적 문제들까지 제기되므로, 이는 남북 모두의 공통된 과제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sup>175)</sup>

둘째, 김화순과 차문석은 시장화 이후 북한의 노동 분화와 일자리 유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비공식 노동 부문의 확대와 생계유지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하층계급에 관한 연구이다. 김화순은 비공식 노동(일자리)에 관한 모호한 개념들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작적 정의의 과정이 흥미로우며, 차문석은 초보적으로 형성된 북한 인력시장(노동시장)의 흐릿한 메커니즘을 서술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시장과 노동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노동이란 모순된 관계가 배태하는 중층적 요소들을 배제하고 계획에서 시장으로만 이행하는 노동 분화과정을 설명한 것이 아쉽다.<sup>176)</sup>

셋째, 마찬가지로 김화순은 일방향의 노동이동 과정을 설명하고

---

175) 이의진 외, “북한이탈주민의 초점집단면접을 활용한 북의 직업관 연구,” pp. 51~85; 김은숙, “생애과정 관점에서 본 북한 신세대 노동의식에 관한 연구,” pp. 119~160.

176) 김화순, “생존의 정치 II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험기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pp. 75~117; 차문석, “북한의 신노동자 일공(日工)과 혼중성 : 혼중, 변동 그리고 경제,” pp. 159~190.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최초 노동 경험 출발지로부터 각기 다른 경로 형성의 동기와 과정이 설명되어 있어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이 있었다.<sup>177)</sup> 또한 황규성·이재경은 노동의 분화, 노동의 이동 과정을 기술(직업)숙련 과정과 연계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노동의 분화와 이동만큼 숙련도가 중요해짐에 따라 계획과 시장의 숙련자들이 서로 교차한다는 것이다. 즉, 앞선 연구들이 ‘계획에서 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는 노동과 직업의 세계를 탐구하고 있다면 황규성·이재경은 노동과 직업의 세계에서 요구되는 숙련도가 노동의 분화와 이동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sup>178)</sup>

## 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북한의 노동 경험의 세계를 더 정밀하게 탐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국가의 노동력 관리방식과 특성으로부터 어떻게 노동의 분화와 이동이 이뤄지는지, 새로운 직업과 숙련의 경험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통과지점(point of passage)<sup>179)</sup>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기한다. 앞선 김화순의 연구와 같이 여성들의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통과지점을 관통하면서 시장 활동과 마주하는 단선 경로가 가능하다. 그러나 남성들의 경우는 졸업과 군대 그리고 직장배치 이후 직장에 소속된 채 다양한 노동과 직업의 세계를 경유하게 되는데, 이의 통과지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통과지점은 20대 청년층들이 사회에

177) 김화순, “직행 탈북이주자의 노동이동과 탈북결정요인,” pp. 235~264.

178) 황규성·이재경, “북한의 시장화와 숙련불평등,” pp. 87~113.

179) Bruno Latour, *Science in Action: How to Follow Scientists and Engineers through Societ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진입하는 시작점인 까닭에 이들의 노동생활을 규정하고 통제하며, 노동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습득하는 지점이기도 하다.<sup>180)</sup>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대중 동원방식 중 하나인 ‘돌격대’라는 사회동원시스템을 통과지점으로 상정하고, 돌격대의 경험과 노동과 직업, 공동체와의 연계성 여부를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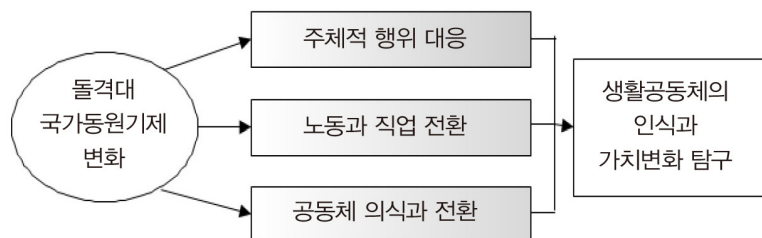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북한의 돌격대는 당국의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기제이자<sup>181)</sup> 북한 동원경제의 상징처럼 해석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시장화 이후 돌격대라는 사회동원시스템이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전환하는 기점에서 개개인의 일(노동)과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통과지점으로 상정한다. 또한 돌격대는 국가동원 기제 속에서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에게 의무노동으로 할당되고 있지만 ‘피할 수 없다면 활용한다’는 개개인의 주체적 행위 대응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지위를 습득하고 직업의 세계로 인도하는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등 북한 사회변화에 작지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이에 앞선 연구들이 시장화 이후 다양한 노동의 경로와 분화, 파생된 노동자 부류를 분류한 것과 같이 본 연구는 돌격대를 통과지점으로 삼아 그 경험을 추적함으로써 북한에서의 집단노동과 남성 주체라는 실체에 다가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돌격대는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집체를 이루며 노동을 경험하게 된다. 다종의 돌격대에 차출되어 집단노동을 경험하며 겪게 되는 개별 주체들이 형성하는 공동체 의식과 배태되는 의식 전환의 실태도 살펴보고자 한다.

---

180) 김화순, “직행 탈북이주자의 노동이동과 탈북결정요인,” pp. 235~264.

181) 최봉대는 이를 두고 청년들을 선별적으로 지배체제의 하층으로 편입시키는 기제로 해석하였고 체제 위기 국면에서는 일반 주민들의 잠재적인 비판의식을 정형화시킬 수 있는 주요 인자(청년층)의 성장을 억제하고, 체제유지에 적극적인 하위인자로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평가한 바 있다. 최봉대, “북한의 속도전청년돌격대와 체제유지 기제,” 『경제와 사회』, 통권 제49호 (2001), pp. 8~40.

## 〈그림 IV-1〉 연구의 분석 모형



자료: 필자 작성.

방법론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자세한 경험을 학술자료로 재구성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돌격대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채록하기 위해 1990년대 말부터 2019년까지 시기별 돌격대 경험을 채록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돌격대 참여 경험을 각각 채록하였다. 또한 정규돌격대와 임시돌격대, 당원돌격대와 직장 동원돌격대 등의 부류별 돌격대 경험을 채록하였고, 부분적으로는 Daily NK, RFA의 인터뷰 기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진행한 5명의 심층면접(〈표 I-1〉의 사례 1, 9, 10, 13, 14에 해당)은 오롯이 ‘돌격대’ 경험만을 채록하기 위해 심층면접으로 진행하였고, 기타 7명의 인터뷰(사례 A~G)는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북한 혼종사회연구단(CHNK)의 연구수행을 위해 실시한 것이나, 연구자의 연구 주제인 건설과 돌격대에 관한 심층 면접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sup>182)</sup> 면접자 대상에 관한 구체 사항은 다음의 〈표 IV-1〉와 같다.

182)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진행함에 있어 통일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동국대 북한학연구소는 구술 면접자들에게 ‘학술 목적의 녹취파일 활용 동의서’를 받고 그 유효기간을 5년으로 삼고 있다.

〈표 IV-1〉 면접대상자 인적 사항 II

| 사례 번호 | 거주지  | 성별  | 연령대 | 북한에서의 직업 | 탈북 년도 | 면접일시 |            |
|-------|------|-----|-----|----------|-------|------|------------|
| 1     | 사례 A | 청진시 | 남   | 40대 후반   | 당일꾼   | 2017 | 2019-01-22 |
| 2     | 사례 B | 온성군 | 여   | 20대 후반   | 노동자   | 2016 | 2020-11-05 |
| 3     | 사례 C | 평양시 | 남   | 40대 중반   | 돌격대원  | 2016 | 2020-08-13 |
| 4     | 사례 D | 해산시 | 남   | 20대 후반   | 돌격대원  | 2019 | 2020-10-24 |
| 5     | 사례 E | 해산시 | 남   | 20대 후반   | 돌격대원  | 2018 | 2018-05-13 |
| 6     | 사례 F | 구장군 | 남   | 30대 후반   | 돌격대원  | 2019 | 2021-08-14 |
| 7     | 사례 G | 해산시 | 남   | 20대 중반   | 돌격대원  | 2019 | 2020-11-14 |

자료: 필자 작성.

### 3. 돌격대 조직유형과 경험의 재현

#### 가. 유형별 조직

##### (1) 정규돌격대

북한에서 돌격대란 명칭은 해방 직후 ‘민청청년돌격대’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이후 다양한 상설조직으로 형성되어 군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다가, 1975년 5월 16일 ‘속도전청년돌격대’를 창설하면서 정규화 되었다.<sup>183)</sup> 이후 정규돌격대로는 속도전청년돌격대(1975), 2월 17일 과학자·기술자 돌격대(1978)와 4.15 기술혁신 돌격대(1980), 당원돌격대(일명 105돌격대, 1980), 6.18 돌격대(1999) 등이 있다. 정규돌격대는 국가 단위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직한 돌격대로서,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달려 나가 실천 투쟁 속에서 혁명적으로 단련’하라는 돌격대의 조직 목적이 명확하고, 해당

183) 리형섭, “우리 당이 발기한 청년돌격대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이는 위력한 대중운동,” 『근로자』 제5호 (1990), p. 23.

시기별 돌격대 조직의 책임과 역할, 활동정형도 뚜렷하다. 또 정규 돌격대라는 조직 활동이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 주체들에게는 사회적 신분 검증의 통로로 활용된다. 즉, ‘정규돌격대인 OO를 나왔다’ 하면 사회에서 군사복무를 하고 제대한 것 같은 취급을 해 준다.

### (가) 속도전청년돌격대(1975)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중앙당 수도건설 지도부의 관할권 아래 조직되어 있으며, 청년동맹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돌격대’의 원형 조직이다. 2005년 당시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조정하 지도국장은 돌격대의 조직 배경에 대해 ‘부족한 노력 문제를 풀거나 몇 개의 건설대상을 해결하자는 것만이 아니라, 고생을 못 해보고 준엄한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 청년들을 경제정책을 옹호 관철하는 실천투쟁 속에서 사상의지적으로 육체적으로 단련되고 완성된 인간으로 준비시키자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sup>184)</sup> 또 속도전청년돌격대에서 ‘영웅’ 칭호를 받은 청년들의 배출과 국가 주요 부문의 책임 간부 배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였다.<sup>185)</sup>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지난 30년 동안(1975~2005년) “14개의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건설, 250km에 달하는 북부철길을 비롯한 19개 대상의 새 철길건설 및 철도 전기화 공사, 국제친선전람관, 인민대학습당,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창광원 등 13개 대규모 건설물을 건설”했다고 전했다. 또 “창광거리, 문수거리, 통일거리, 광복거리 등 평양의 9개 거리 건설과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제3선광장, 동평양화력발전소 등 49개에 달하는 주요 산업건설과 이밖에 청년영웅도로(평양~남포고속도로)와 청전강 다

184) “속도전청년돌격대 창립 30돐을 맞이하여,” 『조선신보』, 2005.6.5.

185) “위훈의 한길을 걸어온 속도전청년돌격대,” 『조선중앙통신』, 2015.5.13.

리 완공”을 성과로 삼았다.<sup>186)</sup>

## (나) 2월 17일 과학자·기술자 돌격대(1978)

북한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지원 돌격대 중 하나이다. 김일성은 1976년 7월 1일 ‘7.1 과학자·기술자 돌격대’를 조직하여 이들을 검덕광산에 파견한 후 갱작업의 기계화와 생산지휘체계의 개선 등의 임무를 부여한 바 있다. 이때 7.1 돌격대는 채광작업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큰 성과를 내었고, 이를 계기로 김정일 위원장이 1978년 2월 17일 과학자·기술자돌격대를 정식 출범하였다.<sup>187)</sup> 2월 17일 과학자·기술자 돌격대의 주요 구성원은 국가과학원의 여러 분원, 연구소들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 평양컴퓨터대학 등 과학자·기술자, 대학 교원들로 북한 최고의 엘리트 두뇌집단이다. 돌격대의 주요 활동은 전력공업 부문에서 기술 개조와 송전선 정리 사업, 전력 도중 손실계산과 교차전력 관리운영을 위한 컴퓨터 지원체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석탄공업 부문에서는 채취율을 높이기 위한 묶음식 동발에 의한 광폭식 채탄법을 도입하였고, 철도운수 부문에서는 수송능력 향상과 철도운영관리의 과학화 방법을 전수하였다. 농업 부문에 파견된 돌격대원들도 다수확 품종을 확보하고 종자처리 기술을 적용하며 알곡과 작물 재배의 과학적 방법을 도입했다. 특히 서해갑문 공사에서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88)</sup> 2008년 보도 당시 2월 17일 과학자·기술

---

186) “북한의 ‘경제 戰士(전사)’ 청년돌격대,” 『Daily NK』, 2005.6.5., <<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C%9D%98-%60%EA%B2%BD%EC%A0%9C%E6%88%B0%E5%A3%AB-%EC%B2%AD%EB%85%84%EB%8F%8C%EA%B2%A9%EB%8C%80/>> (검색일: 2021.12.8).

187) “과학자들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 『로동신문』, 1980.12.31.

188) 김일성,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자(정무원 및 당중앙위원회 경제부서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4년 12월 5일),” 『김일성 저작집 38』 (평양: 조

자 돌격대는 70여 개 단위에 9천여 명이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다.<sup>189)</sup>

#### (다) 4.15 기술혁신 돌격대(1980)

‘4.15 기술혁신 돌격대’의 전신은 5.19 기술혁신 돌격대이다. 5.19 기술혁신 돌격대는 김일성이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 전원회의와 1980년 신년사에서 제기한 기술혁명 과업을 받들어 나선 기술 일꾼과 발명가, 창의고안자들이 구성한 돌격대이다.<sup>190)</sup> 동년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 ‘10대 전망목표’가 제시되고, 이를 자체적인 신기술 개발 및 생산 공정 개선을 통해 달성할 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자, 11월 20일 희천공작기계공장에 5.19 돌격대가 최초로 파견되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5.19 돌격대(회의 날짜)를 4.15 기술혁신 돌격대(김일성 생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앞선 2월 17일 과학자·기술자 돌격대가 과학자 중심의 엘리트 개혁운동이라면 4.15 기술혁신 돌격대는 기술자·노동자 중심의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4.15 기술혁신 돌격대는 김정일 시기 주체철 생산체제, 공작기계 CNC화 등의 성과를 보였고, 김정은 시기에는 생산 공정의 현대화와 원료, 자재의 국산화·재자원화를 혁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sup>191)</sup>

---

선로동당출판사, 1992), p. 386.

189) “현재 9천여 명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여러 부문의 70여개 단위에 달려나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조선』, 2008.2.17.

190) “(사실) 5.19기술혁신돌격대의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더 큰 양양을 이룩하자.” 『로동신문』, 1980.5.30.

191) “4.15기술혁신돌격대 전국기술혁신경기 진행.” 『통일의 메아리』, 2021.4.10.

## (라) 당원돌격대(일명 105돌격대, 1980)

‘당원돌격대’는 김정일 위원장에 의해 1980년 3월 6일 조직되었다.<sup>192)</sup>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공식 후계자로서 김정일에 의한 새로운 ‘노동당 시대’를 열기 위해 수많은 기념비적 건축물을 세우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 조직한 돌격대가 당원돌격대이다. 보도에 의하면 “돌격대가 조직됨으로써 대기념비 건설에 관한 당의 구상을 실현해 나가는 위력한 대오가 생겨났으며, 노동당 시대를 빛내이는 웅장 화려한 창조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일떠세울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가 마련”<sup>193)</sup> 되었다고 한다. 당원돌격대는 입당대상자들을 위주로 하던 기존 속도전청년돌격대와 달리 이미 검증된 당원들과 기술자들만을 골라 소수 인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통치의 정당성을 위한 정치적 상징물을 대상 건설로 삼았다.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건립, 김일성경기장 개보수, 대성산혁명열사능과 애국열사능, 5월 1일 경기장 등이 있다. 특히 당원돌격대는 자체적으로 건설을 수주하고 기술학교를 운영하면서, 내부 화강석 타일의 연마공사와 같은 기술을 요하는 고급스러운 일을 맡아 했다.<sup>194)</sup> 대표적으로 북한의 류경호텔의 경우 시공설계는 평양도시설계연구소와 백두산 건축연구원이 함께 하였으며,<sup>195)</sup> 당원돌격대가 이를 시공했다.<sup>196)</sup>

192) “당원돌격대창립 10돐 기념보고회 진행,” 『로동신문』, 1990.3.5.

193) “인민군대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로동신문』, 2001.11.3.

194) “북한 강제노동 증언록,” 『일요서울』, 2016.10.7.,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680>> (검색일: 2021.12.27.).

195) 박원호, “평양의 랜드마크 ‘류경호텔’엔제츄 개장할까?,” 『국토와 교통』, 2018년 7월호 (통권 408호), <<http://www.ltm.or.kr/2009/board.php?board=kkkmagazine&config=1&search=%C8%AE%C0%E5%B0%CB%BB%F6%B8%F0%B5%E5&shwhere=wideSearch&command=body&no=3534>> (검색일: 2021.12.27.).

196) “[젊은그대]돌격대 소년, 경찰을 꿈꾸다,” 『RFA』, 2012.3.15.,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young\\_generation/youngyou-03152012135658.html](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young_generation/youngyou-03152012135658.html)> (검색일: 2021.12.27.). “당시 류경호텔의 설계 비준이 100층이었는데, 105호 돌격대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105층으로 수정되었다고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



또한 당원돌격대는 중앙당이나 내각이 직접 조직하고, 당 자금이나 내각 펀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도 최우선으로 배정 받는다. 그 결과 당원돌격대는 북한 주민의 최고 영예인 ‘노력영웅’ 칭호 28명, 김일성 주석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받은 대원이 392명, 표창을 받은 대원이 3명, 김정일 총비서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446명이나 됐다.<sup>197)</sup>

### (마) 6.18 돌격대(1999)

6.18 돌격대는 1999년 6월 18일 삼지연 부근을 빛나는 항일혁명 유적지로 잘 꾸려야 한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해 조직된 당 사상선전일꾼부문의 돌격대이다. 이들은 주로 일반 직장 노동자들 가운데에서 자원자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98)</sup> 6.18 돌격대의 활동 소식은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으며, 최근 활동으로는 삼지연 혁명전적지 건설과 삼수발전소 건설, 북청-혜산 사이 도로 건설 등이 있다.<sup>199)</sup> 또한 양강도 혜산과 삼지연 사이의 협궤를 광궤로 넓히기 위한 공사에 투입되었고,<sup>200)</sup> 삼수발전소와 삼지연 제1호 도로 등 당의 건설 사업을 진행하였다.<sup>201)</sup> 2010년 3월 4일 양강도 삼지연군을 방문했던 김정일 위

---

전, “유경호텔,”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0391>> (검색일: 2021.12.27.).

197) “영웅집단으로 통하는 북 당원돌격대,” 『통일뉴스』, 2001.11.9.,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83>> (검색일 2021.12.13.).

198) “입당 약속 지켜라.. 북, 돌격대, 지휘부로 돌격,” 『Daily NK』, 2009.4.29., <<https://www.dailynk.com/%EC%9E%85%EB%8B%B9%EC%95%BD%EC%86%8D-%EC%A7%80%EC%BC%9C%EB%9D%BC%E5%8C%97%EB%8F%8C%EA%B2%A9%EB%8C%80-%EC%A7%80%ED%9C%98%EB%B6%80%EB%A1%9C/>> (검색일: 2021.12.13.).

199) “김정일위원장, 삼지연 지구와 북청-혜산도로건설지원자들에게 감사 보내,” 『민주조선』, 2007.6.20.

200) “대담한 공격전을 벌려-혜산-삼지연 넓은철길건설장에서,” 『민주조선』, 2017.1.20.

201) “北(북)량강도 삼수발전소 완공단체,” 『통일뉴스』, 2006.6.17.,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83>>

원장은 돌격대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고,<sup>202)</sup> 돌격대 지휘부는 돌격대들의 입소기간과 작업성과에 따라 모범대원 명단을 작성하여 포상과 선물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 (2) 비정규돌격대와 사회동원

비정규돌격대는 한정된 기간에, 특정한 대상을 건설하기 위해 조직되는 돌격대로 다양한 시기별, 대상별, 단위별로 다양한 비상설적 돌격대로 조직되고 해체되기를 반복하며 청년들의 졸업과 사회 진입의 길목에서 작동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돌격대는 돌격대 조직 주체가 당급, 국가(내각)급, 도급, 시급으로 구분되어 급에 따라 처우 조건이 차등적이다. 예를 들어 평양시 건설을 위한 평양돌격대, 여성들만 조직된 여맹돌격대, 특정한 대상을 건설하기 위한 OO발전소 돌격대, 도 단위 건설 사업을 위한 함경북도 돌격대, 시 단위 건설 사업을 위한 해산시 돌격대 등 다종의 돌격대가 조직되고 해산되길 반복하며, 중앙 단위의 사업일수록 조건과 혜택이 좋고, 지방 단위의 사업일수록 열악하고 보장되는 것이 없다.

돌격대 이외에 ‘동원’도 별도로 존재한다. 동원은 인민반 혹은 직장 단위로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각 단위에 할당된 인원이 특정 대상 건설에 동원되는 방식이다. 돌격대와는 다른 점은 첫째, 동원 노동은 집에서 출퇴근한다는 점이다. 이는 직장이나 소속 단위의 근무시간을 대체하는 개념이며, 직장 근무 대신 사회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동원노동은 돌격대 노동과 달리 간단한 손작업 노동이 많고 기기(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노동에 국한된다. 환경미화 관련

---

com/news/articleView.html?idxno=65755) (검색일: 2021.12.13.).

202)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주간 북한동향 제9995호 (2010.5.10.~5.16),” <<https://nkinfo.unikorea.go.kr/nkp/argument/viewArgument.do>> (검색일: 2021.12.9.).

일들이나 공공건물을 가꾸고 꾸미는 일 등이 이에 속한다.

연구자가 연구수행 초기에 사례 1에게 돌격대에 관한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대뜸 “정규돌격대요, 아니면 비정규돌격대요?” 하고 물었다. 또 실제 인터뷰를 진행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여러 차례 돌격대에 다녀왔다면서 ‘동원’과 ‘돌격대’를 섞어서 구술하여 연구자를 혼동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구분을 요청했더니 사례 1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동원이랑 돌격대는 조금 달라요. 이게 동원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있구요. 회사 할당이라고 해서 회사 10명에서 이게 그니까 어떤 구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구간은 너네 공장이 해야 돼, 하면 우리 공장이 10명이면 10명, 15명이란 인원을 맞춰서 나가는 거죠. 네, 그게 동원이에요. 회사에서 나가는 게 동원이고, 돌격대는 이제처럼 뭐 OO발전소 여기는 저희가 회사생활이 아닌 회사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다른 데 돌격대 개념으로 나가는 거죠, 거의. (사례 1)

돌격대라고 할 때 적어도 ‘정규돌격대’, ‘비정규돌격대’, ‘사회동원’은 구분되어야 한다. 구술자들도 자신이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조직된 돌격대에 왜 참여하는지 명확하게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구술한 내용은 정규돌격대보다는 비정규돌격대의 경험이 다수이다. 또한 문헌상에도 ‘고유명사로서의 돌격대’와 ‘보통명사로서의 돌격대’를 구분하지 않고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 고유명사로서의 돌격대란 앞선 고찰한 정규돌격대 혹은 특정한 목적으로 가지고 조직된 비정규돌격대를 지칭한다. 그러나 보통명사로서의 돌격대는 ‘기세좋게 내어 달린다’, 혹은 ‘불굴의 공격정신’ 등을 의미하는 명칭으로 단위별로 자체 조직

하여 활동하는 집단체를 의미한다.

최근 김정은 시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규돌격대는 처우와 부대시설 등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비정규돌격대는 비생산 단위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어 그야말로 강제성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할당을 채우지 못하면 책임자 처벌이 진행되는 등 비정규돌격대가 개인 주체들과 부딪히는 지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구를 위해 본문에서 종합한 Daily NK, RFA의 돌격대 보도의 대부분도 비정규돌격대의 ‘노동착취’를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 ①과 ②는 정규돌격대의 경험을 나타내는 보도이고, ③과 ④는 비정규돌격대의 경험을 나타내는 보도이다. 정규돌격대는 여단-대대-중대 체계를 가진 전국 조직규모이며, 근무 연수가 길기 때문에 독립적 숙소를 건설한다. 반면 비정규돌격대는 순환하며 정해진 돌격대 할당 인원을 채우고 건설이 완공될 때까지만 근무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 공사현장에서는 사람이 계속 교체되기 때문에 처우가 나쁘고 규율도 약한 편이다.

① “현재 각 여단들에 제공된 숙소들이 임시건물이라고 하지만 내부는 일반 가정집처럼 아늑하게 꾸려져 일을 마친 후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게 꾸려졌다.”<sup>203)</sup>

② “건설에 동원된 주민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민가와 떨어진 한적한 곳에 숙소를 지었다.”<sup>204)</sup>

---

203) “北, 원산갈마 건설 동원된 돌격대에 배급과 숙소 제공.” 『Daily NK』, 2018.6.22., <<https://www.dailynk.com/%E5%8C%97-%EC%9B%90%EC%82%B0%EA%B0%88%EB%A7%88-%EA%B1%B4%EC%84%A4-%EB%8F%99%EC%9B%90%EB%90%9C-%EB%8F%8C%EA%B2%A9%EB%8C%80%EC%97%90-%EB%B0%B0%EA%B8%89%EA%B3%BC-%EC%88%99%EC%86%8C-%EC%A0%9C%EA%B3%B5/>> (검색일: 2021.10.21.).

③ “광산이나 운수 단위는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생필품 공장은 생산을 중단 한 곳이 많다”, “이러한 비생산단위는 특하면 돌격대나 농촌동원에 불러나가기 일쑤다.”<sup>205)</sup>

④ “최근 몇 년 동안 대규모 건설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이 6개월씩 돌아가며 지속적으로 돌격대로 나가고 있다”, “돌격대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공사 인력으로 군 입대를 대신하는 정규돌격대와 전국의 직장과 농장에서 6개월 단위로 동원하는 비정규 돌격대가 있다”, “직장에 출근을 시작하면 돌격대에 한 번씩 다녀오게 되지만, 요즘에는 돌격대 선발이 너무 자주 있고 사고도 많아지자 불만이 커졌다. 기업소 책임자는 어떻게 해서든 보내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갖은 이유를 들어 돌격대를 피하려고 한다.”<sup>206)</sup>

204) “北, 원산갈마 건설 동원된 돌격대에 배급과 숙소 제공,” 『Daily NK』, 2018.6.22., <<https://www.dailynk.com/%E5%8C%97-%EC%9B%90%EC%82%B0%EA%B0%88%EB%A7%88-%EA%B1%B4%EC%84%A4-%EB%8F%99%EC%9B%90%EB%90%9C-%EB%8F%8C%EA%B2%A9%EB%8C%80%EC%97%90-%EB%B0%B0%EA%B8%89%EA%B3%BC-%EC%88%99%EC%86%8C-%EC%A0%9C%EA%B3%B5/>> (검색일: 2021.10.21.).

205) “돌격대 선발, ‘불편한 함의’할 수밖에 없는 北(북)노동자들,” 『Daily NK』, 2018.9.14., <<https://www.dailynk.com/%EB%8F%8C%EA%B2%A9%EB%8C%80-%EC%84%A0%EB%B0%9C-%EB%B6%88%ED%8E%B8%ED%95%9C-%ED%95%A9%EC%9D%98-%ED%95%A0-%EC%88%98%EB%B0%96%EC%97%90-%EC%97%86%EB%8A%94-%E5%8C%97%EB%85%B8%EB%8F%99%EC%9E%90>> (검색일: 2021.10.27.).

206) “직장 노동자들 국가건설 돌격대 회피하려고 8.3지원,” 『Daily NK』, 2018.12.20., <<https://www.dailynk.com/%EC%A7%81%EC%9E%A5-%EB%85%B8%EB%8F%99%EC%9E%90%EB%93%A4-%EA%B5%AD%EA%B0%80%EA%B1%B4%EC%84%A4-%EB%8F%8C%EA%B2%A9%EB%8C%80-%ED%9A%8C%ED%94%BC%ED%95%98%EB%A0%A4%EA%B3%A0-8-3-%EC%A7%80%EC%9B%90>> (검색일: 2021.10.27.).

## 나. 경험의 재현과 사회적 의미

### (1) 노동의 군사화와 개인 주체의 타산

일반적으로 구소련에서 스탈린주의 초기 공업화 시기(제1차 5개년계획)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을 주도하는 전위대 역할을 수행했던 노동군(трудармия)처럼<sup>207)</sup> 북한의 돌격대를 해석하는 흐름이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북한 돌격대의 형성과 조직 논리를 ‘노동의 군사화(militarization of labor)’<sup>208)</sup>로 본다. 대표적으로 최봉대는 북한의 돌격대를 노동의 군사화 측면에서 해석한다.<sup>209)</sup> 북한의 돌격대 노동은 기본적으로 집단주의 노동이며 집체의 실적이 우선된다는 점에서 집단주의적 구속력이 작동하는 노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개인별·집체별 경쟁과 군대식의 작업 전투가 결합된 방식으로 강고한 노동규율과 통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노동의 군사화로 해석한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힘든 노동이기에 개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훈장, 표창, 칭호와 함께 국가의 물질적 보상 기제가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그 중 가장 강력한 유인력은 화선입당이나 후보당원 등록 등 국가적 기념행사나 정치적 필요성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미리 계획된 포상을 받는 것이라 보았다. 이처럼 해석하는 북한의 돌격대는 체제건설 및 체제유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

---

207) 노동(труд)+군대(армия)의 합성어인 노동군은 무기가 없는 노동군대라는 뜻이다. 이는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 경제재건을 위해 적군(赤軍)을 경제재건에 투입하는 정책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주로 연료와 원자재 채굴, 수송체계 재건 등을 담당하였다. 윤용선, “볼셰비키의 노동규율화 정책(1918-1920),” 『러시아연구』 제10권 제1호 (2000), p. 249.

208) 노동의 군사화란 군사조직에서 볼 수 있는 엄격한 규율과 조직원칙에 따라 노동력을 조직하고 노동과정을 통제하는 진시적 노동정책을 의미한다. Jay B. Sorenson, *The Life and Death of Soviet Trade Unionism 1917-1928* (New York: Atherton Press, 1969), pp. 204~228.

209) 최봉대, “북한의 속도전청년돌격대와 체제유지 기제,” p. 28.

문에 국가가 어려울수록 노동의 군사화가 요청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북한이 1990년대 경제영역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일반 주민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이완된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 건설 사업이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노동의 군사화가 요청되고, 돌격대의 노동규율과 집단주의는 이를 지탱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북한의 정규돌격대는 이 논리에 부합한다. 특히 가장 먼저 결성된 속도전청년돌격대는 노동의 군사화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구술자들 중에는 중학교 졸업 후 군에 나갈 처지가 되지 못하여 신분 상승의 기회로서 돌격대에 자원한 경우가 있었다.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시점만 하여도 기본 5년여 근무를 하고 나면 당증을 달 수 있었다.

2005년도 5월에 나갔나요? 촌에서 평양에 한 번도 못 가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돌격대를 평양에 배치받은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래도 제가 청년비서를 해서 애들이 다 나와서 막 영웅이 돼서 돌아오라 환송해 주고 그랬어요. 사실 이렇게 헤어지면 다시 못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막 울어요. 애들하고 이별하고 막 울면서... 자기 목 달개(교복 옷깃)을 뜯어서 손으로 편지를 써서 주고 자기가 시장에 나가서 도둑질 했던 수첩을 주는 애들도 있고 논밭에서 이삭주이 해서 모은 걸 시장에 팔아서 사탕 한 봉지를 주머니에 넣어 주기도 하고...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말도 못 해요.<sup>210)</sup>

평양 도착하니까 눈이 막 돌아가요. (웃음) 그때는 왜 그렇게 거기가 그렇게 멋져 보였는지 몰라요. (웃음) 105층 류경호텔 아시죠? 그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그때 블록 매고 올리느냐고 척추 여

---

210) “[젊은그대]돌격대 소년, 경찰을 꿈꾸다,” 『RFA』, 2012.3.15.,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young\\_generation/youngyou-03152012135658.html](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young_generation/youngyou-03152012135658.html)> (검색일: 2021.10.27).

기, 가족이 벗겨져서 아직 흉터가 있어요. 류경호텔 건물은 위층까지 못 올라가고 5층 아래서만 작업했는데요. 호텔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블록 떨어진 데 복구하거나 바닥 정리 작업을 주로 했어요.<sup>211)</sup>

연이은 두 개의 구술은 돌격대 입대 경험을 통해 자신을 당에서 키워주고 있다고 느끼며, 곧 영웅이 될 것처럼 느꼈다는 보도를 발췌한 것이다. 해당 보도의 구술자는 당원(105)돌격대 생활을 한 사람으로 ‘대우가 좋았다’, ‘밥을 아주 많이 주었다’, ‘좀 축스럽지만 사랑도 해봤다’라면서 당시 돌격대가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낭만도 있고 조직 생활 이후 주어지는 보상도 있었고, 무엇보다 평양에서 근무하는 우대조건을 만족스럽게 느낀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규돌격대가 준군사조직이라고 하여도 인민군대만큼 보상기제가 작동하고 있지 못하며, 현재 돌격대 조직 활동에 대한 정치적 보상 및 물질적 보상 기제는 강력한 유인 요소로 나서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최봉대의 연구에서도 노동의 군사화로 시작된 체제 유지 기제로서의 돌격대 동원이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을 기점으로 균열되기 시작했으며 돌격대 노동을 대하는 태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여전히 돌격대 노동은 물질적, 정치적 보상에 대한 강력한 개인적 욕구가 그 근저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나, 다만 그 효과 면에서는 분절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sup>212)</sup> 집단적 가치의 수용이나 집단을 위한 자기희생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타율적이고, 자발적인 경우에도 개인적인 타산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돌격대 노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군대식 규율에 의한 물리적 폭력에만 의존한 해석이 아니라, 돌격대

---

211) 위의 기사.

212) 최봉대, “북한의 속도전청년돌격대와 체제유지 기제,” p. 29.



노동 속에는 상호 간의 자발적 노력과 개인 주체의 이기적 타산에 의해 조직 운영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도 저 한 달 있었어요. [한 달? 딱 한 달만 하구 도망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구 저 대체인원을 계속 교체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러고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앞으로 OO는 관광, 관광지구로 만들겠네요?] 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그때 그 OO가 굉장히 좋았었던데요. 네에 그 일한 거 힘든 거 빼고는 좋았습니다. 관광 쪽으로 저는 저희가 도망... 걸어서 나올 때 백릿 길을 걸어서 나왔거든요. (사례 1)

본 연구자는 이 대목에서 사례 1이 돌격대 경험을 일상의 반복되는 긍정적인 일로 표현하며 자신이 세 차례나 오며 가며 돌격대를 했다는 사실을 구술하는 표현방식에 주목했다. 처음에는 좋았다는 것인지 아닌지 혼동스러웠는데, 나중에 개인 주체의 이기적 타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타산에는 물질적 타산도 있지만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면 집을 떠나고 싶기도 했었고, 사회생활의 명분도 쌓고, 그렇다고 돌격대에 오래 있을 생각은 없고, 다만 딱 한 달만 채운 뒤 돌격대에 나갔다 왔다는 명분을 쌓아 당당하고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하고자 기대하는, 그런 복잡하고 다양한 마음이 있었다는 점이다. 즉, 돌격대 노동에 참여하는 이유 중에는 국가적 강제 이외에도 자발적인 개인의 선택이 있었으며, 개인의 선택에는 다양한 주체적 타산이 존재했다는 점을 본 연구는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장화 이후 돌격대 노동은 이처럼 타산적인 개인들에 의해 변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2) 정치교양 중심의 대중운동의 일환

돌격대를 체제유지 기능을 위한 노력동원만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북한의 돌격대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 건설 논리와 맞닿아 있고 북한이 군중노선과 대중운동을 북한 경제건설의 기본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북한의 돌격대를 군중노선을 실현하는 대중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한다면 북한이 목표하는 대중운동은 ‘계속 혁신 계속 전진’ 하는 집단주의 사상교양운동을 의미하게 된다.

브루스 커밍스에 의하면 북한의 군중노선의 실현방식은 중국의 모택동식 대중운동과 다르다. 중국의 대중운동은 ‘군중으로부터 군중에게로(from the mass, to the mass)’의 형태로서 전체 인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인민들의 혁명적 열의를 높이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다.<sup>213)</sup> 그러나 북한의 대중운동은 전체 ‘인민’이 모두 한결같이 혁명과업에 적극적인 것이 아니며, 소극분자와 개인주의의 낡은 현상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핵심’에 의거한 ‘위로부터의 지도’를 통해 광범한 대중들을 동원하도록 설계되었다.<sup>214)</sup> 이 같은 의미에서 북한의 군중노선은 중국과 달리 “군중에게로, 군중으로부터 다시 군중에게로(to the mass, from the mass, to the mass) 형태라고 지칭했다.”<sup>215)</sup> 북한의 대중운동이 대중 그 자체의 자발성보다는 대중에 대한 목적의식

213) Bruce Cumings, “Kim’s Korean Communism,” *Problem of Communism*, issue 2 (1974), pp. 28~29.

214) “혁명적 군중노선은 노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영도의 전 과정에 (중략) 그들을 교양 개조하여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그들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발동하여 풀어나가는 것을 내용으로, 기본 요구로 하는 영도원칙이다.”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체계(주체사상총서 9)』 (서울: 지평, 1989), p. 64.

215) 정영철, “1970년대 대중운동과 북한 사회: 돌파형 대중운동에서 일상형 대중운동으로,” 『현대북한연구』, 제6권 1호 (2003), p. 124.

적인 ‘지도’를 강조한 결과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범과 본보기 단위를 창조하여 이를 확산하는 전략적 형태도 유사한 것이라고 보았다.

정영철은 이 같은 북한의 전략이 대중운동을 단순히 노력동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상교양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활용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보았다.<sup>216)</sup> 다시 말해 북한의 대중운동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극복의 열쇠를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와 사상의 논리에서 찾기 때문에 사상적 단련과 정치적 각성을 중심에 놓고 가장 짧은 시일 안에 양과 질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 것을 요구하는 속도전과 결합시키고 있으며, 그 대표적 조직 사례가 돌격대가 되는 것이다.

특히 정영철은 북한의 돌격대를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형성, 건설된 이후 돌파형 대중운동이 일상형 대중운동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일상형 대중운동이 제도화된 형태 중 하나로 해석하였다.<sup>217)</sup> 1970년대 이후 북한에서 조직된 돌격대는 체제 내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제도적으로 잘 관리되고 성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한 일상형의 대중운동 조직인 셈이다. 그리고 이 일상성을 담보하는 방식이 각 공장·기업소에 할당되는 노동력 뿐드(할당 몫)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해석에 의하면 북한의 다양한 비정규돌격대는 사상교양을 목적으로 조직되고 인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활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정규돌격대는 국가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상위지도기관 책임 하에 전국적으로 모집되는 준군사조직과 유사한 형태이다. 따라서 근무연월도 있고, 보수와 승진도 존재한다. 대체로 탄원방식(자원입대)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고등중학교 졸업대상

---

216) 위의 글, p. 126.

217) 위의 글, p. 157.

의 학생과 군 제대 이후 사회생활의 기착지로 제대군인들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집되기도 한다. 이미 탄원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에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형태를 띤다.

반면 비정규돌격대는 국가건설 사업이면서도 해당 시도 단위에서 전개되는 경우, 해당 시도 단위에서 독립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돌격대를 조직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예를 들어 북부철길 건설을 위해 6.18 돌격대가 조직되었지만, 6.18 본진의 정규돌격대 이외에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일대에서 6.18 돌격대를 보조하는 또 다른 해산시 6.18 돌격대, 청진시 6.18 돌격대 등이 비정규돌격대로 조직되는 경우이다.

이때 도나 시 차원에서 조직하는 돌격대는 일정한 차출 인원의 수가 정해져 있고 이는 해당 공장·기업소에서 항상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시도별로 해당 공장·기업소에 할당량을 고정해 놓고 돌격대 근무를 순환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때 차출의 의미는 사회기여 노동이자 사상교양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해당 공장·기업소에서 경노동에 해당하거나, 문제를 일으켰거나, 회사생활에서 정치적 교섭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가게 된다. 이 방식은 이들의 나태와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돌격대가 사상적 각성을 추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희 때는 일단 이게 OO발전소, 소금밭 이게 그때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미공급이 끝나구 고난의 행군 시기가 끝나면서 경제활동을 무언가를 한다면서 저는 이때가 많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네, 돌격대가 굉장히 다양한 돌격대가 많았어요. 저희 때는. (사례 14)

위의 사례 14는 북한의 시장이 활성화되던 2000년대 큰 규모의 도시에 거주한 여성이다. 그녀의 구술에 따르면, 당시 북한 당국은

건설 사업에 동원할 다양한 돌격대를 조직하여 할당하였고 돌격대 차출은 피할 수 없는 의무노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이미 한 달을 주기로 반복적 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3개월이면 길고, 6개월이면 거의 ‘머저리’ 취급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돌격대 노동이 사회 진입 초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도 2~3번 돌격대 경험을 했다고 치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취급할 정도로 돌격대를 기피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분명 북한에서 돌격대가 대중운동 방식의 하나로 제도화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상교양적 의미는 탈각되고, 돌격대 노동이 형식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는 지점이다. 나아가 돈으로 돌격대 차출을 대신하는 이들이 점차 증가하며 돌격대 기피 방안이 확산되어 가는 현실은 기존 돌격대의 조직 논리와 운용 방법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김정은 시기에는 북한 당국이 경제건설집중노선으로 전략노선을 전환하고, 전 사회적으로 낙후하고 낡은 때를 벗고자 문명 사회 건설을 추동하고 있다. 어느 시기보다 대상 건설을 위해 정규 또는 비정규돌격대의 조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설비 노화가 굉장히 돼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현재 공장기업소 설비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북한은 저거 다 없앨 겁니다. 아예 다 허물어버릴 겁니다. 지금 숨죽은 공장을 다시 살려서 가동 하느니 투자하는 노력과 자금을 타산해 보면 현대적으로 새로 짓는 게 오히려... 북한은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있는 거. 거기에 의존 하지 않지 않을 겁니다. (사례 A)

위의 사례 A의 말처럼 북한은 현대화된 재건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활발한 건설이 예고되고, 돌격대 조직 활동도 지속적

으로 확산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돌격대의 조직논리나 운영 방식, 돌격대에 참여하는 개인 주체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돌격대를 통과지점으로 삼은 개인 주체들은 이들이 마주하는 사회적 노동환경 및 노동형태가 다양하게 분화함에 따라 이들의 돌격대 활동방식, 돌격대를 통한 경험의 재구성 또한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구술자들의 구술 내용을 통해 돌격대 경험을 분석해 본다.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집단주의와 강고한 노동규율을 갖춘 돌격대 활동이 균열되며 나타나는 참여 개인들의 다양한 일상의 저항들이 무엇이며, 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노동통제와 노동규율을 균열 내고 스스로의 주체성을 회복하려 하는지, 그 행위의 유형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국가는 돌격대 조직을 통한 경제문제 해결의 일상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있으며, 사상교양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고자 하는지를 검토하여 돌격대 노동을 둘러싼 새로운 발견들을 종합해 본다.

## 4. 참여 주체의 대응과 직업으로의 전환

### 가. 돌격대 조직 현황

연구를 위해 진행한 12명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맥락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들이 경험했던 돌격대 활동은 1999년부터 2019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구술자가 돌격대에 참여한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먼저 1999년에 조직된 6.18 돌격대가 진행했던 북부철길 공사의 참여 경험이 두드러졌다. 당시 6.18 돌격대가 전국 규모로 조직되어 많은 노동력이

동원된 공사였음을 알 수 있었다.<sup>218)</sup> 북부철길 건설은 북한의 동서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촉진하고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을 추진한 사업으로 총 5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sup>219)</sup> 이 중 가장 핵심적인 구간인 자강도 자성군에서 양강도 혜산역까지의 철길공사에는 연관한 철도부 소속 기업소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함경도, 양강도, 자강도 일대에서 청년 돌격대를 순환적으로 모집했다. 구술자 중에도 이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이가 있었다. 그다음으로 1981년 6월 5일에 김일성 주석의 교시로 건설이 시작됐지만 30여 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건설을 지속하고 있는 어랑천발전소<sup>220)</sup>

218) 북부철길이란 북부내륙지대에 동서부를 연결하는 철도를 말하며, 김일성 주석의 1980년 8월에 제기한 건설이다. 이 건설은 1981년 가을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이 공사만을 위해 철도부 내 총국을 신설하고 사회주의청년동맹(사로청)을 돌격대로 조직하여 건설을 진행하였다. 박만협, 『(조선부문사)조선교통운수사 2: 철도운수편』(평양: 철도출판사, 1988), p. 455.

219) ①운봉-혜산 사이 철길, ②혜산-무산 사이 철길, ③무산-회령 사이 철길, ④운송-서부 사이 철길, ⑤청수-덕현 사이 철길이다. ①운봉-혜산 사이의 철길은 자강도 자성군 운봉로동자구로부터 량강도 혜산시의 혜산역에 이르는 길로 총 204.65km로 1987년에 완공되었다. ②혜산-무산 사이의 철길은 백두산청년선의 혜산청년역과 무산선의 무산역 사이를 연결하는 철도로 길이는 74km이다. ③무산-회령 사이 철길은 무산선의 무산역과 회령탄광선의 유선역 사이를 연결하는 철도 61km이다. ④운송-서부 사이의 철길은 만포선의 운송역(자강도 전천군)과 평북선의 서부역(평안북도 삭주군) 사이를 연결하는 율환철도이며 총길이는 176km이다. ⑤청수-덕현 사이의 철길은 평북선의 청수역과 덕현선의 수진역 사이를 연결하는 철길이며 총길이는 36km이다. 최성원, “북한의 철도 간선축 구상과 변화 양상,” (유라시아 북한교통물류 이슈페이퍼, 2016.9.1.), pp. 8~10,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searchKeyTy=sj\\_\\_1002&q\\_searchVal=%EB%B6%81%ED%95%9C%EC%9D%98%20%EC%B2%A0%EB%8F%84%20%EA%B0%84%EC%84%A0%EC%B6%95%20%EA%B5%AC%EC%83%81%EA%B3%BC%20%EB%B3%80%ED%99%94%20%EC%96%91%EC%83%81&q\\_bbsCode=1051&q\\_bbscttSn=20170131162154660&q\\_rowPerPage=10&q\\_currPage=1&q\\_bbsSortType=rc](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searchKeyTy=sj__1002&q_searchVal=%EB%B6%81%ED%95%9C%EC%9D%98%20%EC%B2%A0%EB%8F%84%20%EA%B0%84%EC%84%A0%EC%B6%95%20%EA%B5%AC%EC%83%81%EA%B3%BC%20%EB%B3%80%ED%99%94%20%EC%96%91%EC%83%81&q_bbsCode=1051&q_bbscttSn=20170131162154660&q_rowPerPage=10&q_currPage=1&q_bbsSortType=rc)> (검색일: 2021.12.27.).

220) <그림 IV-2> 어랑천발전소총계획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1호 팔향언제 높이 109미터, 물길굴 11.97km, 발전능력 6만 kw, ②2호 언제높이 12m, 물길굴 9.86km, 2만4천kw, ③3호 광덕언제 높이 75미터, 물길굴 7.2km, 2만 6천kw, ④4호 창포언제 높이 45미터, 물길굴 6.8km, 2만 4천kw, ⑤5호 언제높이 16m, 물길굴 36m, 500kw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020년 팔향언제가 완공된 상태이며 현재는 광덕언제를 건설 중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 하시었다,” 『로동신문』, 2018.7.17.

건설과 1987년에 건설이 시작된 평양의 랜드마크인 105층 류경호텔 건설에 참여했던 경험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참여한 시기는 2000년대 초반 무렵이었다.

이들은 모두 김정일 시기에 추진했던 대규모 국가건설 사업에 돌격대로 참여했는데, 사업이 발기된 지 오래되었으나 건설의 진척이 매우 더딘 건설 대상물들이었다.

〈그림 IV-2〉 어랑천발전소와 류경호텔(2000년/2018년)건설 모습



자료: “북한 어랑천발전소 건설 총계획도·조감도” 『연합뉴스』, 2018.7.17.; “R06350-평양 시내 유경호텔” 『연합뉴스』, 2000.8.17.; “Pyongyang architecture, North Korea.” 『연합뉴스』, 2018.9.11.

김정일 체제는 1999년 집권 이후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한 건설물의 완공을 다그치기 위해 기존의 속도전청년돌격대와는 별도로 특정한 대상 건설만을 담당하는 돌격대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류경호텔 건설을 도맡은 105당원돌격대를 조직하고, 북부철길공사를 책임지는 6.18 청년돌격대를 조직함으로써 대상 건설에 대한 완공의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정규돌격대로 조직 편성되었기 때문에 당시 경제난으로 인한 미공급이 지속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돌격대 생활은 그나마 괜찮았다고 한다. 또한 이 건설 사업은 1~2년 이상의 장기 건설 사업이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숙소를 건설하고, 식



당을 꾸렸으며, 식사와 부식물을 담당하는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반면 2011년 이후 김정은 시기에 조직된 정규돌격대는 주로 평양 건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경험한 구술자는 평양의 대동강과일농장 조성사업과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건설사업에 참여하였다. 평양 이외의 지역건설 부문에서는 다수의 비정규돌격대가 조직되었으며, 검덕광산 갱보수, 아파트 건설, 삼지연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해산-삼지연 철길보수(넓은 철길) 작업과 해산시 위연역 건설 그리고 역 앞의 철거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구술자도 있었다.

김정일 시기 정규돌격대 경험을 보유한 구술자들은 한 곳에서 오래 복무한 반면 김정은 시기 정규돌격대의 경험은 평양지역에 집중되었고, 비정규돌격대를 경험한 구술자들은 이곳저곳의 건설현장을 다녔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현장을 체험했다고 한다.

#### <그림 IV-3> 양강도 해산시 위연역 신청사와 철거아파트



자료: 필자 촬영(2019.10.27.).

김정은 시기 비정규돌격대에 참여했던 이들의 구술에 의하면 당시 대규모 국가건설 사업에는 군인 건설자들이 많이 배치되었고, 도별로 건설 경쟁을 벌이면서 국가급 건설보다는 시도별 건설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도 단위의 돌격대 모집이 많았고, 단기 순환식 돌격대 활동 정형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돌격대를 동원하여 진행하여야 할 건설 사업은 방대하지만, 돌격대 인원을 채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파편적으로 비상설 돌격대가 조직되는 경향이 지역 곳곳에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는 비사회주의 단속에 걸린 사람들을 건설 현장에 돌격대의 이름으로 내보내는 방식이다.

보도에 의하면, 돌격대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출생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1990년대 이전에는 군대에 나가지 못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돌격대 인원을 충당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꽃제비가 생겨나면서 차출 대상이 줄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경제난 이후 신체검사를 통과할 만한 체격 조건을 갖춘 남성 중 군 입대자를 제외하곤 대상 인원이 많이 미달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sup>221)</sup> 그러나 무엇보다 최근 북한 청년들은 입당에 별 관심이 없고, 장사하는 데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전 시기와 달리 김정은 시기에는 돌격대로 유인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유인 요소들이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국가건설 사업이 아닌 도·시별 대상 건설 사업은 돌격대 조직 주체가 시·도 단위이며 대상 건설이 완성될 때까지 한정된 기간에만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활 여건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 건설 현장에 막사를 치고 노숙하는 경우도 있었고, 마을 주민의 집

221) “북 돌격대 모집 반타작도 힘든 이유,” 『RFA』, 2014.3.28.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jy-03282014164442.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jy-03282014164442.html)> (검색일: 2021.10.27.).

에 1~2명이 흠어져 들어가 임시 동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식사는 모두 건설 현장에 차려진 식당에서 자체로 해결하도록 하였으나 구술자들의 대부분은 집에서 보태어주지 않으면 ‘허약’에 걸리기 십상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김정은 시기 비정규돌격대는 공공건물 및 아파트(살림집) 건설에 동원되는 게 다수를 차지하였다.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군인 건설자들이 대부분 담당하고 도·시별 주요 건설 대상은 공공건물과 살림집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가 높았다. 따라서 이들은 돌격대를 1~2개월 다녀오는 관례와 같이 여겼으며, 일단 가야 하니까 가지만 ‘여차하면 튼다’는 생각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었다. 더 이상 돌격대를 통한 그 어떤 보상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국가는 돌격대를 통한 노동의 군사화, 정치교양 학교로서의 제도적 통제가 허물어지게 된 것이다.

## 나. 참여 주체의 대응

이처럼 본 연구를 위해 면접을 했던 구술자들은 시기별로 다양한 돌격대 조직에 참여하며 전국 각지의 건설 사업에 관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구술을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돌격대 노동을 인식하고 참여하며 행위하였던 유형을 구분하여 보면 (1) 기피행위, (2) 참여행위, (3) 면피행위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피행위는 아예 돌격대에 차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동의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고, 참여행위는 돌격대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얻고자 하는 정치적 기회와 물질적 보상을 적극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마지막 면피행위는 사회에서 적발된 각종 비사회주의적 행위의 죄를 씻기 위해 돌격대를 노동교화 목적으로 다녀오게 된 경우이다.

## (1) 기피행위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정규돌격대는 준군사조직으로 군사복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즉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졸업 후 군대에 가는 것과 같이 돌격대도 자원입대 형식을 띤다. 군대에 가지 못하고 사회로 나오는 10대 후반의 청년들이 정규돌격대의 1차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들이 공장·기업소에 취업을 하면 직장에 할당된 돌격대 몫으로 차출되기도 한다. 이때 공장·기업소에 따라 할당 인원수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연합기업소, 탄광 등의 부문과 사무원, 의료직, 교육직, 편의봉사 부문은 돌격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례로 사례 B는 여성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지역에 소재한 창광원식 편의봉사 부문의 남성 대상 이발사로 취업했다. 돌격대 차출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개인 미장원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다. 그러려면 기술도 배워야 하고, 중국 측으로부터 미용 관련 제품들도 수입해야 하는 등 초기 투자금이 필요했다. 반면 창광원식 편의봉사 부문의 미용사는 국정 가격으로 머리칼을 자르기 때문에 임금 수입이 매우 낮은 편이며, 특히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수입조차 없다. 대신 편의봉사 부문은 돌격대 차출에서 제외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그쪽으로 돌리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가장 적극적인 기피행위는 돈으로 사람을 사서 대신 내보는 것이다. 사례 14는 그런 경우이다. 사례 14는 남들을 대신하여 두 번이나 돌격대에 참가했다. 첫 번째는 인민반에 할당된 돌격대 몫을 대신하여 참가한 경우이다. 당시 자신이 속한 인민반도 아니었으나 3달 정도 다녀오면 강냉이 곡수 15kg이 주어졌다고 했다. 특히

돌격대에 나가 있는 동안 돌격대에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따로 생활비가 들지 않아, 다녀온 후 보상으로 주어지는 강냉이 국수 혹은 이에 해당하는 돈이 목돈이 된다고 하였다.

인민반에서 한 명씩 나가는 게 있어요. 한 집에서 얼마씩 걷어서 어느 사람 내보내겠는데 거기 가서 생활하게끔. 네. 걸어서 동에다 바치죠. 바치면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사람들 나갔다 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주죠. (중략) 쌀을 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죠. 그때 당시에는 한 강냉이국수 15kg가격? 만 오륙천 원 됐던가. (사례 14)

사례 14의 두 번째 경험은 비사(비사회주의) 단속에 걸려 구류소에 있을 때 청년동맹 교양지도원이 자신의 몫을 대신하여 돌격대에 다녀오면 비사(비사회주의) 단속에 걸렸던 사실을 없애준다는 말에 그를 대신하여 1년 동안 돌격대를 다녀온 것이다.

이 밖에도 직장에서 도·시군 단위에서 조직하는 비정규돌격대에 의무할당 몫으로 차출되게 되면 적게는 2만 원에서 5만 원(북한돈)을 내고 기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사회초년병들은 아예 돌격대 차출이 없는 부문으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소속 단위에 적을 걸고 장사를 할 때 돌격대 기피가 가능한 영역으로 자신의 소속을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돌격대 차출이 불가피할 경우 적극적인 기피자들은 돈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해결한다는 것은 돈을 주고 자신을 대신할 누군가를 보낸다는 것이지, 국가로부터 할당받은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돌격대에 나가야 한다. 이로 인해 누구는 돌격대를 한 번도 나가지 않고, 또 누군가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돌격대에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 (2) 참여행위

처음부터 돌격대와 마주할 일이 없도록 기피행위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어차피 가야 할 돌격대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사례 1은 돌격대 지원을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스펙 쌓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잘 가동되는 공장·기업소에 연줄을 동원하여 경리로 취업하게 되었는데, ‘뺨’으로 들어온 데다가 일 경험이 없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돌격대에 지원하는 방법을 활용했다고 한다. 특히 공장·기업소에 할당되는 돌격대 차출 인원은 비노동 부문인 부기나 경리가 순환하며 몫을 채우는 관례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일명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스펙인 거죠. 스펙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쪽에서도 돌격대를 그때 제가 그때 학교를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되서 일단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땀에 위에 언니들도 많이 있어서 지고, 그니까 선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너무 어린 제가 경리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나름 이제 스펙이 필요해서, 그 스펙이 돌격대를, 그래도 말이 뒤에선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돌격대를 갔오라 그런 취지에서, 일단 쥔 처음 나갔던 것이 시 돌격대를 나가게 되었거든요. (사례 1)

사례 1은 처음에는 6개월 동안 수력발전소 건설의 돌격대 생활을 했만, 그다음에는 과제가 요청되면 나가는 시늉만 하고 딱 한 달만 채우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자신의 빈 자리에는 다음에 다른 부기직의 노동자가 나가는 형식으로 순환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돌격대를 세 번이나 나갔다 오면서 자신의 경리 지위가 돈독해졌다는 것이 사례 1의 설명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 사례 C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윈 고아로, 중등학교 출신이다. 졸업 후 이제까지 키워준 당의 은덕에 보답하고, 당원이 되기 위해 돌격대에 자원했으며, 105돌격대원이 되었다. 당시 평양에서 건설 중이던 류경호텔 저층 벽체공사를 담당했다는 사례 C는 평양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만족해했다. 고등중학교 졸업 후 7년간 돌격대 생활을 했지만, 그는 당에 가입하진 못했다. 그럼에도 군대는 아니지만 당원돌격대의 정식 대원이었고, 평양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정치적 자신감은 상당히 회복한 듯 자긍심이 넘쳤다.

경제난 이후 북한에 존재했던 꽃제비들을 위한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북한당국은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적극적으로 설립하였다. 대체로 2012년 전후, 전국의 시도마다 대표시설을 하나씩 건설했고, 부모 없는 고아들을 수용했다. 앞선 사례 B에 의하면 일가친척이 전혀 없는 고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했다. 사례 B도 이모 집에서 기거했기 때문에 지역에 건설된 시설 좋은 중등학교에 가고자 했으나, 친척이 있어서 대상자에서 탈락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이들은 신분상 군 입대는 불가하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을 만회하고 더 좋은 신분을 취득하고자 다수가 돌격대에 지원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돌격대 처음에 한다면 돈 좀 쓰면 되고, 가서 표창이나 받거나 입당하려는 욕망이 있는 사람은 자원해서 갈 수도 있고, 근데 북한 같은 데는 돌격대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공식화된 돌격대들이 많아요. 618 돌격대도 분명 아직도 있을 거라고. 속도전청년돌격대 다 살아 있다고. 당원돌격대도 살아 있고, 이전 국가 명칭 가진 돌격대들이 다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이제처럼 무슨 거 한다 하면, 군대들이 투입되지 않으면 돌격대들이 투입되고, 조금 충성 맹세하는

청년조직들이 이제처럼, 자기네 청년돌격대 모여서 하겠습니까, 하면 하는 게 있고요. 드물긴 하지만 돌격대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도 있죠. 대체로 돌격대 자원 진출해서 하겠다는 놈도 있고, 돈도 없고, 뺨도 없어서 의무적으로 끌려가는 놈들도 있고, 또 중간에 돈을 써서 요령껏 피하는 놈도 있고. (중략) 그건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부해도 할 수가 없어요. 거부한다고 해서 내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처럼 그렇기 때문에 돌격대다, 하면 의무적으로 두 달이면 두 달, 죽었다고 생각하며 참고 일하고 돌아올 뿐이지. (사례 13)

위의 사례 13의 구술은 기피행위자들도 존재하겠지만, 북한에서 돌격대 활동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례 13은 5년간의 돌격대 생활을 통해 승진을 하였고, 철도 부문의 핵심적 지위에 오른 사람이었다. 그는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구술자의 구술을 분석해보면, 행위 유형이 양분되는데, 참여 행위자들은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여성들은 돌격대 기피행위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남성들이 돌격대에 참여하는 주요한 이유는 여전히 돌격대를 통한 입당과 표창, 그리고 사회적 신분의 획득이었다. 따라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남성들은 돌격대 생활이 군대를 대신하여 사회활동을 하는 데 신분적 방패막이가 되고, 집단생활을 오래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거나 ‘얕잡아’ 보지 못하며, ‘체제 질서에 충실히 따르는 신분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느꼈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3) 면피행위

적극적인 참여행위로 체제 내 인입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업종을 달리하거나 돈으로 대신하는 기피행위자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기존의 탄원(자원)에 입각한 돌격대 모집방법이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돌격대 모집 대상에 대한 변형이 시장화 이후 북한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돌격대를 일종의 쫓값을 치르는 면피행위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례 D는 변경지역에서 무직으로 있으면서 지역 내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사람이다. 대학생 그룹과 크게 패싸움을 한 후 교화소에 가기보다 돌격대에 자원하라는 청년동맹의 교양을 받고 평양시 대동강과수종합농장 건설에 참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과수재배 기법을 현대화하여 재배 과수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전문농장으로 변화하기 위해 재건설에 돌입한 상태였다. 이 건설은 국가건설 사업으로 전국에서 차출한 돌격대 인원으로 건설을 진행하였다. 당시 할당을 받으면서 인민위원회에서는 대상 연령의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돌격대를 조직하였으며, 사례 D는 때마침 무리를 이룬 조직폭력배 싸움이 원인이 되어 차출의 대상이 된 것이다. 사례 D는 1년 6개월 동안 돌격대 생활을 했는데, 과수농장과 근처의 과일가공공장 건설에도 참여한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네, 저보다 10년, 한... 7년 전에도 많았어요. 저보다 7년 선배, 5년 선배 되는 형도 엄청 조폭이었어요. 그래도 구실, 그러니까 사람 짓 해보겠다고 돌격대 탄원했어요. 자기 친구들 데리고. 다 사회적으로 무직하면서 조폭 하는 애들이에요. 도당에 가서 '우리가 돌격대 가서 사람 짓 해보겠다.' 돌격대도 탄원했는데, 그런데 한 달도 못 가서 다 없어졌어요. 또 조폭질 해요. (사례 D)

그러나 하면 청년동맹이 주관하는 풍기문란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도 돌격대 차출의 대상이 된다. 보도에 의하면 “청년동맹의 비사 그루빠들이 거리에 나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풍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단속된 사람들은 노동 현장에 보내지고 있”다고 한다.<sup>222)</sup> 또한 지난 2020년 1월에 완공된 삼지연시 건설에 동원된 돌격대 중에서 ‘혁명화 대대’가 조직되었다. 이 혁명화 대대는 삼지연시 건설을 맡고 있는 216사단(6.18돌격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삼지연철길 건설돌격대)의 하위 돌격대로, “도주병, 패싸움, 땀감 구입을 위해 공공건물을 훼손하는 등 죄를 지은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대대이다.<sup>223)</sup> 혁명화 대대에서 돌격 노동을 진행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 1달에서 최대 1년이며, 2017년 당시 27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sup>224)</sup>

앞의 사례 14도 청년동맹 교양지도원을 대신하여 나간 곳이 북부철길 청년기동돌격대였다고 한다. 그런데 가서 보니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어느 곳보다 노동이 힘들었다고 기억을 쏟아내었다.

기동돌격대라고 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직장들마다 모집해서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다 치마 단속 걸려서 온 걸로, 바지 단속 걸려서 온 걸로, 귀걸이해서 걸려 온 걸로, 머리 길어서 온 걸로, 초상휘장 안 맞아서 온 걸로, 무직 처서 온 걸로, 별 게 다 있거든요. (중략) 굴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굴이 기니까 한 5~6개 소대

222) “풍기단속 청소년, 돌격대에서 강제노동,” 『RFA』, 2016.4.15.,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adio-world/radioworld-04152016153518.html](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adio-world/radioworld-04152016153518.html)> (검색일: 2021.10.27.).

223) “북, 삼지연 돌격대 내 ‘혁명화 대대’조직,” 『RFA』, 2017.8.21.,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samjiyonconstruction-08212017092510.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samjiyonconstruction-08212017092510.html)> (검색일: 2021.10.27.).

224) 위의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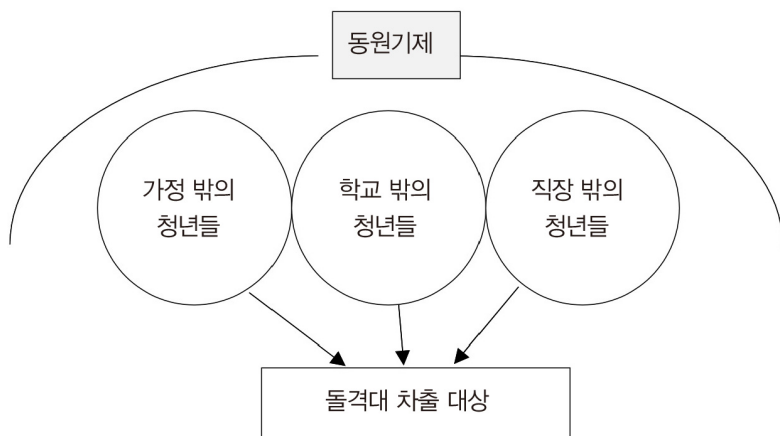
가 있어요. 구간마다 있거든요. 소대별로. 어쨌든 하루에 맡은 구간은 소대가 다 해야 해요. 그러니까 밤늦게라도 자기 못하고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달리 기동돌격대고, 달리 무직자들, 그다음에 한국영화 봐서 잡힌 걸로, 중국영화 봐서 잡힌 걸로, 무슨 장사하다가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잡혀 온 걸로, 직장 안 다녀서 온 걸로, 직장 다니는데 출근 안 해서 잡혀서 온 걸로 등 각개각상이 오거든요. (사례 14)

반대로 사례 13은 자신이 교화 대상인 노동단련대생들을 데리고 아파트 건설을 한 경험을 구술했다. 과오를 가지고 돌격대에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돌격대보다 일을 진행하는 속도도 빠르고, 자신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일을 하기 때문에 지도원 입장에서는 교화로 오는 사람들이 더 좋았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회에도 있어요. 우리처럼 감옥에 보내지 않고, 노동단련대 보내지 않고, 그전에 조금 결함이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놈들을 노동 속에서 죄를 씻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돌격대, 노동단련대생들을 데리고 그걸 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처럼 법무위원회에서 석 달 하면 석 달 동안 노동으로 자신의 과오를 씻는 거지. 석 달 동안 내게 보내주는 거야. 무보수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교화가 돼요?] 효과 있죠. 우리 때도 그래. 나도 내 판에는 진심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충성도가 아주 높지. 그러니까 그런 교화 대상들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사회주의 지키세'라는 노래가 있어. 그것을 발표한다고. 자기가 한 구절 발표하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을 발표하고, 낮에는 일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애네가 석 달이면 석 달, 끝나고 나면 다시는 저기 가지 말아야지, 이런 걸 머리에 새기니까, 기관·기업소에서도 결함을 안 보이려고 자기가 노력하는 거지. (사례 13)

이상의 사례를 검토해 보면, 북한의 청년층들은 군 입대, 대학 진학, 기업소 근무 등의 공식적인 ‘직’을 갖고 사회에 진출하지 않으면 돌격대 차출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림 IV-4〉 동원 기제 속 돌격대 차출 대상



자료: 필자 작성.

또한 최근에는 돌격대 조직 운영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구술자들은 대체로 2014년 전후에 일어난 변화라고 설명하고, 국가의 유희 노동자 관리 측면에서 돌격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IV-4〉와 같이 가정에서 돌봄이 가능하지 않은 아이들을 시도별로 관리하는 애육원-초등학교-중등학교 시스템을 통해 보호·육성하고, 이들을 사회의 노력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12년제 무상교육제도를 시행하면서 학교동원에도 차별을 두어 조직을 시행하고 있다. 사례 E에 의하면, 학교에서 평준화 교육보다 우월반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 “들쭉 동원, 감자 동원” 등을 일체 시행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오후에

는 체육소조활동을 강화하고, 시도별 경쟁을 통해 체육열풍이 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학교에 나가면 동원에서 제외되고, 학교에 나가지 않는 학생들은 동원 및 돌격대 차출이 불가피한 상태가 된 셈이다. 직장을 기준으로 하여도 무직자와 사회 부랑자들을 돌격대 차출의 1차 대상으로 삼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청년들을 혁명화 사업의 일환으로 돌격대에 차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돌격대란 국가의 공식 시스템에 유입되지 않은 비공식 유희 노동력의 집합소가 되는 것이다.

돌격대가 지나는 사상교육적 효과를 배가하고 정치사상 교양처로서 돌격대 노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과거로부터 계승된 측면이나, 일상적 대중운동의 제도화 측면에서는 일상성의 형해화, 대상과 범위의 축소화가 진행되며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만 가혹한 노동단련대 역할을 수행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돌격대 노동을 수행하는 이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숙지한 채 사회로 나오게 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다. 노동을 통한 직업의 전환

돌격대란 국가가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인 도로나 발전소, 댐 건설 등에 차출되어 밭파, 통나무 베기, 철길 보수, 건설 관련 일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돌격대에서 수행하는 노동은 시쳇말로 ‘막노동’에 해당한다. 고급한 기술을 배워주는 것도 아니고, 중장비부터 첨단화된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맨손으로, 삽 한 자루와 나무 등짐으로 숲한 건설 공사를 담당해 왔다.

앞의 사례 ②는 돌격대에 나가 북한의 이동통신망인 광케이블을 매립하는 일을 맡아 했었다고 한다. 북한은 산간지역이 많은 특성상

광케이블을 도로 바로 옆에 묻는다고 했다. 날씨도 굻거리와 설혹 광케이블 연결선이 고장 났을 때 빠르게 수리·교체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돌격대 대원들은 삼자루를 쥐고 도로를 따라 북부 산간지대 굽이굽이 광케이블을 매립하였다고 했다. 기술이 필요한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시장화 이후 이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가가 지불되어야 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기존과 달리 돌격대는 더 이상 입당을 위한 발판이 되지 않았고, 돌격대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사회적 처지와 신분이 취약한 이들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담당해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즉, 최근 돌격대 차출 대상은 사회교화의 대상이라기보다 생계 문제에 직접적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기피행위를 대신하여 반복적으로 돌격대에 나가는 이들은 돌격대가 하나의 생계유지의 수단이 되고 있다. 또 생계유지를 위해 각종 비사회주의적 경제활동을 진행하였던 이들은 역으로 이들의 불법적 경제활동이 돌격대 차출의 근거로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획득한 사실들을 토대로 돌격대 노동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습득된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 자신만의 돈벌이가 가능한 직업으로 전환하거나, 돌격대 경험을 보유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지역 사회의 상권과 이권을 연결한 패거리 조직을 형성한 사례들을 재구성해 봄으로써 돌격대 노동과 직업과의 연계를 살펴보았다.

### (1) 건설 전문인력의 형성

사례 10은 평양의 굵직굵직한 대상 건설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시골 마을의 외가에서 자란 사례 10은 학급에서 최우등으로 군대에 입대했고, 군에서 3년 정도 복무한 이후 군 건설부대에 배치

되었다. 이후 평양시 건설에 참여했고, 제대 이후 당원돌격대에 입대하여 건설 현장의 중장비 운전수로 복무했다. 옥류아동병원,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및 서산호텔 등 군 경제 부문의 공장·기업소 개보수 건설에 참여하였다.

사례 10에 의하면, 김정은 시기 건설을 진행하는 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이전에는 각 건설 부대들이 각기 전문적 특성을 살려 골조면 골조, 자재면 자재, 시설, 상하수 등 특정 영역만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각 건설 부대가 하나의 대상 건설 과제를 통째로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설계도만을 가지고 기초부터 마감까지 온전히 대상 건설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게... 매일 건설부대들만의 특성이 있어요. 1여단부터 3여단까지는 골조공사 주로 다니는 여단이고, 3여단부터 몇 여단까지는 자재, 들어가는 안에 시설들 깔고 뭐 이렇게 상하수 같이 따라 들어가고 이런 거 하는 거고, 마감은 거의 27여단하고 몇 여단에서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건설을 진행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가는 때 여단마다 독자적으로 맡겨주면 지네가 처음부터 마감까지. 설계만 주면 처음부터 마감까지 다. 경쟁식으로. [그게 언제부터인지 같아요?] 그게 2013년부터. (사례 10)

위와 같이 건설방식이 바뀌면서 특정 전문영역만을 담당해 왔던 건설인력들이 2013년 이후 건설과 관련한 모든 기술을 습득해야 했다. 각 건설부대가 경쟁적으로 빠르게 완공하는 것으로 건설방식이 변화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건물을 국에 배치하면 국은 설계도만 가지고 건설물을 가시화해야 한다. 흔히 돌격대 동원을 나갔다 오면 막노동이나 하고 오는 것이라 여기지만, 실제 북한에서는 돌격대를 통한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돌격대만큼 건설에 능통한 현장 전문

가를 육성해 내는 곳은 없다.

다양한 건설에 참여해 본 사례 10은 건설과 관련해서는 다른 이들도 대동소이하다면서 지금 북한에서는 어느 단위에다 건설을 맡겨도 건설물을 쪽쪽 뽑아낼 수 있다고 했다. 큰 차이가 있는 곳은 오로지 건설 1여단뿐이라고 했다.

1여단은 모체가 7여단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마원춘이가 1여대장할 때 그때가 전성기였죠. 애네는 극비밀리공사, 그리고 비밀공사도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공사, 중앙당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기본... 진짜 기술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설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장비가 좋고요. 애네는 일반공사 안 해요. 다 중앙당 회의실, 별장, 그런 거. 그다음에 누가 이제... 정 진짜... 뭐할 때, 옥류아동병원 할 때도 1여단이 동원됐었거든요. 누가 중시해서 할 때 마감공사 내부 처리해주고. (사례 10)

또 국가건설 사업으로 진행되는 선물 주택은 설계도에 따라 건설을 하고 나면, 주민들이 살면서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게 되어 있다면서 려명거리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사례를 들었다.

그죠. 여기 다 선물 주택이어가지고, 여기는 다 무동력, 무난방... 그니까 그 지열난방이죠. 여기는 후에 가보니까 괜찮았어요. 다른 데는 신소가 많더라고요. [어떤 신소가 많았는데요?] 집이 춥다. 그래가지고 다시 물난방, 탄으로 해서 무동력을 다 났어요. (사례 10)

지열냉난방시스템으로 건설된 려명거리 아파트는 주민들이 입주하여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온돌, 온수 시스템으로 변경 회귀공사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앞선 군인 건설자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며 도입한 신기술과 신구조를 민간의 리모델링 업자들이 들어가서 배



우고 익히며 온돌을 놓고 온수난방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방식의 기술 전수가 이뤄지고 있었다. 건설 전문인력들의 현장 양성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 사례 9는 헤산시 위원역 앞의 철거아파트 리모델링에 참여하였다. 이 역시 국가건설 사업으로 돌격대가 책임지고 건설한 아파트였다. 일명 철거아파트로 알려진 이 아파트는 내부 마감까지 다 꾸러진 아파트로 건설되었으나, 실제 입주한 사람들이 내부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같은 패턴을 잘 알고 있는 민간 건설업자들이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고 전했다.

자연스럽게 북한의 건설 사업은 전문성을 놓고 볼 때, 국가 단위에서 사회 민간 단위로 기술 이전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군 건설단-돌격대 건설-사회(동원)건설의 순으로 건설의 층위가 나뉘고, 군 건설단 중에서는 해외건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제1여단이 가장 고급한 건설기술을 보유하여,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양한 건설 사업에 민간인들을 돌격대로 조직하여 현장에 투입하는데, 먼저 기술을 획득한 사람이 나중에 진입한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건설인력이 양성되고 있는 흐름이 명확했다. 기술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기술모방과 건설방식의 경쟁을 통해 빠르게 건설기술 인력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건설사업소 및 주택사업소의 역할이 축소되고 개인 건설업자들이 양성됨에 따라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이들 간의 자연스러운 역할분담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례 13은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내가 미장공이여. 내가 기업소에 속해 있는데 이 집 가서 미장을

하래, 기업소에서 시켜서 가게 되면 내가 미장을 잘해줘도 기업소에서 백 원밖에 안 준다고. 그렇지만 내가 기업소에서 시키지 않고 내 절로 가서 하면 만 원을 받는다고. 내 주머니에 만 원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기업소에 안 맡기는 거예요. 기업소는 기업소대로 많은 미장 같은 거, 대량으로 하는 일은 기업소가 맡아서 해주는데, 이 자처럼 부분적이거나 세련되고 고급적인 거 요구하는 건 개인을 불러서 한다고. (사례 13)

## (2) 기술 습득과 자영업 진출

돌격대 경험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직업을 전환한 사례들도 더러 있었다. 연구자가 수집한 사례에 따르면, 전기 관련 설비보수, 시멘트 미장과 타일 붙이기, 유리 공사, 아파트 베란다 샷시 공사 등의 기술이 그것이다. 대표적으로 사례 F는 평양의 건설 돌격대 활동을 통해 주로 시멘트 미장과 타일 붙이기에 대한 전문 기술을 습득했다. 그는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타일을 다 사용해 보았노라면서 중국산, 한국산, 북한산 중에서 북한산 대동강타일이 제일 좋다고 했다. 그리고 사례 F는 복무기간이 종료된 후 고향으로 돌아가 개인 인테리어 업자가 되었다.

계속 밖에 나가서 집 꾸려주고 아파트 건설하고 그런 일만 했습니다. [타일 붙이는 것도 기술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그게 이제 붙이다 보면 모래 한 점이 들어가든, 세멘트가 조그만한 게 들어가도 뺄뿔어 나가거든요. 뺄뿔어 나가는데 그게 이제 이 타이루(타일) 붙이느라, 다 맞는다고 생각해서 붙여 막 붙여 나가느라면 꼭 틀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타이루라는 게 이렇게 직선으로 죽 나가고, 위에 것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각이 맞아야 되잖아요. 타이루라는 게. 그래 이거 붙이고. 이거 이렇게 붙이면. 보기 흉측

하잖아요. 이게 다 직선을 나가야 되는데. 그걸 맞추자면 타이루도  
헐치 않단 말입니다. 그냥 땅바닥에다 맹거 났을 때는 각이 다 맞는  
것 같지만은 그거 이거 붙일 때는 사람 손이 가서 이렇게 벽체에다  
가 붙일 때는 꼭 틀려나가 거든요. 밀려 내려온다든가. 그걸 방지  
하는 게 헐치 않거든요. (사례 F)

특히 김정은 시기 이후 국가가 건설 사업을 방대하게 벌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부유층들 속에서 주택 리모델링, 즉 내부 장식을 세  
련되게 하는 개조공사를 벌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지방의 개인 집  
에서는 석탄 짝기와 집안 내부 수리공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사례 F만 하여도 개인적 수준에서 욕실 하나, 부엌 하  
나 등의 소소한 주택개조 공사만을 진행한 정도였다.

반면 사례 9는 돌격대에서 습득한 기술을 사회에 나와 적극적으로  
활용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그는 평안북도 군 단위 기업소에서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평양 건설 사업에 참여할 돌격대 모집에 탄원  
하여 진출했다. 돌격대 복무기간은 6개월 정도였고, 동대원구역의  
32층 아파트를 건설했다고 한다.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신의  
주시에서 건설-수리팀을 꾸려 아파트 (베란다)건설과 리모델링을  
전문업으로 하였고, 후에 평성시, 혜산시까지 돌아다니며 건설 일을  
하였다. 왜 신의주, 평성, 혜산이었냐고 물었더니 리모델링을 하는  
곳은 아파트가 많고, 돈이 있어 집을 건설하고 고치려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북한의 지방 도시 중  
에서는 이 세 곳이 건설 수요가 가장 많다고도 했다. 이처럼 사례  
9가 건설-수리 자영업을 하게 된 계기는 돌격대 참여 경험이었다.

근데 어차피 인테리어 하는 건 돌격대 나가서 배운 거나 같아요.  
거기서 미장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타일, 벽, 구들, 전기 다 배웠거

든요. 우리는 인테리어 하게 되면, 여기는 전기 따로, 물, 호스 하는 사람들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전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100프로 다, 내가 책임지면 내가 다 건설해야 되요. 그걸 모르면 인테리어를 하질 못해요. 북한은 구들 하나 잘 놓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 안 쓰거든요. 자기네 온 집안을 끌어야 하는데, 구들 하나 끌어서 뭐하냐고 해가지고... 그니까 사람들을 결국은 내가 조장이잖아요, 여긴 팀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팀장이면 팀원들이 거기에 온돌 잘 놓는 사람, 전기 잘 하는 사람, 이런 걸 하나씩 더 뒹요. 미장은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은 다 할 줄 알아요. 100프로가 다. 전기는 뭐 해도 미장은 다 할 줄 아는데... 거기서 그나마도 내가 여기서 조금 더 괜찮은 게 있네 하면, 그걸 이 사람이 전기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낫네 하면, 그 사람을 계속 전기쪽으로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돌격대는 일단 뽑혀만 가면 딱 다 하는군요. 시멘트 섞는 거부터 시작해서...] 혼합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다 배워요. (사례9)

사례 9는 총 8명으로 팀을 조직했는데, 이 중 두 사람이 돌격대 생활을 같이 한 사람이었다. 자신은 팀장을 맡고 미장, 온돌, 전기, 타일까지 기본 5명이 ‘기본 노력’이고 나머지 3명은 조력공(조수)이다. 전문 일을 맡아 할 ‘기본 노력’은 돌격대 출신이 믿을 만하고, 3명의 조력공은 그때그때 일당 주고 사도 되지만, 대체로 호흡이 맞는 조력공은 하나의 대상 건설이 끝날 때까지 같이 한다고 했다.

우리 군(郡)에서는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이따금씩 주문 들어오면 그 사람들 찾거든요. 돌격대 갔다 온 사람들 찾아요. 그 사람들은 전문... 돌격대 나가서도 미장 이렇게... 경륜이 있거든요. 미장시합 시킨다든가 하면은 거기 나가서 1등 하고 2등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런

사람들 데리고 쓰면 다른 사람들 한 열흘 일할 거, 이 사람들하고 일하면 닷새면 끝나요. 절반을 앞당겨요. 그런데 질이고 보장되요. 그 사람들이 스타일인 만큼, 적성에 맞게끔 다 해줘요. (사례 9)

또 건설 자영업자들은 주택건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매점도 짓는다. 김정은 시기에 개인들에게 허용된 거리 매점 설립허가를 상업관리소가 도맡아 관리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매점을 건설하는 일도 건설 자영업자들이 주로 맡아서 하고 있다. 사례 9는 하나의 매점을 꾸리는 데 200만 원(북한돈) 정도 받는다고 했다.

해달라고 하면 가서 해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겨울 같은 때는 추우니까 그 안에 탄을 다 때게 하거든요. [그 안에?] 네. 탄을 때서 그 안을 텅허야지 추우면 못 하잖아요. 뭐 전기가 안 오니까 열선도 없어요. 구들을 이렇게 다 형성해가지고... [아 그 매대 안에 조그 만데?] 네. 우리도 달아주죠. 우리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거 우리 없으면 안 되요. 우리 앞에다 살창까지 막아주거든요. 그 래야지 다 채가도 못 하니까. [그럼 열쇠도?] 열쇠도 있지만.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자니까. [자기도 해요?] 거기서 안 자면 다 채가죠. (사례 9)

매점은 소위 하나의 작은 집 같은 개념이었다. 주택건설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와 쉽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작은 집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정해진 규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계도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의뢰한 손님의 요구와 시공을 할 개인업자의 견해, 그리고 주변의 유사 사례 및 모방 사례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가장 저렴하면서도 빠르게 일해 줄 사람으로 돌격대 경험자 출신이 우대되는 것이다.

### (3) 지역사회 조직과 패거리 형성

사례 9가 인테리어 수요가 많은 신의주, 평성, 혜산시를 넘나들면서 겪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각 지역 토박이들이 사수하고 있는 일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신의주에서 평성으로, 평성에서 혜산으로 이동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도 토박이들과의 싸움 때문이었고, 일을 두고 다투는 경쟁과 전문공 빼가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지역사회는 비단 건설분야 뿐 아니라 각종 상업적 이득이 창출되는 곳에서 외지 상인의 유입을 방지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사수하기 위해 지역사회 패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회적 네트워크에서도 돌격대의 네트워크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례 G는 과오를 씻기 위해 돌격대에 탄원을 하여 들어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온 사람이다. 고향으로 돌아와 오토바이 서비스를 운행하며 돈벌이에 나섰다. 오토바이 서비스를 운행한 이유는 지역 패거리와의 연줄 때문이었다.

발동만 걸면 5원 이상이에요. 어떤 때는 원래 10원인데 5원에 좀 탑시다, 하는 걸 내가 안 태웠어요. 그러면 가다가 옆에 또 다른 오토바이가 있거든요. 다른 오토바이에 가서 말하니까 태워 갔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오면은 말해요. 내가 안 태웠는데 니가 5원에 태우냐고. 그거 내 손님인데... 한두 번 그렇게 되면 맞아요. 하하, 달려 붙어 때리거든요. 우리는, 하하하, 좀 그런 게 있어요. (사례 G)

춘동이면 춘동주차장, 뭐 주차 춘동주차 마산동주차 혜탄다리주차, 뭐 반장들도 다 있고, 또 이 주차를 책임지고, 그 뭐 주차장에 맞게끔 숙제도 떨어져요 또. 하하. 보안소도 또 춘동보안서면 춘동 앞이면 춘동보안서 관할이잖아요. 주차장에 있느라하면 오토바이 문

건 이제 오토바이 문건을 떼지 못하고 번호를 다 팔아요. 그 소개를 시켜주는 것만 한 200~300원은 뜯어먹을 수 있거든요. 그냥 사람들 태우는 거 하루에 50~60은 버는 거는 그냥 재미고, 기본은 하루 내려서 오토바이를 끌어올래다 팔기도 하고 좀 그런 장난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게 한번 작업하면 1700, 1300 이렇게 막 떨어지죠. (사례 G)

중등학교 출신이나 쫓값을 면하기 위해 돌격대에 자원했던 이들 대부분은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 자신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지역 내 상권을 둘러싼 이권 조직에 가담하고 서슴지 않는 다툼을 하였다. 특히 오토바이, 택시, 서비차 등의 운수 노동 부문에서는 그들만의 상하관계가 분명히 존재했다. 여기서 돌격대의 경험은 우선 국가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책임을 다했다는 의미로 통했다. 그리고 돌격대와 같이 험하고 힘든 일을 수행해 본 적이 있다는 점에서 동료 의식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었다. 보안서나 법기관의 사람들도 한두 번 돌격대 생활을 하고 온 이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었다.

건설업자들도 공사가 끝나고 나서 주인으로부터 대금을 다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생겼고, 건설 이후 자재의 질, 건설의 완성도, 건설 이후 하자 보수 문제로 인해 대금지불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이때 팀장들은 우선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채를 지는 경우도 생겨나게 된다. 이런 때 이들은 지역사회의 패거리 힘을 빌릴 수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는 겁 없이 비사회주의적 행동을 서슴지 않으며, 거침없이 돌격대에 나갔던 경험자의 무리에 의존하게 된다. 사례 9가 북한 전역에서 가장 주먹이 세기로 소문난 평성 패거리들에게 당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그저 완전 양아치예요. 이제 일 하는 애들은 따로 있고 또 노는 애들은 따로 있어요. 그다니니까 야, 나, 형 돈 못 받았어, 가서 돈 좀 받아와라, 하면은 개들이 가서. 막무가내예요. 돈 안 주면 가서 재산을 다 들던 하니까. 근데 뭐 타지에서 올라와서 아는 사람도 얼마 없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 있어라 조금 있어라 하면서 조금씩 주고 조금씩 주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 짜증 나요. 돈 못 받은 게 한 6개월 만에 받은 거 같아요. (사례 9)

이 같은 패거리 조직은 기존의 제도에서 수렴하고 계도할 법적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나, 당장 자신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구제 방법 중 하나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조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북한 사회에는 ‘동맹’으로 구성된 근로단체만 존재했는데, 이는 당의 외곽부대로서 사상교양 임무를 주요하게 수행하는 정치조직이다. 즉, 시장화 이후 당연하게 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일과 노동의 영역에서 이들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고, 상권을 관리해 줄 자치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많은 연구들이 시장화 이후 일과 노동의 영역에서 ‘권력’과의 결탁을 통해 이권을 획득하고, 부를 축적해 나가는 사례들을 탐구했는데, 돌격대라는 통과지점을 관통해야만 하는 제도 밖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권력과 결탁하는 지점이 돌격대 탄원이며, 이후 지역사회의 패거리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생존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시장화 이후 북한 사회가 권력에 따른 수직적 네트워크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권 조직과의 수평적 네트워크도 겹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5. 소결

북한의 돌격대는 역사도 오래되었고 주관조직에 따라 조직체도 다양하지만, 오늘날 주목되는 점은 조직과 해체를 반복하며 확대되고 있는 돌격대의 양상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돌격대 조직을 기존의 정치적 목적의 사회동원 체제로 보는 접근에서 탈피하여 공동체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돌격대 노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위치 지을 것인가에 집중하였다. 또한 한시적 운영이 예견된 돌격대라는 집단 안에 다양한 개인 주체들이 관계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관계는 가족과 사회, 직장으로 복귀했을 때 또 다른 연줄망을 형성하면서 긍정, 부정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본 연구는 검토하고자 했다.

그 결과 북한의 전통적 생활공동체는 시장화 이후 어지러운 질서를 형성하며 정돈되지 않은 채 개인 주체들의 역량에 따라 변화 혹은 충돌해 왔는데, 구술자들이 말하는 2014년, 즉 김정은 위원장의 5.30 담화가 발표되고 농업과 기업, 무역 부문의 분권화 조치들이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이란 이름으로 시행되면서 어지러웠던 생활공동체의 모습들이 새롭게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가동 가능한 공장·기업소를 정상화하고 지방공장들을 현대화하여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생활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존의 시-구역-동 인민위원회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던 노동관리 방식을 축소하고, 유희 노동력을 관리하기 위해 돌격대 조직 운영을 확대한 것이다. 당국이 돌격대를 확대 조직하고 있는 이유는 생활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불안정한 노동자와 사회 부랑자, 비사회주의적 청년들을 국가 동원체계 속으로 인입하여 기존 생활공동체의 질서를 재구축함과 동시에 국가가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노력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양면 정책으로 보인다. 즉, 돌격대는 북한의 우리 식 사회주의 경제관리방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기타 노동영역을 일시적으로 재정리하면서 기존의 전통적 생활공동체를 재구축하고자 하는 당국의 사회관리 목적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돌격대 조직이 확대되면 될수록 돌격대를 마주하는 북한 주민들의 대응 행위는 교묘하고 영활하게 진행되었으며,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는 저항이라 할 수 없지만 분명 당국의 돌격대 조직이 의미하는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저항 행위로서 기피행위와 면피행위를 새롭게 고찰할 수 있었다. 특히 도시의 폭력 조직, 운수(오토바이) 조직으로 재조합되는 사례와 미장, 타일 붙이기, 도배 등의 인테리어업, 수리공의 직업기술을 체득한 개인들의 사례들을 통해 돌격대라는 통과지점이 일반 자영업자와 하위 계층에게 국가적 할당을 수행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체적 지위로 나아가게 하는 관통점이 되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이렇게 보았을 때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북한의 생활공동체는 기존의 단일한 역할 중심의 생활공동체라기보다 노동을 중심으로 구별되는(차이가 존재하는) 생활공동체로 변화하고 있다. 하나의 구역(동)을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지만, 개인별 생애사의 이력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같은 학교,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동일한 생애사 이력을 가진 개개인들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학교나 직장에는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존재하고, 안정적인 노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존재하는 그런 생활공동체이다. 일률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생활공동체에서 국가가 여전히 단일한 사회를 가정한 행정적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생각해보면 개별 주체들의 불만과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즉, 현재 북한의 생활공동체에서는 다원화된 개별 주체들의 다양한 생애사 이력이 형성되고 있으나, 다원화된 개별 주체들을 하나의 단일한 전통적 사회관리체계 안으로 인입하고자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북한 사회주의의 시장화 이행이 더욱 진전되어 합법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된다면, 돌격대라는 사회청년들의 통과지점은 기존과 전혀 다른 제도적 조직 기구로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공공건설과 민영건설로 구분되는 전문건설회사의 등장이 될 것이며, 전문건설회사의 승인은 국가가 건설 전반을 책임지는 것에서 탈피하여 국가와 민간의 영역을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리와 민간회사의 등장만이 현재의 무차별적인 국가 동원노동의 행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사고와 실패로 경험을 전수하는 방식이 아닌 직업 알선과 소개, 직능기술훈련, 재취업훈련 등의 새로운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현재의 문제들이 개선될 것이다.

2015년에 북한은 기업소법 개정을 통해 국영기업에 노동력 조절권을 부여했다. 기업소법 제33조는 “기업소는 관리기구와 로력조절권을 가지고 로력 자원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로력을 내보내거나 받아들이거나 기업소 사이에 주고받을 경우에는 정해진 등록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sup>226)</sup> 기업소의 노력조절권이 노동자의 인력수급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상응하는 노동법 개정이 수반되고 있진 않다. 그러나 기존의 노동력 완전고용방식에서는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8.3 노동을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개인 사영업을 허용하

---

226) 오상봉 외, 『북한 노동시장의 현황』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2018), p. 50.

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변화이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 형성은 비공식의 영역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당국의 수용과 북한식 제도화 방식이 강구되고 있다고 본다. 박희진은 중국의 노동시장 형성방식을 탐구하여 중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이전, ‘지역’을 주체로 하여 지역별로 고급인력시장, 노동력시장, 외래노동력시장이라는 분층을 형성하였음을 고찰한 바 있다. 또한 기존의 성별, 시별 노동복무공사 시스템에 더하여 지역마다 실업자들을 위한 구직 중개기구인 직업소개소를 설치하여 노동력시장, 노동복무공사, 공인교류복무소 등의 노동중개서비스 기구들을 연달아 설립했던 사례를 통해 북한도 중국 같이 국가와 민간이 이원화되며 변화된 노동 현실을 제도화했던 경험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227)</sup>

또한 중국의 경우 기업개혁을 통해 기존의 일률적인 직업배치를 철폐하는 대신 직업훈련제도를 도입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기술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을 설립한 사례를 검토한 바 있다. 이는 중·고급 인재를 먼저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기계, 전자, 항공, 전력, 석유, 야금(제련), 철도 등 30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김정은 시기의 북한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2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존의 고등중학교에서 분화된 기술고급중학교를 설치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기술(어업, 전기발전, 농업 등)을 배우고 익힌 전문인재들을 학교교육 체계 안에서 먼저 육성할 수 있도록 편제한 바 있다. 또한 고등교육 부분에서는 과학기술인재와 교원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별 종합대학을 신설하고 기존의 단과대를 폐지하고 농업, 화학, 건축, 교통운수, 관광 등의 특성화 대학을 변

227) 박희진, “동독과 중국의 인적자원 개발방식 비교: 남북경제통합에 주는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2010), pp. 105~132.

경 편재한 바 있다.<sup>228)</sup> 아직 공공이 관리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노동 서비스 기구들이 설치되고 있지 않지만, 결국 노동시장이 합법화되는 추세에 맞게 노동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단기 직업훈련제도도 병행해서 설립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문은 다양한 노동 행위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행정적 사회관리 체계도 변화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 당국이 완전한 고용과 실업이 없는 사회주의의 제도적 테두리를 강조하면 할수록 학교와 직장 단위로 편재되고 인민반을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존의 생활공동체는 주민생활의 행위 양식에 맞지 않는 형식적 굴레가 되고 있다. 이미 개별 주체들은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개인 간의 일자리 네트워크가 명시적 모임으로 조직되고 있지는 않지만 휴대전화를 통해 상호 간에 암묵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신과 상대방을 구분하고 있다. 소위 ‘아는 사람’, ‘형부의 소개’, ‘아는 언니’, ‘우리 동네 사람’ 등의 불분명한 명칭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적 연결망은 정보를 공유하고, 일자리를 구하며, 임금을 비교하고,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등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밖의 연결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런 현상의 맹아를 돌격대 경험을 중심으로 한 패거리 조직을 통해 검토하였는데, 향후 더욱 다양한 사회조직의 맹아들을 발견하는 일들이 더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생활공동체가 짜여진 형식을 유지하는 대신 다양하게 분화하고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은 남북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때도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먼저 남북한 협력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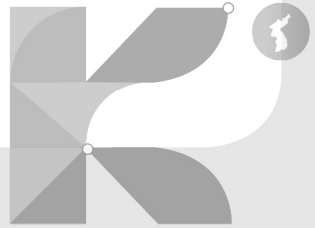
228) 이인정, “김정은 시기 북한 고등교육 변화와 남북 대학 협력의 과제,” 『도덕윤리교육』, 제70호 (2021), pp. 239~260.

국가 중심성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향후 남한은 북한의 민간 영역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높은 대상과 영역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제시하고 전문영역의 협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방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백화점, 호텔, 식음료, 편의점 등의 서비스 노동 분야의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돌격대 건설이 보여준 바와 같이 민생 관련 영역으로 협력사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물의 건축과 민간(도시/농촌)주택, 취사와 난방, 상하수도, 대중교통 등의 생활 분야의 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앞으로 민간 영역, 민생 영역, 전문화 영역의 부상, 강화는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V. 일상의 관계성과 공동체의 변주

윤보영 동국대학교







# 1. 서론

## 가. 논의 배경

북한의 인민은 일상적으로 국가의 감시를 받고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인민은 단순히 국가라는 추상적인 존재로부터 감시받는 것이 아니다. 인민 스스로가 서로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깊숙이 관여하며 국가의 눈을 대신하는 살아 있는 감시카메라의 역할을 한다. 북한의 인민반 제도는 일상 속 감시가 가장 촘촘하게 구현된 체계로 분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민반은 인민의 관계를 쪼개고 나누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반(反) 공동체적 조직이다. 이웃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잘못을 밀고하게 만드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인민반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요구한 정책을 수행하고 인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알뜰하게 꾸리기 위해 조직한 국가 사회생활의 기층조직으로 설명한다.<sup>229)</sup> 북한 지도자의 이상 속에서 북한은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으며, 인민은 명량하고 행복하게 지낸다. 국가가 정책을 세우면 인민은 그 정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어떤 난관이 있어도 용감하게 극복하며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북한은 낙원으로 명명된다. 인민반은 지도자가 지향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북한 사회와 오순도순 행복하게 지내는 인민의 삶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작은 공동체의 역할을 부여받는다.<sup>230)</sup>

북한은, 중앙정부는 지도를 하고 하위 지방정부는 스스로의 힘으

---

229) 인민반은 “당과 국가의 정책을 관철하며 국가사회사업을 집행하고 생활을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 일정한 수의 세대들을 묶어 조직한 우리나라 국가, 사회생활 기층조직의 하나. 모든 주민은 다 인민반에 망라되어 생활한다.” 인민반장은 “인민의 총복이 되고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인민반을 잘 꾸릴 수 있다.” 인민반원은 “인민반에 속하여 살고있는 사람이다.”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700.

230) “신년사,” 『로동신문』, 1962.1.1.

로 지방의 인민생활을 책임지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도 구분되어 있다. 국가예산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납부금의 의무 당사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다. 중앙정부의 예산 수입은 중앙정부에 소속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납부금으로 구성되며 지방정부의 예산 수입은 지방에 소속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31)</sup> 1974년 4월 1일부터 북한은 세금이 없는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에 개인이 해당되는 부문은 기타수입금 항목이다. 북한에서 경제적 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외국인 세금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시장 등에서 경제활동을 한 개인은 수입금의 일부를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납부해야 한다.<sup>232)</sup>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가렴잡세로 비판받는다.<sup>233)</sup>

231) 국가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법에 따라 거래수입금, 국가기업 이익금, 협동단체 이익금, 봉사료 수입금, 감가상각금, 부동산 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예산수입은 중앙예산 수입과 지방예산 수입으로 분리되어 있다. 중앙예산 수입은 중앙정부에 소속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납부금으로 구성되며, 지방예산 수입은 지방에 소속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납부금으로 구성된다. 납부해야 하는 의무 당사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다.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예산수입법」(시행 2005.7.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3호, 2011.11.8., 수정 보충), <[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21&bbsSubId=&nttId=77&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02&authFlag=Y&pageIndex=3&passwordConfirmAt=&recordCountPerPage=10&searchCnd=&searchWrd=&alikeYn=&alike=&sidx=NTT\\_ID&sord=DE](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21&bbsSubId=&nttId=77&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02&authFlag=Y&pageIndex=3&passwordConfirmAt=&recordCountPerPage=10&searchCnd=&searchWrd=&alikeYn=&alike=&sidx=NTT_ID&sord=DE)> (검색일: 2021.9.22.).

232) 북한은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1967년까지 노동자와 사무원의 소득세 그리고 농민의 현물세를 폐지할 것을 공표한 이후, 1964년부터 1966년에 걸쳐 수확량에 따라 농민에게 현물로 부과되는 농업현물세를 폐지, 1972년 개정헌법 33조에서 “납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고 공포, 1974년 3월 제5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를 거쳐 법령으로 1974년 4월 1일부터 세금이 없는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4차 당대회 결정서,” 『로동신문』, 1961.9.18.;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 1964년 2월 25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직속 당력사연구소 편, 『김일성저작선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1), p. 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로동신문』, 1972.12.28.;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세금 없는 첫 나라 주체조선 만세.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는 없다,” 『로동신문』, 1974.4.1.

인민생활 운영을 위한 공적 기능과 역할은 주민행정부에 설명되어 있다.<sup>234)</sup> 중앙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주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지방정부, 즉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는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설비를 만들어가며 지역을 이끌어 나간다. 최고인민회의의 심의를 통해 기획된 예산 사용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방을 운영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힘으로 완수하겠다고 기획한 공장, 도서관, 야영소와 같은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자재, 설비, 자금이 모두 국가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은 아니다. 인민위원회에서 지방에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 동사무소에게 배분해주면 인민은 각자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노력하여 맡겨진 의무를 수행하며 시설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주민행정부에 의하면 인민생활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① 인민생활과 관련된 행정관리와 ②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 ③ 마지막으로 생활환경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민위원회, 동사무소, 인민반은 인민이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를 배분하고 관리한다. 이때 해당 법 37조에 의해 인민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법 31조

233) 가림잡세는 읍비, 면비, 동회비, 학교비, 농회비, 호세, 교통표식대금, 야경비, 군경원호비, 시위운동경비, 지서수리비, 의사당수리비, 소방대의복비, 환영금, 축하금을 명목으로 인민에게 지불하게 하는 비용이며, 남한에서 거둬들이는 가림잡세가 수백 종에 달한다고 설명한다. 사회과학출판사 편,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p. 18~19.

234)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행정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44조, 2010.7.8.), <[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21&bbsSubId=&nttId=1471&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02&authFlag=Y&pageIndex=3&passwordConfirmAt=&recordCountPerPage=10&searchCnd=&searchWrd=&alikeYn=&alike=&sidx=NTT\\_ID&ord=DESC&menuNo=3010000&upperMenuId=3000000](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21&bbsSubId=&nttId=1471&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02&authFlag=Y&pageIndex=3&passwordConfirmAt=&recordCountPerPage=10&searchCnd=&searchWrd=&alikeYn=&alike=&sidx=NTT_ID&ord=DESC&menuNo=3010000&upperMenuId=3000000)> (검색일: 2021.9.22.).

에 의해 인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거리와 마을, 살림집을 언제나 알  
 들하게 꾸리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sup>235)</sup>

〈표 V-1〉 인민생활 운영을 위한 역할과 지위 구조

| 구분                  | 담당       | 역할내용   |
|---------------------|----------|--|
| 도시<br>경영법<br>(1992) | 중앙<br>정부 | 통일적 지도<br>국가는 통일적인 지도관리 체계를 세우고 인민에 대한 사회주의 애<br>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알뜰히<br>꾸리도록 지도해야 함.  |
|                     |          | 인민생활 책임: 주인, 직접적 당사자, 호주<br>① 행정관리: 신분등록, 주택, 교육, 의료 외 전반 지도 통제<br>② 질서유지: 치안, 시장질서, 숙박질서, 신소 청원 접수 처리<br>③ 역할분배: 지정, 관리(관리담당구역제)<br>* 주민에게 물질적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함(37조)                  |
| 주민<br>행정법<br>(2010) | 사무소      | 인민생활 말단 집행기관: 일/주/월별 인민위원회 보고<br>① 행정관리: 신분등록, 주택, 교육, 의료 외 전반 지도 통제<br>② 질서유지: 치안, 시장질서, 숙박질서, 주민생활 정형 장악<br>③ 역할분배: 기관, 단체, 인민반별 지정, 관리(관리담당구역제)<br>* 주민에게 물질적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함(37조) |
|                     | 인민반      | 인민생활 기층단위: 생활의 거점<br>① 행정관리: 신분등록, 주택, 교육, 의료 외 전반 관리 보고<br>② 질서유지: 숙박질서, 주민생활 정형 파악 보고<br>③ 역할분배: 인민 세대별 지정, 관리(관리담당구역제) 보고<br>* 주민에게 물질적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함(37조)                       |
|                     | 인민       | 인민반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br>① 행정보고: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입·제대 신분등록<br>② 질서유지: 숙박정형 보고, 위법행위, 비정상적 현상 신고<br>③ 역할수행: 인민반 참여, 건전하고 검박하게 사회주의적 생활<br>* 거리, 마을, 집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만들고) 관리(유지보수)(31조)     |

자료: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도시경영법」(1992년 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14호 수정보충, 2015.1.7.), <[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1&bbsSubId=&nttId=105&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02&authFlag=Y&pageIndex=3&passwordConfirmAt=&recordCountPerPage=10&searchCnd=&searchWrd=&alikeYn=&alike=&sidx=NTT\\_ID&sord=DESC&menuNo=3010000&upperMenuId=3000000](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1&bbsSubId=&nttId=105&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02&authFlag=Y&pageIndex=3&passwordConfirmAt=&recordCountPerPage=10&searchCnd=&searchWrd=&alikeYn=&alike=&sidx=NTT_ID&sord=DESC&menuNo=3010000&upperMenuId=3000000)> (검색일: 2021.9.22.);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행정법」.

235)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행정법」.

지방정부, 즉 인민위원회가 각 사무소에 담당해야 할 역할을 분배 해주면, 사무소는 역시 자신이 관할 구역 안의 인민반에게 각각 담당해야 하는 구역과 역할을 분배하고 성과를 관리한다. 인민반에 소속된 인민들은 함께 지역 발전과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여 꾸리고(만들고) 마을과 집 그리고 거리를 위생 문화적으로 돌봐야(유지보수) 한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정부의 예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인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부자재를 마련하고,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여 사회경제적 자원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다. 이때 소요되는 돈과 물품 그리고 노동은 세금이 아니라 인민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한 노력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자각적 노력으로 지역의 삶을 발전시키고 꾸려나가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인민이 어떤 구조와 관계 속에서 그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을 규명하려는 연구는 다소 미흡하다.

본 연구는 북한 당국의 정책과 인민의 각 가정이 어떤 관계 속에서 연결되며 또한 개별 인민이 마을의 작은 공동체와 어떤 연대성을 갖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공식적 관계 속에서 함께 의무를 완수하며 탄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분석하는 한편, 공식적 관계에 내포되어 있는 비공식적 사회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공적 조직과 일상의 비공식 관계 및 실천 간 연계성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은 시대 ‘인민반’에 초점을 맞추어 인민반이 작동하는 제도적 환경과 제도 밖의 비공식적 일상이 맞물리며 변주하는 관계 문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인민반이라는 공식 조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민반 구성원 간의 비공식적인 실천행위들의 연결성, 그 상호보완성과 상호교환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 나. 인민반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알렉산드르 제빈은 전통적인 인민통제의 관점에서 인민반을 분석한 바 있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통제되고 있는 것은 지도자의 무서운 강권 통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민반을 통해 사상 교육과 생활 전 영역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인민반이 북한 혹은 사회주의 체제의 발명이 아니라 매우 오래된 전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제빈은 인민반의 원형을 기원전 6~3세기 중국의 5호제와 10호제에서 찾는다. 5가구에서 10가구 단위로 묶인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해야만 하고 누구든 밀고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완벽한 통제가 가장 기층 단위까지 작동하게 됐고, 이러한 전통이 현재에도 남아 인민이 서로를 조밀하게 감시하고 밀고할 수 있는 인민반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sup>236)</sup>

배영애는 인민이 태만하게 일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일상을 감시하는 역할을 인민반이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2000년대 이후 북한 사회 내에서 비공식 경제 부문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인민 감시라는 인민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배영애는 북한 정부는 인민반에게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북한 인민은 주어진 의무를 각자 자신의 경제력에 따라 여유가 있는 계층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사회동원에서 빠져나가는 등 빈익빈 부익부의 부조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침체된 인민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민반의 세대수 규모를 축소하여 조직을 재편성하였으며, 인민반장이 인민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인 차원에서 월급을 인상하거나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

236) 알렉산드르 제빈, “사회체제의 변화된 전통으로서의 북한의 인민반,” 『아세아연구』, 제37권 제1호 (1994), pp. 141~159.

다는 데 주목한다. 인민반에서 이루어지는 매일 점검과 비상연락망의 도입, 경제수준과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상시적 검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통제는 한층 더 엄격하고 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생산책임제가 도입되어 기존에는 공장 및 기업을 중심으로 부과되던 사회적 과제와 각종 동원이 인민반 중심으로 재편성되어 운영되면서, 각 세대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동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배영애는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당국은 국가의 재정난과 경제적 자원의 부족한 면을 인민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이를 체제유지에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한다.<sup>237)</sup>

본 연구는 북한의 인민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다뤄온 여러 논의 중 인민반이 어떤 구조 속에 처해 있으며 또한 그 안에서 인민이 무엇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장의 주제를 논하기 위해 북한이 탈주민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I-1>에 소개된 사례 2, 사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7에 해당한다. 이들의 주요 인적사항은 <표 I-1>에 소개되어 있다.

## 2. 공동체와 일상의 관계성: 이론적 논의들

인민반을 주제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인민반이 정부가 인민의 노동과 자산을 착취하고 사생활을 감시하는 단순한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민반을 둘러싼 구조에는

---

237) 배영애,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과 변화,” 『통일과 평화』, 제10권 제2호 (2018), pp. 193~240; 배영애, “김정은 시대의 인민반에 관한 연구,” 『통일 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2020), pp. 1~28.



해당 단위가 수행해야 하는 조밀한 의무와 역할규범이 나뉘어 있으며 그 안에서 인민이 자신에게 배분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식적인 규범을 벗어나 비공식적으로 서로에게 돈과 물품 그리고 노동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이다. 개별 인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교환의 과정에는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채워주며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는 일종의 역할극과 같은 의례가 동원되었다. ‘돈과 노동을 강탈하는 정부’와 ‘수탈당하는 인민’이라고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에는 조밀한 연결과 협력의 징표가 발견되는 것이다. 맡겨진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헤아려서 돈과 물품을 선물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도 이득이 돌아온다. 이 과정은 단절적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인민이 각자에게 맡겨진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돈과 물품을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은 역할을 수행하는 개별 인민 사이에서는 긴밀한 비밀이지만, 정황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누구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상식선이 있으며, 이러한 교환의 행위는 북한 사회 안에서 부정부패의 영역이 아니라 온당함의 영역 안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동체에 부과된 의무를 함께 수행하고 나면 그 결과가 그들 자신의 일상을 지탱하며 되돌아 오는 방식으로 순환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돈과 물건에 담겨 있는 가치에 대한 인류학적 고찰을 시도한 바 있다. 그레이버는 칼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과 인류학을 접목한다. 가치를 소비, 상품, 화폐와 같은 계량화된 상태로만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사회 구성원 사이를 오가며 순환하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가 상품을 생산한 인간의 노동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그러

나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마치 가치가 상품 자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인간의 노동이 망각되는 경향이 있다. 마르크스의 논의를 다시 해석하면, 가치는 인간의 노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노동이 곧 가치이다.<sup>238)</sup> 그러나 게오르크 짐멜은 가치는 인간의 노동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을 통해 파생되는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욕망을 담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 대상의 가치는 구매자가 그것을 원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되며 그것을 얻기 위해 구매자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얼마나 “원하느냐”가 곧 가치를 나타낸다.<sup>239)</sup>

그렇다면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는 선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마르셀 모스는 선물은 자발적이고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증여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무적이고 이해관계가 개입된 증여라고 설명한다. 선물을 준 사람은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호의를 표현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선물을 받은 사람이 아무런 답례를 하지 않는다면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거나, 매너가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선물은 이윤을 남겨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식의 하나이다. 모스는 시장에서의 가치와는 별개로 감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 중요한 날에 선물을 주는 것은 즉각적인 답례를 기대하고 하는 행위가 아니다. 순수하고도 비합리적인 이유로도 우리는 선물을 통해 축하, 애정, 감사, 존경을 표현하며 서로의 감정에 긴밀하게 개입한다. 선물은 공동체 내의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각자의 감정을 물질적이고 정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sup>240)</sup>

238) 데이비드 그레이버 지음, 서정은 옮김, 『가치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교환과 가치, 사회의 재구성』 (서울: 그린비, 2009), pp. 73~89.

239) 게오르크 짐멜 지음, 김덕영 옮김, 『돈의 철학』 (서울: 길, 2013), pp. 66~87.

사람들이 주고받는 무언가가 그저 개인들의 경제적 관계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통합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에 대해 마르셀 에나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얻은 지식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선물을 했던 소크라테스와 제자의 관계를 예시로 들어 부족사회에서 현대까지 사람들이 주고받는 돈, 물건을 위시한 모든 것에는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것이 담겨 있음을 논의한다.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도전이다. 관계를 맺기 위한 개인의 시도이자 노력인 것이다. 에나프는 주고받는 행위 안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너를 동료 인간으로 인정한다. 둘째, 너를 앞으로 동료가 될지도 모를 사람으로 인정한다. 셋째, 일단 관계가 형성된 뒤에는 미래에도 유대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사회마다 ‘무엇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지나치지 않은지’와 관련된 의례가 있으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는지’에 대한 의례가 있다. 이러한 의례들은 역시 미묘하고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양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무언가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 서로의 영역으로 들어가며 생성되는 인간적인 유대와 관계는 단지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것이다.<sup>241)</sup>

그레이버 역시 돈과 물건을 위시한 가치 있는 것을 주고받는 사람의 행위가 단순히 개인의 사적 욕망을 충족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통합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가치란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얼마나 기꺼이 포기할 수

240) 마르셀 모스 지음, 이상률 옮김, 『증여론』 (파주: 한길사, 2002), pp. 249~283.

241) 특히 2부의 4장 “의례적 선물교환의 수수께끼”를 인용함. 마르셀 에나프 지음, 김혁 옮김, 『진리의 가격 - 증여와 계약의 계보학, 진리와 돈의 인류학』 (서울: 눌민, 2018), pp. 176~238.

있는가에 의해 측정되는 욕망의 정도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고받는 물건에는 여러 다른 행위의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바람직한 무언가’에 대한 개념이 담겨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치는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원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며, 무엇이 타당하며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선택의 기준이 된다. 문화적 차이는 단지 그 문화에 속한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교환되는 무언가는 그 사회에서 주고받아도 되는 바람직한 이해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그레이버는 교환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았을 개인들이 주고받음을 통해 단순히 금전적 이해관계로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마음을 표현하며 관계를 맺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관계의 공간 안에서 생성된 신뢰와 연대는 점점 더 확장되며 공동체의 통합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논의를 이끌어낸다.<sup>242)</sup>

공동체의 통합은 추상적인 관념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칼 폴라니는 모든 인간이 개인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계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고 보는 것에 반대한다. 그리고 이윤을 동기로 조직되는 시장에서 자연, 화폐 그리고 인간까지 상품으로 측정되고 교환된다는 자기조정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인간의 본성과 동떨어진 허구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인간이 ‘경제적 이해’를 동력으로만 움직인다는 관점은 인간이 얼마나 감정적인 사회 속의 존재인지를 성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잘못된 설정이라는 것이다. 폴라니는 생존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을

---

242) 데이비드 그레이버 지음, 서정은 옮김, 『가치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교환과 가치, 사회의 재구성』, pp. 3~82.

이해하고자 한다. 아무에게도 도움 받는 일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개인은 없다. 서로 도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사회의 도덕 규범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까지 만끽한다면 그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될 것이다. 단순히 살고 죽는 문제를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고 해도 사회적 의무란 공동체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상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규범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결국 개인에게 경제적으로도 최선의 이득이 되는 일이다.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덕목을 지닌 사람이라는 평판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받는다. 자본주의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물물교환, 교역, 교환이 인간의 본질적인 성향이 아니라,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개인이 그 사회의 도덕관념과 관습 그리고 법이라는 규범에 맞추어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유도되며 각자가 맡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의무수행을 위한 개인의 노력은 사회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안정된 사회에 속한 개인에게로 그 이득이 다시 혼류되고 재분배되면서 공동체를 굳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sup>243)</sup> 플라니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주고받는 선물, 교환, 재분배를 하는 과정이 단순히 호혜의 관계 혹은 추상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도화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특히 고대 그리스 경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행위의 축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도화되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였다.<sup>244)</sup>

243) 칼 플라니 지음, 홍기빈 옮김, 『거대한 전환: 우리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서울: 길, 2009), pp. 180~207.

244) 칼 플라니 지음, 이병천·나익주 옮김, 『인간의 살림살이』 (서울: 후마니타스, 2017), pp. 329~573.

### 3. 인민반을 통한 공식적·비공식적 협력

#### 가. 인민반의 공식적 역할과 의무

인민반은 행정관리와 질서유지 그리고 지역을 가꾸기 위한 건설 사업을 뒷받침하는 일을 하며 인민의 생활상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의 인구밀집도와 거주 형태별로 차이는 있으나 30~50세대 단위로 구분되어 있다.<sup>245)</sup> 지방정부에게 맡겨지는 역할이 커질수록 인민반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 부담도 무거워진다.<sup>246)</sup> 지방정부에게 맡겨지는 역할과 의무가 어떤 방식으로 강조되는지는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와 같이 인민에게도 공개되는 국정운영 회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1월,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는 국가예산 사용에 대해 보고하며 일부 지방에서 지방의 특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결함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sup>247)</sup> 그리고 지방의 살림을

---

245) 인민반은 해방 직후부터 전국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1947년 로동신문에는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인민의 손으로 수립된 민주정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사업의 최전선에서 인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이 인민반장의 임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주건국에 싸우는 모범인민반 량광재탄장을 중심으로 상부지시를 맨 먼저 수행,” 『로동신문』, 1947.12.12.

246)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지방(특별시/도)의 책임자는 문경덕 평양시 당책임비서 1명만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조차 2013년 장성택 숙청 이후 해임되었다. 이후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김수길(평양시 당책임비서) 외에 김능오(평안북도 당책임비서), 박태성(평안남도 당책임비서)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되며 김정은 시대 평양과 평안남북도의 개발 의지가 예견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회의에서 한 발언들을 공개하는 것은 지방의 인민생활 유지와 책임의 부담을 지방정부(인민위원회)에 분산함을 강조하는 의례로 해석할 수 있다.

247) “일부 도, 시, 군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지방경제를 발전시켜 사회소득을 더 많이 창조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과 재정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지방예산집행과 기업체경영관리에서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 109(2020)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제기한 국가예산보고,” 『로동신문』, 2021.1.18.

담당하는 대의원이 등장하여 자신의 잘못을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설명하였다.<sup>248)</sup> 국정운영 회의에 지방의 관리자가 등장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공표하는 것은 지방 인민의 살림살이 운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례이다. 중앙정부가 강대한 외부 제국주의의 고립 압살 책동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며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영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정부에게 부과되는 역할이 커질수록 지방에 속한 인민에게 전달되는 의무의 부담 역시 확대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인민반이 큰 역할을 못 했는데 지금은 큰 역할을 하죠. 왜? 인민반에 각종 세대들이 다 있잖아요. 정권기관, 당일군, 법기관, 검찰기관(에서 일하는 인민)도 있는 게 인민반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인민반을 책임지고 있는 동사무소가 세졌어요. 인민위원회에서 사회적 과제 떨어지지 않아요. 인민반을 많이 주고 공장, 기업소는 그에 맞게 작게 주죠. 공장, 기업소는 동에 비하면 완전 작으니까. 뭐 건설한다. 뭐 낸다. 동이 제일 첫 자리죠. 여자가 벌어야 먹고 사는 게 북한이에요. 남자들은 오히려 집에 있고, 여자들이 나가 벌어요. 대체로 다 돈을 낸단 말이에요. 우리 인민반 50세대인데 진짜 출근(공식 직장에 출근)하는 거 3집밖에 없어요. 그

248) 예를 들어 평안북도 대의원 토론을 통해 지역인민의 생활에 절실한 기름과 소금생산을 계획보다 미달했으며 그 외 일부 건설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리고 새해에는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지역 인민에게 더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구장청년2호발전소와 1호발전소 건설을 완공하고, 도 기초식품공장 건설을 완성하여 질 좋은 간장과 된장을 비롯한 기초식품을 공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외에도 신의주교원대학과 남시축산기계공장, 피현소년단야영소, 과학기술도서관 건설을 완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한 토론: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겠다. 장세철 대의원,” 『로동신문』, 2021.1.18.

런데 부양(가정주부)으로 걸어놓은 건 또 5집 밖에 없어요. 다 돈을 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힘이 있죠. (사례 5)

2020년에 탈북한 40대 여성인 사례 5는 기업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으며 인민위원회의 회의에도 참석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업무를 분담할 때 기관, 기업소와 인민반을 담당하는 동사무소에게 어떤 비중으로 의무를 분담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사례 5의 설명에 따르면 유사한 직군별로 이루어진 기관, 기업소보다 다양한 지위와 직군의 인민이 섞여 있는 인민반이 다양한 의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인민반이 부여받는 의무는 더 커지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인민반에게 맡겨진 건설노동을 인민이 직접 참여해서 수행했지만, 90년대 고난의 행군기 이후에는 공식 직업을 통한 배급제도가 사실상 기능을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계수입을 담당하는 여성이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노동의 의무를 대체한다고 한다.

양강도에 거주했던 30대 여성인 사례 6은 인민반이 수행해야 할 의무가 쉴 새 없이 내려왔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양강도 인민위원회에서 된장공장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면 70%는 국가 예산으로 만들고 나머지 30%는 지역의 인민반에게 배분된다. 따라서 인민반장이 세대별로 된장공장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물품(자갈, 잔디)을 배분하여 걷고, 새벽 5시마다 인민반원을 깨워 된장공장으로 출발하여 자갈을 깔고, 잔디를 심으며 육체적 노동을 통해 된장공장을 건설했다는 것이다. 이때 자갈은 바위를 깨서 만들면 되지만 잔디는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매해야 한다. 인민반장은 잔디 구매에 필요한 액수를 나누어 세대별로 부과한다. 된장공장 건설 같은 과제는 인민반에 계속 부과되었고 인민반마다 배정된 도로, 철도의 유지보수 담당구역이 있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항목도 다양하고 1주일에



3일은 새벽마다 노동을 해야 했다고 한다. 사례 6은 노동을 하는 대신 1년 동안 중국돈 300위안을 인민반장에게 납부했다. 그러면 1년 동안 인민반에 부과된 노동, 물품, 돈의 의무로부터 자신은 제외되었다. 사례 6은 중국돈 300위안이 자신에게는 큰돈이 아니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큰돈이라며, 자신처럼 인민반 의무를 돈으로 대신한 세대는 30세대 중에 둘 혹은 셋이었다고 말했다.

인민반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커지면 각 인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의무의 부담에 격차가 발생한다. 2021년 김정은은 제8차 당대회에서 “거의 모든 부문이 미달”했다는 질책과 함께 내부를 “전면적으로 정리정돈하고 재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세외부담을 지적하며 전당, 전국, 전 인민을 대상으로 ‘잡도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sup>249)</sup> 언급된 잡도리 대상들은 북한 사회 안에서 만연한 인민들의 개인적인 일탈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가 운영과 직결된 정치적인 문제들과도 연관이 있다. 이 중에서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에 대한 언급은 높은 지위에 있는 인민들에 대한 경고인 것처럼 보인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어서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에 따른 피해를 받는 인민들의 감정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이 언급은 세외부담이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가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밝히고, 특히 낮은 지위에 있는 인민의 원망을 북한 정부가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50)</sup>

249)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결론,” 『로동신문』, 2021.1.13.

250) 세도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관료주의는 “관료배가 강권을 휘두르면서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반인민적인 통치방법”을 말한다. 부정부패는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고 씩을 대로 씩은 행위로 특히 인민에게 공적인 부역이나 공물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설명된다. 세외부담은 “세금 밖에 지우는 부담 또는 가외로 더 물리는 부담”이다.

세외부담이라는 용어는 김정은 시기에 탄생한 것이 아니다. 북한 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 사회 안에서 세외부담은 일상적인 것이며, 과거부터 지도자는 세외부담의 부당성을 강조해 왔다고 한다. 세외부담은 남한의 인민이 가혹한 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북한과 비교하며 강조할 때 등장하는 언설이며<sup>251)</sup> 북한에서 세외부담을 하지 말 것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공개된 문건에서 찾기 어렵다. 북한에서 세외부담을 하지 말 것에 대한 언급이 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2021년이 처음이다. 시대별로 북한이 처한 상황에 맞춰 정부가 강조하는 반(反)규범 행위에 대한 언급은 해당 시기 북한 사회의 문제와 인민의 일탈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해결방식을 보여준다. 이 중 규범에 어긋나는 점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3차부터 당대회에 언급된 규율 관련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1』, p. 512; p. 1475; p. 1974; p. 1983.

251) 남한의 인민들이 정부로부터 “내핍과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세금을 수탈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다. “조세 부담의 증가, <공공요금> 인상,” 『로동신문』 1966.1.4. 충청남도 대전 시청에서 공설 운동장 설치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찬조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내용도 전달된다. 신문은 대전시의 모든 세대에게 400환과 충청도 내 각 관공서 공무원 1인에게 400환을 들썩우는 외에 충청도내 가가호호마다 200환씩을 강제 징수한다며 생활고에 허덕이는 인민들에게 갖가지 세외부담을 들썩우는 데 이 골이 난 이승만 정부가 1957년 한 해 동안 143억 환에 달하는 세외부담을 거둬들였다는 동양 통신보도를 인용한다. “또 하나의 세외부담,” 『로동신문』 1958.2.13.

〈표 V-2〉 당대회별로 언급된 (반)규범 규율

| 당대회 차수 |   |   |   | 반규범      | 내용  |
|--------|---|---|---|----------|---|
| 3      | 4 | 5 |   | 주관주의     | 문제와 현상을 단순히 개인적 판단과 견해로 해결하려는 태도  |
| 3      | 4 | 5 |   | 교조주의     | 맑스-레닌주의 명제나 사업경험을 충분히 연구하여 구체적 실천에 알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할 줄 모르고 종교 신자들이 무조건 신앙하듯 기계적으로 옮겨 맞추려는 행동  |
|        | 4 | 5 |   | 가족주의     | 몇몇 사람끼리 한 가족처럼 정실관계를 맺고 조직의 이익보다도 자기들의 정실관계를 더 존중히 하며 융화타협하거나 남을 공격 중상하는데는 단결하는 등 당적 원리를 떠난 사상경향, 친척, 동향, 친교, 사제관계, 리기주의 사상, 심하면 종파주의로 발전 |
|        | 4 | 5 |   | 수정주의     | 맑스주의에 적대되는 기회주의적 조류, 비판의 자유라는 기치 밑에 수정과 재검토를 요구하고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사회주의를 부인하는 행위.   |
|        | 4 | 5 |   | 리기주의     | 공동의 이익의 짓밟으며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 살겠다는 착취계급의 사상 행동  |
|        | 4 | 5 |   | 지방주의     | 같은 고향, 지방 출신 사람들끼리 당적 원칙을 위반하면서 정실관계를 맺고 그루빠를 형성하며 다른 사람을 배척, 질시, 모해, 기간하는 사상 경향이나 행동. 종파의 온상.  |
|        | 4 | 5 |   | 기회주의     | 그때그때 정세에 따라 원칙없이 유리한 쪽으로 붙으려는 지조 없는 경향과 태도. 부르조아 사상독소로서 혁명사상의 진수를 왜곡하여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반동적 사상.  |
|        | 4 | 5 |   | 반동 부르조아  | 부패하고 퇴폐적인 제국주의자들의 생활방식,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하여 근로인민을 억압착취하는 자본가계급. 남을 등쳐먹는 승냥이법칙과 남이 굶어죽든 말든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황금만능주의와 야수성. 인간중오와 살인, 강탈과 사기협잡 등. |
|        |   | 5 |   | 우경 투항주의  | 혁명에서 로동계급의 입장을 지키지 못하고 부르조아지와 무원칙하게 타협하며 그들에게 아부굴종하며 반동적 기회주의자들에게 투항하는 행위   |
|        |   | 5 |   | 복고주의     | 지난날의 낡고 반동적인 것을 덮어놓고 되살리며 찬미하는 반동적인 사상조류. 력사변천과정을 무시하고 혁명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세우려는 팽창주의적인 반동적 사상과 입장.   |
|        |   | 5 |   | 사대주의     | 강대한 나라를 무조건적으로 숭배하며 굴종하는 노예사상   |
|        |   | 5 |   | 민족 허무주의  |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잃고 민족이 력사적으로 이뤄놓은 고귀하고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보잘 것 없다고 깎보는 반동적 사상   |
|        | 4 | 5 | 6 | 개인주의     | 개인리기적인 것을 내세우며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에 복종시키는 사상경향   |
|        |   |   | 6 | 공명주의     | 자기의 공로와 명예와 출세만을 원하며 그것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상  |
|        |   |   | 7 | 도식적 틀    | 사전적 용어가 아님  |
|        |   |   | 7 | 소방대식 일본새 | 사전적 용어가 아님  |

| 당대회 |   |   |   | 반규범     | 내용   |   |   |
|-----|---|---|---|---------|--|---|---|
|     |   |   | 7 | 오보 열도식  | 무슨 일이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꾸준히 실속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한동안 갑자기 열성을 내어 하는 체 하다가 이내 그만두는 모양이나 태도   |   |   |
|     | 4 |   | 7 | 사무실적 사업 | 하부에 대한 지도를 현장에 내려가 균종과 직접 접촉하여 그들의 요구와 의견을 듣고 실정에 알맞게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대신 사무실에 앉아서 일군을 빈번히 불러 오거나 또는 잡다한 문서나 전화로 지시명령하면서 사업을 형식적, 관료주의적으로 하는 것 |   |   |
| 3   | 4 |   | 7 | 형식주의    | 사업에서 내용을 고려함 없이 다만 형식에 치중하는 사상경향   |   |   |
| 3   | 4 | 5 | 7 | 종파주의    | 자신의 협소한 이익에 사로잡혀 당의 로선과 당 중앙을 반대하는 분열적 행동, 출세와 탐욕, 탐위분자, 리기주의자, 개인리기주의, 영웅주의, 공명 출세주의  |   |   |
| 3   | 4 | 5 | 6 | 7       | 8  | 관료주의  | 관료배가 강권을 휘두르면서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반인민적인 통치방법 |
|     |   |   | 6 | 7       | 8  | 세도  |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권세를 행사하는 것    |
|     |   |   | 7 | 8       | 부정부패   |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은 행위로 특히 인민에게 공적인 부역이나 공물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일삼는 것                                    |   |
|     |   |   | 7 | 8       | 특수   | 특수성, 특수주의, 사회관계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나 신분, 위치에 따라 차별하여 다루는 행동 양식의 성향을 띤, 또는 그런 것                       |   |
|     |   |   | 6 | 8       | 본위주의   | 개인주의의 변종, 공명주의의 표현, 국가, 사회의 전반적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 한 지방, 기관, 부서 등의 이익만을 내세우며 모든 것을 거기에 복종시키려는 사상과 태도 |   |
|     |   |   | 7 | 8       | 반사회주의  |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들이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것   |   |
|     |   |   | 8 | 비사회주의   | 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것. 비사회주의가 조장되면 사회주의를 옹호고수 할 수 없으며 인민대중 중심의 우익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음.   |   |   |
|     |   |   | 8 | 세외부담    | 세금 밖에 지우는 부담 또는 가외로 더 물리는 부담   |   |   |

자료: 김상현·김광현 편, 『대중정치용어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p. 271, p. 24, p. 3, p. 175, p. 100, p. 278, p. 44, p. 129, p. 146, p. 18, p. 146, p. 330, p. 271, p. 54;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156, p. 431, p. 167;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445, p. 1466, p. 1475, p. 1974, p. 1982;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중보판)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p. 58, p. 425;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 (검색일: 2021.10.28.); 『로동신문』의 당대회 보도기사 각호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당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자면 당사업의 전반적 실태에 대해 심각히 돌이켜 보아야

하며,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대담하게 깨버리고 당사업을 새롭게 혁신해야 함”을 강조하며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와의 투쟁을 강조한 바 있다.<sup>252)</sup>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에 대한 언급은 제8차 당대회에서도 반복되었지만, 새롭게 세외부담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계급의 갈등에 대해 지도자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여 경고하는지를 보여준다.

세외부담은 딱 동(동사무소)만 포함돼요. 공장, 기업소는 포함되지 않아요. “인민에게 세외부담하지 말라” 김정은이가 말하는 거는 “주민들에게 돈을 걷지 말라”는 소리나 같아요. 그렇지만 다 돈 걷지 않아요. (원칙은) “본인이 나와서 본인 과제(노동)를 하라. 돈질(노동을 돈으로 대체)을 하지 말라. 노력(노동)으로 하라” 그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돈으로 내면 편안하니까 “난 그저 입을 다물고 있겠으니까 돈 가지고 사람 사서(자신을 대신하여 노동) 하라요”하고 주죠. 돈 있는 사람은 돈 내고 안 가고, 돈 없는 사람도 돈을 내야만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외부담이죠. 만약 세외부담했다는 거 (인민반장이) 회계문건에 (사실대로) 다 썼죠? 그제 (검열에) 걸리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툭 떨어져요. (사례 5)

사례 5를 비롯한 북한이탈주민은 공식적으로는 세외부담, 즉 돈을 걷지 말라고 하지만, 돈을 걷지 않으면 오히려 일이 복잡해지고 일상을 꾸려가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돈으로 대신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sup>253)</sup> 인민반장은 동사무소에서 분배해준 항목에 맞춰 세대별로 물품, 돈, 노동을 다시 분배해주고 세대별 과제를 얼마

252)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5.8.

253) “(물품으로 지원해야 하는) 과제가 툭 떨어져요. 도르래, 밧줄, 정대 이런 게 많아요. 인민반에서 (물품으로) 걷어서 가져가면 노동부에서 불합격 놓는 게 많아요. 규격에 맞지 않아요. 불합격 맞으니까 ‘됐어. 돈 걷자. 돈 걷자.’” (사례 5)

나 수행했는지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인민반장이 관리하는 회계장부에 노동 대신 돈을 지불하도록, 즉 인민에게 세외부담을 하게 한 기록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고 이것이 검열에 걸리면 인민반장은 자신의 직위에서 해제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반장은 검열에 보여줘도 되는 장부와 보여주면 안 되는 장부로 나누어서 기록을 한다. 세대별로 분배된 물품, 돈, 노동에서 노동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에게 돈으로 대신 내게 하는 방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인민반에게 맡겨진 공식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sup>254)</sup>

아이고, 김일성 때부터 “세금을 없애라.” 우리 노래를 다 했어요. 세외부담 하지 말라고. 그러나 또 뭐라고 하는가?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실 섬유공장을 건설한다.” 위대한 수령님이 다녀가신다는 데 뭐이라 말하겠어요. 현지도 단위거든. 수령님이 다녀가시는 곳에 뭘 아끼는가. 충성심을 바친다. 내 힘을 바친다. 국가를 위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드는 거란 말이요. 이걸 세외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당 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말해요. (사례 2)

지역의 살림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한다는 모호하고도 광범위한 역할 영역 안에서 돈과 물품 지원 그리고 육체적 노동은 세금과 가렴잡세의 비판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순수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인민은 국가를 위한 노력의 의무를 지며, 세외부담과 순수한 노력을 엄격하게 분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설득은 오랫동안 공식적인 체계 안에서 비공식적으로 작

254) “장부를 가지고 있었어. 세대 이름 써요. 노력동원 화학섬유공장 건설, 발전소 건설, 섬유공장 건설 참여. 주부들 따라가요. 삼을 오후 내 들고 썬어지게 일해요. (물품지원) 인민군대에 한 달에 한번 장갑, 찻술, 치약 사내라 하면 우리 인민반 26세대 똑같이 나눠요. 얼마 값 드는가 내가 결정해서 나누기 26. 집마다 쪼로록. (노력동원) 안 나간 집은 안 나간 값을 받아야지. 옛날부터 그랬어요.” (사례 7)

동해 온 인민반 고유의 운영 방식을 보여준다.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고 인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있는 경우, 관리의 책임을 분산하여 원망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일탈을 경고하고 처벌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내부규율을 강화하며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다.

세외부담은 모든 인민에게 똑같은 부담을 주지 않는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인민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외부담, 즉 납부해야 하는 돈, 지원해야 하는 물품, 직접 참여해야 하는 노동의 의무를 모두 돈으로 대신 해결하며 쉽게 빠져나간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인민은 돈을 내기도 힘들고, 물품을 지원하기도 어려우며, 배분되는 노동 역시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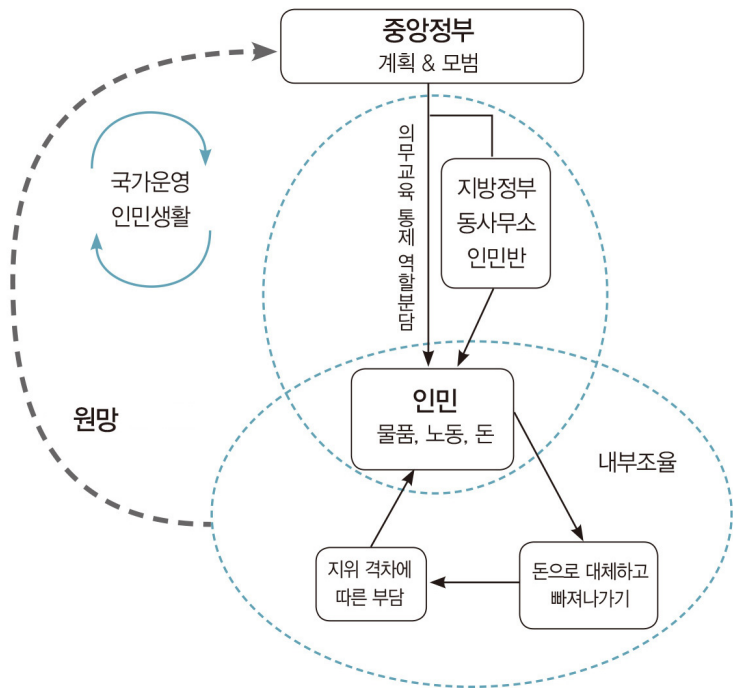
모내기 동원 나간다 하면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안 나가거든요. 만 원 주고 “임대노력 하나 사가지고 좀 하라.” 아르바이트 같은. 여기도 임대라는 말 쓰잖아요? 대신 쓴다는 소리잖아요. (사례 2)

임대는 김정일 시대부터 나왔는데 외화벌이들이 주로... 그런데 그 사람 부끄러워서 다른 반에는 안 와요. “돈 받고 남의 인민반에 가서 그 집 종질 하겠는가” 이런 생각에. 그런데 지금은 돈 받고 하는 거 같아. 지금이야 별일을 다 하지 사람들이. (사례 7)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인민이 인민반에서 세대별로 부과한 돈, 물품, 노동을 모두 돈으로 대신하는 문화는 인터뷰에 응해준 다섯 명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했다. 80대 여성인 사례 7은 자신이 인민반장으로 역할했던 김정일 집권기에도 외화벌이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노동에 참여하는 대신 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인민반에 부과된 노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눈에 띄는 행

동이기 때문에 같은 인민반원에 소속된 사람이 2배의 노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은밀하게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 사회에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노동하는 행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자연스러운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고 한다.

<그림 V-1> 국가운영을 위한 역할분담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민의 부담



자료: 필자 작성.

사회경제적 지위가 있는 인민은 각자 자신이 사회 속에서 가진 지위와 권력, 즉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통해 비교적 쉽게 돈을 축적하기 때문에 인민반을 통해 부과된 돈, 물품, 육체적 노동의 다양한 의무를 돈으로 비교적 쉽게 대체한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



가 비교적 낮은 인민은 각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세도, 관료적 지위, 부정부패의 역량이 적기 때문에 돈을 축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돈과 물품 그리고 육체적 노동까지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들은 세외부담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예외적으로 세외부담을 언급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술하였듯이, 이는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내야 하는 육체적 노동을 위시한 모든 의무를 노골적으로 돈으로 해결하는 인민들에 대한 경고이며,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안고 있는 인민의 억울한 감정을 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지도자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외부담이 지속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인민위원회, 동사무소, 인민반장 등 해당 부문 종사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의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민반에게 부여되는 의무수행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설명에 따르면, 인민반을 둘러싼 행위자들, 즉 각 지역 인민위원회, 동사무소, 인민반장, 인민반원 사이에는 상호 교차하는 협력이 등장한다. 인민반을 둘러싼 공식적인 관계 속에서 비공식적인 행위가 변주되는 것이다.

## 나. 인민반 운영을 위한 비공식적 협력체제

인민에게 부과되는 세대별 의무는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는 일방적인 관계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인민위원회와 동사무소에서 근무했던 담당자 역시 국가가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 상대적인 독자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인민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sup>255)</sup> 그리고 이들은 인민

---

255) 평안도에 거주했던 40대 남성인 사례 2는 자신이 보안원으로 근무했으며 비교적 높은 직급이었음에도 공식적인 월급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구조였으며, 오히려 국

이 각자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제출하는 돈과 물품 그리고 노동력을 공식적인 체계 안에서 비공식적인 내부조율을 통해 주고받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은 은밀하지만 협력적이며 받는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 장은 인민반을 둘러싸고 북한 인민이 북한의 정책 이면에서 수행하는 공식 및 비공식적인 협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인민반장 2001년부터 했어요. 임무는 무엇인가. 동사무소에서 주는 과업을 해야 한단 말이야. 나라 정책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번에 화학섬유공장 재건설합니다” 여기에 우리 인원이 동원되어야 된다. 땅파기, 벽돌 날라주기. 그러면 인민반원들 솔직히 밥도 못 먹는데, 동원 나가는 거 시끄러워(힘들어) 하죠. 그러면 외화벌이들은 내게 돈을 준단 말이에요. 중국돈 50위안 주면 내가 빵 사서 동원 나간 사람들과 나눠 먹죠. 좋아하죠. 일을 하루 종일 해요. 어떤 사람은 도시락도 아예 싸오는 게 없죠. 빵 사가지고 한테 모여 먹어요. 그때 “누구네 아주마이 아파서 못 나와서 간식 사줬다” 구실을 대줘야 그 집이 편하지. 그럼 “좋다” 하며 다 먹지. 좋아해요. (사례 7)

가를 위해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내야 했던 세부담 요구가 직장 안에서 너무나 많았다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저 월급 3,500원입니다. 3,500원이면 많은 겁니다. 북한 쌀 1kg에 5,000원입니다. 1kg도 못 삽니다. 너무나도 세부담이 많으니까. 원래 경찰 인기가 많았어요. 여자들 경찰한테 시집가려면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도 경찰이 쪼들리니까 매일 세부담이거든요. 저한테 돈이 나올 수 있는 데는 오직 하나, 불법으로 하는 거를 눈감아주고 거기서 뇌물을 받아먹는 행위잖아요. 김정은이 지시가 있었어요. 보안원 경찰들 지난 기간에 백성들 주머니에서 털어낸 거, 법 집행을 약화시키는 행위, 자체 검토하라. 솔직하게 쓰라. 그럼 문제시하지 않고 다 용서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다 썼어요. 그다음에 그걸 총화하고 끝내거든요. 그런데 총화하면서 세외부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지원 물자를 호소한다.’ 우리 쓸 때는 ‘야, 이제 세부담 없겠구나’ 하고 썼는데, 우리끼리 이런 말까지는 하죠. ‘야, 이걸 뭐지. 이거 왜 쓰냐 지금. 오른손으로 썼으니까 왼손으로 나가서 돈을 뺏들어 오면 되겠다. 남새는 먹으라는데 김치는 담그지 말라는 게 조선말이냐’ 말이 지원물자지, 돈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물자를 구입하잖아요. 한쪽으로는 쓰면서 한쪽으로는 세부담.” (사례 2)

함경북도에 거주했던 80대 여성인 사례 7은 2000년대 초반 인민반장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인민반장을 하는 동안 북한 인민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와중에도 돈과 물품 그리고 노동의 의무가 인민반에 배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미 만들어진 도로, 거리, 철도는 새벽마다 나가서 청소하며 유지보수하면 되지만, 신규 건설사업은 새벽 시간만이 아니라 며칠이나 나가서 온종일 노동을 해야 했다. 도시락은 각자 알아서 준비해야 했는데 형편이 어려운 인민반원들은 도시락도 싸오지 못했다. 이때 비교적 부유한 인민반원이 노동을 나오는 대신 돈을 주면 사례 7은 그 돈으로 간식을 사서 같이 노동하는 인민반원과 함께 먹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 노동하지 못하는 게 미안해서 간식을 보내주었다고 이야기하면 실제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인민반원들은 좋아했다.

인민반 안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서 비교적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자신에게 부과된 노동의 의무를 돈으로 대신하고 빠져나가면 나머지 인민반원들이 불공평하다며 분노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평안도에 거주했던 40대 남성인 사례 2는 다음과 설명했다.

모내기 동원이 있어도 우리 집에는 인민반장이 오지 않아요. 전에 크게 이바지를 했으니깐요. 자갈 2차량(트럭) 지원했으니깐요. 반원들이 “저 집은 왜 안 가냐” 하면 반장이 “그런 말 하지 말라. 저 집은 예전에 자갈 2차량 했어. 너네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럼 반원들도 말하지 못하거든요. (사례 2)

사례 2는, 인민반은 분담해야 하는 의무를 짊어진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돈, 물품, 노동으로 이루어진 의무는 세대별로 정확히 나누어서 수행해야 하지만 결국 인민반 단위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 세대가 채우지 못한 부분은 나머지 인민반원이 나눠서 해결

해야 한다. 노동의 의무를 돈과 물품으로 해결하며 빠져나갈 때 정확히 자신의 몫만을 계산하고 나가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지불하면 나머지 인민반원의 짐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 마련이다.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인민반장과의 거래를 통해 빠져나가는 행위이지만 노동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인민반 내에서 눈에 떨 수 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부과된 노동의 의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인민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기여를 해야 한다. 정확히 자신의 몫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더 많이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있는 인민반원이 인민반과 다른 인민반원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더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민반장의 세심하고 유연한 역할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이러한 행위를 ‘정치’라고 표현했다. 인민반장은 인민반원만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민반에 의무를 배분해주는 동사무장과의 만나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동사무장은 각 인민반에 어떤 일을 어느 정도 나누어줄 것인지에 대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인민반장이 가운데에서 잘 조절해주면 동원에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인민반에 능력 있는 세대가 있으면 동사무장에게 “우리 인민반에서 자갈 3입방(3m<sup>3</sup>) 지원하겠으니까 동원작업에서 빼달라” 하고 돈 얼마 가져다주면 동사무장이 “알았어 그렇게 하자. 너희 인민반은 제외야.” 이게 정치잖아요. 그럼 반원들은 좋잖아요. 다 정치거든요. 정치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사례 2)

사례 2는 능력이 있는 인민반장은 동사무장 그리고 인민반원과 협력하여 다른 인민반보다 더 적은 분량의 노동, 더 수월한 의무를 배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사무소에 속한 여러 인민반에 의무를

배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동사무장의 의무이다. 동사무장도 임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민반장처럼 노동 의무를 돈과 물품으로 조정해줄 수도 있다. 여기서 인민반장은 동사무장과 인민반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큰돈을 지불하더라도 힘든 노동현장에 가지 않는 것이 좋고, 인민반에 큰 기여를 하면 인민반원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때문에 좋다.<sup>256)</sup> 동사무장 역시 돈을 받으면 좋고, 동사무소에 배분된 자갈을 한 인민반에서 해결하여 다른 인민반에게 나누어주지 않아도 된다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 때문에 좋다.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이다.

돈을 준 사람이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 원을 줬으면 오천 원어치 얼음(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인민반원을 주는 거야. 힘내서 잘하자고. 그러면 ‘그 집에서는 안 나왔으니 돈을 냈구나 우리에게 후방사업하라고 냈구나’ 인식하잖아요. 만 원을 주면 오천 원은 얼음과자 사고, 오천 원은 (인민반장)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돈을 벌죠. 동사무소에서 ‘너희 인민반에서 30만 원 내라’ 과제가 떨어지면 인민반장이 한 세대에 만 원 분담해도 될 걸 만 천 원 견어요. 그러면 11,000원×30세대 =330,000원 3만 원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잖아요. (사례 2)

인민반장도 동사무장도 은밀하게 돈을 번다. 사례 2에 따르면, 과거에는 국가가 부여해준 직업 속에서 자신의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공식적인 배급과 생활비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고난

256) 인민반에 얼마나 기여하는 가는 인민의 지위 경쟁이기도 하다. 자신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데 인민반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보다 더 기여해야 체면이 산다. “자존심이잖아요. 이 세대는 이렇게 냈는데, 왜 나는 못 내냐? 나도 이만짝 낼 수 있는데.” (사례 2)

의 행군 이후에는 각자가 자신의 공식적인 직업을 활용하여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해야만 생계 유지가 가능했다. 인민반장 또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비공식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생활비를 충당하는 과정은 은밀하며 비공식적이다. 인민반에 배정된 노동에서 빠지기 위해 돈을 낸 사람이 있으면, 인민반장은 그가 낸 돈의 일부로 인민반원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그 사람의 몫까지 노동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나머지는 인민반장이 갖는다. 인민반에 배정된 물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돈을 걷을 때는 조금씩 더 걷어서 나머지는 인민반장이 갖는다. 인민반장이 이런 방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처벌을 받지만 국가에서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 가능한 일이며 또한 누구나 하는 일이다.

“사회적 과제 얼마 떨어졌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야기하십시오.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인민반장이 동사무장보고 말하죠. “사무장 동지. 우리 인민반은 일 나가면 힘들어하는데 월(한 달)에 얼마씩 내고 조용히 합시다.” 그러면 동사무장이 이 사람을 대상해보고 똑똑할 것 같고 일 처리를 할 것 같으면 하는 거고 그럴 것 같지 못하면 “안 돼. 비법이야.” 딱 자르죠. (돈을 받으면) 동사무장도 자기 주머니에 다는 안 들어가요. 당일군, 행정일군 다 갖다주는 돈이 있어요. 동에 인민반이 20개 있잖아요? 그럼 동사무장이 2개 인민반을 가지고, 그다음에 동당비서가 2개 인민반을 가지고, 내부지도원이 2개 인민반을 가지고, 그 6개 인민반 돈은 고정수입으로 자기네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 14개 인민반 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사회적 과제를 하죠. (사례 5)

인민반장과 동사무장은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비공식

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비공식적으로 돈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민반장은 동사무장에게 처음부터 돈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를 맺어가고 상대방에게 관계 맺음의 결정권이 있을 때는 그가 맡은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돕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순서이다.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는 동시에 그것이 집단을 위한 일이라는 대의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북한 사회 상호작용의 의례인 것이다. 집단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각자의 직업의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며 존중하는 태도로 처신해야, 상대방 혹은 제3자에게 비공식적인 관계 맺음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들통났을 때 정당함을 호소할 수 있다. 인민반장이 동사무장에게 비공식적으로 돈을 주고 더 쉬운 일을 가져오고자 할 때, 이와 관련된 명분이 없으면 바로 뇌물로 간주되는 등 부정부패로 해석되는 것이다.

인민반장은 2개의 장부, 즉 실제 배분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진짜 장부와 검열에 대비하여 만든 보여줄 수 있는 가짜 장부를 관리한다. 그러나 모든 인민반장이 2개 장부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사무장은 검열에 대비하여 꼼꼼하고 철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인민반장인지 아닌지 가늠하여 똑똑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면 은밀하지만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럼으로써 동사무소를 운영해야 하는 자신의 공식적 직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사무장이 인민반장으로부터 받은 은밀한 돈을 혼자만 독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인민반이 20개라면 이 중 6개의 인민반에서 나오는 비공식적인 돈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생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14개 인민반

에서 나오는 돈으로 인민위원회에서 배분한 동사무소의 의무를 수행하며 안전을 담보한다. 혼자 독차지하면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로부터 고발당할 수 있지만, 비밀과 이득을 공유하면 검열에 대비하여 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 맺음은 비단 인민반을 둘러싼 구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래가 아니다. 기업소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사례 5는 자신이 공식적인 장부와 비공식적인 장부 2개를 운용했으며 회계담당자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따라 기업소 근로자가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담당자가 능력이 있어서 이윤을 많이 남기고 그 이윤을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과 적절하게 나누면 회계담당자의 평판은 좋아진다. 사례 5는 이윤을 나눔으로써 직장 안에서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큰 소득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살자면 장부 2개씩 안 만드는 데가 있을까요? 저는 회계를 하면서 판매까지 겸했어요. (거래처가) 생산물 받으러 와서는 말해요, “10개 가져간다 하고(전표에 기록하고) 5개 가져갈게. 온전한 걸로 달라.” 그러면 제가 “알았어요.” 전표 떼고 표식을 하죠. 창고장에게 내가 표식을 한 전표를 보면 좋은 제품을 내주라고 미리 말해둔단 말이에요. 그럼 창고장이 좋은 제품을 주죠. 돈을 다 받았어도 현물로 제품이 남아요. 만약 5개 남았다면 내가 3개 안 가져요. 나는 창고장에게 3개 줘요. 내가 2개 가지고, 그래야 편안했어요. 그래야만이 내가 발언권이 서고, 내가 많이 가지면 창고장에게 마음대로 욕하거나 시키거나 이런 걸 못 하죠. 내가 직위가 높다 해도 엄연하게 돈의 문제에서 흑심을 쓰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안 하고, 나는 그거 하나 더 가졌다고 해서 살림이 막 불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례 5)

공식적인 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교환은 그것을 함께



수행하는 인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윤이 배분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이윤을 주어야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와 존경을 얻을 수 있다. 당장의 이익에 욕심이 나서 다른 사람의 이익까지 해치는 행위를 하면,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쁜 평판을 얻고 존경을 잃으며 결국엔 이윤을 나누는 교환의 관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기회 역시 돌아오지 않는다.

반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 있죠. 반원도 다 알거든요. 반장이 반원을 어떻게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는가에 따라서 (인민반장이 인민반원이 낸 돈 중 일부를 은밀하게 착복해도) 알고도 눈감아주고 가만있거든요. 그러나 반장이 인민반원을 고생시키면 (돈만 많이 걷고 반원들을 힘들게 하면) 폭발하거든요. “그 돈 다 내놔라!!” 싸우기도 하고 “반장이 반원들 돈 뜯어 먹고 사는 정도다. 저런 게 어떻게 반장을 하나! 교체시켜 달라!”고 신소해서 해고시키고 다른 사람 세우죠. (사례 2)

사례 2에 따르면, 인민반장이 인민반원이 낸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지만 누구나 짐작하는 일이기도 하다. 다만 이것을 부정행위로만 보지는 않는다. 자신의 생활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또한 국가에서 요구한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때 인민반장이 동사무장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인민반에게 비교적 수월한 일을 배정받아 온다면 인민반장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다른 인민반과 비교했을 때 너무 힘든 일을 배분받아 와서 인민반원에게 더 큰 수고로움을 안겨준다면 그는 능력이 없는 인민반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인민반장이 인민반원이 낸 돈까지 지나치게 착복한다면 그

는 인민반원들로부터 탄핵당할 수 있다. 인민반장은 인민반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규범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식적인 업무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교환 관계라 해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고, 적절한 범위 안에서만 이윤을 취하는 행동을 지속해야 교환의 관계가 순환한다. 인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는 북한의 규범을 완전히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며,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민위원회 역시 같은 구조로 운영된다.

인민위원회에서 월요일마다 회의를 해요. 동사무장들, 기관, 기업소 책임자들 다 와요. 인민위원장이 “아무개 동사무장! 너 인민반 몇 개 가지고 있는 거(몇 개 인민반에서 나오는 수익 가져가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욕이죠. 비판이죠. “너 내가 과제 수행하라고 했는데 왜 못해.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인민반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아는데 이것도 안 하나? 이거 안 하면 법무부 검열 너한테 붙이겠어. 내가 들춰낸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몽땅 와서 앉아 있는 자리에요. 병원장, 진료소장, 기관 지배인들, 각 기관장들 다 와 있고 일군이 앉아 있는 자리인데. [그럼 들은 사람이 신소 안 해요?] 왜요? 자기네도 다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신경 안 써요. 인민위원회 자체가 법무부를 가지고 있어요. 행정부도 가지고 있고, 검열단위도 가지고 있고, 검찰소, 재판소, 안전부 다 인민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거나 같아요. 인민위원장이 전화해서 “너 동사무소 검열하라” 하면 검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민위원장한테 잘 보여야 되죠. (사례 5)

인민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사례 5는 인민위원장이 동사무장에게 배분해준 일을 완수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할 때의 어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인민위원장은 그 지역의 살림을 운영하고 최고인민회의의 예산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부과된 정책과제를 완수해야 하는 책임을 진 당사자이다. 과제는 다시 인민위원회 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 동사무소에 분배된다. 사례 5는 한 회의의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인민위원장이 분배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동사무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해당 동사무장이 비공식적으로 인민반장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한다. 회의에는 지방정부의 주요 기관장과 그 기관의 회계담당자가 참여했다. 사례 5에 따르면, 인민위원장의 비판은 동사무장이 인민반장들에게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공식적인 검열을 통해 직위를 해제하겠다는 경고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대화를 지켜보는 사람들, 즉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동사무장과 그들의 회계담당자들 역시 모두 자신에게 공식적으로 부여되는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거래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담당자들을 비도덕적인 행위로 고발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교환 관계는 과거에는 부정부패로 간주되었지만,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였다는 대의명분이 확보된다면 부정부패라는 지적을 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은 변화된 법규범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V-3〉 형법 중 뇌물죄와 형벌양정에서 가볍게 보는 죄의 변화

| 구분      | 내용  |
|---------|---|
| 뇌물<br>죄 | 191.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상 할 수 있거나 또는 하여야 할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대가로서 형식의 여하를 가리지 않고 직접 또는 중재자를 통하여 뇌물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에 죄를 범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그 공무원이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인 때 2. 뇌물에 관한 죄로 인한 전과가 있거나 여러 번 뇌물을 받은 자인 때 3. 뇌물을 강요한 자인 때 |
| 1950년   |   |
| 191조    |   |
| 192조    |   |
| 193조    |   |

| 구분                               | 내용   |
|----------------------------------|--|
|                                  | <p>192. 뇌물을 제공하거나 증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뇌물을 강요당하여 그를 제공한 경우에는 본조에 의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p> <p>193.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준 죄증을 만들 목적으로 뇌물을 신청하게 하는 환경과 조건을 조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
| 1987년<br>130조                    | <p>관리일군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p>  |
| 2004년<br>242조                    | <p>뇌물을 대량 또는 강요하여 받았거나 책임적 직위에 있는 자가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뇌물로 받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p>  |
| 2004년<br>242조                    | <p>관리일군이 아닌자가 뇌물을 주었거나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p>  |
| 2015년<br>230조                    | <p><b>대량의 뇌물</b>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p>   |
|                                  | <p>특히 대량의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p>   |
|                                  | <p>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p>  |
| 형벌<br>양정<br>에서<br>가법계<br>보는<br>죄 | <p>1950년<br/>4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처음으로 범한 죄</li> <li>2. 탐욕 기타 비열한 동기가 없는 죄</li> <li>3. 위협, 강제 또는 직무상 혹은 물질 상 종속에 의하여 범한 죄</li> <li>4. 강한 정신적 자극에 의하여 범한 죄</li> <li>5. 일신상 혹은 가정 상 딱한 사정에 의하여 범한 죄</li> <li>6. 무지, 무 사려 또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범한 죄</li> <li>7. 18세에 이르지 못한 자 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범한 죄</li> <li>8. 자수한 자</li> <li>9. 국가의 이익, 법률질서 또는 자기 혹은 타인의 인신이나 권리를 방위할 목적으로 한 행위로 그 방위의 정도를 초과함으로써 성립되는 죄</li> </ol> |
|                                  | <p>1987년<br/>3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범죄의 주종자와 피동분자인 때</li> <li>2. 처음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li> <li>3. 강한 정신적 자극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li> <li>4. 미성인이 죄를 범하였을 때</li> <li>5.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 죄를 범하였을 때</li> <li>6. 자백 또는 고백하였을 때</li> </ol>  |
|                                  | <p>2004년<br/>40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범죄의 피동분자인 경우</li> <li>2. 처음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li> <li>3. 강한 정신적 자극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li> <li>4. 미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li> <li>5.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정도를 넘었을 경우</li> <li>6. 자백하였을 경우</li> <li>7. <b>많은 공로를 세운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b></li> <li>8. <b>약취하였거나 파손한 재산을 스스로 보상하였거나 원상복구 하였을 경우</b></li> <li>9.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을 경우</li> </ol>   |
|                                  | <p>2015년<br/>41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범죄의 피동분자인 경우</li> <li>2. <b>국가에서 맡겨준 일을 더 잘하려고 하다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b></li> <li>3. 강한 정신적 자극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li> <li>4. 미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li> <li>5.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정도를 넘었을 경우</li> <li>6. 자백하였을 경우</li> <li>7. <b>특출한 공로를 세운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b></li> <li>8. <b>약취하였거나 파손한 재산을 스스로 보상하였거나 원상복구 하였을 경우</b></li> </ol>  |

| 구분 | 내용   |
|----|--|
|    | 9.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을 경우<br>10. 중한 범죄를 적발하는데 협력한 경우 |

자료: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 형사관계법』 (서울: 법무부, 1993), p. 872, pp. 930~931;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 (평양: 법률출판사, 2004), pp. 828; 전지연 외, 『북한형법 주석』 (서울: 법무부, 2014), pp. 247~252;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서울: 국가정보원, 2020), pp. 322~346.

인민위원회, 동사무소, 인민반 모두 공식적으로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교환을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법의 테두리를 완전하게 벗어난 비행이 아니다. 과거에는 범죄였고 처벌 대상인 행위였을지라도,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다는 대의명분이 확보된다면 처벌을 경감해주는 참작의 영역이 법규범에도 신설되었다. 1987년까지 직무상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대가로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그 밖의 이득을 얻는 것은 뇌물죄에 해당했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대량의 뇌물’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뇌물죄에 대한 형법의 표현이 변경되었다. 대량으로 주고받은 뇌물이 아니라면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를 대량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뇌물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벌양정에서 가볍게 보는 죄’와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면, 국가를 위해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경감 해준다는 내용이 2004년 형법에 포함되었다. 또한, 2015년 개정형법에는 ‘국가에서 맡겨준 일을 더 잘하려고 하다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경감 사유에 포함되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인정받으면 더 이상 죄가 아닐 수 있다는 ‘정상 참작’의 영역이 법 안에 생성되었다.

북한의 반(反)부정부패 정책들 이면에는 공식적인 의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생활을 지탱하기 위한 인민들의 비공식적인 이윤의 교환들이 있다. 이러한 정책 운용이 일정 부분 북한 당국의

의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추정을 북한의 변화된 범규범이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257)</sup>

#### 4. 생활공동체로서의 인민반

인민반은 공식적인 세금은 없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스스로의 힘으로 꾸리고 돌보기 위해 부과되는 돈, 물품, 노동의 의무를 30~50세대가 함께 수행하는 조직이다. 앞에서 인민반의 의무와 역할수행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인민반원간의 교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에서는 인민반에 부여된 또 다른 역할인 행정관리,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통제,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협력 안에서 탄생하는 생활공동체란 어떤 방식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연결되는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인민반장은 주민행정관리도 담당한다. 주민행정부에 따르면 인민은 출생 또는 사망, 결혼 또는 이혼, 공민증 발급신청, 군 입대 또는 제대, 국적 입적 또는 제적, 해당 지역 거주 또는 퇴거, 입양 또는 파양, 다른 나라 임시거주 등 신분 변경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거두어들이는 수매사업에도 참여해야 한다. 인민반장과 동사무소는 인민이 신분등록을 포함하여 주민행정 사업에 따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해야 한다. 사례 2는 이 과정 역시 인민반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민을 돕는 행위일 수

---

257) 윤보영은 북한정부가 90년대 고난의 행군기 이후 규범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던 규율에서 각자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창의성을 발현해서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전환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지도자의 언설과 문화예술 그리고 범규범의 변화를 통해 포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북한인민 역시 이러한 상황에 맞춰 각자에게 주어진 공식적 일 속에서 비공식적 교환을 주고받으며 공식적 의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각자의 개인적 삶을 꾸려나가고 있음을 설명한다. 윤보영, “북한사회 뇌물의 사회적 맥락,” 『문화와 사회』, 제29권 1호 (2021), pp. 39~90.

도 있고, 통제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분이 주민행정, 주민의 생활을 돌봐주는 게 인민반이죠. 여기로 말하면 주민센터라고 하면 관찮을 것 같아요. [인민반은 인민통제를 위한 것이 아닌가요?] 북한의 모든 게 통제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경기도 사람이 서울에 와서 살려면 인민반 혹은 경찰서에서 거주 승인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인민반장이 “너 왜 거주도 안 하고 사냐!” 이렇게 말하면 통제잖아요. 그런데 “너 빨리 거주하고 살아라” 하면 말이 툭하고 탁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통제고, 저렇게 말하면 도와준 게 되고. (사례 2)

사례 2는 보안원, 즉 경찰이고 비교적 높은 직위에서 근무했다. 사례 2는 북한에서 지역 간 이동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람의 인생에는 먼 곳에 사는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돌아가셨을 때 다녀올 수 있도록 이동을 허락받는 것과 같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 일거리를 찾아 여러 지역을 떠돌기도 한다. 사례 2는 인민 개인이 혼자 행정담당자들을 만나 허락을 구하는 과정은 매우 지난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좋은 인맥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민반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인민반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어서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다. 이런 의미에서 인민반장은 주민행정을 통제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분리수거도 인민반에서 하거든요. 병, 파지, 비닐 따로 모아서 수매소, 국가에서 회수해서 또 이용하는 거죠. 달마다 병 몇 개, 비닐 200g, 파지 몇 g 수매 규정이 있거든요. 사람들 대체로 귀찮아하니깐, 수매증을 사거든요. 반장도 수매증 파는 사람하고 인맥

관계가 있어요. “1년분 수매증 얼마예요?”하면 일 년에 한 6만 원 내면 수매한 걸로 해주거든요. (사례 4)

평양에 거주했던 40대 여성인 사례 4는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거두어들이는 수매의 의무도 세대별로 할당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제출해야 하는 품목이 집에 없으면 그것을 구하기 위한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이때 수매사업을 관리하는 인민반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수매증을 관리하는 사람을 소개해준다. 인민반원은 할당량을 채웠음을 확인해주는 수매증을 돈을 주고 구매하여 인민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완수한다. 수매증 관리자는 돈을 벌고, 인민반장은 인민반에 부과된 수매의무의 관리를 완수한다. 인민반원, 인민반장, 수매증 관리자 모두 서로의 필요를 교환하는 것이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인민반이 동원된다. 인민반장은 인민반원의 생활형편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보고해야 한다. 인민반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인민반원 중에 불온한 생각을 가진 인민이 있으면 나머지 인민반원에게 해악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은 없는지, 품행이 나쁜 사람은 없는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생각을 하며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반국가적 행동을 획책하는 사람은 없는지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파악해서 보고해야 한다.

여론조사도 하죠. “누가 어떤 불평을 했음.” 보고를 하는 거죠.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산골마을에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일상생활 속속들이 알고 싶은 거야. 여자들끼리 “3일 동안 물이 안 나와서 사람 죽겠네” 하는 소리까지 다 보고하거든요. 평양시 당책임비서가 굉장히 혼난 적이 있어요. (직장에서



도) 세포비서가 매일 4시에 타자쳐서 6시 전에 초급당에 보고해요. 그러면 중앙당 조직부에서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거죠. 어디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고, 어디에서 누가 불평불만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사례 4)

인민을 대상으로 공식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인민반, 동사무소, 인민위원회, 중앙정부 그 외 북한 사회에 있는 모든 기관, 단체, 기업소, 조직마다 해당 기관 안의 구성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밀하게 청취해서 보고하는 체계가 있다. 가장 낮은 기층조직에서 가장 높은 정치단위까지 연결된 겹겹의 보고체계를 통해 일상의 동향과 여론이 파악된다.<sup>258)</sup> 평양에 거주했던 사례 4는 평양시의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인민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불만 여론이 높았을 때 평양시의 살림을 담당하는 당 책임비서에게 책임을 물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지방 인민의 수렴된 여론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고체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불온한 여론과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인민의 적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인 행위를 하는 인민 내부에도 있다고 간주된다.<sup>259)</sup> 즉, 북한을 다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외부의 적대세력은 끊임없이 불온한 내용의 문화콘텐츠를 북한 내부로 들여보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산주의 혁명가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민, 특히 전쟁

258) “남자들 술 먹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없어지고 비판받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룰이 있어요. 식당에도 다 도청기가 있거든요. ‘식당에 가서는 성적인 소리나 해라.’ 식당에서 멍청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야한 농담) 주로 하는 거죠. 정치적인 발언하면 죽죠.” (사례 4)

259)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잡도리되어야 하는 행위로 언급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에서 반(反)사회주의는 사회주의에서 어긋나는 비행(非行)의 범주를 넘어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명백한 의도를 지녔다는 점에서 비사회주의와 다른 엄중함을 갖는다.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의 정의는 <표 V-2>를 참조.

을 겪어본 경험이 없는 세대는 착취계급의 압제와 망국의 설움도 겪지 못했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모든 것을 새로 세워야 했던 시련도 체험하지 못했다. 잘못하면 패배주의자가 되어 혁명의 방해꾼으로도덕적 패륜아가 되어 버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단히 서로를 격려하며 단련해가야 한다는 것이다.<sup>260)</sup> 적이 보낸 불온한 문화콘텐츠를 보고 익히며 사상이 약해진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혁명적 경각심을 가지고 관찰해줘야 한다.<sup>261)</sup> 그러나 이러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통제 논리에도 불구하고, 검열제도 안에서는 비공식적인 교환의 협력이 발현된다.

(과거) 우리 엄마 인민반장 했을 때 검열 나오면 아이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엄마 이름 불렀어요. “순이야~ 순이야~” 부르는 게 아니라 “옥실아!!” 이렇게 부르면 ‘아 검열이 왔구나.’ 그렇게 했죠. (현재) 우리 인민반장은 검열 오면 자기 남편을 띄워요. 검열 왔다고, 1층부터 검열한다면 그 다음 집부터 띄워요. 그러면 아무리 (검열 나온 사람이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죠. 그럼 인민반장이 말하죠. “이 집은 직장에서 아직 안 들어온 거 같습니다.” (사례 5)

미리 고지하지 않고 불시에 집으로 찾아가는 숙박검열에는 인민반장이 동행한다. 숙박검열은 그 집에서 허가 없이 머무르는 사람 없는지,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문화콘텐츠를 보는지 등 불법적인 일을 단속하는 업무이다. 이때 인민반장은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인민반원에게는 미리 알려준 방법대로 문밖에 검열하는 사람이 왔음을 표현한다. 문을 열기 직전 문제가 될 만한 물건과 증거를 숨길 수 있는 짧은 시간을 벌여주기 위해서이

260) “사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일관되게 틀어쥐고 나가자.” 『로동신문』, 2021.9.23.

261) 김상현·김광현 편, 『대중정치용어사전』, p. 327.

다. 사례 5에 따르면, 자신이 어렸을 때 함경북도에서 인민반장이었던 어머니도 인민반원들과 이러한 신호를 주고받았으며, 결혼 이후 평안도로 와서 만난 인민반장도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인민반원에게는 작은 신호를 통해 미리 알려주며 보호해주었다고 한다. 인민반장과 인민반원의 이러한 관계는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보호행위는 인민반장과 인민반원이 가까운 사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에만 이루어진다.<sup>262)</sup> 보안원으로 근무했던 사례 2는 자신이 숙박검열을 했을 때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보안원, 당일군, 보위원, 군인가족 이런 정권기관 집은 우리가 웬만하면 숙박검열 안 들어가거든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네가 아무리 당일군이어도 난 너를 믿지 못해서 숙박검열 하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북한 체제에 살면서 당일군을 믿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예외 없이 법대로 들어갔다. 그럼 그 사람이 내 윗 단위 간부한테 말하거든요. “야 어제 저녁에 숙박검열 왔는데 너무하잖아.” 나한테 직접은 충고 못 하거든요. 그러면 윗 단위 간부가 저한테 “들어가지 말라” 옆구리 찔러 주거든요. 그런데 인민반장이 “이 집에 요즘 별난 사람들이 다닌다” 이러면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사례 2)

사례 2는 숙박검열을 할 때 당, 군,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같은 권력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고 설명한다. 권력기관에 종사하며 지역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은 서로 각자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적을 만드는 것보다는

262)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뷰에도 비슷한 사례가 계속 등장했다. 조건은 인민반장과 친한 관계이다. “인민반장하고 친한 집은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숙이야~’ 자중하게 찾으면 그냥 인민반장이 온 거고, ‘숙이! 숙이! 반장이예요!’ 하면 누굴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층마다 가깝지 않아요. 검열 오면 전화 오거든요. 자기 가까운 집에 꼭 알려주는 체계가 있어요.” (사례 4)

적정한 선에서 비켜가는 것이 각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초심자가 그러한 관계를 모르고 숙박검열을 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하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의 상사에게 이야기하여 침범하지 않는 관계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문율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인민반장이 권력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집에 수상한 행동이 있다고 말하면 숙박검열을 해야 한다. 숙박검열의 원칙은 어느 직종 어느 직위에 있는 사람이든 공평하게 관리하여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인민반장에게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 보고할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인민반장은 자신과 친한 사람은 보호해준다. 자신이 담당하는 인민반원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하지 않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인민반장도 잘못을 지적받지 않기 때문에 좋다.<sup>263)</sup> 그러나 평소에 자신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까지 도와주지는 않는다. 새벽 5시마다 사람들을 깨워서 노동 현장에 나가고, 돈과 물품을 걷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인민반장에게도 참여해야 하는 인민반원에게도 힘든 일이다. 만약 인민반원 중에 불평을 하고 비협조적인 행위를 하며 인민반장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민반장은 그를 도와주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sup>264)</sup> 친한 사람을 검열로부터 보호하며 도와주면 그 사람도 자신이 필요할 때 보답을 하며 신뢰의 교환이 오고간다. 그렇지 않은 사

263) 사례 5는 인민반원이 잘못된 경우 인민반장도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큰 불이익은 없어도 비난은 받는다고 설명했다. “추궁받기 싫잖아요 욱먹는 거 보고 추궁이라고 말하거든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영치 두드려주면서 칭찬해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욱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싫잖아요.” (사례 5)

264) 평양에 거주했던 사례 4는 사람들이 인민반장과 가능하면 잘 지내려고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민반장은 사람들이 뭐하는지 다 알고 있죠. 어느 사업소 노동자인지, 어디 간부 지도원인지. 사람들이 굳이 인민반장하고 틀어지려고 안하거든요. 인민반장하고 다투면 이 사람이 외국에 나갈 때 보증 안 해주거든요. ‘나, 이 사람 보증 못 해주겠어요’ 이러면 이 사람 해외에 못 나가거든요. 사이가 틀어지면 얻어지는 것보다 손해가 더 많으니까.” (사례 4)

람은 도와주지 않는 방법으로, 평소에 자신에게 올바른 행동을 하라는 무언의 경고를 하며 인민반장의 권한을 알려준다. 숙박검열에서 공식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비공식적인 교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들어가면 “수고합니다. 제기된 거(하면 안 되는 거) 없죠” 하고 쪽 보죠. (낮선 사람이 있으면) “저 옆에 서 계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 조카예요” 그다음에 얼굴 인상이 달라지거든요. 별난 사람. 미숙박자니까. “숙박등록 시켜가지고 자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나. 나오라요.” 그다음부터 사바사바 “도와 달라. 다음부터는 잘하겠다.” 그래도 “조사 좀 해보고 제기되지 않게 해주겠다.” 데리고 나오면 주머니에다 뭐 넣어주던가. (사례 2)

숙박검열은 검열자와 인민반장이 함께 들어가 가족의 숫자를 확인하고 부재중인 사람의 행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가족의 숫자가 기록된 것보다 더 많으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식적으로 숙박을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때 검열자가 조사를 위해 동행하자고 요구하면 집주인은 우선 도와달라며 말로 설득한다. 만약, 그래도 보안서로 데려가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은밀하게 뇌물을 주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불법체류를 눈감아 주는 대신 뇌물을 받으며 도움과 돈이 교환된다. 물론 상황마다 검열자가 취하는 행동은 다르다. 눈감아 준 대가가 적정할 때, 눈감아 준 대가로 자신에게 위협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될 때에만 도와줄 수 있다.

사례 2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단위의 검열기관보다 더 상위 단위에서 불시에 검열이 나오면 자신 역시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잠깐의 시차를 두고, 검열을 받는 현장보다 조금 더

빨리 검열한다는 사실을 알 수는 있다. 사례 2는 자신과 평소에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알쌘이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sup>265)</sup> 그는 북한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지냈던 사람을 “알쌘이, 알쌘이들”이라고 표현했다. “알쌘이”는 지금 당장 돈을 주고받으며 이윤을 교환하지 않더라도 서로에게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관계이며 1대 1일 “알쌘이”도 있지만 몇 명의 작은 공동체로 묶인 “알쌘이들”도 있다. 이들은 서로의 힘든 점을 알아주고 친하게 지내며 감정을 교류하는 관계인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서로에게 필요한 이해를 교환하며 더 큰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또한 위험이 닥쳤을 때 각자의 권한을 활용하여 그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모든 게 불법 없이 하기 힘들거든요. 다 불법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뒤에서 그걸 막아줘야 하잖아요. 내가 막아줌으로써 너희들이 돈을 버는 데 내가 번 돈을 나한테 주는 건 응당한 게 아니냐. [그게 알쌘이예요?] 네 맞습니다. [알쌘은 누구예요?] 다 돈 관계죠. 돈을 기준으로. “내가 힘들어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나 급한 일이 있는데 알쌘인데 그래도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했을 때 “나 힘든데, 못 도와줍니다” 하면 “그래? 알았어” 전화 끊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다른 일이 제기되었을 때 나한테 전화할 수 없어요. 무조건 도와 줘야 하는 문제거든요. (사례 2)

알쌘은 각자가 필요한 순간에 각자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관계이

265) “저도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돈까지는 받지 않아요. 보안성(보안서 상부단위)에서 하는 숙박검열이 따로 있어요. 김일성 탄생일, 신이 탄생한 날인데, 그날 사건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정치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숙박검열을 조직하거든요. 저는 보안서에 근무하니깐 내 알쌘이들에게 전화해서 ‘오늘 숙박검열 나가니까 문제 제기되지 않게 하라.’ 알려주기도 하죠. 와이프도 친구가 있잖아요.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저녁에 잘하라. 숙박검열 들어간다.’ 또 알려주고.” (사례 2)

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찰인 알쌘은 자신의 직위를 활용하여 도와준다. 돈을 많이 번 사업가는 돈이 필요한 알쌘에게 돈을 빌려주며 도와준다. 도움의 행위가 있는 다음에는 돈과 선물 혹은 각자의 직위를 동원한 이권 제공을 통해 보답한다. 정확히 도움받은 만큼의 보답만 단발성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다.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언젠가는 올 수 있다는 상황을 서로가 염두에 두면서 요청한 모든 것은 해결해 줄 수 없더라도 각자에게 가능한 도움을 주고받으며 생활의 안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관계들은 인민반 안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디에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의 친인척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와 같은 인적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과는 긴밀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점에서 알쌘은 같은 인민반 안 혹은 이웃 인민반에서 시작된다. 사례 2는 인터뷰에서 신원이 확실한 사람과만 관계를 교환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북한에서 끈 돈은 번 돈이라고 하거든요. 여긴 빌려준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은 돈을 빌리면 “내가 돈 벌은 거야.” 빌려준 돈을 다시 받으면 영웅이라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돈을 잘 안 꾸줘요. “저 사람은 돈을 줄 수 있는 집이야. 돈 생산지가 있다. 나올 데가 있다. 빌려줘도 괜찮겠다.” 신용, 그다음에 사람의 인품 중요하게 여기죠. 모든 약속, 모든 거래, 모든 행동. 거기서 허물어지면 인품이 아주 떨어지잖아요. 신용이 중요하다. 도덕 중의 하나다. 신용이 끈 돈이잖아요. (사례 2)

공식적인 업무를 비공식적인 교환을 통해 수행하는 북한 사회 안에서 만약 상대방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에게 합당한 이윤을 나누어 주지 않았을 때 이 문제를 쉽게 법에 호소할 수 없다. 비공식적인 거래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한 사회 안에서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개인 간 거래가 비공식적으로 성행하지만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아도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높은 이자를 지불하게 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착취제도 사회에서나 있었던 고리대금을 했다는 것 역시 죄가 되기 때문이다.<sup>266)</sup> 이윤을 추구하는 비공식적인 관계 모두 북한 사회의 규범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단하면 비사회주의적 행위, 나아가 반사회주의자로 해석되는 위험한 일탈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디에 사는지 아는, 신원이 확실한 사람과만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나 인민반을 둘러싼 구조 속에서 겹겹이 벌어지는 교환은 단순히 각자에게 이득, 이윤이 남는 관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앞선 논의에서 북한의 정부는 전체 북한 사회를 잘 이끌어주며 지도하는 의무를 가지며, 북한의 인민은 정부의 지도에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동시에 자신이 사는 지역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가꿀 의무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인민반은 그러한 역할을 30~50세대가 함께 분담하여 짊어진 공동체이며, 규범적으로 모두가 똑같은 양의 돈, 물품, 노동의 의무를 분담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이 안에서 비공식적인 교환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인민은 자신에게 분담되는 양보다 더 큰 역할을 돈과 물품으로 채워 넣으며 노동의 의무를 대신한다고 설명했다. 더 큰 역할은 노동에 참여해야 하는 다른 인민반원들이 납득할 만큼 인민반의 의무수행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반 안에서 가장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

266) 북한은 고리대 자본은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악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지불하게 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대부자본은 돈이 있는 사람 만 할 수 있으며 그는 돈이 있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노력 없이 갈수록 부유해지고, 그에게 돈을 빌릴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갚기 위해 계속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돈이 있는 사람 즉 자본가의 이익만을 위한 가장 반동적인 행위로 비난받는다. “모순과 대립의 격화는 자본주의의 필연적 산물,” 『로동신문』 2018.4.1.



인민 즉, 고아, 노인, 환자와 같은 약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른 인민반원들과 똑같이 나누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 분담의 의무에서 제외되고 공동체로부터 생활의 도움을 받는다.<sup>267)</sup> 이때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례 5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었다.

[인민반 안에 늙은이만 살거나 아이만 사는 세대는 그 사람들이 못되게 놀지만 않으면 엄마들이 좀 챙겨줘요? 서로서로?] 늙은이, 아이만 살면 좀 못되게 놀아도 챙겨줘야죠. 대체로 챙겨줘요. 그렇지만 자기가 먹고 나머지를 주죠. 내가 못 먹으면서 주진 않죠. 김장김치 많이 안 먹으면 남지 않아요. 그러면 다 퍼서 줘요. 이 집도 주고, 저 집도 주고. 다 감사하다고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줘요?] 도와줄 집이면 도와주죠. 어느 집에 상가(초상) 나지 않아요. 그러면 인민반에서 골고루 돈을 걷어요. 걷어서 손님 치러야 하니까 국수, 뭐 물품 갖다줘요. 저는 사망한 할머니가 평소에 웃어주고 고마운 분이면 따로 두부 한 판 해서 “저 집에 갖다 주라요” 하죠. 그러면 “아무개 어머니가 주는 거예요” 하고 갖다주죠. 만약 할머니가 자식 없이 죽으면 인민반 아니면, 분주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장례 치러주죠. (사례5)

사례 5를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은 인민반에게 나누어지는 의무를 분담할 때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는 세대에게 나머지 인민반원이 강박하게 행동하지 않는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약자가 평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회적 약자가 평소에 어떤 태도를 보이든 도와줘야 하는 처

267) “인민반에서 진짜 힘든 집 있어요. 2~3집. 진짜 죽도 겨우겨우 끓여 먹는 집. 쌀을 10kg 지원하거든요. 반장이 정하죠. 진짜 가난한 집을 줘요.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이따금씩 명절이나. 반장이 ‘저 집이 힘든데 쌀 1kg이라도 낼 수 없겠느냐.’ 그럼 있는 집에서는 내주고 그런 건 있어요. 담요라든지, 입던 옷이라든지.” (사례 6)

지에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같이 돌본다고 말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사람들은 생과사를 비롯한 삶의 여건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sup>268)</sup> 얼굴을 마주하는 인민반원, 인민반장, 보안원, 보위원, 동사무소, 인민위원회 구성원이 서로가 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평판을 관리하며 관계를 맺고, 확장하고, 교환하며 그 안에서 생활의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는 것이다.

## 5. 소결

본 연구는 인민반의 주요 역할인 주민행정, 사회질서 유지, 지역 운영을 위한 역할분담에 주목하여, 인민반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부과된 의무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인민반으로 엮어진 생활공동체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들은 자발적 노력으로 표현되지만 돈, 물품, 노동의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세금의 의무와 같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걷어진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소요된다.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납부의 의무가 크고 인민반 구성원 저마다의 상황이 다른 만큼, 돈이 있으면 돈으로, 지위와 권력이 있으

268) 그러나 이러한 서로의 돌봄은 각자의 상황이 우선된 다음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계속 강조되었다. “나는 설날이면 있지. 함지에다가 두 가지 떡, 만두, 9가지 반찬 함지에 들고 우리 4층 할마이 불쌍해 가져다줬다고. 김정일 시대 와가지고 사람들이 독하게 됐지. 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결혼식하면 ‘내 못 갔어. 반장이 이해하오. 내 돈이...’ 그러면 ‘내 안다고’ 지금도 국수 죽을 쑤는 집이 있다는데 어찌겠어. 줄게 없단 말이 오. 사돈집 아들이 어디가 먹을 게 없으니까 거리지(거지) 됐어요. 엄마도 없지 아버지 죽었지. 우리 집에 왔어. ‘사돈 엄마 배고파 왔다’는 거야. 내가 못 먹여 보냈다. (눈물) 장에 가 벌어진 거 내일 아침에 우리 식구 먹기도 바쁘다. 내게는 조금 차례 진단 말이. 어찌겠니. 내 그거 못 먹여 보냈다. 제 먹을 게 없으면 남은 못 진단 말이. 제 식구는 굶는데. 내게 한 그릇 차례 안져요. 다 농가(나누어) 먹다나면 아들에게 이마이(조금 크게) 주고, 딸들은 고마(조금 작게) 주고 나는 그저 (바닥 긁어서 조금). 아침에 한 놈 아이 먹이고 먹여 보낼걸.” (사례 7)

면 자신이 이를 이용하여 동원할 수 있는 물자로, 둘 다 없으면 노동으로 의무 부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역할 수행을 조율한다. 그러나 완수해야 하는 의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면 정부에 대한 인민의 원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도자는 관리자들에게 ‘세외부담’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지만, ‘세외부담’이라는 언어의 등장은 북한 사회 안에서 오랫동안 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의 상당 부분이 인민에게 부과되고 있었으며,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준다.

인민반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는 단순히 돈, 물품, 노동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공식적인 의무 수행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인 교환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환은 수평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부와 하부 조직 사이의 수직적 관계에서도 이루어진다. 인민반장에게 노동 대신 돈을 지불하는 인민반원은 정확히 자신에게 부과된 만큼의 대가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민반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도로 더 큰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인민반장뿐만 아니라 인민반원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행동한다. 인민반장은 동사무장에게 다른 인민반보다 조금 덜 힘든 과제를 배정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앞서, 동사무장의 노고를 먼저 알아주는 언어 의례를 사용하곤 한다. 모두가 집단을 위해 맡겨진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대의명분 아래에서 서로를 돕기 위한 교환이 이루어지며 이에 필요한 언어 의례가 사용되는 것이다.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한다는 공식적 명분의 우산 아래에서 비공식적인 교환을 주고받고 있으며, 은밀하게 진행되는 비공식적인 교환은 당사자들이 비밀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생성된다. 개인의 이기심만을 충족시키는 교환이 아니라, 북한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바람직함’, 즉 주어진 의무의 수행이라는 가치와 이를 표현하는 의례 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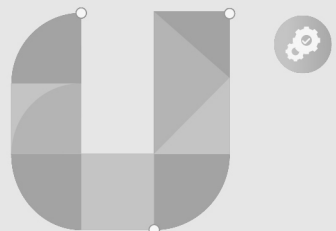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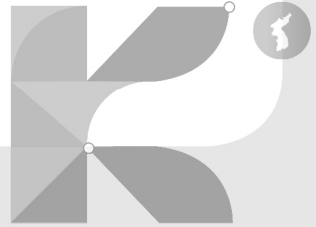
서 돈과 물품이 교환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인 관점으로 평가한다면, 이 의례는 다만 연극의 상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안에서 만들어진 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용과 평판을 형성함으로써, 다시 이윤을 낳는 방식으로 상호신뢰의 순환을 만들고, 지역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공동체의 삶으로 다시 혼류된다. 북한 사회 속에서 인민이 공식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고받는 비공식적인 교환행위의 축적은 단순히 호혜의 관계 혹은 추상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법규범으로 제도화되며 다시 개인의 삶으로 흘러든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안녕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북한의 인민이 국가에 집합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들의 불만족스러움을 보여주는 것, 삶의 피폐함을 가시화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증폭될 때 다시 지도자가 개입하는 의례를 통해 그것이 갖는 심각함을 환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율의 과정이야말로 북한이라는 전체 생활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 VI. 결론

최지영 통일연구원





일상생활 연구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일상의 행위와 정체성의 변화에 주목한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사회적 변화 속에서 북한의 일상생활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통로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은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 주민들의 지향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것이 우리가 북한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를 통일 논의와 연계시키는 이유이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통일 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의 통일 논의는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통일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두었다. 어떠한 경로와 유형에 따른 방식의 통일이 적합하거나 바람직한지, 또는 이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설계와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었다. 통일 논의들이 통일의 방법론이나 거대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속에 갇히면서, 정작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한 구성원들의 지향은 소외되었다.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한 구성원들이 통일을 원하고 있는지,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가치를 실현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통일의식 조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을 뿐, 이러한 질문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통일 논의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는 미시적 기초(micro foundation)를 탐구하는 이유는 이것이 통일이라는 거시적 동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통일은 남북한 구성원들의 아래로부터의 견고한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것은 통일 논의가 남북한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지향하는 다양하고 보편적인 가치들과 괴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제의식은 비교적 분명하지만, 본 연구의 성과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일상생활에 대한 변화를 여러 통로로 탐구하였으나, 그 속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남북한 체제의 이질성이 우리의 일상에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북한이 겪은 경제사회적 격변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의 행위, 인식, 정서,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추적하고자 했다. 그 속에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무리하게 남북한의 동질성과 이질성으로 나누어 분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변화를 북한만의 고유한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그 위에서 한반도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만족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통로를 통해 북한의 일상생활 공동체를 관찰하고자 했다. 각각의 통로는 북한의 일상생활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포착할 수 있는 기제인 동시에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계기들이기도 하다. 첫째, 정보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개인 모바일 기기의 사용 확대는 집단주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북한에서 일종의 사적 공간을 탄생시키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일상생활 공동체의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둘째, 세대(generation)는 그 자체로 공동체의 변화를 설명하는 기제일 수 있다. 하나의 공동체에 속하고 있더라도 각 세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은 사회변화로 인하여 조금씩 달라지며, 이는 그 세대만의 공통된 이해, 관심사, 문제의식을 만들어낸다. 같은 세대가 공유한 동류의식은 다른 세대와의 충돌과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장마당 세대’의 출현은 북한이 겪은 급격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한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사회변화에 직면하여,

어떠한 이해, 관심사,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북한이라는 공동체의 변화를 전망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과의 공감대를 찾는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셋째, 북한의 돌격대는 그 자체가 노동 공동체, 일 공동체로서 의미를 갖지만, 전통적인 북한의 일상생활 공동체와는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북한의 일상생활 공동체는 주거와 노동의 공간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전통적이지만, 돌격대는 가정, 학교, 직장에 속하지 않은 일시적인 노동, 일 공동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격대는 북한 당국의 노동력 동원, 재배치 정책에 따라 형성되지만, 이에 대한 개개인의 대응은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지며, 일종의 긍정적인 효과들, 직업훈련의 경험과 직업 선택의 과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넷째, 돌격대가 노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인민반은 주거 공간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일상생활은 주거 공간에 기반한 기층 조직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과거에는 반상회 같은 조직을 통해 산아억제정책 등 정부정책을 하달하기도 하고, 이를 주민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지만, 현재에는 친목이나 상호부조가 이루어지는 통로로도 거의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의 일상생활 속 관계는 상당부분 인민반 생활과 연계되어 있다. 인민반은 각종 행정적 부담을 수직적으로 수용하는 단위일 뿐만 아니라 친목과 상호부조가 이루어지는 수평적 단위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 당국은 2010년에 주민 행정법 제정을 통해 인민생활의 기층단위, 생활 거점으로서 인민반의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위의 주제들은 물질, 공간, 관계의 측면에서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

의 변화와 작동방식을 효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일상을 관찰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매우 다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자 수에 대한 지표는 정보화 수준의 증가만을 단선적으로만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만으로 정보화가 수반하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포착하기는 어렵다. 특히 북한이라는 폐쇄되고 통제된 사회에서 정보화가 개인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다. 북한만의 고유한 특징은 오히려, 변화에 대응하는 일상의 다양한 행위들을 포착하는 데서 드러날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은 정보화와 같은 구조적, 기술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변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을 다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정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우리가 다룬 다양한 소재들은 정보화, 시장화,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을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첫째, 휴대전화 사용이 만들어 낸 ‘봉사구역 밖’이라는 기회는 집단주의적 관계가 개인의 일상에 강하게 개입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사적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시적이거나 집단주의적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휴대전화 소유가 보편화되면서 점점 개성을 표시하거나 또래문화를 형성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친밀한 정서를 공유하는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수 있다. 반면, 개인의 휴대전화가 기능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전화 돈은 북한의 취약한 금융결제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결제, 송금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문자를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고 정서를 표현하는 데는 취약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은

‘이동성’을 보장하는 편리함보다는 사적 공간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라는 기기가 가진 다양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만들어진 사적 공간의 발견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북한의 세대 담론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사회적 격변으로 세대별 특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고난의 행군 당시 어른이었던 세대들(사례 11)’은 1970~1980년대 비교적 정돈된 북한의 제도 위에서 교육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를 개인이 책임지면서도 기존 세대나 북한의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가치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낼 수 없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기에 유소년기나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들, 즉 ‘미공급 세대’, ‘장마당 세대’는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 즉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로의 선택이나 교우관계의 형성 같은 생애 전반의 문제들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고난의 행군 당시 어른이었던 세대들’이 그들의 정체성과 경제적 어려움 사이에서 상당한 괴리와 혼돈을 겪었다면, ‘장마당 세대’들은 이미 이완된 북한 체제 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국가에 대한 기여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더 관심을 갖고, 젊은 세대일수록 집단주의적 가치에 대한 공감에 열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장마당 세대’가 갖는 세대차이에 대한 인식도 흥미롭다. 구술에 참여한 ‘장마당 세대’들은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2000년대 출생세대가 ‘무력하고 유약’하며, 나이든 세대들이 ‘이중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세대차이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북한내에서도 세대별 관심사, 문제의식, 이해관계의 차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돌격대의 형성과 작동방식은 노동력 배치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와 개입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이에 대한 개

인의 대응방식도 비교적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비정규돌격대의 경우, 잉여 노동력 또는 미숙련 노동력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의 관리와 통제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개인의 대응방식도 기피, 참여, 면피 등의 방식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한적이거나 직업훈련과 직업 선택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그러나 돌격대의 존재 자체는 많은 유휴 노동력들이 좀 더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이나 첨단 산업 분야로 흡수되지 못하고, 건설 사업에 임시로 동원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북한 당국이 12년제 의무교육을 성과로 제시하고, 지식경제 시대로의 진입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교육제도와 경제정책이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인민반의 작동방식은 북한의 일상생활 공동체가 주거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한 일상의 공식적, 비공식적 협력관계가 매우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특히 주거와 노동이 공간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고, 이웃사촌 같이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대비된다. 또한, 인민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당국과 주민들의 수직적 관계, 주민과 주민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고유한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세외부담’이라는 위로부터의 수직적 요구가 인민반 내에서 개별 가구의 특성에 맞게, 돈과 물품, 노동력으로 배분되는 과정이나,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민반 구성원들 간의 수평적 협상 과정은 북한의 일상생활 공동체의 상호작용이 갖는 특수성을 보여준다. 시장화가 진전되고 있다고 해도, 북한의 일상생활 공동체에서 그 구성원들은 증여와 재분배의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북한 주민들이 지향하는 가치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적 공간에 대한 요구, 개성의 표현과 친밀한 정서의 교환,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에 대한 요구들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생애 진로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진로 결정에서 다른 사회적 가치보다 경제적 가치가 우선시되고,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나 젊은 세대에 대한 실망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일상에서의 기본적인 요구들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는 북한의 체제적 특수성과 한계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삶의 여러 경로에서 경제적 가치가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모습도 그렇다. 2010~2019년 동안 MZ세대(1980~2004년)의 직업 가치관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17년까지는 영향력 발휘, 금전적 보상, 인정 같은 외재적 가치가 봉사, 개별활동, 직업안정, 몸과 마음의 여유, 자율 같은 내재적 가치보다 더 우선시되었으나, 2019년에는 내재적 가치를 외재적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각각의 요인들을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난 10년 동안 줄곧 ‘몸과 마음의 여유’가 차지했으며, ‘금전적 보상’은 4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sup>269)</sup> 이와 같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경제적 문제들의 수준과 범위는 남북한 간 격차가 상당하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위의 특성들은 남북한의 동질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설부른 접근이 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발견한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다층적인 측면을 통일 논의의 미시적 기초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집단주의적 가치보다 개인을 중요시하고, 생계의 유지가 삶의 전반적 경로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일상생활의 변화를 통일 논의에 포용할 필요가 있다. 이

269) 박은규·조아름·서현주, “MZ세대의 직업가치관 변화 분석,” 『고용이슈』, 2021년 여름호 (음성: 한국고용정보원, 2021), pp. 110~125.

러한 변화는 우리의 통일의식에서도 이미 감지되고 있던 것이다. 민족정체성의 회복에 대한 공감은 약화하고 평화조성이나 경제발전에 대한 공감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일상에서 충분히 수용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보편적 지향을 수용하는 방식의 남북교류협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여전히 안전한 생활환경,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인프라의 측면에서 취약한 국가로, 이는 일상에서의 북한 주민들의 행복과 존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의 남북교류협력은 일상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수요들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연구를 시작할 때 가진 문제의식에 비해, 본 연구의 결과는 충분하지 않다. 북한의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를 여러 통로로 탐구하였고, 이를 통해 북한 일상의 변화와 변화에 대한 저항과 적응의 모습을 발견하였지만, 이를 통일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은 북한의 일상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알려준다는 한계도 있었다. 세대 연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만으로 한 세대의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발견한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여러 특성을 기준으로 남북한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의 접근도 선부른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보편적 지향을 관찰하고 이를 통일 논의에서 포용하려는 시도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결국, 통일은 남북한 구성원들의 견고한 지지기반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상의 지향과 괴리된 통일 논의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가지타니 가이·다카구치 고타 지음. 박성민 옮김.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 디지털 기술과 선택 설계로 만든 ‘멋진 신세계’』. 서울: 놀와, 2021.
- 강원택·이광일·홍석률·이나미. 『분단 이후 제기된 통일담론에 대한 정리와 성찰』. 서울: 통일교육원, 2021.
- 게오르그 짐멜 지음. 김덕영 옮김. 『돈의 철학』. 서울: 길, 2013.
- 고유환 외. 『함흥과 평성 - 공간 일상 정치의 도시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서울: 국가정보원, 2020.
- 국립통일교육원. 『2021 북한 이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2021.
- 김범수 외. 『2020 통일의식조사』.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 김성도. 『호모 모빌리쿠스: 모바일 미디어의 문화생태학』.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김수암·강채연·박진아·윤보영.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2001.
- 김학재 외.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9』.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 \_\_\_\_\_. 『북한주민 통일의식 2020』.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 데이비드 그레이버 지음. 서정은 옮김. 『가치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 교환과 가치, 사회의 재구성』. 서울: 그린비, 2009.
- 리치 링 지음. 배진한 옮김. 『모바일 미디어와 새로운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출현 - 휴대전화는 사회관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마누엘 카스텔 외 지음. 김원용·성혜령 옮김. 『이동통신과 사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마르셀 모스 지음. 이상률 옮김. 『증여론』. 파주: 한길사, 2002.
- 마르셀 에나프 지음. 김혁 옮김. 『진리의 가격 - 증여와 계약의 계보학, 진리와 돈의 인류학』. 서울: 눌민, 2018.
- 미셸 마페졸리 외 지음. 박재환·일상성 일상생활연구회 옮김 및 엮음. 『일상생활의 사회학』. 파주: 한올아카데미, 1994.
- 박순성·홍민 공편.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0.
- 박재환·일상성 일상생활연구회.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 파주: 한올아카데미, 2008.
- 박종철 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학』. 서울: 연구사, 1994.
- 배성인.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 형사관계법』. 서울: 법무부, 1993.
- 서재진. 『7.1 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에드워드 홀 지음. 최효선 옮김. 『에드워드 홀 문화인류학 4부작 3 : 문화를 넘어서』. 서울: 한길사, 2013.
- 오기현. 『북한 사람과 거래하는 법: 84년생 김정운과 장마당 세대. 그리고 욕망의 도시 평양 실전 매뉴얼』. 서울: 한겨레출판, 2019.

- 오상봉·박제성·양문수·이철수·정은미·홍제환. 『북한 노동시장의 현황』.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2018.
- 올리케 유라이트·미하엘 빌트 엮음. 박희경 외 옮김. 『‘세대’란 무엇인가? 카를 만하임 이후 세대담론의 주제들』. 파주: 한울, 2014.
- 유홍준. 『현대사회와 직업』. 서울: 그린, 2005.
- 이석기·변학문·나혜선.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 세종: 산업연구원, 2018.
-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산업』. 세종: 산업연구원, 2017.
- 이재현. 『모바일 미디어와 모바일 사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이춘근·김종선·남달리. 『남북 ICT 협력 추진 방안』.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 이-푸 투안 지음. 윤영호·김미선 옮김. 『공간과 장소 - 공간에 우리의 경험과 삶, 애착이 녹아들 때 그곳은 장소가 된다』. 화성: 사이, 2020.
- \_\_\_\_\_. 이옥진 옮김. 『토포필리아: 환경지각, 태도, 가치의 연구』. 서울: 에코리브르, 2011.
- 임순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전지연 외. 『북한형법 주석』. 서울: 법무부, 2014.
- 조정아·서재진·임순희·김보근·박영자.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조정아·이지순·이희영.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서울: 통일연구원, 2019.
- 조정아·조영주·조은희·최은영·홍민.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차문석. 『반노동의 유토피아 - 산업주의에 굴복한 20세기 사회주의』. 서울: 박종철출판사, 2001.
- 최대석·장인숙. 『북한의 시장화와 정치사회 균열』. 서울: 선인, 2015.
- 최지영 외.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21.

카를 만하임 지음. 이남석 옮김. 『세대문제』. 서울: 책세상, 2020.

칼 폴라니 지음. 이병천·나익주 옮김. 『인간의 살림살이』. 서울: 후마니타스, 2017.

\_\_\_\_\_. 홍기빈 옮김. 『거대한 전환: 우리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서울: 길, 2009.

팀 크레스웰. 심승희 옮김.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장소』.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6.

하르트무트 로자·라스 게르텐바흐·헤닝 라옥스·다비트 슈트레커 지음. 광노환·한상원 옮김. 『공동체의 이론들』. 서울: 라움, 2017.

한국수출입은행·북한 동북아연구센터. 『북한의 금융』. 서울: 오름, 2017.

홍민·차문석·정은이·김혁.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6.

홍민·박순성 엮음.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파주: 한울 아카데미, 2013.

황규득·장용규·서상현·허서희·육숙희·최두영.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Castells, Manuel, Mireia Fernández-Ardèvol, Jack Linchuan Qiu and Araba Sey. *Mobile Communication and Society: A Global Perspective*. Massachusetts: MIT Press, 2006.

Chayko, Mary. *Portable Communities: The Social Dynamics of Online and Mobile Connectedness*.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8.

Chou, Willian, Taylor Lam and Roger Chung. *Chinese consumers at the forefront of digital technologies – China Mobile Consumer Survey 2018*. New York: Deloitte, 2019.

Bruijn, Mirjam De, Francis Nyamnjoh, and Inge Brinkman eds.

- Mobile phones: The new talking drums of everyday Africa*.  
Cameroon: Langaa, 2009.
- Goggin, Gerard. *Cell Phone Culture: Mobile Technology in  
Everyday Life*. London: Routledge, 2006.
- Higgs, Eric, Andrew Light, and David Strong eds. *Technology and  
the good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Horst, Heather A and Daniel Miller. *The Cell Phone: An Anthropology  
of Communication*. Oxford: Berg Publisher, 2006.
- Kim, Cheehyung Harrison. *Heroes and Toilers: Works as Life in  
Postwar North Korea, 1953–1961*.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8.
- Latour, Bruno. *Science in Action: How to Follow Scientists and  
Engineers through Societ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 Ling, Rich and Per E. Pedersen eds. *Mobile Communications:  
Re-negotiation of the Social Sphere*. London: Springer,  
2005.
- Ling, Rich. *The Mobile Connection: The Cell Phone's Impact on  
Society*. Massachusetts: Morgan Kaufmann Publisher, 2004.
- Sorenson, Jay B. *The Life and Death of Soviet Trade Unionism  
1917–1928*. New York: Atherton Press, 1969.

## 2. 논문

- 고유환. “북한연구방법론의 쟁점과 과제.” 『통일과 평화』. 제11집 제1호,  
2019.
- 김대호 외. 『모바일 미디어의 문화와 시장』.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재인용: 김홍중, “미디어스케이프와 모바일 성장성.”

- 『문화와 사회』. 제10권 제1호, 2011.
- 김상균. “중국 노동시장 메커니즘 변화의 원인과 경제적 시사점: 신세대 농민공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37호, 2012.
- 김성경.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북한 ‘사이(in-between) 세대’의 혼종적 정체성.” 『통일연구』. 제19권 제1호, 2015.
- 김은숙. “생애과정 관점에서 본 북한 신세대 노동의식에 관한 연구.” 『담론 201』. 제23권 제1호, 2020.
- 김지영. “김정은 시대 북한 정보기술 발전의 정치경제적 고찰.” 『아태연구』. 제26권 제2호 (2019).
- 김홍중. “미디어스케이프와 모바일 성찰성.” 『문화와 사회』. 제10권 제1호, 2011.
- 김화순. “생존의 정치: 북한 ‘공장사회’와 노동자.” 『평화연구』. 제26권 제1호, 2018.
- \_\_\_\_\_. “생존의 정치 II: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험기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현대북한연구』. 제23권 제1호, 2020.
- \_\_\_\_\_. “직행 탈북이주자의 노동이동과 탈북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2017.
- 문흥안. “북한 살림집법 관련 법제를 통해 본 북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 『북한법연구』. 제18권, 2018.
- 박순성·고유환·홍민.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현대북한연구』. 제11권 제3호, 2008.
- 박은규·조아름·서현주. “MZ세대의 직업가치관 변화 분석.” 『고용이슈』. 2021년 여름호, 2021.
- 박재홍.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통권 제81호, 2009.
- 박종대·이태하·김석수. 『현대인의 삶과 윤리』. 서울: 민지사, 2009. 재인용: 이의진·박영균·박솔지·전영희. “북한이탈주민의 초점집단면접을 활용한 북의 직업관 연구.” 『통일인문학』. 제85집, 2020.

- 박희진. “동독과 중국의 인적자본 개발방식 비교: 남북경제통합에 주는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2010.
- 배영애. “김정은 시대의 인민반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 \_\_\_\_\_.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과 변화.” 『통일과 평화』. 제10권 제2호, 2018.
- 배종수. “북한 이동통신 및 휴대전화 사용실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백명숙·김성배. “북한 소비재 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7권 제2호, 2020.
- 서소영. “북한 ICT 정책동향 및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제30권 18호, 2018.
- 알렉산드르 제빈. “사회체제의 변화된 전통으로서의 북한의 인민반.” 『아세아연구』. 제37권 제1호, 1994.
-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2005.
- 윤보영. “북한사회 뇌물의 사회적 맥락.” 『문화와사회』. 제29권 1호, 2021.
- 윤용선. “볼셰비키의 노동규율화 정책 1918-1920.” 『러시아연구』. 제10권 제1호, 2000.
- 윤철기. “북한 시장화 이후 계급체제와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성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9권 제2호, 2016.
- 윤황·고경민. “북한 이동통신의 현황과 한계.” 『사이버사회문화』. 제2권 제1호, 2011.
- 이기동. “고난의 행군’ 세대의식과 체제변화.” 『북한학보』. 제36집 제2호, 2011.
- 이세영. “북한 ‘사회주의’ 노동자의 형성과 생산현장의 변화 1945~1960.”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제17권 제2호, 2005.
- 이의진·박영균·박솔지·전영희. “북한이탈주민의 초점집단면접을 활용한 북의 직업관 연구.” 『통일인문학』. 제85집, 2020.
- 이인정. “1980년대 이후 북한 ‘새세대’의 가치변화 연구: 「청년전위」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박사학위논문, 2004.
- \_\_\_\_\_. “김정은 시기 북한 고등교육 변화와 남북 대학 협력의 과제.” 『도덕윤리과교육』. 제70호, 2021.
- 임을출.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27권 제1호, 2015.
- 정영권. “2000년대 초반 북한 영화와 청년세대: 청년 과학자와 ‘청년동맹’ 형상화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34권 제1호, 2015.
- 정영철. “1970년대 대중운동과 북한 사회: 돌파형 대중운동에서 일상형 대중운동으로.” 『현대북한연구』. 제6권 제1호, 2003.
- \_\_\_\_\_. “북한 경제의 변화: 시장, ‘돈주’, 그리고 국가의 재등장.” 『역사비평』. 제126호, 2019.
- 정은이.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2015.
- 조지 마이언스 지음. 김정미 옮김. 『하이데거, 하버마스 그리고 이동전화』. 서울: 이제이북스, 2003. 재인용: 김홍중. “미디어스케이프와 모바일 성찰성.” 『문화와 사회』. 제10권 제1호, 2011.
- 진상기. “지능정보사회를 향한 한반도 정보화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제27권 제2호 (2020).
- 차문석. “북한의 신노동자 일공(日工)과 혼중성: 혼중, 변동 그리고 경계.” 『북한학연구』. 제16권 제1호, 2020.
- 채경희. “북한의 ‘장마당세대’ 의식 특성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치·통일전공 박사학위논문, 2018.

- 최봉대. “북한의 속도전청년돌격대와 체제유지 기제.” 『경제와 사회』. 제49호, 2001.
- 최선경.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과 시장 활동에서의 ‘신뢰’ 네트워크.” 『현대북한연구』. 제24권 제1호, 2021.
- 차야쎌·장주영. “고맥락 문화 차원에서 한자 의미의 심미적 특징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7권 2호, 2021.
- 황규성·이재경. “북한의 시장화와 숙련불평등.”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1호, 2014.
- 황규성. “북한 청년의 사회적 공간과 주변대중화.”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제1호, 2016.
- 황규섭·강동수. “붉은별 운영체제 Watermarking을 이용한 이미지 파일 정보은닉 기법.”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제27권 제5호, 2021.
- Cummings, Bruce. “Kim’s Korean Communism.” *Problem of Communism*, issue 2, 1974.
- Donner, Jonathan. “Research Approaches to Mobile Use in the Developing World: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Information Society*, vol. 24, no. 3, 2008.
- Gukurume, Simbarashe and Innocent T. Mahiya. “Mobile Money and the Unmaking of Social Relations in Chivi, Zimbabwe.” *Journal of Southern African Studies*, vol. 46, no. 6, 2020.
- Hahn, Hans Peter and Ludovic Kibora. “The Domestication of the Mobile Phone: Oral Society and New ICT in Burkina Faso.”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46, issue 1, 2008.
- Hillery, George A. “Definition of community.” *Rural sociology*, vol. 20, 2019.
- Katz, James E., and Mark Aakhus, eds. *Perpetual Contact*.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재인용:  
 김홍중. “미디어스케이프와 모바일 성장성.” 『문화와 사회』.  
 제10권 제1호, 2011.
- Moura, Elton Oliveira de, and Marcelo de Souza Bispo.  
 “Sociomateriality: Theories, methodology, and practice.”  
*Canadian Journal of Administrative Science*, vol. 37, no. 3,  
 2020.
- Pfaff, Julia. “A mobile phone: mobility, materiality and everyday  
 Swahili trading practices.” *Cultural Geographies*, vol. 17,  
 no. 3, 2010.
- Porter, Gina, et al. “Youth, mobility and mobile phones in Africa:  
 findings from a three-country study.” *Inform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vol. 18, no. 2, 2012.
- Rheingold, Howard. *Smart mobs: The next social revolution*,  
 Cambridge, MA: Perseus Books/Basic Books, 2002. 재인용:  
 Elaine J. Yuan, “From ‘Perpetual Contact’ to Contextualized  
 Mobility: Mobile Phones for Social Relations in Chinese  
 Society.”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vol. 5, no. 3, 2012.
- Rippin, Hannah. “The Mobile Phone in Everyday Life.” *Fast  
 Capitalism*, vol. 1, issue 1, 2005.
- Smith, Daniel Jordan. “Cell Phones, Social Inequality and  
 Contemporary Culture in Nigeria.” *Canad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vol. 40, no. 3, 2006.
- Yuan, Elaine J. “From ‘Perpetual Contact’ to Contextualized  
 Mobility: Mobile Phones for Social Relations in Chinese  
 Society.”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vol. 5, no. 3, 2012.

- Zhou, Q. “The new generation management changes because of you.” *China Human Resource Development*, no. 2, 2007.
- 재인용: Ying Zhu et al. “Employee participation and the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of the ‘new generation’ of Chinese employe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 26, no. 19, 2015.
- Zhu, Ying, Yuhua Xie, Malcolm Warner and Yongxing Guo. “Employee participation and the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of the ‘new generation’ of Chinese employe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 26, no. 19, 2015.

### 3. 북한자료

- 김상현·김광현 편.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사회주의경제 관리문제에 대하여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김춘성.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연계 실현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9.
- 리유정. “이동통신망을 리용한 주민금융봉사를 활성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제2호, 2018.
- 리형섭. “우리 당이 발기한 청년돌격대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이는 위력한 대중운동.” 『근로자』. 제5호, 1990.
- 박만협. 『(조선부문사) 조선교통운수사 2: 철도운수편』. 평양: 철도출판사, 1988.
-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7』.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8.
-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 평양: 법률출판사, 2004.

- 사회과학출판사 편.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_\_\_\_\_ .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_\_\_\_\_ .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_\_\_\_\_ .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_\_\_\_\_ .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6.  
 \_\_\_\_\_ .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_\_\_\_\_ . 『영도체계 (주체사상총서 9)』. 서울: 지평, 1989.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직속 당력연구소 편. 『김일성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1.

『로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신보』.

『조선의 오늘』.

『조선중앙통신』.

『통일의 메아리』.

#### 4. 기타자료

##### 뉴스 및 신문

『경향신문』.

『뉴시스』.

『연합뉴스』.

『일요서울』.

『월간조선』.

『통일뉴스』.

『한겨레』.

『Daily NK』.

『NK News』.

『RFA』.

## 웹자료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

국도와 교통 <<http://www.ltm.or.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

정책정보포털 POINT <<https://policy.nl.go.kr>>.

통계청 블로그 <[https://m.blog.naver.com/hi\\_nso](https://m.blog.naver.com/hi_nso)>.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

통일부, 『북한의 경제사회상 변화 실태』. 재인용: KB 금융그룹  
<<https://www.kbfg.com>>.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https://www.unilaw.go.kr>>.

통일연구원 <<https://www.kinu.or.kr>>.

한국개발연구원 <<https://www.kdi.re.kr>>.

한국교통연구원 <<https://www.koti.re.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Amnesty International <<https://www.amnesty.org>>.

Cable.co.uk <<https://www.cable.co.uk>>.

KB 금융그룹 <<https://www.kbfg.com>>.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

IMTFI <<https://www.imtfi.uci.edu>>.

ITU <<https://www.itu.int>>.

『YTN』. 재인용: KB 금융그룹 <<https://www.kbfg.com>>.

UNICEF <<https://www.unicef.org>>.

NKICT <<http://nkict.com>>.

## 방송

이진민CP. <이제 만나러 갑니다>. 채널A. 2019.2.10. 방송분.

## 보고서

북한개혁연구원. 『북한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대북진출 방안』. 2008.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 2019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9-0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기태 외 8,000원
- 2019-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외 17,500원
- 2019-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욱, 안준형 8,500원
- 2019-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영, 김주리 8,000원
- 2019-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외 12,000원
- 2019-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외 11,500원
-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조정아 외 11,000원
- 2019-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외 11,000원
- 2019-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외 15,000원
- 2019-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신중호 외 18,000원
- 2019-11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외 9,000원
- 2019-12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외 9,000원
- 2019-13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외 10,000원
- 2019-14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외 10,000원
- 2019-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외 9,500원
- 2019-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외 7,500원
- 2019-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14,500원
- 2019-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이상신 외 24,000원
- 2019-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경제·화해 협력 구상 서보혁 10,000원
- 2019-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외 14,000원
- 2019-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9,000원

|            |                                     |           |         |
|------------|-------------------------------------|-----------|---------|
| 2019-22-01 | 평화외식 문항별 분석                         | 박주화       | 18,500원 |
| 2019-22-02 | 평화외식 문항별 테이블                        | 박주화       | 14,500원 |
| 2019-23    |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 조정아 외     | 12,000원 |
| 2019-24    |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 홍 민 외     | 10,500원 |
| 2019-25    |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을 결정요인 분석 | 정은이 외     | 14,000원 |
| 2019-26    |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 김석진, 홍제환  | 10,000원 |
| 2019-27    |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 현승수 외     | 14,000원 |
| 2019-28    |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 최창호 외     | 10,000원 |
| 2019-29    |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채재병 외     | 8,500원  |
| 2019       | 제3세대 인권과 북한                         | 인도협력연구실 편 | 16,5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   |          |  |
|---------|---|----------|--|
| 2019-01 |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 김상기 외    |  |
| 2019-02 |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 이기태, 배정호 |  |
| 2019-03 |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 김석진, 홍제환 |  |
| 2019-04 |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br>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 이상신 외    |  |

### 〈Study Series〉

|         |  |                           |  |
|---------|--|---------------------------|--|
| 2019-01 |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br>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 Hong, Jea Hwan            |  |
| 2019-02 |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 Do, Kyung-ok·Baek, Sangme |  |
| 2019-03 |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br>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 Kim, Kap-Sik·Park, Juhwa  |  |

### 2020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                              |          |         |
|---------|------------------------------|----------|---------|
| 2020-01 | 평화경제 실현방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 김석진, 홍제환 | 10,000원 |
| 2020-02 |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 이규창, 문선혜 | 10,000원 |
| 2020-03 |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 김수암 외    | 9,000원  |
| 2020-04 |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 홍석환 외    | 11,000원 |
| 2020-05 |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 현승수 외    | 11,500원 |
| 2020-06 | 한반도 평화변명과 북일관계 연구            | 이기태 외    | 8,000원  |

|            |  |       |         |
|------------|--|-------|---------|
| 2020-07    |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 민태은 외 | 8,500원  |
| 2020-08    | 남북기본합정 체결방향과 과제                              | 도경옥 외 | 9,000원  |
| 2020-09    | 남북연합 구상과 추진방안                                | 이무철 외 | 11,000원 |
| 2020-10    |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김갑식 외 | 13,000원 |
| 2020-11    |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박주화 외 | 12,500원 |
| 2020-12    |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정성윤 외 | 15,500원 |
| 2020-13    |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정은이 외 | 11,000원 |
| 2020-14    |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나용우 외 | 14,500원 |
| 2020-15    | 해외의 시각으로 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                 | 나용우 외 | 17,500원 |
| 2020-16    |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 박주화 외 | 14,500원 |
| 2020-16-01 |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 박주화   | 16,500원 |
| 2020-16-02 |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 박주화   | 16,500원 |
| 2020-17    |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박주화 외 | 12,500원 |
| 2020-18    |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해양협력을 중심으로             | 서보혁 외 | 20,000원 |
| 2020-19    |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 조한범 외 | 11,500원 |
| 2020-20    |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 홍 민 외 | 18,000원 |
| 2020-21    | 강대국 경쟁과 관련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 신종호 외 | 23,000원 |
| 2020-22    |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 홍제환 외 | 14,000원 |
| 2020-23    |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 최장호 외 | 7,000원  |
| 2020-24    |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 조정아 외 | 13,000원 |
| 2020-25    | KINU 통일외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 이상신 외 | 24,500원 |
| 2020-26    |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 오경섭 외 | 14,5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                               |       |
|---------|-------------------------------|-------|
| 2020-01 |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 이규창 외 |
| 2020-02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과 국내외 정책 전망 | 민태은 외 |

### 〈Study Series〉

|         |   |
|---------|---|
| 2020-01 |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gal Issues and Challenges<br>Do, Kyung-ok·Ahn, Jun-hyeong  |
| 2020-02 | Variables and Pathways of Changes in North Korea:<br>Focused on Different Combination of 'Nuclear Issues' and 'Reform·Opening'<br>Park, Young-Ja·Jeong, Eun Mee·Han, Ki Bum |
| 2020-03 |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Politics<br>Cho, Jeong-ah·Yee, Ji Sun·Yi, Hee Young  |
| 2020-04 | 2019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br>Park, Juhwa et al.  |



## 2021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                 |
|--|-----------------|
|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 김석진·홍제환 8,000원  |
|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 최규빈 외 9,000원    |
|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 이지순 외 9,000원    |
|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 김수암 외 9,500원    |
|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 이우태 외 11,000원   |
|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 민태은 외 10,000원   |
|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 전병근 외 14,500원   |
|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 이재영 외 11,500원   |
|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 정성운 10,500원     |
|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 정은미 외 10,500원   |
|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 오경섭 외 10,500원   |
|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 김진하 외 18,000원   |
|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 홍제환·김석진 10,000원 |
|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과 통제를 중심으로                      | 정은미 외 9,500원    |
| 2021-15 KINU 통일외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 이상신 외 22,500원   |
|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 황수환 외 16,000원   |
|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 나용우 외 16,500원   |
|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 김형수 외 9,500원    |
|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 박영자 외 13,500원   |
|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 이윤진 외 11,000원   |
|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 서보혁 외 11,000원   |
|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 신중호 외 23,500원   |
|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 이기태 외 13,000원   |
|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 최희식 외 11,000원   |
|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 박은주 외 19,000원   |
|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 이재영 외 23,000원   |
|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 정착                                    | 장철운 외 14,000원   |
|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 최지영 외 16,500원   |
|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 최지영 외 12,000원   |
|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김갑식 외 12,000원   |
| 2021-31-01 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박주화 외 10,000원   |
|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 박주화 외 11,500원   |

|         |                                  |       |         |
|---------|----------------------------------|-------|---------|
| 2021-32 |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이무철 외 | 14,000원 |
| 2021-33 |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정은이 외 | 14,000원 |
| 2021-34 |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조한범 외 | 16,5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                                |       |
|---------|--------------------------------|-------|
| 2021-01 |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 이상신 외 |
|---------|--------------------------------|-------|

### 〈Study Series〉

|         |   |  |
|---------|---|--|
| 2021-01 |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Suk-Jin Kim                                  |
| 2021-02 |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 Jea Hwan Hong · Suk-Jin Kim                  |
| 2021-03 |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 Jeong-ah Cho · Choon Geun Lee · Hyun-suk Oum |
| 2021-04 |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 Soo-Am Kim et al.                            |

### KINU Insight

|         |   |       |
|---------|---|-------|
| 2018-01 |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 홍 민 외 |
| 2019-01 |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 홍 민 외 |
| 2019-02 |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 정은미   |
| 2019-03 |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 김주리   |
| 2019-04 |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 이지순   |
| 2019-05 |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 이재영   |
| 2019-06 |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 서보혁   |
| 2019-07 |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 조한범   |
| 2019-08 |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 김갑식 외 |
| 2020-01 |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 홍 민 외 |
| 2020-02 |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 장철운   |
| 2020-03 | 미국의 對北성공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 김유철   |
| 2020-04 |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최지영   |
| 2021-01 |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 홍 민 외 |
| 2021-02 |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 홍 민 외 |
| 2021-03 |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 최지영   |

## 북한인권백서

|   |       |         |
|---|-------|---------|
| 북한인권백서 2018                                     | 한동호 외 | 20,0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 한동호 외 | 24,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19                                     | 김수경 외 | 20,0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 김수경 외 | 24,500원 |
| 북한인권백서 2020                                     | 이규창 외 | 21,5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0 | 이규창 외 | 27,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21                                     | 오경섭 외 | 21,0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 오경섭 외 | 27,0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      |                |       |
|------|----------------|-------|
| 2018 |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 통일연구원 |
| 2019 |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 통일연구원 |
| 2020 | 2021 한반도 정세 전망 | 통일연구원 |
| 2021 |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 통일연구원 |

## 정기간행물

|  |         |
|--|---------|
|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1 (2019)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2 (2019)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 (2020)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1 (2020)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2 (2020)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0, No. 2 (2021) | 10,000원 |

## 기타

---

|      |   |                      |
|------|---|----------------------|
| 2018 |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
| 2018 | 북한의 건강권                                 | 이금순 외                |
| 2018 |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 Lee, Keumsoon et al. |
| 2018 |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 김진하 외                |
| 2020 | 동서 화해사상으로 본 통일공동체의 상과 과제                | 김범수 외                |
| 2020 |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전략촌을 중심으로 | 정근식 외                |
| 2021 |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 서보혁·용혜민 엮음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                                  |           |          |             |
|----------------------------------|-----------|----------|-------------|
| 신청자 성명*<br>(입금자가 다를 경우<br>별도 표기) |           | 소 속*     |             |
| 간 행 물*<br>받 을 주 소                | (우편번호 : ) |          | ※ 도로명 주소 기입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 이메일 주소      |
| 이메일 서비스                          | 수신 ( )    |          | 수신거부 ( )    |
| 회 원 구 분*                         | 학생회원 ( )  | 일반회원 ( ) | 기관회원 ( )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           |          |             |
| 20 년 월 일 성 명 (인)                 |           |          |             |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위탁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서비스 제공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회원자격 갱신 시 보유기간은 1년 연장)
-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고지사항)

| 위탁 받는 업체(수탁업체) | 업무내용         |
|----------------|--------------|
| (주) 코리아디엠      | 발간물 발송 업무 처리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
|----|--|-----|--|
| 동의 |  | 미동의 |  |
|----|--|-----|--|

년 월 일

|       |    |           |
|-------|----|-----------|
| 본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법정대리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세요.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